

60만 독자가 인정한 주식 1등 저자의 책

차트 분석

윤재수 지음

무작정 따라하기



차트분석 무작정 따라하기

The Cakewalk Series - Stock Charts and Technical Analysis

초판 1쇄 발행 · 2006년 4월 6일
초판 12쇄 발행 · 2011년 4월 10일
개정판 1쇄 발행 · 2012년 1월 1일
개정판 5쇄 발행 · 2014년 11월 17일
개정2판 1쇄 발행 · 2015년 6월 30일
개정2판 2쇄 발행 · 2015년 8월 20일

지은이 · 윤재수
발행인 · 이종원
발행처 · (주)도서출판 길벗
출판사 등록일 · 1990년 12월 24일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10길 56(서교동)
대표 전화 · 02)332-0931 | 팩스 · 02)323-0586
홈페이지 · www.gilbut.co.kr | 이메일 · gilbut@gilbut.co.kr

기획 및 책임 편집 · 최선애, 최한솔(sol@gilbut.co.kr) | 복디자인 · 신세진 | 영업마케팅 · 김승현, 정경원
제작 · 이준호, 손일순 | 영업관리 · 김명자 | 독자지원 · 송혜란

편집진행 · 이영애 | 전산편집 · 트인글터 | CTP출력 · 이팩 | 인쇄 · 이팩 | 제본 · 신정제본

- 잘못된 책은 구입한 서점에서 바꿔 드립니다.
- 이 책에 실린 모든 내용, 디자인, 이미지, 편집 구성의 저작권은 (주)도서출판 길벗과 지은이에게 있습니다.
허락 없이 복제하거나 다른 매체에 옮겨 실을 수 없습니다.

ISBN 978-89-6618-715-7 13320
(길벗 도서번호 070308)

가격 25,000원

독자의 1초를 아껴주는 정성 '길벗출판사'

(주)도서출판 길벗 | IT실용, IT/일반 수험서, 경제경영, 취미실용, 인문교양(더퀘스트) | www.gilbut.co.kr

길벗이지톡 | 어학단행본, 어학수험서 www.eztok.co.kr

길벗스쿨 | 국어학습, 수학학습, 어린이교양, 주니어 어학학습, 교과서 www.gilbutschool.co.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gilbutzigy

트위터 www.twitter.com/gilbutzigy



무작정 따라하기 500만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빠게 돌아가더라도
책까지 아무렇게나 빨리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인스턴트 식품 같은 책보다는
오래 익힌 술이나 장맛이 밴 책을 만들고 싶습니다.

길벗은 독자 여러분이
가장 쉽게, 가장 빨리 배울 수 있는 책을
한 권 한 권 정성을 다해 만들겠습니다.

독자의 1초를 아껴주는
정성을 만나보십시오.

.....

미리 책을 읽고 따라해 본 2만 베타테스터 여러분과
무따기 체험단, 길벗스쿨 엄마 기획단,
시나공 평가단, 토의 배틀, 대학생 기자단까지!
믿을 수 있는 책을 함께 만들어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홈페이지의 '독자광장'에 오시면 책을 함께 만들 수 있습니다.

(주)도서출판 길벗 www.gilbut.co.kr

길벗 이지톡 www.eztok.co.kr

길벗스쿨 www.gilbutschool.co.kr

차트분석을 통해 누구나 쉽게 주가를 예측하는 시대!

미래의 주가를 예측할 수만 있다면 주식시장만큼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곳은 없을 것입니다. 주식시장이 생긴 이후 지금까지 주가를 예측하기 위하여 수많은 분석 기법들이 생겨났습니다. 주가를 예측하는 기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기술적 분석기법과 기본적 분석기법, 포트폴리오 이론이 그것입니다. 이중 기술적 분석기법은 주가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결정되고, 수급의 결과는 그래프로 나타난다는 사실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분석기법으로 흔히 차트분석 기법이라고도 합니다.

차트분석 기법도 꾸준히 발전해 최근에는 첨단무기라 할 수 있는 신차트 분석기법이 생겨나 정교한 성능으로 상당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공투자에 이르기 위해서는 차트분석 기법을 익히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나 차트분석 기법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분석기법의 종류가 다양하고 내용 또한 어려운 면이 있어 많은 투자자들이 배우고 싶어도 쉽게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개인투자자도 고수의 매매 타이밍을 잡아라!

지금은 대다수 투자자가 HTS로 거래하는 시대입니다. 이는 투자자 개개인이 공부를 하지 않고는 성공투자가 어렵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성공투자를 위해서는, 첫째 대세를 읽을 수 있어야 하고, 둘째 가치 이하로 주가가 떨어진 종목을 발굴할 수 있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주식을 사고파는 시점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차트분석 무작정 따라하기》는 개인투자자들도 공부를 하면 전문가 못지않게 매매시점을 판단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체계적이고 쉬운 말로 저술하였습니다.



다양한 예제와 실습을 통해 스스로 매매시점을 판단한다!

완벽한 분석기법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알아두면 유익한 투자기법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 책은 다양한 차트분석 기법을 소개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한발 더 나아가 예제와 실습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매매시점을 판단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주요한 기법들을 익히고 실전 투자에 응용하는 것은 정보를 아는 것 이상으로 투자에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붐을 이해하지 못하여 차트공부 진도가 나가지 않는다는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여 붐에 관한 지면을 충분히 할애하였습니다.

차트, 아는 만큼 보인다!

이 책은 일반투자자들도 쉽고 재미있게 차트분석 기법을 익히고, 이를 실전 투자에 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기본원칙을 세웠습니다.

첫째, 차트분석 기법에 관한 한 이 한 권의 책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차트분석 전반에 걸쳐 체계적이며 논리적으로 접근하였습니다.

둘째, 여러 차트분석 기법 가운데 기존의 차트분석 기법 4가지와 신차트분석 기법 4가지를 선정해 총 8개의 분석기법을 비중 있게 다루었습니다. 기존 차트분석 기법으로는 ① 봉차트, ② 추세선과 주가 파동 이론, ③ 이동평균선, ④ 패턴 분석과 거래량 분석을 선정하였고, 신차트분석 기법으로는 ⑤ MACD, ⑥ 스토크스틱,

⑦ 일목균형표, ⑧ 볼린저밴드를 선정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분석기법을 소개하고 있지만 특히 이 8가지 분석기법에 대해서는 원리는 물론 활용방법까지 익힐 수 있도록 구성하여 실전에서 즉시 응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될 수 있는 한 쉬운 표현을 사용하고 독자들이 이론을 완전히 소화할 수 있도록 단계적·순차적으로 기술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기법에 관한 이론 설명을 한 후 이론을 도표화하여 시각적으로 이해하고, 과거 그래프를 통해 실증해 보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무작정 따라하기> 형식으로 예제를 출제하여 실전 사례 연습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책 속의 특별부록 <투자하기 전 꼭 읽어야 할 모의투자 10선>에서는 예제를 풀면서 자연스럽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방법으로 이 책에서 배운 이론을 복습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매 장마다 말미에 <유머로 들려주는 윤재수의 투자지침> 코너를 두어 딱딱한 차트분석 이론을 재미있게 익히고 나만의 투자원칙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남보다 빨리, 좀더 정확하게 예측해야 성공한다!

이번 <차트분석 무작정 따라하기>는 기존의 <기술적 분석 무작정 따라하기>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새롭게 내놓는 2차 개정판입니다. 필자의 또 다른 책 <주식투자 무작정 따라하기>가 주식투자에 있어 총론이라면, 이 책은 차트분석에 한정하여 심도 있게 다룬 각론에 해당합니다. 그동안 <주식투자 무작정 따라하기>, <주식 기술적 분석 무작정 따라하기>를 아껴준 독자들이 있었기에 이 책이 세상에 선보



일 수 있었습니다. 부디 독자들의 요구와 기대에 어긋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주식투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대표적인 8가지 기법을 충분히 익혀 시장의 흐름과 주가의 흐름을 남보다 빨리, 좀더 정확하게 예측해 보십시오.

《주식투자 무작정 따라하기》, 《주식시장 대세판단 무작정 따라하기》, 《차트분석 무작정 따라하기》 등 3권의 기본 저서로 동영상 강의가 출시되어 있습니다. 차트 분석이 어렵다고 생각되는 독자라면 동영상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 투자에 관한 기본 원리를 깨닫게 되면 그 효과는 평생을 간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책이 나오기까지 협조를 아끼지 않은 길벗출판사 경제경영팀 최선에 팀장, 최한솔 사원 그리고 정성으로 협력해 주신 이명애 실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윤재수

첫째
마당

차트분석 감잡기

01장 :: 미래 주가를 예측하는 3가지 기법	16
미래 주가는 신도 모른다?	16
미래 주가를 예측하는 3가지 기법	16
주가 예측 기법 1 - 기본적 분석	17
잠깐만요 :: 기업의 가치는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하나요?	20
주가 예측 기법 2 - 차트분석(기술적 분석)	22
주가 예측 기법 3 - 포트폴리오 이론	27
잠깐만요 :: 차트분석의 5가지 원리	28
02장 :: 차트분석의 종류와 유형	30
차트분석의 종류	30
1. 추세 분석	30
2. 패턴 분석	30
3. 장세 분석	31
4. 목표치 계산	31
차트분석의 지표 유형	31
1. 추세 지표	31
2. 모멘텀 지표	32
3. 변동성 지표	33
4. 주가에 시간 개념을 포함시켜 만든 분석지표	34
5. 시장강도 지표	34
6. 시장동향 지표	34
잠깐만요 :: 분석 도구에 따른 주가 예측 기법의 종류	35
무엇이 차트분석의 기본 - HTS로 그래프 보기	36

둘째
마당

차트, 이것만 알아도 기본은 한다!

03장 :: 봉차트와 주가 파동 이론	44
봉차트란?	44

봉의 구성과 의미	44
잠깐만요 :: 봉에 관한 동양과 서양의 차이	47
봉의 종류와 그 의미	48
1. 양봉	48
2. 음봉	49
3. 도지	50
연결봉으로 주가 예측하기	51
1. 상승반전형	51
2. 하락반전형	55
3. 추세지속형	62
잠깐만요 :: 섬꼴 바닥형과 섬꼴 천정형	64
무따기 추세반전형 봉과 갭 알아보기	67
무따기 봉으로 주가 흐름 알아보기	69
무따기 그래프에서 봉의 유형과 의미 알아보기	72
잠깐만요 :: 봉을 볼 때 참고할 점 3가지	74
주가 파동 이론	76
상승파동일 때의 매매요령	77
하락파동일 때의 매매요령	79
횡보파동일 때의 매매요령	80
잠깐만요 :: 많이 떨어진 종목이 유리하다?	81

04장 :: 추세 분석을 이용한 매매방법	85
추세 분석이란?	85
추세선 그리는 방법	86
잠깐만요 :: 추세대란 무엇이며, 어떻게 활용하는가?	87
추세 분석을 이용한 매매방법 4가지	88
1. 추세선을 이용한 매매방법	88
무따기 추세선으로 매매시점 알아보기	91
2. 지지선과 저항선을 이용한 매매방법	94
무따기 지지선과 저항선으로 매매시점 알아보기	96
잠깐만요 :: 팬의 원리란 무엇인가요?	98
3. 추세선의 기울기를 이용한 매매방법	99
잠깐만요 :: 갭의 이론이란 무엇인가요?	100
무따기 추세선의 기울기로 매매시점 알아보기	101
4. 최소목표치를 이용한 매매방법	102

추세 분석의 한계와 보완방법	103
잠깐만요 :: 추세 형성 기간에 따른 추세선의 분류와 활용 요령	105
무따기 추세 분석과 MACD, 스토크스틱으로 매매시점 알아보기	107

05장 :: 이동평균선을 이용한 매매방법 112

이동평균선이란?	112
이동평균선의 종류 1 – 주가 이동평균선	113
잠깐만요 :: 이동평균선의 기간별 평균 주가 산출방법	115
이동평균선의 종류 2 – 거래량 이동평균선	116
주가와 이동평균선의 관계	116
이동평균선을 이용한 매매방법 4가지	119
잠깐만요 :: 매수 · 매도의 출발선인 5일선과 주가 생명선인 20일선	122
무따기 이동평균선으로 주가 예측하기 1	123
장 · 단기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고 매매시점 판단하기	126
잠깐만요 ::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도 경우에 따라 달리 해석한다!	129
이동평균선의 예상 진로로 주가 예측하기	131
무따기 이동평균선으로 주가 예측하기 2	135
잠깐만요 :: 존 머피의 10가지 ‘시스템 트레이딩’ 원칙	143

06장 :: 패턴 분석을 이용한 매매방법 145

패턴 분석이란?	145
상승 반전형 패턴	146
하락 반전형 패턴	150
패턴 분석의 한계와 보완방법	154
무따기 패턴 분석으로 매매시점 알아보기	155

07장 :: 거래량 분석을 이용한 매매방법 164

거래량 분석이란?	164
거래량을 보고 주가 예측하기	164
거래량 이동평균선과 거래대금 이동평균선	169
잠깐만요 :: 거래량이 많다 적다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170
거래량 분석의 보조지표 OBV선	171
무따기 OBV선으로 매매시점 알아보기	173

08장 :: 모멘텀 지표 이해하기	178
모멘텀 지표란?	178
모멘텀 지표 작성 방법	179
모멘텀 지표 그리기	180
모멘텀 지표의 특징 5가지	182
09장 :: MACD 활용하기	188
추세 분석 지표 MACD	188
MACD를 이용한 주가 예측 방법 4가지	191
잠깐만요 :: 다이버전스 트랩이란 무엇인가요?	198
MACD 활용방법 정리하기	199
MACD 활용시에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201
MACD를 이용한 매수 · 매도 방법 총정리	202
잠깐만요 :: MACD를 이용할 때도 추세 분석, 이동평균선 분석, 패턴 분석 필요!	203
무따기 MACD를 활용해 매매시점 알아보기	206
잠깐만요 :: MACD 오실레이터는 무엇인가요?	212
10장 :: 스토캐스틱 활용하기	214
스토캐스틱의 원리와 계산방법	214
스토캐스틱 활용방법 5가지	220
잠깐만요 :: 스토캐스틱에도 패턴이 있다!	230
무따기 스토캐스틱과 MACD로 주가 예측하기 1	231
스토캐스틱을 이용한 매매원칙과 주의할 점	233
잠깐만요 :: 스토캐스틱 재확인이란?	234
무따기 스토캐스틱과 MACD로 주가 예측하기 2	235
11장 :: 일목균형표 활용하기	238
일목균형표란?	238
일목균형표의 작성원리	239
일목균형표 활용방법 4가지	244
잠깐만요 :: 추세 변곡점은 어느 시점의 구름을 보고 판단하나요?	248

무따기 일목균형표를 이용해 주가 변동 알아보기	250
12장 :: 볼린저밴드 활용하기	256
볼린저밴드란?	256
볼린저밴드 이론 살펴보기	257
볼린저밴드 활용방법 4가지	258
잠깐만요 :: 인벨로프(Envelope)와 MAC 지표	265
무따기 볼린저밴드로 매매시점 알아보기	266
13장 :: 기타 보조지표 활용하기	269
1. 투자심리선	269
2. 이격률	272
무따기 이격률로 매매시점 알아보기	274
3. 삼선전환도	276
4. P&F차트	278
5. 역시계곡선(주가-거래량 상관곡선)	284
6. CCI	287
7. RSI	291
잠깐만요 :: Failure Swings를 이용한 매매방법	294
8. DMI와 ADX	295
9. CO(Chaikin's Oscillator)	300
10. 그물차트	301
잠깐만요 :: 단기 추세 확인은 피벗 라인으로 하세요!	304
차트가 매매하거나 서로 다른 신호를 보낼 때는?	305

진검 승부를 위한 매매원칙 총정리

14장 :: 주식시장 대세를 읽어라!	310
대세 판단법 1 - 차트로 대세 판단하기	311
대세 판단법 2 - 엘리엇 파동이론으로 대세 판단하기	317
잠깐만요 :: 피보나치 수열이란?	325
대세 판단법 3 - 다우의 시장 6국면으로 대세 판단하기	326
대세 판단법 4 - 우라카미의 장세 4단계로 대세 판단하기	329

잠깐만요 :: 장세별 주도업종은 어떤 것이 있나요?	331
------------------------------	-----

15장 :: 차트분석으로 종목 선정하기 333

주식시장 대세 판단방법 2가지	333
주식시장 대세에 따른 투자전략	335
잠깐만요 :: 돈의 흐름이 시장의 높낮이를 결정한다!	336
개별종목 고르는 방법 2가지	338
잠깐만요 :: 그래프는 보기 쉬운 것이 미인이다!	342

16장 :: 돈 되는 매매 타이밍을 잡아라! 344

주식 매수시점 요약정리 - 기본지표를 이용한 매수시점	344
주식 매수시점 요약정리 - 보조지표를 이용한 매수시점	345
주식 매수시점 요약정리 - 그밖의 보조지표를 활용할 때	346
잠깐만요 :: 매수주문을 낼 때 체크할 사항	347
주식 매도시점 요약정리 - 기본지표를 이용한 매도시점	348
주식 매도시점 요약정리 - 보조지표를 이용한 매도시점	349
주식 매도시점 요약정리 - 그밖의 보조지표를 활용할 때	350
잠깐만요 :: 손절매도와 물타기는 언제 어떻게 하는 건가요?	351

특별 부록

투자하기 전 꼭 읽어야 할 모의투자 10선

문제 1 LG화학 주가 예측하기	358
문제 2 SK하이닉스 주가 예측하기	362
문제 3 롯데케미칼 주가 예측하기	366
문제 4 포스코ICT 주가 예측하기	370
문제 5 GS건설 주가 예측하기	375
문제 6 미래에셋증권 주가 예측하기	378
문제 7 KOSPI 주봉으로 증시 흐름 알아보기	381
문제 8 KOSPI 일봉으로 증권시장 예측하기	384
문제 9 선물 30분봉으로 선물투자 판단하기 1	388
문제 10 선물 30분봉으로 선물투자 판단하기 2	392

찾아보기	396
------	-----

차트분석 감잡기

차트분석과 가치분석은 서로 보완관계에 있습니다. 가치분석을 도외시하고 차트분석에만 의존하면 주가가 급변할 때 적시에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가치를 분석해 둔 종목일지라도 차트분석에 따라 매매시점을 찾아 투자해야만 실수를 줄이고 성공투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첫째 마당



01장 | 미래 주가를 예측하는 3가지 기법

02장 | 차트분석의 종류와 유형



미래 주가를 예측하는 3가지 기법

미래 주가를 알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있다면 주식투자만큼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미래 주가를 예측하는 대표적인 3가지 기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미래 주가는 신도 모른다?

“미래 주가는 신도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주가 예측이 어렵다는 뜻이지요. 만약 미래 주가를 미리 알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있다면 주식투자만큼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과거의 주가와 달리, 미래의 주가는 갖가지 변수가 많이 작용하는 상대가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를 반증하듯 증권시장이 생긴 이래 많은 전문가들이 미래의 주가를 예측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지만, 완벽한 투자기법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한 종류의 투자기법이 생겨나 주가 예측의 적중률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래 주가를 예측하는 3가지 기법

미래 주가를 예측하는 기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본적 분석, 차트분석(기술적 분석), 포트폴리오 이론이 그것임

니다.

먼저 기본적 분석(Fundamental Analysis)은 ‘주가는 기업의 가치를 반영한다’는 이론을 근거로 하여, 기업의 가치를 분석해 미래의 주가를 예측하는 기법입니다.

다음으로 차트분석(Chart Analysis) 혹은 기술적 분석(Technical Analysis)은 ‘주가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결정되며 수급의 결과는 그래프로 나타난다’는 이론을 배경으로 하여, 그래프 분석을 통해 미래 주가를 예측하는 기법입니다.

마지막으로 포트폴리오 이론(Portfolio Theory)은 ‘주가는 이미 기업에 관한 정보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기업가치 기준으로 주가를 예측할 수 없으며, 그래프 또한 과거 자료에 불과하므로 주가 예측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특성이 다른 여러 주식에 분산투자하는 것만이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주가 예측 기법 1 기본적 분석

기본적 분석은 기업의 내재가치를 분석해 현재의 주가와 비교해 보는 방법으로, 현재 주가가 기업의 가치에 비해 고평가되어 있는지 저평가되어 있는지를 판단하여 미래의 주가를 예측하는 기법입니다.

기업의 내재가치는 흔히 본질가치라고도 말하며 다음과 같이 주당 순자산가치와 주당 수익가치로 산출하되 주당 수익가치에 좀더 비중을 두어 계산합니다.

$$\text{본질(내재)가치} = [(\text{주당 순자산가치} \times 1) + (\text{주당 수익가치} \times 1.5)] \div 2.5$$

★ **알아두세요**

주간사(主幹社)란?

기업이 주식이나 채권을
신규로 발행하거나 기존
보유분을 매각할 때 중심
이 되어 알선역을 하는 중
권회사를 간사회사라 하
고, 여러 간사회사 중 대표
역할을 하는 곳을 주간사
회사라고 합니다.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 상대가치를 분석해 보기도 합니다. 상대가치는 동일업종 내에서 유사 기업의 주가와 비교해 봄으로써 기업의 주당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기업을 공개할 때 주간사(主幹社)가 기업의 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은 본질가치를 중심으로 하고 상대가치를 반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 직접적인 방법은 주가가 상승하거나 배당을 많이 받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즉 주가 상승과 높은 배당금은 기업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힘, 즉 이익창출능력이 얼마나 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익창출능력으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20쪽의 <잠깐만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 분석의 한계와 보완방법

1. 기업의 재무실적은 과거 2~3년치를 보아야 한다!

기본적 분석을 비판하는 측은, 기업의 가치를 분석할 때 기초자료로 사용하는 재무제표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 분석은 그 자체로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기업들이 불법으로 분식회계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게다가 주가 예측에 활용되는 미래 기업실적 예측치라는 것도 어디까지나 예측에 불과한 것이어서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매출이나 순이익을 조작하는 분식회계가 종종 있었으며 특히 코스닥 신규 상장 업체의 경우 외형과 순이익을 부풀려 공

개한 이후 실적이 급감하여 주가가 폭락하는 문제점이 완전히 근절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기업의 재무실적을 볼 때는 과거 2~3년치를 보아야 하고, 재무실적 이외에도 업종의 특성, 회사의 역사, 경영자의 자질 등을 함께 참고하여야 합니다.

2. ROE, PER, EV/EBITDA, PBR 등을 업종 평균과 비교해 보라!

개인투자자들은 투자분석 자료를 찾기가 쉽지 않고, 또 분석 자료가 어렵고 복잡하다고 말합니다. 투자분석 자료를 구하기 힘든 개인투자자들은 ROE, PER, EV/EBITDA, PBR 등의 4가지 지표를 업종 평균과 비교해 보고 투자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증권회사 홈트레이딩 시스템(HTS)에 들어가면 각종 분석지표뿐만 아니라 미래 예상실적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형주나 일부 코스닥 종목은 예상실적 자료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3. 과거의 실적보다는 미래의 추정 예상실적을 중시하라!

과거의 실적은 일반에 이미 공개되어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의 수치로 가치분석을 해봐야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가치가 높은 기업이라도 시장에서 인기가 없으면 투자수익을 내기가 어렵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가능한 한 미래의 추정 예상실적으로 가치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미래의 가치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동일업종 내 유사 기업과 비교분석을 하여 주가의 수준만 가늠하고 구체적인 매매시점은 차트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업의 가치는 기업이 이익을 얼마만큼 낼 수 있는가, 바꾸어 말하면 이익창출능력이 어느정도인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의 이익창출능력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기업의 이익창출능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 4가지 지표, 즉 자기자본이익률(ROE), 주가수익비율(PER), 이브이에비타(EV/EBITDA), 추가순자산비율(PBR)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 4가지 수치를 해당 업종 평균과 비교해 보고, 또 업종 대표 우량주와 비교해 봄으로써 주가가 기업의 가치에 비해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 알아본 후에 매매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의 현재 가치 못지않게 미래의 가치도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미래의 가치가 주가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가치는 기업의 성장성을 말해 주는 매출액 증가율이나 순이익 증가율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차트분석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므로 기본적 분석에 해당하는 기업의 가치분석 지표는 간단하게 정리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주식투자 무작정 따라하기》(윤재수 지음, 길벗출판사)를 참고하세요.

기업의 가치분석 지표 1 자기자본이익률(ROE, Return On Equity)

자기자본이익률(ROE)은 자기자본으로 회사가 돈을 얼마나 벌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지표로서, 당기순이익을 평균 자기자본으로 나누어 백분율로 표시합니다.

$$\text{자기자본이익률(ROE)} = (\text{당기순이익} \div \text{평균 자기자본}) \times 100$$

자기자본에 비해 이익을 많이 내면 낼수록 이익창출능력이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자기자본이익률(ROE)은 높을수록 기업의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가치분석 지표 2 주가수익비율(PER, Price Earning Ratio)

주가수익비율(PER)은 현재 주가를 주식 1주가 1년간 벌어들일 예상 순이익으로 나눈 수치로, 기업이 이익을 낼 수 있는 힘을 현재의 주가와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text{주가수익비율(PER)} = \text{주가} \div \text{1주당 예상 순이익}$$

주가수익비율(PER)은 과거 실적에 의한 수치보다 예상 수익에 의한 예상 PER가 더욱 중요합니다. 주가수익비율(PER)은 낮을수록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고, 높을수록 고평가되어 있다고 봅니다.

기업의 가치분석 지표 3 이브이에비타(EV/EBITDA)

이브이에비타(EV/EBITDA)는 시가총액을 이익으로 나누되 영업 이외의 요인으로 이익에 영향을 미친 부분을 제외하고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이익금으로 나누어 계산해 본 것입니다. 특별이익이나 특별손실은 제외하고, 영업이익에서 제외되는 감각상각비와 제세금, 이자비용은 포함시켜서 계산합니다.

$$\text{이브이에비타(EV/EBITDA)} = (\text{시가총액} + \text{순차입금}) \div (\text{영업이익} + \text{감각상각비 등 비현금성 비용} + \text{제세금})$$

이브이에비타(EV/EBITDA)도 PER와 같이 낮을수록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고, 높을수록 고평가되어 있다고 봅니다.

기업의 가치분석 지표 4 주가순자산비율(PBR, Price Book-value Ratio)

주가순자산비율(PBR)은 주가를 1주당 자산가치로 나누었을 때 몇 배가 되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기업의 시장가치와 청산가치(장부상의 가치)를 비교해 보는 방법입니다.

$$\text{주가순자산비율(PBR)} = \text{주가} \div \text{1주당 순자산}$$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이라면 장부상의 1주의 자산가치와 주가가 동일하다는 뜻이므로 다른 기업에 비해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을수록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고, 높을수록 고평가되어 있다고 봅니다.

주가 예측 기법 2 차트분석(기술적 분석)

기술적 분석은 주가나 거래량 등 주식시장에 나타난 과거의 데이터를 기초로 시세를 예측하는 것을 말하는데, 주로 차트를 이용하기 때문에 차트분석이라고도 합니다. 이 책에서도 지금부터는 차트분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주가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며, 수요와 공급은 기업의 가치뿐만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심리, 시장에서의 인기 등 경제적인 요인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해 이루어집니다. 주식을 사는 사람들은 기업가치에 비해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제대로 평가받아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 믿고 매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제품의 개발로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매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외국인이나 기관이 매수하니까 따라 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차트를 보고 매수시점이라 판단하여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매수하는 사람들은 저마다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자기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반대로 주식을 파는 사람들은 매수자와 달리 주가가 떨어질 것이라고 보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반대의 생각을 가진 다수의 사람이 거래한 거래이유와 거래내용이 그대로 차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수요·공급의 결과가 가격과 거래량 형식으로 차트에 그려지는 것이지요.

현대 차트분석가들은 차트를 과학이요, 심리학이요, 예술이라고 합니다. 게임이론, 확률이론, 기하학 같은 수학적 개념을 활용하기 때문에 과학이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중심리와 집단심리에 따라 매수자는 탐욕에, 매도자는 공포에 빠지기 때문

에 심리학이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차트의 움직임을 보고 감정의 강약과 리듬을 느끼기도 하기 때문에 예술이라고도 합니다.

차트분석의 한계와 보완방법

1. 그래프는 과거 주가 흐름을 나타낼 뿐이다!

과거의 주가 추세나 패턴이 미래에도 반복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실제로 미래에 그대로 반복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따라서 투자판단을 할 때는 차트만 보아서는 안 되고,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도 반드시 검토를 해야 합니다.

2. 차트 해석에는 예외가 많다!

차트는 보는 사람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차트에 관한 지식이 부족한 투자자가 차트를 볼 때는 자의적인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내가 먼저 매매신호를 발견하고 행동해야 수익이 난다!

모든 투자자가 나와 똑같이 차트를 읽고 행동에 옮긴다면 모두가 수익이 나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4. 가치분석과 차트분석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어떤 기업이든 기업 내용을 모르고 매매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따라서 가치분석과 차트분석은 불가분의 보완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왼손에 가치분석, 오른손에 차트분석이야말로 실패를 줄이고 성공투자로 갈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왼손에 가치분석, 오른손에 차트분석으로 투자성공률을 높이자!
 차트분석의 문제점은, 첫째 분석기법이 어느 정도 완벽한 기법인가, 둘째 실전 매매에서 얼마만큼 실천에 옮길 수 있는가 하는 두 가지 문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전 매매에 들어가면 분석이론대로 실행에 잘 옮겨지지 않는다는 것은 주식투자를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경험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신한금융지주에 합병되어 상장폐지되었지만 한때는 투자자들의 관심주였던 LG카드의 일봉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G카드 일봉 그래프(2004. 11~2005. 3)

LG카드 주가는 85,000원대에서 장기 횡보하다가 2005년 1월 초에 급락하였습니다. 차트분석 기법에 따르면 주가가 추세선

★ 알아두세요

추세와 추세선

일정한 기간 동안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려 하는 주가의 경향을 추세라 하고, 추세를 알아보기 쉽게 주가의 고점과 저점들 중 의미 있는 두 지점을 연결한 직선이 추세선입니다. 추세선은 그래프에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가 직접 그려보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04장을 참조하세요.

과 이동평균선을 하향 이탈하고 있으므로 매도 신호라 할 수 있습니다. 차트를 읽을 줄 아는 투자자라면 2005년 1월 3일 첫 하한가(75,100원)에 당연히 매도주문이 나갔어야 합니다.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갑작스런 하한가에 15%나 손해를 보고 매도주문을 낼 수 있는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또 설령 주문을 냈다 하더라도 매수주문이 적어 매도주문이 체결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3일에 이어 4일, 5일에도 연일 하한가를 기록하고 4일째 되는 날(6일) 대량거래가 이루어지면서 하한가를 일시 벗어나 52,000원까지 상승하였으나 결국 종가는 다시 하한가(46,300원)를 기록하였습니다.

4일째 하한가를 기록한 1월 6일은 무려 1,060만 주나 대량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단기 낙폭에 따른 단타성 반발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LG카드 주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월 2일 22,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1월 6일 5만원 선에서 매도를 했어야 옳았고, 더욱이 매수는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9만원 선을 유지하던 주식이 며칠 만에 50% 이상 하락할 때 차트분석만으로 매도주문을 낼 수 있는 사람은 흔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차트분석의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5만원에라도 팔았더라면 또다시 반토막이 되지 않았을 텐데 왜 팔지 않았을까요? 단기 손실이 커서 주문을 내지 못한 이유도 있겠지만 기업가치에 대한 최소한의 검토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LG카드 주가 폭락의 원인은 자본잠식을 해소하기 위해서 5.5대 1로 감자가 검토되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고부터

★ **알아두세요**

감자란?

감자란 자본금을 줄인다는 뜻입니다. 재무구조가 부실한 기업이 재무 내용을 건실하게 하기 위해서 발행주식수를 줄이고 자본금을 축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자를 할 때는 대가를 지불하는 유상감자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가 없이 주식수만 줄이는 무상감자가 일반적입니다.

입니다. 기업의 가치를 한번이라도 점검해 본 투자자라면 자본잠식이 있는 회사, 또 5.5대 1이라는 큰 폭의 감자 가능성이 있는 회사의 주식을 액면가 5,000원보다 10배나 비싼 50,000원에 매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기업의 가치를 분석하여 반드시 기업의 가치가 높은 우량주에만 투자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물론 우량주이면서 차트 모양도 좋으면 우선적으로 선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부실주에 투자하는 것이 우량주에 투자하는 것보다 더 큰 수익을 거둘 수도 있습니다. 기업의 가치로 움직이는 주가보다 특정 재료나 테마로 움직이는 주가의 등락폭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개인투자자들 중에는 큰 폭의 단기 수익을 목적으로 테마주나 재료 보유주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실한 기업에 투자를 할 때는 투자자가 기업이 부실하다는 사실을 알고 그에 걸맞은 차트분석 기법을 충분히 익혀 제대로 실천할 수 있을 때에만 투자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1999~2000년 코스닥 벤처기업 중 닷컴주와 바이오주의 버블은 인간이 탐욕에 눈이 멀면 기업의 실적은 쉽게 무시한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당시 관련 주가가 6개월 또는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수십배 급등하였고, 투자자들 중에는 “적자가 많을수록 주가가 더 높이 올라간다”라는 말을 공공연히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당수 벤처기업들은 2~3년 후 상장폐지되었고, 무모한 투자를 감행했던 개인투자자들은 마지막에 휴지 조각이 된 주식을 손에 들고 망연자실해했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다시 말

★ **알아두세요**

랜덤워크 이론이란?
 '효율적인 시장 모델'에 근거한 이론으로, 주가는 해당 시점에서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반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주가가 변동하는 것은 새로운 정보가 출현했기 때문인데, 새로운 정보는 이전의 정보와는 관계없이 독립적이고 불규칙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주가 변동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요컨대 '술 취한 사람의 걸음걸이'처럼 주가의 움직임은 일정한 규칙이 없어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해 어떤 기업이든 기업 내용을 모르고 매매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따라서 가치분석과 차트분석은 불가분의 보완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왼손에 가치분석, 오른손에 차트분석이야말로 실패를 줄이고 성공투자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주가 예측 기법 3 포트폴리오 이론

포트폴리오 이론은 증권시장에 주어지는 모든 정보가 즉시 주가에 반영되는 효율적인 시장을 전제로 하고, 현재의 주가가 곧 현재 기업의 가치를 나타낸다는 랜덤워크 이론(Random Walk Theory)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주가의 변화는 과거의 추세나 패턴에 제약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움직인다고 보는 것입니다. 랜덤워크 이론에 의하면 기본적 분석이나 차트분석으로는 주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그 대안으로 포트폴리오 방식이나 포물러 방식을 제안합니다.

포트폴리오 이론은 다양한 유가증권에 효율적으로 분산투자함으로써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인 투자수익을 얻고자 하는 방법이고, 포물러 플랜(Formula Plan)은 주가 예측을 무시하고 일정한 원칙을 정해 두고 그에 따라 투자의사를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포트폴리오 이론과 포물러 플랜은 개인투자자에게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반면에 기관투자자에게는 유용한 투자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차트분석가들은 무엇을 근거로 주가의 향방을 예측할까요? 그 답은 주가 그래프의 5가지 본질적인 속성에 있습니다.

1. 차트는 수급의 결과를 반영한다.

주가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만 움직입니다. 공급에 비해 수요가 많으면 주가가 올라가고, 수요보다 공급이 많으면 주가가 하락합니다. 그리고 수급의 결과는 모두 그래프로 나타납니다(Market action discounts everything).

2. 주가는 관성의 원리에 따라 추세를 지속하려는 속성이 있다.

주가는 추세를 형성하며 움직이고, 추세는 수급에 변화가 있을 때까지 관성의 원리에 따라 추세를 지속하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즉, 상승하는 주가는 상승추세를 지속하려는 속성이, 하락하는 주가는 하락추세를 이어가려는 속성이 있습니다(Price moves in trends).

3. 주가는 파동과 사이클을 반복하려는 속성이 있다.

주가는 주가 나름의 파동과 사이클을 그리며 진행합니다. 아울러 차트에 나타나는 주가 모형은 반복하려는 속성이 있습니다(History repeats itself).

4. 주가에도 어느 정도 구심력이 있다.

주가는 이동평균선으로, 단기 이동평균선은 장기 이동평균선으로 회귀하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 이동평균선은 다수 투자자들이 평가한 기업의 가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5. 주가는 선행하는 경향이 있다.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재료는 일반투자자들이 알기 전에 차트에 먼저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합주가지수는 경기보다 약 3~6개월 선행하는 경향이 있고, 개별기업 주가의 경우 기대수익이 주가에 선반영되거나 대주주나 임직원 등에 의해 정보가 사전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통경찰의 단속방법

한 남자가 고속도로에서 과속을 하며 달리다 단속중인 교통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남자는 규정속도를 초과해서 달리고 있는 다른 차들을 가리키며 단속경찰에게 항의했다.

남자: “아니, 다른 차들도 다 속도위반을 하는데 왜 나만 잡습니까?”

경찰관: “당신, 낚시 해봤소?”

남자: “낚시요? 물론 해보았지요.”

경찰관: “그럼 댁은 낚시하러 가서 그 저수지에 있는 고기를 몽땅 다 잡습니까?”

남자: “……??”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은 1,900개사가 넘습니다. 개인투자자의 경우 그 많은 종목을 투자 대상으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업종별 시장점유율이 높은 대표 우량주, 증권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주도 종목, 기업실적이 극적으로 좋아지는 턴어라운드 종목, 테마주나 재료 보유주, 증권회사나 매스컴에서 추천하는 종목들 중에서 기업가치를 나름대로 체크해 본 종목을 적게는 5개에서 많게는 20여개 선정한 다음 관심종목 창에 넣어두십시오.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관심종목의 그래프를 확인해 보고 차트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매매시점을 찾다 보면 마음에 드는 종목이 2~3개 나타납니다. 이렇게 선정한 2~3개 종목 중에서 매매시점을 찾아 투자를 실행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 편하게 기다리십시오. 당신의 노력에 보답이 있을 것입니다.



차트분석의 종류와 유형

주가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며, 수요 · 공급의 결과가 가격과 거래량 형식으로 차트에 그려집니다. 이 차트를 분석해 주가를 예측하는 것을 차트분석 혹은 기술적 분석이라고 합니다. 이번 장에서는 차트분석의 종류와 분석지표의 유형에 대해 알아보고, HTS에서 그래프 보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차트분석의 종류

이제 본격적으로 차트분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트분석은 분석방법에 따라 추세 분석, 패턴 분석, 장세 분석, 목표치 계산의 4종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추세 분석

추세 분석(Trend Analysis)은 주가의 움직임 속에서 추세선이나 추세대를 찾아보고 또 추세선이 언제 붕괴되는가를 관찰함으로써 주식의 매매시점을 포착하는 기법입니다. 지지선과 저항선의 설정, 추세선의 신뢰도, 추세선의 수정, 추세선의 전환 등을 관찰해서 투자판단에 이용하는 기법입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04장에서 알아보겠습니다.

2. 패턴 분석

패턴 분석(Pattern Analysis)은 추세선이 변화할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주가 변동 패턴을 정형화해 놓고, 이를 분석해 향후 주가를

★ **알아두세요**

황소는 뿔이 위쪽으로 치솟아 있어 오름세를 뜻하고, 곰은 아래쪽으로 머리를 내밀며 공격하기 때문에 약세를 의미한다는 뜻에서 강세시장을 불리시마켓(Bullish Market), 약세시장을 베어리시마켓(Bearish Market)이라고 합니다.

예측하는 기법입니다. 과거 주가 흐름을 통해 검증된 패턴을 현재의 주가 흐름에 대입해 주가의 등락을 예측하는 기법입니다. 패턴 분석에 대해서는 06장에서 자세하게 다룹니다.

3. 장세 분석

장세 분석(Market Analysis)이란 주식시장에 나타나는 각종 신호들을 파악하고 그것을 시장언어(Language of the Market)로 해석하여 장세를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증권시장의 흐름을 강세시장(Bullish Market)과 약세시장(Bearish Market)으로 나누고 이들 시장의 사이클을 알아내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14장에서 다룹니다.

4. 목표치 계산

목표치 계산(Counting)은 여러 가지 차트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주가가 어느 선까지 상승하거나 하락할 것인가를 예측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목표치 계산과 관련해서는 13장에서 좀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차트분석의 지표 유형

신기술적 분석 지표가 등장하면서 차트의 종류를 아래와 같은 6가지 지표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이 보편화되었습니다. 지표 유형별 특징과 지표의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1. 추세 지표

주가가 진행되는 방향, 즉 주가 추세를 알아보는 지표입니다. 주

가 추세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① **상승추세** : 주가의 고점과 저점을 높이며 상승을 이어가는 형태입니다.
- ② **하락추세** : 주가의 고점과 저점을 낮추며 하락을 이어가는 형태입니다.
- ③ **횡보추세 또는 비추세** : 주가가 일정한 추세를 갖지 못하고 등락하거나 횡보하며 진행하는 형태입니다.

추세 지표를 이용하는 방법은 추세의 변화가 있을 때까지 추세에 따라 매매를 하는 것입니다. 추세를 보는 지표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추세 지표	1) 추세선
	2) 이동평균선
	3) MACD(Moving Average Convergence & Divergence)
	4) ROC(Rate Of Change)와 모멘텀 지표
	5) DMI(Directional Movement Index)와 ADX(Average Directional Movement Index)

2. 모멘텀 지표

투자심리나 운동에너지를 이용하여 주가 추세의 변곡점을 찾아 보는 지표를 의미합니다. 모멘텀 지표는 추세 진행을 확인시켜 주거나 추세의 변곡점을 알아보는 데 이용합니다. 모멘텀 지표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모멘텀 지표	1) 모멘텀(Momentum)
	2) 스토캐스틱(Stochastic)
	3) CCI(Commodity Channel Index)
	4) 이격도
	5) 투자심리선
	6) MACD Oscillator
	7) SONAR
	8) TRIX(Triple Smoothed Exponential Moving Average)
	9) Williams %R

3. 변동성 지표

주가의 변동성을 알아보는 지표입니다. 주가의 변동성 또는 탄력성이란 주가가 추세를 따라 움직일 때 그 각도가 가파르고(상승할 때는 상승 각도가 가파르고, 하락할 때는 하락 각도가 가파른 것을 말함), 변동폭이 큰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짧은 기간에 주가의 등락폭이 큰 것을 의미합니다. 테마 관련주나 저가 종목을 일반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이유는 바로 이 변동성과 탄력성 때문입니다. 변동성 지표는 매매 타이밍을 잡는 데 유용하며 단기매매에도 활용됩니다. 변동성 지표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변동성 지표	1) 볼린저밴드(Bollinger Band)
	2) Envelope
	3) Parabolic SAR(Stop And Reverse)
	4) ATR
	5) Keltner Channel
	6) Pivot Line

4. 주가에 시간 개념을 포함시켜 만든 분석지표

일정한 시간단위로 주가 변동을 예측하게 하는 지표로, 추세 확인과 변곡점 확인에 이용합니다. 일목균형표가 대표적입니다.

5. 시장강도 지표

시장강도 지표란 주가의 추세나 변동성이 얼마나 강한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주로 거래량을 포함시켜 주가 분석을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시장강도를 알아보는 지표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시장 강도 지표	1) 거래량(또는 거래대금) 이동평균
	2) OBV(On Balance Volume)
	3) RSI(Relative Strength Index)
	4) CO(Chaikin's Oscillator)
	5) Volume Oscillator
	6) Volume Ratio
	7) NVI(Negative Volume Index)
	8) PVI(Positive Volume Index)
	9) MFI(Money Flow Index)

6. 시장동향 지표

증시에 자금이 들어오는지 나가는지를 파악하거나 투자주체별 동향을 분석하여 시장의 강약을 알아보는 지표입니다.

시장 동향 지표	1) 고객예탁금 추이
	2) 주식형 펀드 잔고 추이
	3) 외국인 매매동향
	4) 기관 매매동향

이상은 각 지표가 가지는 가장 특징적인 요소로 구분한 것이기 때문에 지표에 따라 추세 지표이면서 모멘텀 지표인 것(스토캐스틱, CCI, 일목균형표 등)도 있고, 추세 지표이면서 시장강도 지표인 것(RSI, CO 등)도 있는 등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을 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분석 도구에 따른 주가 예측 기법의 종류



1. 가격으로 예측하는 기법

분석 도구 | 이동평균선, 이격도, 삼선전환도, P&F, Coppock, TI(Timing Indicator)

2. 거래량으로 예측하는 기법

분석 도구 | 거래량 이동평균선, 거래량 회전율, 거래대금 회전율, VR(Volume Ratio)

3. 가격과 거래량을 동시에 고려하여 예측하는 기법

분석 도구 | 역시계곡선(주가 - 거래량 상관곡선), OBV(On Balance Volume)

4. 가격이나 거래량 이외의 도구를 이용하여 시장분위기를 예측하는 기법

분석 도구 | 투자심리선, 거래성립률, 등락주선(ADL), 등락비율(ADR), 신고가 · 신저가선(new high - new low line), 고객예탁금 추이, 신용잔고 추이, 미수금 잔고 추이, 주식형 수익증권 잔고 추이

5. 모멘텀 지표(주가의 운동에너지 또는 가속도)를 이용하여 예측하는 기법

분석 도구 | MACD, 스토캐스틱, 볼린저밴드, 일목균형표, TRIX, DMI, 상대강도지수(RSI, Relative Strength Index), SONAR 차트, CO(Chaikin's Oscillator) 등

차트분석을 하려면 증권회사 홈페이지 트레이딩 시스템(HTS)을 이용해 그래프 보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증권계좌를 갖고 있고, HTS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설명하겠습니다.

1. 증권사 HTS 프로그램을 실행해 로그인한 후 '주식종합차트' 창을 열어보세요. [차트] 메뉴에서 '주식종합차트'를 선택하면 됩니다. 먼저 화면 상단의 메뉴부터 확인해 볼까요?



- ①  : 풀다운 메뉴를 보이거나 숨길 수 있습니다.
- ②  : 클릭하면 국내, 거래소업종, 코스닥업종, 통합, 해외 등의 메뉴가 펼쳐져 해당하는 종목들의 차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③  : 종목코드를 직접 입력하거나 검색할 수 있습니다.
- ④  : 일봉, 주봉, 월봉 등 조회할 차트 종류를 선택합니다.
- ⑤  : 분/초/틱 차트 선택시 세부 시간 주기나 봉 주기를 선택합니다.
- ⑥  : 분/초/틱 차트 선택시 시간/봉 단위를 임의로 입력해 지정하거나 혹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 ⑦  : 클릭하면 '사용자 주기설정' 창이 열려 분/초 주기와 틱 개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⑧  : 조회할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⑨  : 새로 지정한 설정값이나 조회 기간에 맞게 데이터를 갱신합니다.
- ⑩  : 한 차트 안에서 비교 조회할 다수의 종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⑪  : 차트 왼쪽에서 관심종목 리스트를 조회할 수 있으며, 입력된 종목에 대한 차트의 자동 조회가 가능합니다.
- ⑫  : 화면 왼쪽의 '지표/유형' 목록을 보이거나 숨길 수 있습니다.
- ⑬  : 화면의 차트 위에 직접 추세선을 그리거나 다양한 차트분석을 할 수 있는 도구들을 화면 오른쪽에 표시합니다.
- ⑭    : 각각 해당 창을 엽니다.

★ 알아두세요

증권계좌가 없는 분은 《주식투자 무작정 따라하기》를 참조해 계좌부터 개설하세요. 이 책에서는 신한금융투자 홈트레이딩 시스템을 기준으로 하여 그래프 보는 법을 알아봅니다. 증권회사마다 HTS에서 그래프 보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 알아두세요

틱차트란 무엇인가요?

최소 호가 단위를 틱이라고 합니다. 분차트는 시간단위로 그려지지만 틱차트는 시간과 관계없이 거래단위로 나타나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예를 들어 1분 차트는 거래횟수와 관계없이 1분마다 하나씩 차트가 그려지지만 틱차트는 1분 동안에 여러 개의 봉이 그려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30분 동안 딱 1번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하나의 틱만 그려집니다. 틱차트는 거래가 많고 주가가 단기에 급변하는 종목을 단기매매(Day Trading)할 때 실시간으로 가격변화를 파악하고자 이용하는 차트입니다. 특히 선물·옵션과 같은 파생상품을 거래할 때 이용하며 '현재가' 창에서 틱차트를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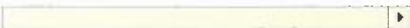
2. 이번엔 보조지표 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차트 왼쪽의 지표/유형 목록에서 하단의 <유형> 버튼을 클릭해 보세요. 일목균형표와 같은 여러 종류의 차트 유형을 보여줍니다. 차트 유형에서 일목균형표를 클릭하면 아래 그림과 같은 일목균형표 차트가 나타납니다.



3. 이번에는 <지표> 버튼을 클릭해 보세요. MACD를 비롯한 추세 지표, 스토캐스틱과 같은 모멘텀 지표, 볼린저밴드와 같은 변동성 지표, OBV 같은 시장강도 지표가 나타납니다. 각각의 지표를 클릭하면 해당 보조지표가 나타납니다. 아래 그림은 삼성전자의 MACD 지표입니다. 참고로 차트의 여러 요소 가운데 필요 없는 것들은 해당 요소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삭제' 메뉴를 선택하면 지울 수 있습니다.



4. 차트를 보다 보면 좀더 확대해서 크게 보고 싶거나 과거의 차트를 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화면 하단의 여러 가지 화면 조절 기능을 이용하면 됩니다.

① : 스크롤바를 이동시켜 과거의 차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② : 차트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습니다.

③ : 차트의 조회 구간을 자동으로 앞뒤로 이동시키거나 차트 크기를 축소 또는 확대할 수 있고, 돋보기로 차트의 일부를 확대해서 볼 수 있는 기능 등을 제공합니다. 각각의 기능들은 해당 버튼을 클릭해 보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HTS의 차트 화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들을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추세 도구를 이용해 추세선과 저항선 등을 화면 위에 직접 그려보는 등 차트분석을 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떤 기능들이 제공되는지 틈나는 대로 살펴보세요.

★ 알아두세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HTS로 그래프 보는 법은 신한금융투자 HTS 화면을 예로 사용하였습니다. 이후로도 이 책에 나오는 그래프 화면은 신한금융투자 HTS인 '신한아이'와 하나대투증권 HTS인 'Hi-Five'를 많이 활용하였습니다. 많은 증권회사 중에 두 회사의 HTS를 활용한 이유는 저자가 근무했던 곳이어서 익숙하고 지금도 활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교사와 식인종

식인종만 살고 있는 외딴섬을 찾은 한 선교사가 선교를 하기 위해 추장을 만났다.
말이 잘 통하지 않는 가운데 선교사가 먼저 쉬운 말로 물어보았다.

“추장님, 전에 종교 맛을 본 일이 있습니까?”

추장은 이렇게 대답했다.

“예. 맛을 본 일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선교사가 왔을 때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선교사: “……!”

다수의 투자자가 차트를 보고 투자 결정을 한다면 차트는 그 자체로 대단한 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다. ‘그래프 그까이꺼 뭐 대~충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투자자가 있다면, 그는 마치 상대는 첨단 무기를 갖추고 전쟁터에 나가는데 자신은 무기도 없이 맨손으로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Stock Charts and Technical Analysis

차트, 이것만 알아도 기본은 한다!

차트분석은 어설프게 아느니 차라리 모르는 것이 낫습니다. 온전히 이해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제대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단 하나의 기법이라도 이론 공부와 실전을 끊임 없이 반복하여 자기 나름의 분석기법을 정립해 두시기 바랍니다.

둘째 마당



03장 | 봉차트와 주가 파동 이론

04장 | 추세 분석을 이용한 매매방법

05장 | 이동평균선을 이용한 매매방법

06장 | 패턴 분석을 이용한 매매방법

07장 | 거래량 분석을 이용한 매매방법



봉차트와 주가 파동 이론

차트를 보는 목적은 그래프를 읽고 주가를 예측하기 위해서입니다. 주가 그래프는 일반적으로 시가, 고가, 저가, 종가를 나타내는 봉으로 구성되어 있어 흔히 봉차트라고 합니다. 봉차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봉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봉의 의미를 알아보고 봉으로 주가를 예측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봉차트란?

봉차트는 전세계 분석가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가격분석 차트입니다. 봉은 시가(장시작 가격), 고가(장중 최고가격), 저가(장중 최저가격), 종가(장마감 가격)를 표시하고 막대 모양으로 그립니다.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은 매수(사자)세력과 매도(팔자)세력이 힘을 겨룬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봉은 일정한 기간 동안 두 세력이 힘을 겨룬 과정과 그 결과를 그래프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이나 기관에 비해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약한 일반투자자들은 봉차트를 읽고 매수세력과 매도세력 중 어느 쪽이 강한지를 파악한 뒤 강한 쪽에 투자를 해야만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봉의 구성과 의미

봉차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봉의 기본 형태와 색깔 등에 담긴 의미를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기본입니다.

1. 봉은 시가, 종가, 고가, 저가를 나타냅니다.

봉은 시가, 고가, 저가, 종가를 표시하고 막대 모양으로 그립니다.

시가(Open) : 장이 시작될 때 처음 거래된 가격

종가(Close) : 장이 끝날 때 거래된 최종 가격

고가(High) : 장중 가장 높은 가격

저가(Low) : 장중 가장 낮은 가격

2. 봉은 몸통과 꼬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몸통 : 시가와 종가로 구성됩니다. 시가보다 종가가 올랐을 경우 양봉(붉은색)이라 하고, 시가보다 종가가 떨어졌을 경우 음봉(청색)이라 합니다.

꼬리 : 장중에 시가나 종가를 벗어나는 가격을 나타냅니다. 위꼬리는 양봉일 경우 종가보다 높았던 가격을 나타내고, 음봉인 경우엔 시가보다 높았던 가격을 나타냅니다. 아래꼬리는 양봉일 경우 시가 이하로 떨어졌던 가격을 나타내고, 음봉의 경우 종가보다 더 낮았던 가격을 표시합니다.



3. 봉은 양봉과 음봉으로 표시됩니다.

양봉 : 시가보다 종가가 높게 끝난 경우로 붉은색으로 그립니다.
 시가보다 종가가 높다는 것은 매수세력이 매도세력에 비해 강하여 시가에 비해 상승하였다는 뜻입니다.



위꼬리가 달린 양봉 → 매수세력이 강했지만 장중에 매도세력의 저항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아래꼬리가 달린 양봉 → 장중에 한때 밀리던 가격이 매수세력의 지지를 받아 상승했다는 의미입니다.

음봉 : 시가보다 종가가 낮게 끝난 경우로 파란색(청색)으로 그립니다. 시가보다 종가가 낮다는 것은 매도세력이 매수세력에 비해 강하여 시가에 비해 하락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꼬리가 달린 음봉 → 장중에 매수세력이 상승을 시도했으나 매도세력에 의해 좌절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래꼬리가 달린 음봉 → 장중에 매수세력의 저항을 받아 추가 하락이 저지 당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 봉은 작성기간에 따라 일봉, 주봉, 월봉 등으로 나뉩니다.

하나의 봉이 하루 동안의 주가 흐름을 나타낸다면 일봉, 1주일 간의 주가 흐름을 나타낸다면 주봉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월봉은 1달 동안의 주가 흐름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단기 주가 흐름을 파악하는 데는 일봉 차트가 주로 이용되고, 중장기 주가 흐름 파악에는 주봉과 월봉 차트를 주로 이용합니다. 이외에도 분과 시간을 단위로 하는 분봉, 시간봉 등도 있다는 걸 알아두세요.

잠깐만요

봉에 관한 동양과 서양의 차이



봉은 양초같이 생겼다고 하여 흔히 캔들(Candle)이라고도 합니다. 봉차트는 1700년경 혼마 무네히사라는 일본인이 선물시장에서 거래되는 쌀가격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 분석 도구로 활용하기 시작한 것이 시초가 되었습니다.

서양에서는 미국식 바차트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바차트는 시가를 표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봉차트와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는 바차트보다 봉차트를 더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봉의 색깔은 동서양이 서로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양봉을 붉은색, 음봉을 청색으로 표시하지만 서양에서는 그 반대로 양봉을 청색, 음봉을 붉은색으로 그립니다. 동서양의 봉 색깔이 다른 것은 유래와 관습의 차이일 뿐이므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알아두세요**

양봉은 시가보다 종가가 상승했다는 의미이지 전일보다 상승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양봉이라도 전일보다 하락한 경우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음봉도 시가보다 종가가 떨어졌다는 의미이지 전일에 비해 하락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봉의 종류와 그 의미

봉은 형태와 색깔에 따라 크게 양봉, 음봉, 도지로 나눌 수 있는데, 차트를 보면 같은 양봉과 음봉이라도 저마다 다른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차트에 나타나는 다양한 봉의 형태를 알아보고 그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1. 양봉

1) 긴 양봉

시가 대비 가격이 크게 상승한 경우로 매수세력이 시장을 장악했다는 의미입니다.



2) 짧은 양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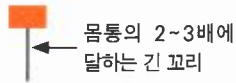
몸통이 짧은 양봉으로 위아래로 꼬리가 달린 경우도 있습니다. 매수세력이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3) 망치형 양봉

망치 같은 모양을 하고 있어 망치형 양봉이라고 합니다. 완전한 망치형이 되려면 꼬리의 길이가 몸통보다 2~3배 이상 길어야 합니다. 장중에 매도세력에 의해 일시적으로 밀렸지만 재차 매수세력이 시장을 장악한 모양으로, 주가 하락의 마지막 국면에

곧잘 나타납니다.



4) 역망치형 양봉

몸통보다 꼬리가 2~3배 이상 되는 양봉. 추세 상승 이후에 출현하면 매물을 받은 것이므로 매도의 관점으로 보고, 추세 하락 마지막 국면에 나타나면 상승 전환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2. 음봉

1) 긴 음봉

시가 대비 가격이 크게 하락한 경우로 매도세력이 시장을 장악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짧은 음봉

몸통이 짧은 음봉으로 위아래로 꼬리가 달린 경우가 많습니다. 매도세력이 강했다는 의미입니다.



★

알아두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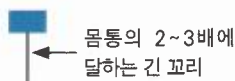
천정권이란?

주가가 상승한 후 추가 상승의 힘이 부족하여 고점에서 에너지를 소비하며 시간을 끌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3) 망치형 음봉(일명 교수형)

꼬리가 몸통보다 2~3배 이상 긴 음봉으로 교수형에 처해지는 죄수와 비슷한 모양이라 해서 교수형이라고도 부릅니다. 장중에 매수세력이 반동을 시도했던 흔적이 있으나 크게 성공하지 못한 형세입니다.

주가가 바닥권에서 출현시 반동 가능성이 있음을 말해 주고, 주가가 천정권에서 출현시 매도세력이 건재함을 보여준 경우로 하락이 예상됩니다.

**4) 역망치형 음봉**

매수세력이 상승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형국입니다. 주가가 천정권에서 출현시 하락이 예상됩니다.

**3. 도지**

도지란 시가와 종가가 같은 봉으로 매도세력과 매수세력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형국을 나타냅니다.

주가 급등 후 도지가 발생하면 매수세력의 힘이 떨어지는 경우로 하락 반전이 예상되고, 주가 급락 후 도지가 발생하면 매도세력의 힘이 떨어지는 경우로 상승 반전이 예상됩니다.

★ **알아두세요**

도지란?

도지는 시가와 종가가 같은 경우로 일봉 기준으로 전일의 가격에서 장중에 변동이 전혀 없었거나 또는 가격등락이 있었지만 결국 전날과 같은 가격으로 끝이 났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도지란 동시(同時), 동자(同字), 동차(同次) 등을 뜻하는 일본말로 적당한 우리말이 없어 그대로 사용합니다.

★ **알아두세요**

연결봉 이외에도 추세선이나 이동평균선과 함께 봉을 보면 예측력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추세선과 이동평균선 보는 법은 04장과 05장에서 설명합니다.

또한 상승추세나 하락추세 속에 주가가 잠시 쉬어갈 때도 나타납니다. 따라서 도지는 추세선과 이동평균선을 함께 참고하여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키다리형 도지



아래꼬리가 긴 도지

비석형 도지



위꼬리가 긴 도지

잠자리형 도지



아래꼬리가 긴 도지

연결봉으로 주가 예측하기

봉 하나만으로 주가를 예측하는 것보다 앞뒤로 이어지는 여러 개의 봉을 보고 시장을 판단하는 것이 주가를 예측함에 있어 좀더 정확도가 높을 것입니다. 봉을 공부하는 이유는 지금까지의 주가 추세가 반전될 것인지 아니면 지속될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지금부터는 주가 흐름 속에서 앞에서 배운 여러 종류의 봉이 출현하였을 때 추세반전형인지 추세지속형인지를 판단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추세반전형은 다시 상승반전형과 하락반전형으로 나뉘므로 ① 상승반전형, ② 하락반전형, ③ 추세지속형의 세 가지로 구분해 알아보겠습니다.

1. 상승반전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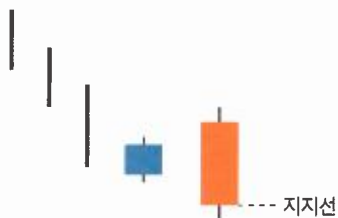
하락하던 주가 흐름 중에 다음과 같은 상승반전형 연결봉이 출현하면 주가가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상승반전형 봉이 출현하면 선물, 옵션, ELW와 같은 파생상품의 하락에 베팅해 둔 투자자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포지션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주식도 매수의 관점으로 보아야 하고 매도는 보류합니다. 다만, 상승에 공격적 베팅을 할 것인지 여부는 투자 성향이 얼마나 공격적이나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에 추가 베팅을 할 때는 연결봉 이외에도 추세선, 이동평균선, 스토캐스틱, MACD 같은 보조지표를 추가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알아두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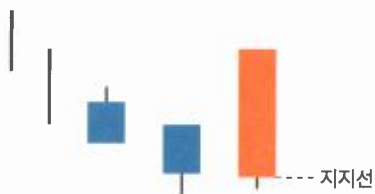
장악한다는 말은 기존의 세력을 반대세력이 완전히 제압했다는 의미이며, 제압의 기준은 꼬리가 아니라 몸통입니다.

1) 상승장악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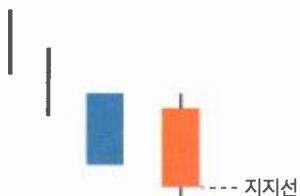
상승장악형 : 연이은 주가 하락 이후 강력한 양봉이 출현해 직전의 음봉을 덮은 경우입니다. 강력한 매수세력이 전날의 매도세력을 압도적으로 장악한 경우로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될 때 자주 출현합니다.



강한 상승장악형 : 하락추세에서 2~3일 종가를 모두 돌파하는 양봉이 출현하는 경우로 특히 5일 또는 1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할 때는 강력한 상승 전환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악한 상승장악형 : 하락추세에서 음봉 이후 출현한 양봉이 직전 음봉의 몸통을 완전히 덮지 못하고 반 이상 덮은 모양입니다. 이때도 일단은 상승 반전을 예상하지만 다음 봉을 확인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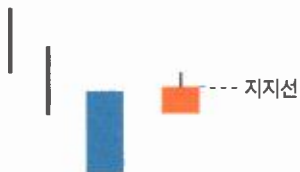


★ 알아두세요

긴 음봉 속에 양봉이 들어가 있는 모양이 마치 아기를 가진 여자의 모습과 같다고 해서 잉태형(Harami)이라고 합니다. Harami는 일본 고어로 잉태, 임신을 뜻합니다.

2) 강세잉태형

하락하던 주가에서 긴 음봉 이후에 출현한 작은 양봉이 직전 음봉의 몸 안에 들어가 있는 모양입니다. 작은 양봉이지만 종가가 전일 고가까지 상승하였으므로 매수세력이 시장을 주도했다고 보고 상승 전환으로 예측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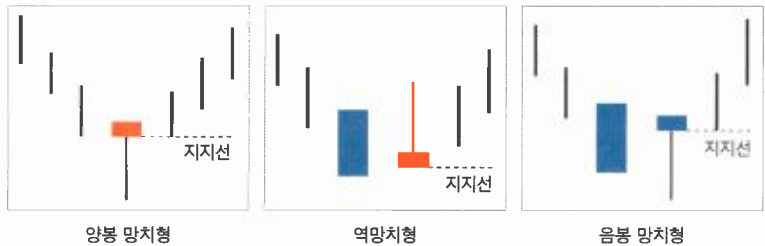
★ **알아두세요**

망치형은 꼬리가 몸통보다 2~3배 이상 길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3) 상승망치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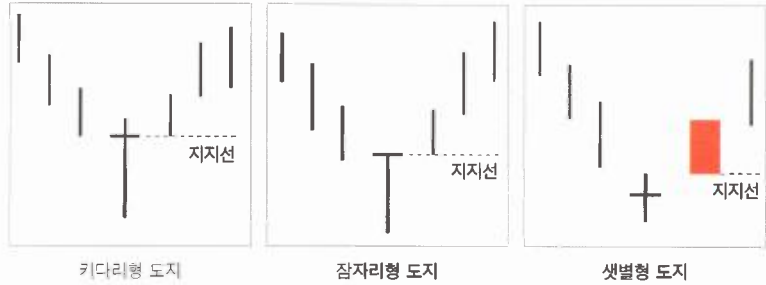
하락추세에서 긴 아래꼬리가 달린 짧은 양봉(또는 음봉)이 출현한 모양으로 종가가 전일의 음봉 종가보다 더 높은 곳에 있어야 합니다. 망치같이 생겼다고 해서 망치형(Hammer)이라 부르고 중요한 상승 전환으로 간주합니다.

양봉이 이상적이지만 음봉일 경우도 있고 망치를 거꾸로 둔 것과 같은 역망치형도 있지만 모두 종가가 전일의 종가 위에 위치해 있어야 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4) 상승도지형**

하락추세에서 전일의 종가가 지지되는 십자(+) 모양의 봉을 도지라 합니다. 도지가 발생했다는 것은 그간 시장을 주도해 온 매도세력이 그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뜻이므로 상승 전환의 가능성으로 봅니다.

아래꼬리가 긴 잠자리형 또는 키다리형일수록 상승 전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봅니다. 그러나 상승 도지는 하락 도지에 비해 신뢰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점을 감안해 다음 봉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5) 적삼병(赤三兵)

하락추세에서 음봉 또는 도지 발생 후 저점과 고점을 높이는 3개의 양봉이 연속해서 출현하는 경우를 적삼병(赤三兵)이라고 하고, 강력한 상승 전환으로 간주합니다. 특히 적삼병 출현으로 5일 또는 1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한 경우에는 더욱 신뢰성이 높습니다. 적삼병 후 흑일병이 출현하는 경우가 흔히 있는데 이때가 매수시점이 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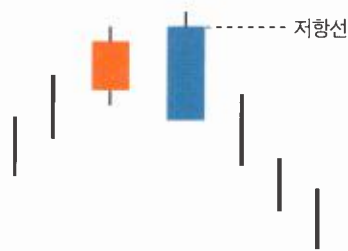


2. 하락반전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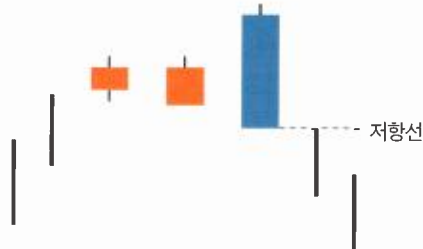
상승하던 주가 흐름 중에 다음과 같은 하락반전형 연결봉이 출현하면 주가는 하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파생상품의 경우 상승에 베팅해 둔 투자자라면 리스크 관리를 위해 일단 포지션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주식의 경우도 매도의 관점에서 보아야 하고, 매수는 보류하고 시세를 좀더 관망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하락장악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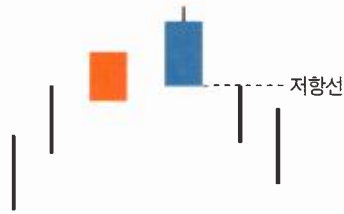
하락장악형 : 상승추세에서 강력한 음봉이 출현하여 직전의 양봉을 덮은 경우입니다. 강력한 매도세력이 전날의 매수세력을 압도적으로 장악한 경우이므로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될 때 자주 출현합니다.



강한 하락장악형 : 상승추세에서 2~3일 전 종가를 모두 하락 돌파하는 음봉이 출현할 때, 특히 5일 이동평균선을 하락 이탈한 경우에는 하락 전환의 확률이 높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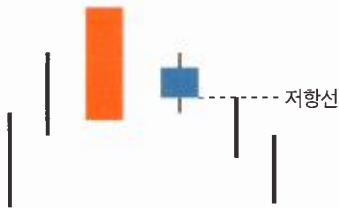


약한 하락장악형(흑운형) : 양봉 이후 나타난 음봉이 전일의 양봉을 부분 장악한 경우로 흑운형(검은 구름 모양)이 반복해서 나타나면 새로운 고가를 유지할 힘이 없음을 나타내주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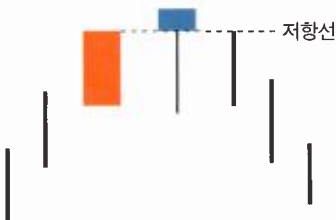
2) 약세임태형

상승추세에서 긴 양봉 이후에 직전 양봉 하단부에 음봉이 출현한 형태입니다. 매도세력이 전날의 매수세력을 압도한 형국이므로 하락 전환을 예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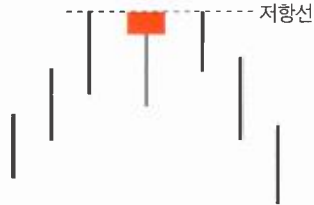


3) 하락망치형(일명 교수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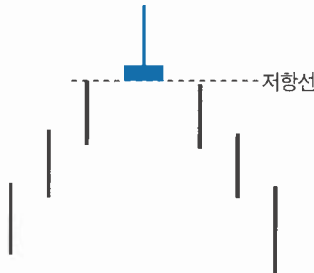
교수형 : 상승장 마지막에 아래꼬리가 길게 달린 음봉이 출현해 그 몸통이 전일 종가 위에 있는 경우입니다. 교수형 종가는 저항선이 됩니다.



양봉 망치형 : 상승추세에서 양봉 망치형이 나타나도 하락장을 예상합니다. 다만 다음 봉을 확인하여 망치형 종가가 저항선이 될 때 하락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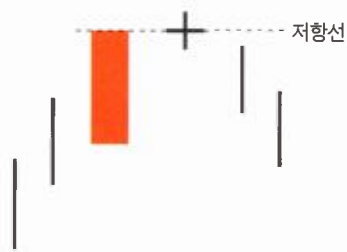
역망치형 : 상승장 마지막에 위꼬리가 길게 달린 음봉이 출현한 형태로 망치를 거꾸로 세운 모양이라고 해서 역망치형이라고 합니다. 하락장악형과 함께 하락 반전될 확률이 높은 패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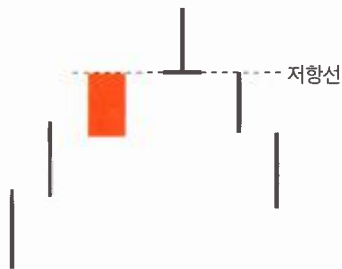
4) 하락도지형

도지형 : 상승추세에서 전일 긴 양봉의 종가와 같은 가격에서 도지가 출현하고 도지 발생 다음날 주가가 저항선 아래로 하락할 때 하락 신호로 봅니다. 전일의 큰 폭 상승 이후 도지가 발생했다는 것은 매수세력이 더 이상 가격을 올리기에는 힘이 달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체로 하락 도지형이 상승 도지형보다 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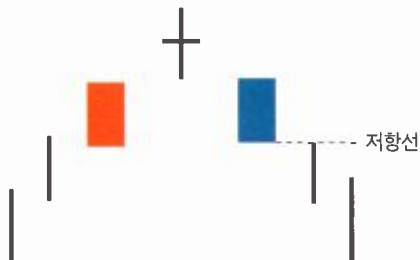
되가 높습니다.



비석형 도지 : 도지가 저항선이 되는 경우 하락을 예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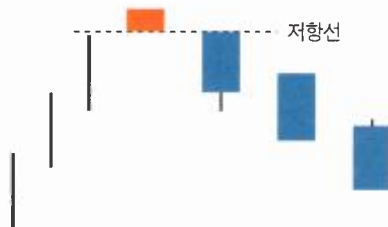
저녁별형 도지 : 전일의 양봉 증가보다 더 높은 위치에 출현한 도지를 저녁별형 도지라 합니다. '양봉 출현 → 양봉보다 높은 도지 발생 → 음봉 출현' 순으로 저녁별이 형성됩니다. 저녁별이 뜨고 나면 밤이 깊어지는 이치와 같이 주가는 하락한다고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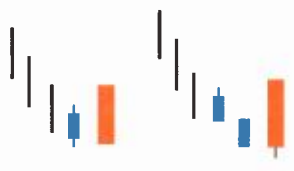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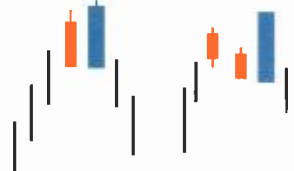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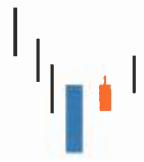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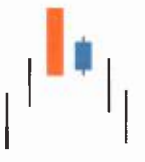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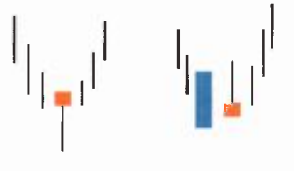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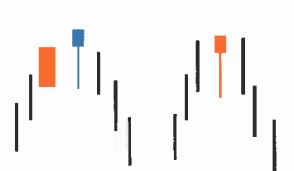
5) 흑삼병(黑三兵)

상승추세에서 양봉 또는 도지 발생 이후 고점과 저점을 낮추는 3개의 음봉이 연속해서 출현하는 경우를 흑삼병(黑三兵)이라 하고, 추세 하락의 중요한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력한 음봉이 3개나 연속해서 출현한다는 것은 매도세력이 매수세력을 압도하였다는 의미입니다.

흑삼병 출현으로 5일 또는 10일 이평선을 하락 돌파하는 경우엔 하락에 대한 신뢰도가 더욱 높습니다. 또한 흑삼병 후 적일병이 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매수보다 매도의 관점이 더욱 유효합니다.



● 추세반전형 연결봉 정리

상승반전형	하락반전형
상승반전형 1 상승장악형  상승장악형 강한 상승장악형 약한 상승장악형	하락반전형 1 하락장악형  하락장악형 강한 하락장악형 약한 하락장악형
상승반전형 2 강세잉태형 	하락반전형 2 약세잉태형 
상승반전형 3 상승망치형  양봉 망치형 역망치형 음봉 망치형	하락반전형 3 하락망치형  교수형 양봉 망치형 역망치형
상승반전형 4 상승도지형  키다리형 잡자리형 셋발형	하락반전형 4 하락도지형  도지형 비석형 저녁별형
상승반전형 5 적삼병 	하락반전형 5 흑삼병 

3. 추세지속형

다음과 같은 모양의 봉이 출현하면 추세가 이어진다고 봅니다. 이 경우 파생상품과 현물 주식 모두 추세에 순응하는 포지션은 계속 보유하고 추세에 맞는 포지션을 추가로 설정합니다. 추세에 역행하는 포지션이라면 정리하여 현금화해 두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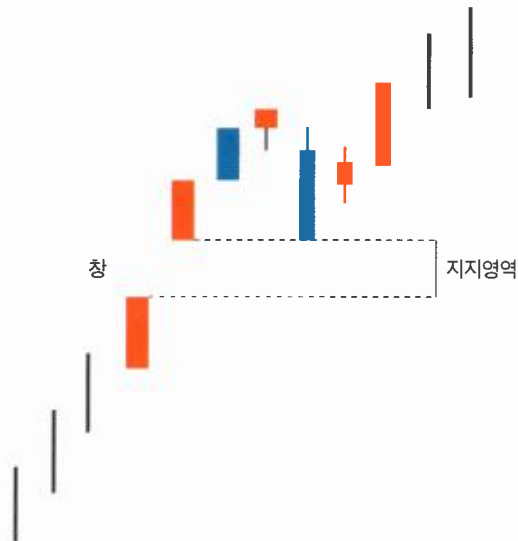
1) 갭(GAP)

갭이란 인접한 두 개의 봉에서 한 봉의 저점이 다른 봉의 고점보다 높아 차트에 빈 공간이 생기는 경우를 말합니다. 갭은 매수와 매도 주문이 갑자기 불균형을 이루어 급등락할 때 발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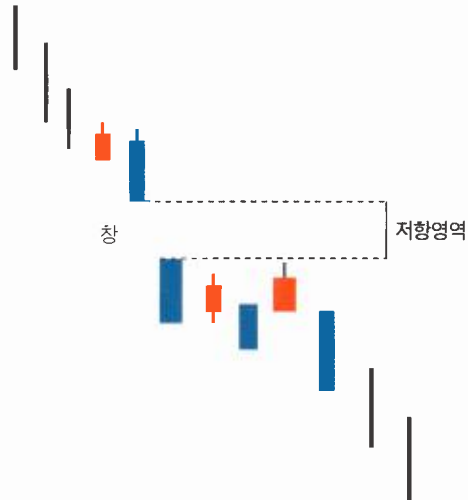
상승지속갭 : 매수세력이 매우 강하거나 돌발 호재가 발생했을 때 출현하며 상승추세가 지속된다고 봅니다. 상승갭의 공간(창)은 지지영역 역할을 하며, 지지영역이 돌파되면 추세가 반전된다고 봅니다.

★ 알아두세요

차트에 생긴 빈 공간을 창문이 열려 있는 모습과 같다고 해서 창(window)이라고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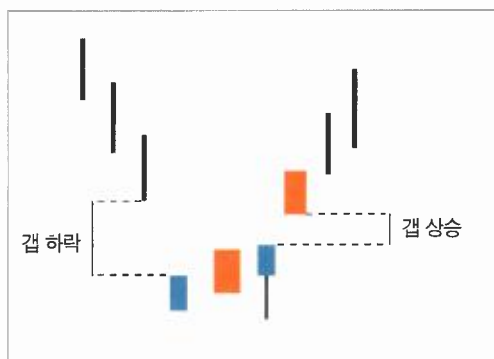


하락지속갭 : 매도세력이 매우 강하거나 돌발 악재가 발생했을 때
출현하며 하락추세가 지속된다고 봅니다. 하락갭의 공간(창)은
저항영역 역할을 하며, 저항영역이 돌파되면 추세가 반전된다고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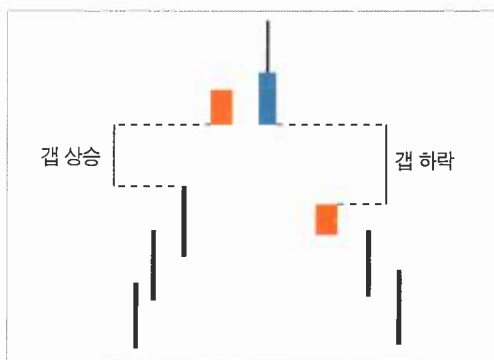


섬꼴 바닥형 : 주가가 하락갭을 만들며 떨어졌다가 한두 개의 봉이 나타난 뒤에 다시 상승갭을 형성하며 올라갈 때 만들어집니다. 섬이 바다에 둘러싸인 것처럼 한두 개의 봉이 갭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섬꼴'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섬꼴 바닥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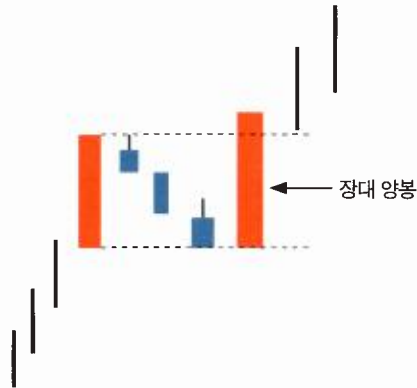
섬꼴 천정형 : 주가가 상승갭을 만들며 상승하였다가 한두 개의 봉이 나타난 뒤에 다시 하락갭이 출현하며 주가가 하락할 때 만들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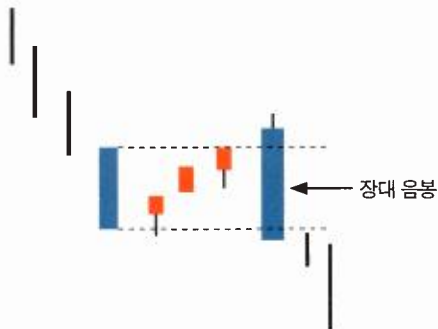
섬꼴 천정형

2) 상승삼법형과 하락삼법형

상승삼법형 : 긴 양봉 출현 이후 작은 음봉 3개(또는 2~4개)가 출현하고 이어 긴 양봉이 직전 양봉을 돌파하는 형태로, 상승이 지속된다고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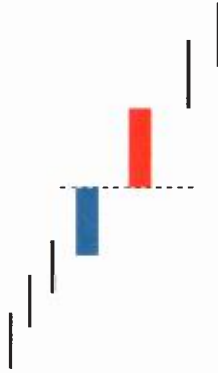


하락삼법형 : 긴 음봉 출현 이후 작은 양봉이 2~4개 나타나고 이어 또다시 긴 음봉이 출현하여 직전 음봉을 하락 돌파하는 형태로, 하락이 지속된다고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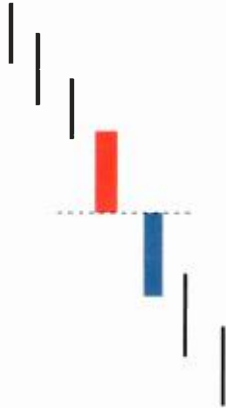


3) 상승격리형과 하락격리형

상승격리형 : 상승이 진행되다가 음봉이 출현한 후 음봉 시가에서
재차 양봉이 출현하면서 상승을 이어가는 경우입니다.



하락격리형 : 하락이 진행되다가 양봉이 출현한 후 양봉 시가에서
재차 음봉이 출현하면서 하락을 이어가는 경우입니다.



예제 다음 그래프는 2010년 1월부터 6월까지의 KOSPI 일봉입니다. 그래프에서 봉의 모양을 보고 추세 반전형 봉과 갭을 찾아보세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복습한다는 자세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1 | 2월 5일 ①번 하락갭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2월 9일 음봉을 덮는 긴 양봉이 출현하여 주가는 상승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연이어 2월 11일 긴 양봉이 출현한 이후 갭을 돌파하였습니다. 하락갭을 돌파하였으므로 주가는 상승 반전되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 2 | ②번 상승갭은 이를 후 발생한 음봉으로 돌파되어 주가는 소폭이지만 다시 하락하였습니다.
- 3 | 긴 음봉 아래에 발생한 도지(2월 26일)로 주가는 상승을 이어갔고, ③번 지속갭이 출현하였습니다.
- 4 | 4월 26일 고점에서 4월 27일 도지 발생, 그리고 ④번 하락갭이 발생한 데 이어 4월 30일에는 저녁별형 도지가 출현하여 주가는 하락으로 전환되었습니다.
- 5 | ⑤번 하락지속갭 발생
- 6 | ⑥번 하락갭은 돌파되었으나 직전의 ⑤번 하락갭을 돌파하지 못하였으므로 다시 하락으로 전환
- 7 | 5월 25일 긴 꼬리 음봉에 이어 전형적인 상승반전형인 양봉 망치형이 출현(5월 26일)하여 주가는 상승으로 전환되었습니다.
- 8 | ⑦번 하락갭은 바로 돌파되어 상승을 이어갔고, ⑧번 상승갭은 상승이 지속됨을 나타낸 것입니다.

예제 아래 그래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투자심리가 극도로 불안정하여 주가가 크게 출렁이던 때의 그래프입니다. KOSPI지수가 최저 1,537포인트에서 최고 1,901포인트까지 오르는 등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무려 364포인트(등락률 23.7%)나 등락을 보이고 있어 봉을 공부하는 데 참고가 될 만합니다. 아래 그래프에서 봉의 형태를 찾아보고 주가 흐름을 예측해 보세요.



KOSPI 일봉 그래프(2008. 2. 28~2008. 6. 12)



- 1 | ①번 갭 하락 후 저항영역인 갭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고 주가는 하락을 하고
- 2 | 하락형인 흑삼병(②)이 출현하여 주가는 하락하였습니다.
- 3 | 3월 17일과 18일 상승반전형인 음봉 망치형(③)과 양봉 망치형(④)이 연이어 출현하여 주가가 반전될 것이라고 사인을 보내주었습니다.
- 4 | ⑤번에서 두 개의 도지가 발생했습니다만 그 뒤를 이어 상승갭(⑥)이 출현하였고 ⑥번 상승갭은 이후에도 돌파되지 않아 지지영역 역할을 하여 주가 상승이 이어졌습니다.
- 5 | ⑧번 상승갭은 지지영역이 돌파되었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여야 했음에도 섬꼴 모양으로 추가 상승하였습니다.
- 6 | 그러나 곧바로 하락반전형인 ⑨번 흑삼병의 출현과 함께 주가는 하락으로 반전되었습니다.

7 하락하던 주가에 반등이 나왔지만 '양봉 → 도지 → 음봉'이라는 하락반전형 도지(⑩) 출현으로 주가는 다시 하락하였습니다.

8 ⑪번 하락장악형 출현으로 주가 하락이 지속되었습니다. 이후 주가는 ⑧번 갭과 ⑦번 갭의 지지영역을 차례로 하향 돌파하면서 하락을 지속하였습니다.

9 ⑫번 도지가 출현하였지만 다음날 음봉이 출현하여 주가 하락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확인되었듯이 도지를 해석할 때는 도지 하나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다음에 나타나는 봉을 확인하고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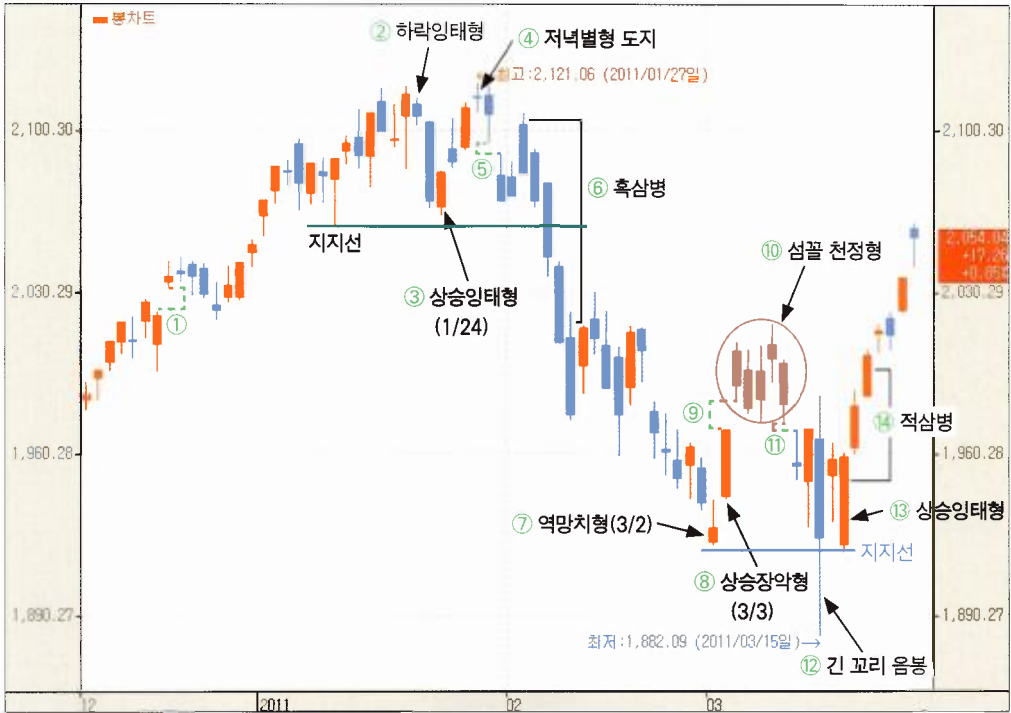
★ 알아두세요

이상에서 KOSPI 일봉 그래프에 나타난 갭과 추세반전형 봉을 알아보았습니다. 봉은 단기 예측에 유용하지만, 추세를 예측하려면 반드시 추세선과 이동평균선도 함께 확인해 보아야 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제 다음의 KOSPI지수 그래프를 보고 봉의 종류 중 상승갭과 하락갭 그리고 추세반전형과 추세지속형 등을 찾아보세요. 지금까지 배운 여러 유형의 봉을 복습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집중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KOSPI 일봉 그래프(2010. 12. 17~2011. 3. 25)



- 1 | ①번 상승갭이 발생한 후 지지영역이 완벽하게 돌파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가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 2 | ②번 하락잉태형(1월 20일)이 출현하여 다음날 긴 음봉의 하락을 보였으나
- 3 | 1월 24일 상승잉태형(③)이 출현하여 주가가 상승하였습니다.
- 4 | ④번 저녁별형 도지(양봉 → 도지 → 음봉) 출현으로 주가 하락
- 5 | ⑤번 하락갭 이후 ⑥번에서 긴 음봉이 연속해서 5개나 출현하는 전형적인 흑삼병이 출현하여 주가 하락
- 6 | ⑦번 바닥에서 역망치형(3월 2일)이 출현하고 이어 ⑧번 상승장악형의 긴 양봉이 나타나 주가는 상승으로 전환되었습니다.
- 7 | ⑩번 섬꼴 천정형(⑨번 상승갭과 ⑪번 하락갭)의 패턴이 출현하였으나 주가가 바닥권에서 나타났으므로 완전한 천정형으로 볼 수가 없어 주가는 다시 하락하였습니다.
- 8 | ⑫번 긴 꼬리 음봉(3월 15일)과 ⑬번 상승잉태형 출현으로 주가는 상승으로 전환되었습니다.
- 9 | ⑭번 저점과 고점을 높이는 적삼병의 출현과 함께 주가는 상승이 이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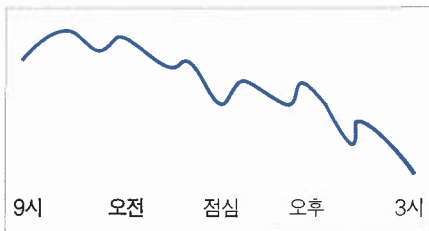


1. 시가와 종가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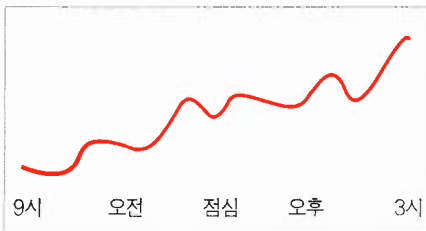
종가가 시가보다 올라가면(前弱後強) 시가에서 시작된 전투에서 매수세력이 매도세력보다 강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종가가 시가 이하이면(前強後弱) 시가에서 시작된 전투에서 매도세력이 매수세력보다 더 강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봉의 경우 시가는 다수 투자자들의 기대심리가 작용한 결과인 반면, 종가는 하루 동안의 전투 결과를 종합해 말해 주는 것이므로 다음날 주가 예측에 시가보다 더 많은 정보를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전강후약형(前強後弱形)



■ 전약후강형(前弱後强形)



하루의 주가 흐름이 전강후약형이면 → 다음날 주가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하루의 주가 흐름이 전약후강형이면 → 다음날 주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2. 오늘의 시세가 신고가 또는 신저가인지 확인해 봅니다.

신고가는 최근 일정 기간 동안의 최고가를 뛰어넘는 높은 가격을 의미하며, 매수하려는 세력이 가격이 더 올라갈 것을 기대하고 있고 투자자들 또한 대부분이 수익을 내고 있어 매물이 적은 경우에 나타납니다. 따라서 신고가의 경우엔 '주가가 올랐으니 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추가로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하여야 합니다.

반대로 신저가는 최근 일정 기간 동안의 제일 낮은 가격보다 더 떨어진 경우이므로 추가 하락 심리가 반등 심리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고가 → 일단 추가 상승의 관점

신저가 → 일단 추가 하락의 관점

3. 거래량을 확인해 봅니다.

거래량이 수반되는 상승 또는 하락이어야 세력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많다는 것은 매수세력과 매도세력 간에 공방이 치열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거래량이 적다는 것은 쌍방간의 공방이 소원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적은 거래량으로 가격이 등락할 경우 반락 또는 반등도 적은 거래량으로 쉽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소량의 거래로 주가가 등락할 경우에는 그만큼 가격변화에 대한 신뢰가 낮다고 보는 것입니다.

거래가 많은 봉 → 신뢰가 높다.

거래가 적은 봉 → 신뢰가 낮다.

주가 파동 이론

주가는 그 속성상 추세에 따르면서 파동을 그리며 움직입니다. 따라서 독립된 몇 개의 봉만으로 투자판단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봉 하나하나의 추세나 파동 안에서 의미를 가지기 때 문입니다. 물론 추세나 파동의 변화도 봉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서로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추세나 파동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봉의 의미를 정확 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파동이란 일정한 기간 동안 고점과 저점을 그리며 반복적으로 가격이 변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가가 상승할 때는 상승파동을 반복적으로 그리며 올라가고, 주가가 하락할 때에는 하락파동을 반복적으로 그리며 떨어집니다.

파동의 3대 요소 — 패턴, 비율, 시간

주가가 움직일 때 그리는 파동은 제멋대로 그려지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패턴을 가지며, 등락의 폭과 길이에 비율이 존재하고, 시간적인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① 패턴(Pattern) : 파동의 형태를 말합니다.

② 비율(Ratio) : 상승파동의 폭과 조정파동의 폭의 비율을 말하며, 이것을 이용하면 상승폭과 하락폭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승파동이 진행되고 있는데 조정파동의 폭이 작다면 시장이 매우 강하다는 것이고, 크다면 시장이 약세라는 것입니다.

③ 시간(Time) : 파동간 시간적인 길이를 말하며 패턴과 비율을 확인하는 데 이용합니다. 차트에서 세로축(y축)은 주가, 가로축(x축)은 시간(기간)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주가의 등락폭이 시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승파동일 때의 매매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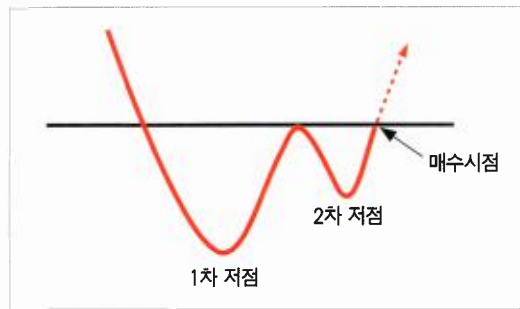


상승파동은 상승(1파), 조정(2파), 상승(3파)으로 움직이는 것이 기본 형태입니다. 주가가 상승 1파로 오르면 그동안 손해를 보고 있던 투자자의 경우 본전 생각에 주식을 매도합니다. 또한 이익을 보고 있는 투자자도 이익실현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겨 주식을 매도하므로 주가는 소폭 하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조정파는 적극적인 매도가 아니기 때문에 상승파에 비해서 폭이 작고 기울기도 완만합니다. 조정폭은 작고 완만할수록 상승세력이 강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2파인 조정파는 상승 1파의 1/3 또는 1/2, 심할 경우엔 2/3까지 하락합니다. 그러나 1파의 저점을 깨지는 않습니다. 조정파가 1파의 저점을 깬다면 상승파동에 대하여 의심을 가지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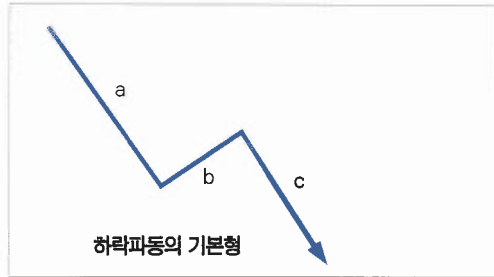
매매요령 : 상승파는 폭이 크고 긴 반면에 조정파는 폭이 작고 완만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주가가 조정중일 때는 적극적인 매수의 관점으로 보고, 주가가 상승할 때는 이익을 조기에 실현하지 말고 가능한 한 매도시점을 늦추는 것이 좋습니다.

매수시점 : 하락하던 주가의 저점이 높아질 때 두번째로 높아진 저점에서 양봉이 출현하거나 5일 이동평균선이 상승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매수합니다.



1차 저점일 때 매수하기 어려운 것은 1차 저점이 파동의 최저점 인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번째 저점에서는 앞의 저점이 바닥이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 매수가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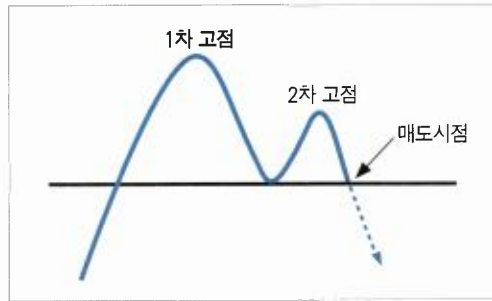
하락파동일 때의 매매요령



하락파동은 하락(a파), 반등(b파), 하락(c파)으로 움직이는 것이 기본 형태입니다. 주가가 하락하면 투자자 중 일부는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기 위해 추가 매수를 하기도 하고, 또 일부는 단기 반등을 이용해 수익을 내고자 신규로 매수하여 주가는 일시 반등을 합니다. 반등파는 주된 파인 하락파에 비해 폭이 작고 기울기도 완만합니다. 반등폭은 하락폭의 1/3 또는 1/2, 강할 경우엔 2/3까지 반등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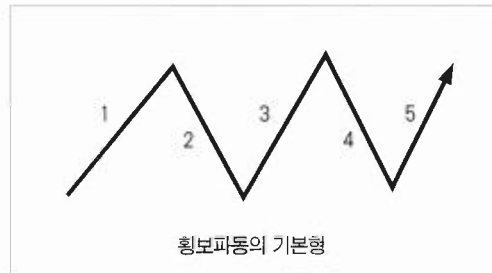
매매요령 : 하락파 a, c는 그 폭이 크고 긴 반면에 반등파인 b는 폭이 작고 완만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반등할 때는 매수의 관점으로 보지 말고 적극 매도하여야 하며 단기 반등을 노리고 매수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매도시점 : 상승하던 주가의 고점이 낮아질 때, 낮아진 고점에서 큰 음봉이 나타나거나 5일 이동평균선이 하락으로 전환될 때 매도합니다.



1차 고점일 때 매도하기 어려운 것은 1차 고점이 파동의 정점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차 고점은 앞의 고점이 파동의 정점이었음을, 다시 말해 주가의 하락을 확인해 주기 때문에 매도가 가능합니다.

횡보파동일 때의 매매요령



횡보파동은 1, 2, 3, 4, 5과처럼 비슷한 폭과 기울기로 반복하여 움직이는 것이 기본 형태입니다.

매매요령 : 횡보파에서는 매매를 하지 말고 파동이 상승 또는 하락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렸다가 새롭게 형성된 방향에 따라 매

매하여야 합니다. 박스권을 설정하여 고점 매도나 저점 매수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파동의 연장(Extension)

파동의 기본 형태는 3파로 구성된 N형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꼭 3파만 그려지는 것은 아니고 4파, 5파 또는 6파 이상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엘리엇 파동이론의 경우는 상승 5파와 하락 3파를 하나의 완성된 파동으로 봅니다. 물론 몇 개의 파인지 세어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보다는 주가가 상승파동 중에 있느냐 하락파동 중에 있느냐를 아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것을 알려면 앞으로 배울 추세선, 이동평균선과 MACD 같은 보조지표를 활용하면 됩니다.

잠깐만요

많이 떨어진 종목이 유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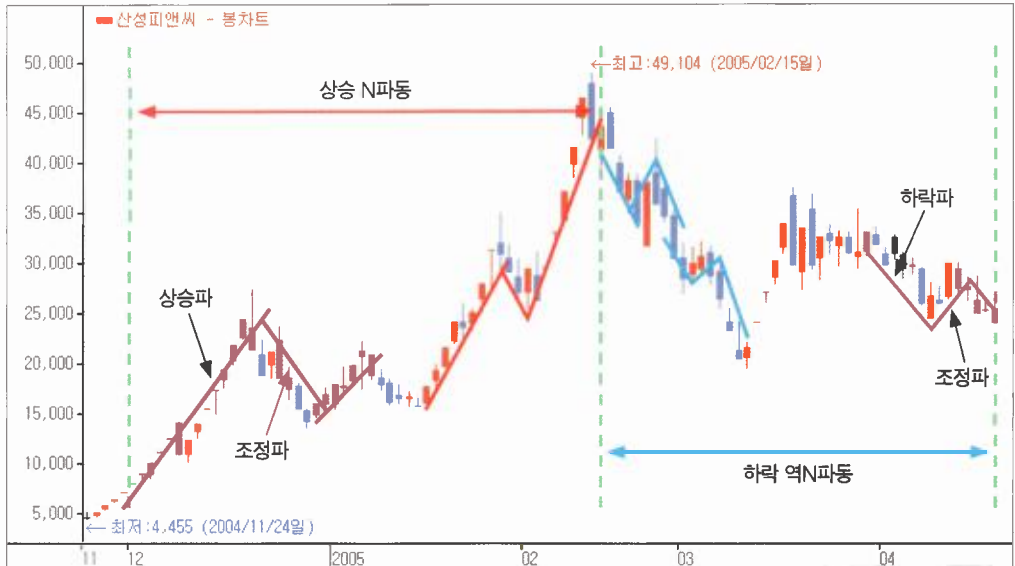


투자자들 중에는 주가가 많이 떨어진 그래프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가가 많이 떨어진다는 것은 기업가치에 비해 그동안 주가가 터무니없이 많이 올라 있었거나, 시장에 알려져 있지 않던 악재가 새롭게 노출된 경우라고 보아야 합니다.

주가 파동 이론에 의하면 조정폭이 적을수록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그 폭도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계단에서 떨어진 사람은 금방 몸을 추슬러 걸을 수 있지만 고층에서 떨어진 사람은 중상을 입어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과 같은 이치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업 내용과 관계없이 등락하는 부실주와 테마주의 경우에는 하락폭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주식을 매입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대형 우량주는 하락폭이 클 경우 좋은 매수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래프는 줄기세포 테마 관련주인 삼성피앤씨(016100)의
일봉 그래프입니다(현재는 화장품 제조회사로 업종 전환을 하였으며,
사명도 삼성엘엔에스로 바뀌었습니다).



삼성피앤씨 일봉 그래프(2004. 11~2005. 4)

상승 N파동을 보면 상승파는 폭이 클 뿐만 아니라 길어도 긴 반
면에 조정파는 완만하고 짧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락 역N파동을 보면 하락파는 폭이 크고 긴 반면 반등파
는 상승파동 때의 조정파보다 더 짧고 완만하다는 것을 알 수 있
습니다.

주가 파동 이론에 따른 매매전략을 살펴보면, 위의 차트에서 상
승파동일 때(2004년 11월~2005년 2월 중순)는 매수는 공격적으로
하고 매도는 자제하여야 합니다. 단기매매를 할 경우에도 물량

을 보유하면서 일부만 매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에 하락파동일 때(2005년 2월 중순 이후)는 매도는 적극적으로 하고 매수는 자제하여야 합니다. 특히 손절매도도 과감하게 하여야 합니다. 단기매매를 할 경우에도 목표수익률을 낮추고
예상이 빗나갈 경우 바로 현금화하여야 합니다.



지구본이 기울 이유

어느 중학교에 시찰을 나온 장학사가 지리수업을 하고 있는 교실에 들어갔다. 마침 학생들은 각자 책상 위에 지구본을 하나씩 놓고 공부를 하고 있었다. 장학사는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한 학생에게 다가가 질문을 했다.

장학사: “이 지구본이 왜 이렇게 기울었지?”

중학생: “제가 안 그랬는데요.”

그때 담임선생이 당황해하며 말했다.

“아, 그거 사올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교장선생님도 한마디 거들었다.

“중국산이라 그런가....”

장학사: “.....”

봉차트는 양초같이 생겼다고 하여 흔히 캔들 차트라고도 하며 차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차트입니다. 그래프에서 봉의 의미를 알아보기 전에 현재 주가가 상승파동 중에 있는지, 하락파동 중에 있는지, 아니면 횡보파동 중에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주가가 어느 파동 중에 있는가에 따라 봉의 의미를 달리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여러 개의 봉을 연결하여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상승파동을 그릴 때는 양봉이 길고 음봉은 짧습니다. 반면에 주가가 하락파동을 그릴 때는 음봉이 길고 양봉은 짧습니다.



추세 분석을 이용한 매매방법

주가는 일정 기간 같은 방향으로 추세를 이루며 움직이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가의 성질을 이용해 미래 주가를 예측하는 기법이 추세 분석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추세 분석을 이용한 매매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 알아두세요

추세선은 그래프에 자동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가 직접 선긋기 도구 등을 이용해 그려보아야 합니다. HTS를 이용할 경우에는 소나무 가지처럼 생긴 아이콘(🌲)을 누르면 컴퓨터가 대신 추세선을 그려줍니다.

추세 분석이란?

주가는 일정 기간 같은 방향으로 추세를 형성하며 움직이려는 속성이 있습니다(Price moves in trends). 이는 차트에 추세선(Trend Line)을 그려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제멋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주가도 추세선을 그려보면 상승, 하락, 횡보 중 어느 하나의 추세선을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가의 성질을 이용해 향후 주가를 예측하는 기법이 추세 분석입니다.

추세는 한번 형성되면 상당 기간 지속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한 쪽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것은 아니고 어느 시점에 가서는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게 마련입니다. 이를 이용하여 투자자는 상승 추세선으로 확인되는 시점에 매수하고, 추세가 반전되는 시점에 매도하면 가장 높은 투자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추세 분석은 이동평균선 및 거래량 분석과 함께 주가 분석기법 중 가장 기본이 되는 분석으로서 흔히 기본적 분석이라고 합니다. 추세에 관해서는 오래전부터 '추세에 편승하여 매매하라'

★ **알아두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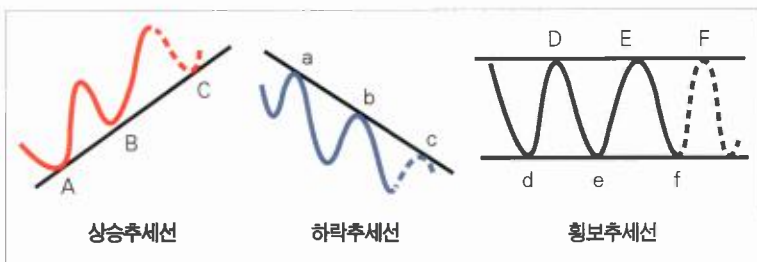
추세선을 그릴 때 기준이 되는 가격은?

추세선을 그릴 때 기준으로 삼는 가격은 증가가 아니라 장중 고점과 저점을 형성한 가격, 즉 고가와 저가입니다. 봉의 몸통뿐만 아니라 꼬리도 주가가 지나간 자국이므로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추세의 이탈 여부를 판단할 때는 증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추세에 역행하는 매매를 하지 마라’와 같은 투자조언이 금과옥조로 통하고 있습니다.

추세선 그리는 방법

추세선은 상승추세선, 하락추세선, 횡보추세선의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림 4-1) 추세선의 3가지 유형

상승추세선은 주가의 고점과 저점이 점차 높아질 때 의미 있는 두 개 이상의 저점을 연결하여 만듭니다. 위 그림에서 A, B 두 저점을 연결한 것이 상승추세선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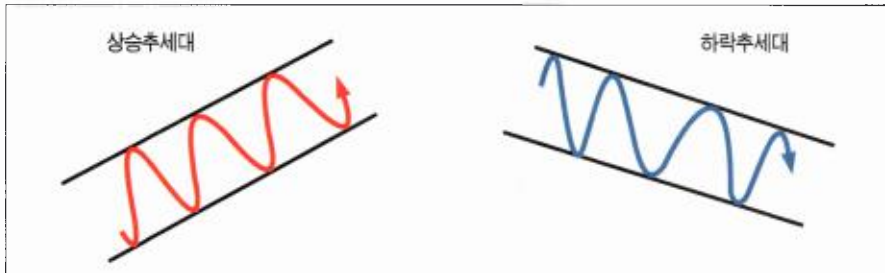
하락추세선은 주가의 고점과 저점이 점차 낮아질 때 의미 있는 두 개 이상의 고점을 연결하여 만듭니다. 위 그림에서 a, b 두 고점을 연결한 것이 하락추세선입니다.

횡보추세선은 주가의 고점과 저점이 큰 변화 없이 횡보하면서 움직일 때를 말하며 고점과 고점 그리고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여 만듭니다.



추세대란?

고점과 고점을 이은 선과 저점과 저점을 이은 선이 평행하여 하나의 채널을 만들 때 이를 추세대라고 합니다.



〈그림 4-2〉 상승추세대와 하락추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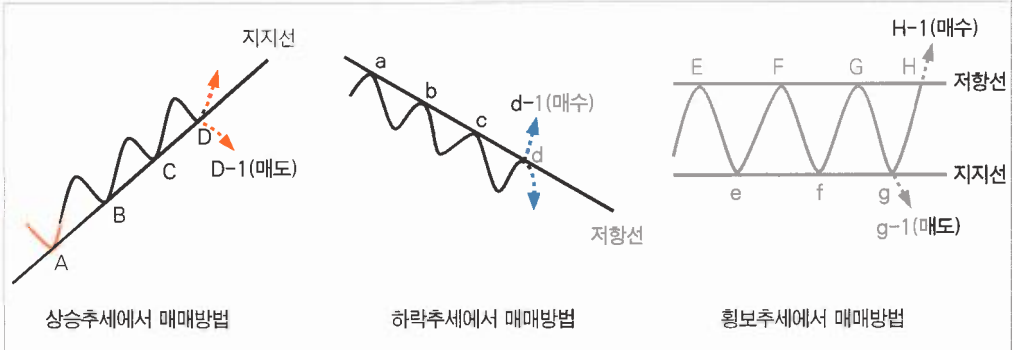
수익률을 높이는 추세대 활용 요령

주가는 추세대의 밴드 범위 내에서 움직이므로 밴드의 상단에서는 매도하고 하단에서는 매수합니다. 그러나 상승추세대에서는 가능한 한 매도는 보유 주식 중 일부만 하고, 반대로 매수는 적극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단기매매를 하다 물량만 뺏기는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락추세대에서는 매도는 적극적으로 하되 단기 차익을 목적으로 한 매매는 자제하여야 합니다. 단기 차익을 목적으로 했다가 큰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세 분석을 이용한 매매방법 4가지

1. 추세선을 이용한 매매방법



〈그림 4-3〉 추세선을 이용한 매매방법

상승추세에서 매매방법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을 때 상승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이때 가격의 저점과 저점을 이은 선을 상승추세선이라고 합니다. 상승추세선은 가격이 이 선까지 내려오면 다시 매수세력에 의해 상승하여 지지가 되므로 지지선이 됩니다.

가격이 상승추세에 있는 한 매수의 관점에서 보고 〈그림 4-3〉에서 가격이 A, B, C, D에 내려오면 매수합니다. 상승추세인 경우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다시 살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자칫 물량을 뺏길 우려가 있으므로 매수는 적극적으로, 매도는 소극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주가가 끝없이 상승만을 할 수는 없습니다. 상승추세이던 가격이 추세선을 하향 이탈하면 일단 주식을 매도해 놓고 보

아야 합니다. <그림 4-3>의 D에서 가격이 상승하지 않고 'D-1'처럼 하락 이탈하면 지지선이 무너진 것이므로 상승추세도 무너진 것이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때에 따라 일시적으로 추세선을 벗어났다가 다시 추세선을 따라 상승을 이어가는 일종의 속임수 추세 이탈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도 1~2일 후 바로 상승추세선에 복귀하는 경우에만 속임수 이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락추세에서 매매방법

고점과 저점이 점차 낮아지며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을 때 하락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이때 가격의 고점과 고점을 이은 선을 하락추세선이라 하고, 하락추세선은 가격이 이 선까지 오르면 매도세력의 매물에 막혀 다시 하락하므로 저항선이라 합니다.

가격이 하락추세에 있는 동안은 매도의 관점에서 보고 <그림 4-3>에서 a, b, c, d에 닿을 때마다 매도합니다. 하락추세에서 주식을 매수하여 단기에 수익을 실현하겠다는 것은 성공하기 어려운 어리석은 방법일 뿐입니다. 다만 선물, 옵션, ELW 같은 파생상품의 경우엔 하락에 베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가격은 그 속성상 언젠가는 하락을 멈추고 상승으로 전환하게 마련입니다. 그때가 바로 <그림 4-3>의 'd-1'과 같이 추세선을 상향 돌파할 때입니다. 하락하던 가격이 추세선을 상향 돌파하면 주식을 매수하고, 하락에 베팅해 둔 파생상품은 빨리 정리하고 공격적인 투자를 원한다면 상승에 베팅하여야 합니다.

횡보추세에서 매매방법

주가가 일정 기간 박스권 안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때입니다. 가격이 횡보하는 이유는 매수세력과 매도세력이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격이 횡보하는 동안에는 수익을 내기 어려우므로 투자자들도 움직이지 말고 관망해야 합니다. 가격이 상승할지 하락할지 차트가 신호를 보내지 않고 있는데 투자자가 성급하게 미리 결정하는 것은 좋은 투자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횡보하던 가격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박스권을 탈피하고 상승하거나 하락하게 마련입니다. 그때 <그림 4-3>의 'H-1' 처럼 상승 돌파하면 매수, 'g-1' 과 같이 하락 이탈하면 매도합니다.

장기간 횡보하던 가격이 변동을 보이기 시작하면 상승 돌파의 경우에는 고점에 물린 매물이 없기 때문에(있다 하더라도 급한 매물은 이미 소화되었기 때문) 가볍게 올라갈 수 있고 상승폭도 큰 경우가 많습니다.

추세선을 이용한 매매방법 요약정리

1. 상승추세일 때 → 추세선에 닿을 때마다 매수한다.
그러나 추세선 하락 이탈시 매도
2. 하락추세일 때 → 추세선에 닿을 때마다 매도한다.
그러나 추세선 상승 돌파시 매수
3. 횡보추세일 때 → 관망한다.
그러나 저항선 돌파시 매수, 지지선 하락 이탈시 매도

예제 아래 그래프는 KOSPI 일봉 그래프입니다. 추세선을 그려보고 매매시점을 판단해 보세요.



KOSPI 일봉 그래프(2010. 2~2011. 3. 25)



추세선을 그려보면 다수의 추세선이 나오는데 ①~④번까지는 중기추세이고 나머지는 단기추세입니다. 단기추세는 중기추세 속에서도 여러 개 발생합니다.

상승추세는 저점과 고점을 높이면서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하락추세는 저점과 고점을 낮추면서 가격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상승추세에서는 매수의 관점에서, 하락추세에서는 매도의 관점에서 대응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승추세선을 이탈할 경우, 즉 그래프에서 a, b, c, d, e, f, g에서는 하락으로 전환되었으므로 매도합니다. 반대로 가격이 하락추세선을 상향 돌파하는 경우, 즉 그래프에서 A, B, C, D, E, F, G에서는 매수합니다.

상승추세선 이탈 → 매도(a, b, c, d, e, f, g)

하락추세선 이탈 → 매수(A, B, C, D, E, F, G)

추세선은 대부분 직선이지만 반드시 직선에 구애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추세선을 볼 때 이동평균선을 함께 보면 매매시점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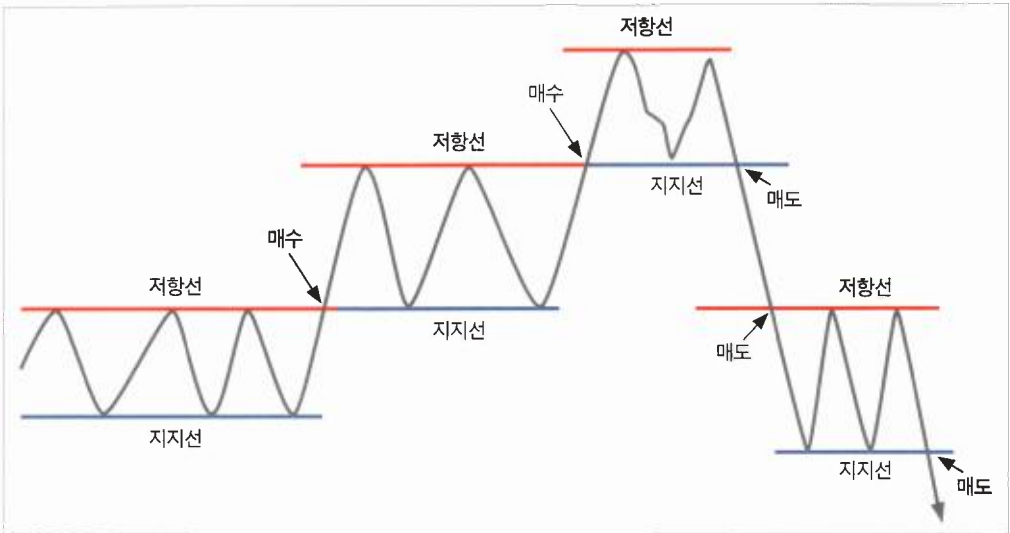
매도시점과 매수시점이 발생하였는데도 바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투자는 리스크 관리를 할 줄 알아야만 성공할 수 있는 만큼 적어도 추세가 바뀌는 데 따라 분할매수, 분할매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추세가 전환되었는데도 추세와 역행하는 파생상품 포지션을 정리하지 못하고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파생상품에서 손을 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알아두세요

추세선의 신뢰도

1. 추세선의 길이가 길수록 신뢰도가 높습니다. 길이가 길다는 것은 접점이 많다는 뜻입니다.
2. 거래가 많이 수반될수록 신뢰도가 높습니다.

2. 지지선과 저항선을 이용한 매매방법



〈그림 4-4〉 지지선과 저항선을 이용한 매매방법

가격이 어느 정도 오르면 투자자들은 보유 주식을 매도하여 이익을 실현하고 싶어합니다. 그리하여 이익을 실현하려는 매도세력과 추가 상승을 기대하는 매수세력 간에 공방이 벌어지는데, 그 결과로 형성되는 가격대를 저항선이라고 합니다. 저항선에 닿으면 대부분의 경우 가격은 다시 하락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항선에 오면 매도합니다.

그러나 매수세력이 매우 강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항선이 돌파되면 기존의 저항선은 지지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저항선이 돌파되면 매수로 대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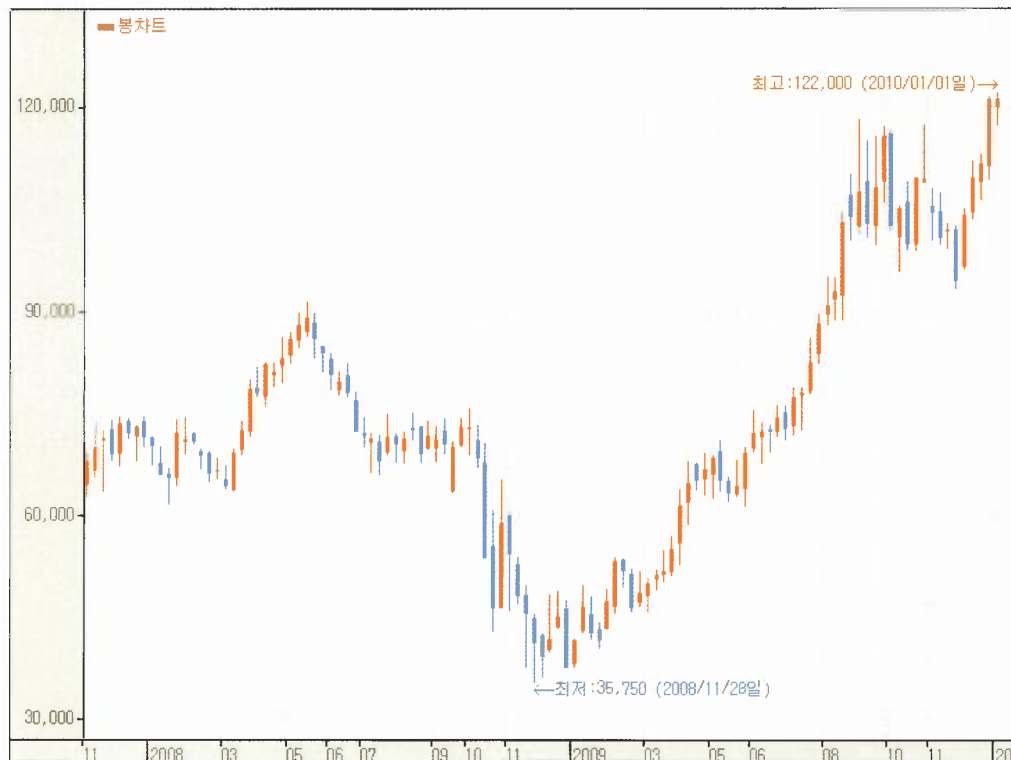
반대로 가격이 어느 정도 하락하면 높은 가격에 매도한 투자자들은 가격이 싸다고 여겨 매수하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그로

인해 하락한 가격에 매수세력이 들어와 가격이 다시 상승하는데 이 가격대를 가격이 지지된다고 하여 지지선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가격이 지지선에 닿으면 상승을 예상하고 매수합니다. 그러나 만약 지지선에서 가격이 지지되지 못하고 지지선을 하락 이탈하면 기존의 지지선은 오히려 저항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지선이 하향 돌파되면 추가 하락이 예상되므로 매도합니다.

저항선 상향 돌파 → 매수. 저항선은 지지선으로 바뀜

지지선 하향 이탈 → 매도. 지지선은 저항선으로 바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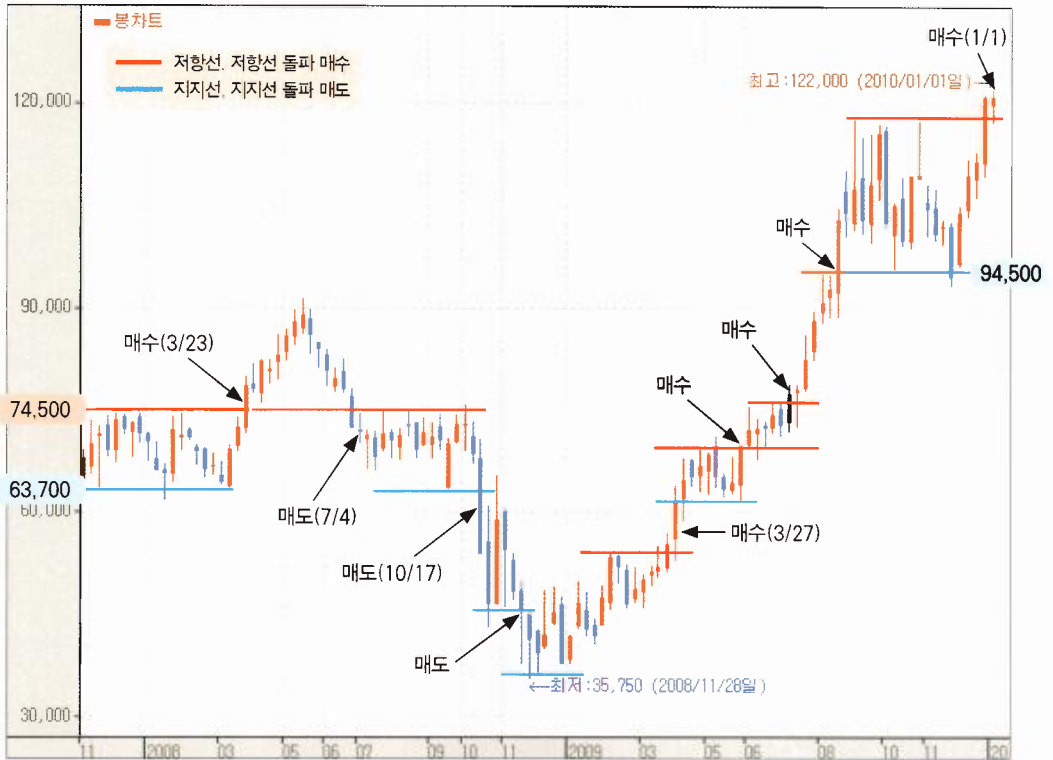
예제 아래 그래프는 현대차(005380) 주봉 그래프입니다. 지지선과 저항선을 그려보고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을 찾아보세요.



현대차 주봉 그래프(2007. 11~2010. 1)

★ 알아두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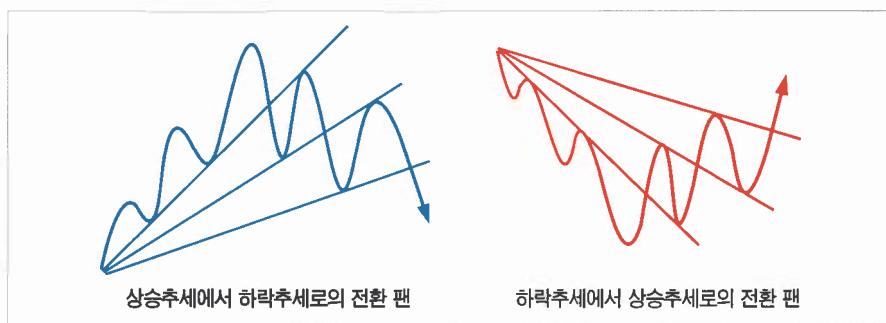
지지와 저항만 잘 활용해도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지와 저항을 해석할 때는 KOSPI지수와 함께 보면 도움이 됩니다. KOSPI지수와 대형주는 비슷한 그래프 모양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1 | 2007년 11월~2008년 3월 셋째주까지 주가는 63,700원을 지지선으로, 74,500원을 저항선으로 하여 박스권에서 등락하였습니다. 박스권에서는 지지선에서 매수하고 저항선에서 매도합니다. 그러나 2008년 3월 23일 저항선인 74,500원을 돌파하였으므로 매수합니다. 저항선이 돌파되면 74,500원의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 2 | 주가는 지지선 가격인 74,500원을 7월 4일 하락 이탈하였으므로 매도하여야 합니다. 또한 74,500원이던 지지선이 하향 돌파된 뒤에는 저항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 3 | 박스권에서 등락하던 주가가 10월 17일 지지선을 하향 돌파하였으므로 매도합니다.
- 4 | 2008년 11월 28일 35,750원의 저점을 찍은 이후 현대차 주가는 여러 개의 저항선을 돌파하면서 2010년 1월 1일 122,000원이 되었습니다. 저점 대비 3.4배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세 전환은 일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차트로 보면 부챗살 같은 팬의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현상은 추세를 이탈한 파동이 다시금 지지나 저항을 받아 나타나는 일종의 되돌림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점에서 수직선과 수평선을 그리면 1차적으로 38.2도, 50도, 61.8도 비율로 차례로 지지선과 저항선이 만들어집니다(325쪽 피보나치 수열을 참고하세요).



〈그림 4-5〉 하락 전환 팬과 상승 전환 팬

팬의 원리를 이용하면 주가의 변동폭과 되돌림의 폭을 예측해 볼 수 있어 상승목표치와 하락목표치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부 그래프에서만 나타나는 모양이므로 모든 차트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알아두세요

추세선의 기울기가 가파르다는 것의 기준은?

정상적인 추세선은 각도가 45도인데, 45도를 넘어 직각에 가까울수록 가파른 추세선이라고 합니다.

3. 추세선의 기울기를 이용한 매매방법

지금까지는 추세의 전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추세의 방향은 유지되면서 추세선의 기울기가 가팔라지는 경우와 추세선의 기울기가 더욱 완만해지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① 추세의 기울기가 종전의 추세보다 가팔라지는 경우

조만간 추세 이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완만하게 오르던 주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은 투자자들이 흥분한다는 것을 뜻하고, 이는 곧 추세의 전환을 예고한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땐 지금까지의 매수세력들이 그동안 매집한 물량을 털고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상승추세선의 기울기가 가팔라지면 매도를 검토하고 있다가 가파른 추세선을 이탈하면 매도합니다. 특히 고점에서 거래량이 급증할 때는 매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완만한 상승추세가 가파른 추세로 바뀌는 초입에는 단타매매를 하는 투자자에게는 절호의 매수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하락추세선의 기울기가 가팔라진다는 것은 추가 하락에 대한 공포심으로 인해 투매가 쏟아져 나온 경우가 많으므로 반등을 고려한 매수 관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완만한 하락추세에서 기울기가 가팔라지는 초입은 단기 매도시점입니다.

② 추세의 기울기가 종전의 추세보다 완만해지는 경우

조만간 추세의 기울기가 가팔라지는 급등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완만한 추세가 이어지면 투자자들은 추세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어 더욱 적극적으로 매매에 임해 추세가 가팔라질

니다. 이럴 때는 수익이 났다고 해서 쉽게 매도하지 말아야 하고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하는 것이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잠깐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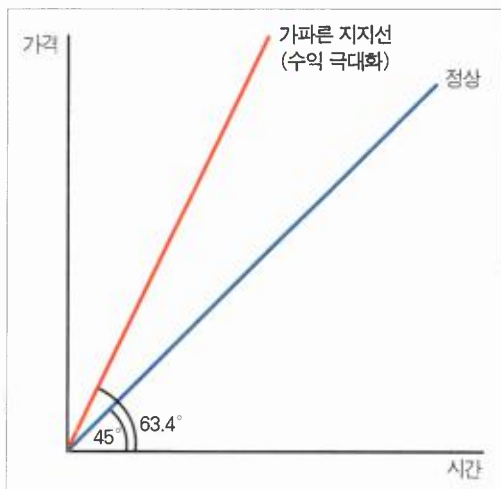
갠의 이론이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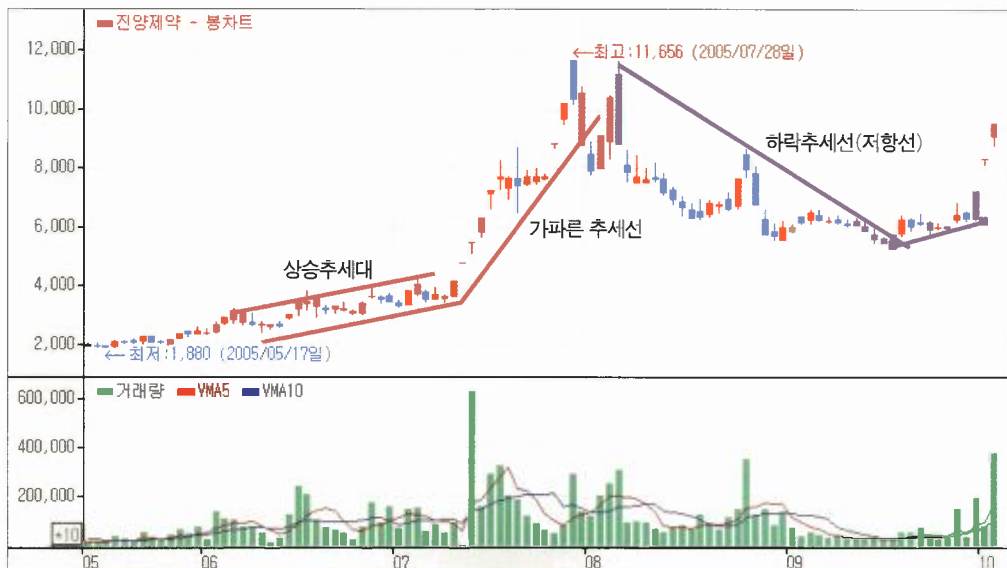
갠의 이론이란 20세기 초 미국의 전설적인 투자자인 윌리엄 갠(William D. Gann)이 개발한 분석 기법으로서 기하학적인 각도와 시간의 개념으로 주가의 반전 시기를 예측하는 기법입니다.

갠은 차트의 X축을 시간으로 보고, Y축을 가격으로 보아, 시간과 가격이 1:1 대응을 보이는 45도 대각선을 중요한 선으로 봅니다. 따라서 상승추세일 경우는 그 각도가 45도인 것을 정상이라고 보고, 45도 지지선보다 위에 있으면 강한 상승장, 아래에 있으면 약한 상승장으로 봅니다. 그리고 63.4도를 가파른 지지선이라 보고 이 지지선을 잘 활용해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갠은 되돌림 비율을 8을 기준으로 하여 1/8, 2/8, 1/3, 3/8, 4/8, 5/8, 2/3, 6/8, 7/8로 보았습니다. 이중 특별히 중요한 되돌림 비율은 3/8(37.5%), 4/8(50%), 5/8(62.5%), 2/3(66.6%)입니다. 이 비율 중 3/8(37.5%)과 2/3(66.6%)는 공교롭게도 피보나치 계수의 조정 비율인 38.2%와 61.8%와 매우 유사합니다.



예제 아래 그래프는 즐기세포 테마로 급등세를 보인 진양제약(007370)의 일봉 그래프입니다. 그래프에 표시된 추세선의 기울기로 매매시점을 판단해 보세요.



진양제약 일봉 그래프(2005. 5~2005.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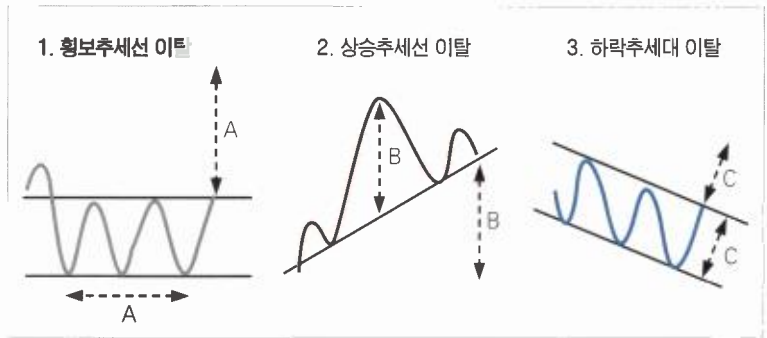
해설

가파른 기울기가 나타난 이후의 긴 음봉(8월 초)이 매도시점입니다. 그러나 가파른 기울기가 시작되는 초입(7월 중순)은 오히려 매수시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 최소목표치를 이용한 매매방법

최소목표치를 이용한 매매방법은 주가가 추세선을 이탈할 경우에 예상되는 주가 변동폭을 계산해 예상가격을 미리 설정해 투자판단에 참고하는 방법입니다.

최소목표치라는 말은 추세선을 이탈한 주가의 최소 변동폭이라는 뜻이므로, 보통 그 이상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림 4-6〉 최소목표치 계산방법

횡보추세선을 이탈한 경우 : 주가가 횡보한 기간의 길이만큼 상승 또는 하락한다고 계산합니다. 횡보 기간이 길수록 추세의 전환이 있을 경우 투자수익률이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승추세선을 이탈한 경우 : 추세선에서 고점까지의 수직 높이만큼 주가가 하락한다고 봅니다.

하락추세대를 이탈한 경우 : 추세대의 폭만큼 주가가 상승 또는 하락한다고 계산합니다.

지금까지 추세 분석을 이용한 4가지 매매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이런 원칙들을 충분히 익히고 실전에 응용하면 실패율을 줄이고 좀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주식투자를 해본 사람이라면 주가가 올라 수익이 났음에도 지나친 욕심 때문에 매도시점을 놓쳐 후회해 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투자원칙을 확고히 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게 될 때까지는 매수 가격과 매도가격을 미리 정해 두고 그 가격에 도달하면 무조건 실행에 옮기는 것도 안전한 성공투자 방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추세 분석의 한계와 보완방법

차트분석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추세 분석만 정확히 해낼 수 있어도 실전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전 그래프를 보면 장기적으로 그려지는 추세가 있는가 하면 짧게 나타났다가 수시로 방향이 전환되는 소추세도 있기 때문에 추세 변동에 따라 매번 매매를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 알아두세요

MACD, 스토캐스틱, 일목균형표에 대해서는 셋째 마당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여기에서는 이런 보조지표가 있구나 하는 정도만 알고 넘어가세요.

이러한 추세 분석의 한계는 추세 보조지표인 MACD와 스토캐스틱 그리고 일목균형표 등을 동시에 이용하면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 ① MACD는 추세의 지속과 추세 이탈을 확인해 줍니다.
- ② 스토캐스틱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매매시점을 알려줍니다.
- ③ 일목균형표는 추세의 지속과 변동을 예측할 수 있게 해줍니다.

보조지표를 이용할 때는 추세선과 보조지표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확인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추세선과 보조지표가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면 추세선의 신뢰도가 더욱 높아지지만, 보조지표가 먼저 추세선을 반전하면 추세선도 뒤따라 반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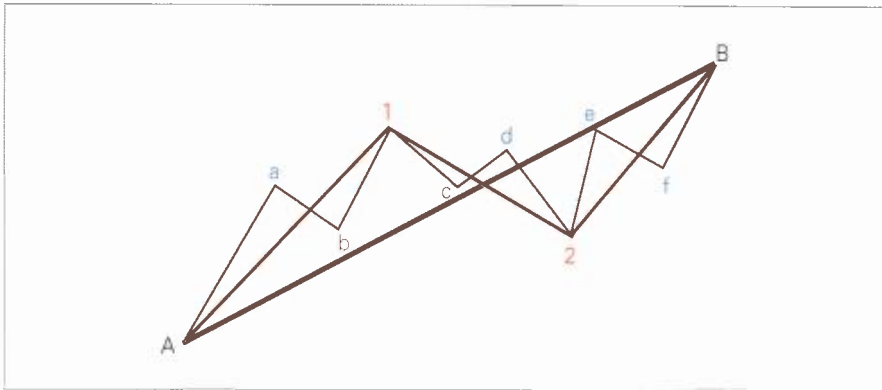
가격이 추세선을 하락 반전하고 보조지표에 매도 신호 출현할 때 → 매도
가격이 추세선을 상승 돌파하고 보조지표에 매수 신호 출현할 때 → 매수



추세 형성 기간에 따른 추세선의 분류

추세는 추세 형성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추세, 중기추세, 소추세로 나누어집니다. 주추세 속에 중기추세가 있고, 중기추세 속에 소추세가 있습니다.

- ① 주추세(Major Trend) : 일반적으로 1~3년간 지속되는 장기추세를 말합니다.
- ② 중기추세(Intermediate Trend) : 대체적으로 1~3개월 정도 이어지는 중기추세를 말합니다.
- ③ 소추세(Minor Trend) : 대략 1~3주간 지속되는 단기추세를 말합니다.



〈그림 4-7〉 주추세 속에 있는 중기추세와 소추세

위 그림에서 직선 A-B가 주추세라면 A-1-2-B는 중기추세이고, A-a-b-1-c-d-2-e-f-B는 소추세에 해당합니다. 주추세, 중기추세, 소추세를 확인할 때는 일봉 외에도 주봉과 월봉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추세 기간은 일반적으로 횡보추세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주추세가 상승추세일 때는 상승추세선의 길이가 길고, 주추세가 하락추세일 경우에는 하락추세선의 길이가 더 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배운 주가 파동 이론에서 주된 파는 크고 길지만, 조정파는 완만하고 짧다고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세요.

참고로 상승추세를 이어가던 주가가 조정될 때의 조정폭을 예상해 보겠습니다. 1차로 상승폭의 1/3이 하락하고, 하락폭이 좀더 깊어지면 상승폭의 1/2이 하락하고, 하락폭이 아주 클 때는 상승폭의 2/3까지 하락합니다. 만약 추세 속에서 조정폭이 상승폭보다 더 클 때는 추세가 무너진 것이며 새로운 추세가 시작된다고 봅니다. 앞장에서 공부한 주가 파동 이론에서의 조정폭과 같은 이론입니다.

★ 알아두세요

위의 <그림 4-7>은 주추세, 중기추세, 소추세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나의 추세에 3개의 파만 그린 것입니다. 엘리엇 파동이론에 따르면 주파동이 상승파동일 때는 상승 5파와 하락 3파가 있고, 주파동이 하락파동일 때는 하락 5파와 상승 3파가 있습니다. 이때 '파'는 추세와 유사한 의미입니다.

수익률을 높이는 추세선 활용 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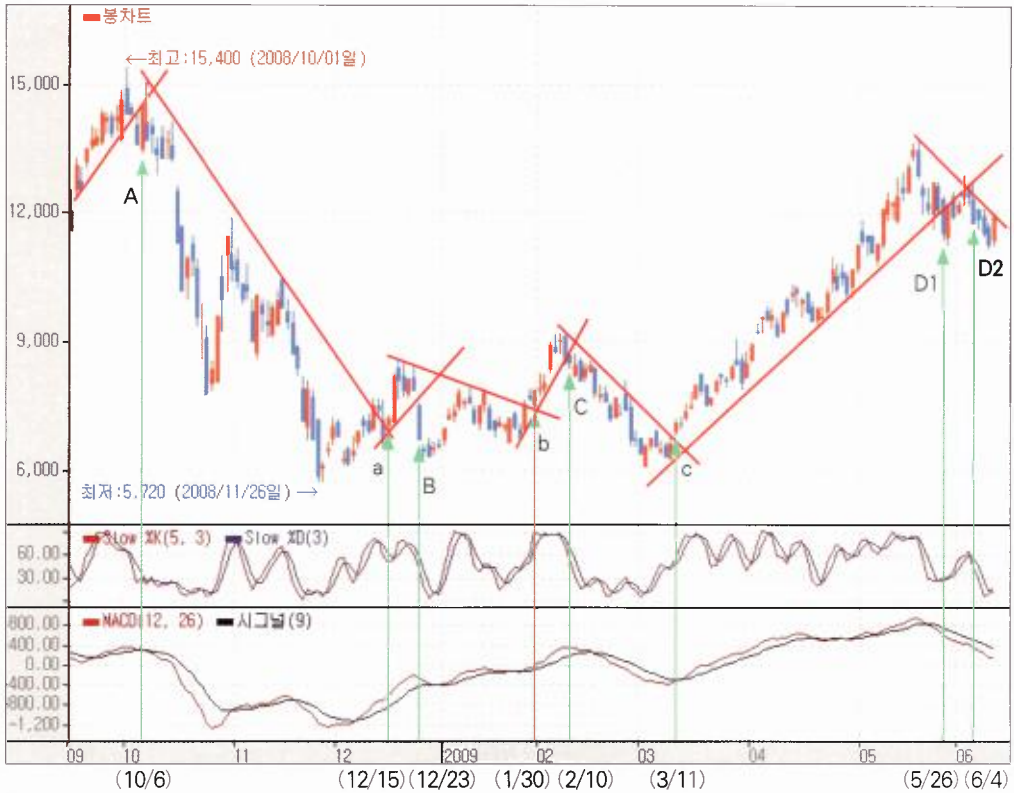
주추세, 중기추세, 소추세 중 어느 것을 활용하는 것이 수익률 제고에 유리할까요?

물론 소추세를 빠짐없이 정확하게 활용할 수만 있다면 소추세 이용이 가장 유리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소추세마다 수익을 내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주추세는 대세 확인용으로 활용하고, 소추세와 중기추세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수익률 제고에 유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추세가 상승중일 때는 매수의 관점에서 그래프를 보고 있다가 중기추세 또는 소추세가 하락해 있을 때를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고, 주추세가 하락중일 때는 매도의 관점에서 시장을 보고 있다가 중기추세 또는 소추세가 상승할 때 매도를 실행합니다.

예제 아래 그래프는 기아차(000270)의 일봉 그래프입니다.

1. 그래프에 표시된 추세선만으로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을 체크해 보세요.
2. 보조지표인 MACD와 스토캐스틱과 일치되는 매수·매도 시점을 적어보세요.



기아차 일봉 그래프(2008. 9~2009. 6)

1 | 추세선에 의한 매매시점

① 추세선에 의한 매도시점

저점과 고점을 높이면서 가격이 상승할 때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여 만들어지는 선을 상승추세선이라 하고 가격이 상승추세선을 하락 이탈하면 매도합니다. A, B, C, D가 매도시점이 됩니다.

② 추세선에 의한 매수시점

가격이 저점과 고점을 낮추면서 하락할 때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여 만들어지는 선을 하락추세선이라 하고 가격이 하락추세선을 상향 돌파하면 매수합니다. a, b, c가 매수시점이 됩니다.

2 | 추세선과 보조지표의 일치 여부에 따른 매매시점

① 매도시점 A

추세선을 하락 이탈한 시점은 2008년 10월 6일인데 이때

- MACD를 보면 MACD 선이 시그널 선을 데드크로스하며 하락하고 있습니다.
- 스토크스틱도 하락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 추세선과 보조지표가 일치되게 매도 신호를 보내고 있으므로 자신 있게 매도를 실행합니다.

② 매수시점 a

추세선을 상향 돌파한 시점은 2008년 12월 15일인데 이때

- MACD를 보면 상승추세를 보이고
- 스토크스틱은 특별한 신호를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 추세선과 MACD 선이 모두 매수 신호를 보내므로 매수합니다.

③ 매도시점 B

추세선을 하락 이탈한 시점은 2008년 12월 23일인데 이날

- MACD를 보면 주가와 달리 상승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 스토크스틱은 하락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 추세선과 스토캐스틱이 매도 신호를 보여주고 있으나 MACD는 여전히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매도를 보류하고 좀더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④ 매수시점 b

- 추세선 매수 신호(2009년 1월 30일)
- MACD 매수 신호
- 스토캐스틱 매수 신호 유효
- 추세선과 보조지표 모두 매수 신호를 보내고 있으므로 매수합니다.

⑤ 매도시점 C

- 추세선 매도 신호(2009년 2월 10일)
- MACD는 당일에 매도 신호가 나오지 않았지만 2~3일 후 바로 매도 신호(데드크로스) 출현
- 스토캐스틱 매도 신호
- 추세선과 보조지표 모두 매도 신호가 일치하므로 매도합니다. 단 MACD는 2~3일 후 발생하였으므로 2~3일 기다렸다가 매도해도 늦지 않습니다.

⑥ 매수시점 c

- 추세선 매수 신호(2009년 3월 11일)
- MACD 매수 신호(골든크로스 발생)
- 스토캐스틱 매수 신호
- 추세선과 보조지표 모두 매수 신호 일치하므로 매수합니다.

⑦ 매도시점 D

- 추세선을 2009년 5월 26일 1차로 이탈하였다가(D1), 6월 4일 확인 이탈하였음(D2)
- MACD D1과 D2 모두 매도 신호
- 스토캐스틱 D1에서는 일시 반등 신호를 주었다가 D2에서 다시 매도 신호
- 추세선과 보조지표 모두 매도 신호 일치하므로 매도합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소나무 한 그루

1960년대 중반 박정희 대통령은 산림녹화사업을 주요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었다. 어느 날 박대통령이 해외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동해안 상공을 지나게 되었는데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동해안은 산림이 헐벗어 민둥산이 많았다. 며칠 후 박대통령은 산림청 관계자를 대동하고 해안선에 위치한 어느 야산에 올랐다.

박대통령: “산림녹화사업을 시작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이곳에는 아직도 나무가 없지 않소. 식목사업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산림청 관계자: “각하, 나무를 심었지만 이곳 토양이 석회석인데다 소금기가 많은 해풍이 심하여 제대로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러자 박대통령은 근처에 외롭게 자란 사람 키만 한 소나무 한 그루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 소나무는 심은 것입니까, 자생한 것입니까?”

산림청 관계자: “그것은 자연적으로 자란 나무입니다.”

박대통령: “이것 봐요 청장, 사람이 가꾸지 않아도 이렇게 훌륭하게 잘 자라는데 사람이 정성으로 심고 가꾸면 왜 못 자란단 말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장 푸르게 만드시오.”

대통령이 다녀간 몇 년 후 해안선 민둥산은 소나무가 무성한 푸른 산으로 변해 갔다. 지금도 포항시 북구 청하라는 곳에 가면 산림녹화사업을 독려하기 위해 박대통령이 다녀간 것을 기념하는 조그마한 기념돌이 남아 있다.

주가가 움직이는 속성은 기업마다 각기 다릅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LG화학, SK텔레콤, 신한금융지주 같은 우량 대형 블루칩은 주가 움직임이 완만합니다. 가격제한폭인 상·하한가를 기록하는 경우도 매우 드뭅니다. 추세 역시 한번 형성되면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매매주체가 주로 중장기 관점에서 투자를 하는 외국인과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블루칩을 매수하였을 경우에는 대세 상승이 끝날 때까지 장기보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면에 중소형주와 테마주의 경우는 주가가 급등락하고 대체로 기복이 심합니다. 가격제한폭까지 며칠씩 오르거나 떨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매매주체는 단기매매를 주로 하는 개인투자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테마주와 소형주의 경우엔 신속하고 과감한 투자판단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부실주는 급등한 후 원점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테마주와 부실주는 과감한 손절매를 할 수 있는 사람만이 매매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속성에 따라 그래프를 보는 각도를 조금씩 달리하는 것은 토질에 따라 수목의 종류를 달리하는 것과 그 이치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을 이용한 매매방법

주가의 평균가격을 선으로 이어 그린 이동평균선은 봉차트, 거래량과 함께 가장 많이 활용하는 대표적인 그래프입니다. 이동평균선으로 주가의 방향과 변곡점을 알아보고, 이동평균선을 이용한 매매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이란?

투자자가 이용 가능한 기술적 지표 가운데 가장 신뢰할 수 있고 알기 쉬운 지표 중 하나가 이동평균선입니다. 이동평균선은 변화무쌍한 주가의 흐름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기간별 평균 주가를 산출하여 선으로 이어 그린 선그래프를 말합니다. 앞에서 배운 봉차트와 마찬가지로 그래프의 기본이라 할 수 있으며, 투자판단에 가장 많이 활용하는 대표적인 그래프입니다. 시장참가자들의 기업가치(또는 시장가치)에 대한 평균적인 합의를 반영하고 있는 이동평균선은 주가의 방향성과 변곡점을 쉽게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미래 주가 동향을 예측하는 데 많이 사용됩니다. 반면에 이동평균선의 단점도 있습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 주가를 평균하여 만든 차트이므로 후행성 지표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대형주에 비해 테마 또는 재료로 급등락하는 중소형 종목에 적용하기에는 유용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종류 1 **주가 이동평균선**

이동평균선은 주가 이동평균선과 거래량 이동평균선으로 나누어집니다. 이중 주가 이동평균선은 평균 주가 산출기간에 따라 200일, 120일, 60일, 20일, 10일, 5일 선 등으로 세분화됩니다. 200일선은 200일 동안의 평균 주가이고, 60일선은 60일 동안의 평균 주가, 20일선은 20일간의 평균 주가인 것이죠. 주가 이동평균선의 활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가 이동평균선 활용방법

★ **알아두세요**

120일 이동평균선은 대세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합니다. 주가가 120일선을 상향 돌파하면 대세가 상승 전환되었다고 보고, 하향 돌파하면 대세는 하락으로 전환되었다고 봅니다.

★ **알아두세요**

주식시장에서 성공하려면 대세판단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세에 맞는 투자전략을 구사하지 않으면 대세상승기에 벌어들인 수익을 대세 하락기에 모두 또는 그 이상 반납하게 됩니다. 주식시장의 대세를 읽는 방법은 《주식시장 대세 판단 무작정 따라하기》(윤재수 지음, 길벗출판사)를 참고하세요.

200일선과 120일선은 경기선

200일선과 120일선은 경기사이클과 유사하게 움직이므로 경기선이라고 합니다. 주가는 경제 또는 경기를 반영하는 거울과 같습니다. 따라서 GDP성장률이 높거나 경기가 호황일수록 상승합니다. 반대로 GDP성장률이 저조하거나 경기가 불황일수록 주가는 하락하게 마련입니다. 증시 대세가 좋은가 나쁜가를 판단하려면 월봉과 주봉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봉으로 증시 대세를 판단하려면 120일선과 200일선을 보고 판단합니다.

120일선과 200일선은 장기추세로 경기사이클과 유사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으며 중장기 투자판단에 활용합니다.

60일선은 수급선

증시 대세가 일정한 방향의 추세를 보인다 하더라도 중기적으로 보면 끊임없이 등락을 반복하며 움직이는데 60일선이 중기 추세를 나타냅니다. 60일선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수급적인

★ **알아두세요**

20일 이동평균선을 가장 많이 이용합니다.

20일 이동평균선은 한 달 동안의 평균가격을 말해 줍니다. 일반적으로 상승 중에 있는 주가는 20일선을 깨지 않고, 하락추세에 있는 주가는 20일선을 상향 돌파하지 못하므로 20일선을 투자자의 심리선 또는 생명선이라고도 합니다. 20일 이동평균선은 시장 판단뿐만 아니라 개별 종목 판단에도 가장 많이 이용합니다.

요인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증시로 자금이 유입되는지 또는 빠져나가는지에 따라 중기선인 60일선이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그 때문에 60일선을 수급선이라고도 합니다.

20일선은 심리선

투자자들은 주가가 어느 정도 오르면 매도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고, 반대로 어느 정도 떨어지면 가격이 싸다고 생각되어 매수하고 싶은 욕구가 발동합니다. 다른 요인도 있지만 주로 투자자의 심리에 따라 움직인다고 해서 20일선을 심리선이라고 합니다. 주가가 상승추세에 있을 때는 20일선을 하락 이탈하는 경우가 드물고, 주가가 하락추세에 있을 때는 20일선을 상향 돌파하지 못하기 때문에 20일선을 각종 보조지표에서 기준선으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20일선을 활용할 수 있어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10일선과 5일선은 단기매매선

주가는 돌발 재료가 발생했을 때뿐 아니라 아무런 이유 없이도 하루이틀 등락을 반복합니다. 그것은 바닷가에서 바람이 없어도 작은 파도가 끓이지 않는 것과 같은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가가 강세일 때는 10일선 위에서 10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5일선 위에서 상승하고, 주가가 약세일 때는 10일선을 상향 돌파하지 못하고 5일선 밑에서 하락을 지속합니다.

주가와 5일선 그리고 10일선은 단기매매 특히 선물과 옵션 같은 파생상품을 거래할 때 활용합니다.

시간봉과 분봉에서의 이동평균선

과생상품을 거래할 때, 그리고 주식을 데이트레이딩할 때는 시간봉(1시간봉, 2시간봉)과 분봉(30분봉, 5분봉, 1분봉)을 봅니다. 이 경우에도 이동평균선을 보는 요령은 동일합니다.

잠깐만요

이동평균선의 기간별 평균 주가 산출방법



주가 이동평균선은 기간별 평균 주가를 산출해 그린다고 말씀드렸지요? 물론 여러분이 직접 평균 주가를 산출할 일은 없겠지만, 어떤 원리로 계산되는지 정도는 알아두면 좋겠지요? 아래에 제시된 산출 예를 보면 주가 이동평균선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 종합주가지수 5일 이동평균지수 산출 예

일자	1	2	3	4	5	6	7
주가지수	1,000	1,008	1,028	1,020	1,025	1,032	1,029
5일 이동평균지수	-	-	-	-	1,016.2	1,022.6	1,022.8

최근일로부터 계산하므로 가장 먼 날짜를 빼고 최근일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하여 단순 평균을 냅니다.

5일자 5일 이동평균지수 : $(1,000 + 1,008 + 1,028 + 1,020 + 1,025) \div 5 = 1,016.2$

6일자 5일 이동평균지수 : $(1,008 + 1,028 + 1,020 + 1,025 + 1,032) \div 5 = 1,02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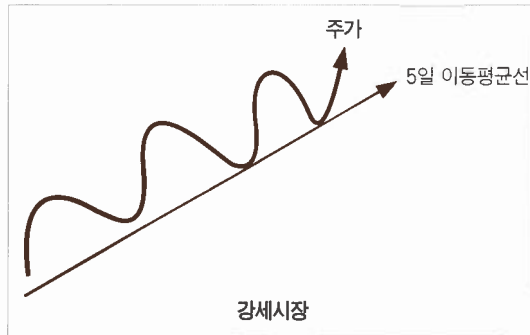
7일자 5일 이동평균지수 : $(1,028 + 1,020 + 1,025 + 1,032 + 1,029) \div 5 = 1,022.8$

이동평균선의 종류 2 거래량 이동평균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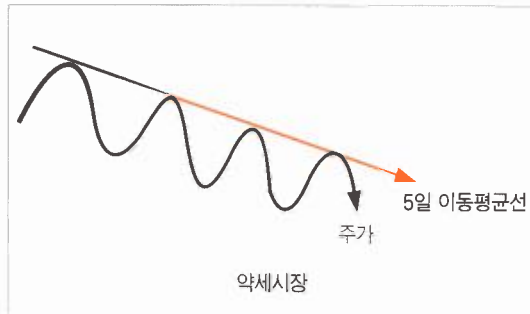
거래량 이동평균선도 주가 이동평균선과 마찬가지로 기간별로 거래량의 평균을 내서 그립니다. 주가 이동평균선과 거래량 이동평균선은 대체로 같은 추세로 움직인다고 보면 됩니다. 특별히 거래량 이동평균선이 주가 이동평균선과 반대로 움직일 때, 예를 들면 주가 이동평균선이 상승하고 있는데 거래량 이동평균선은 하락하는 경우에는 상승중인 주가 이동평균선의 변화를 예고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래량 이동평균선은 5일과 20일 선을 주로 이용합니다.

주가와 이동평균선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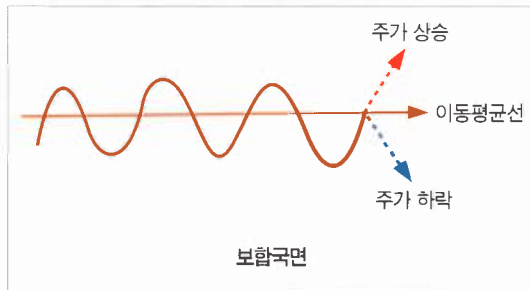
① 강세시장에서는 주가가 이동평균선 위에서 파동을 그리며 상승합니다. 강력한 상승추세를 보이는 주가는 5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등락하며, 5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하락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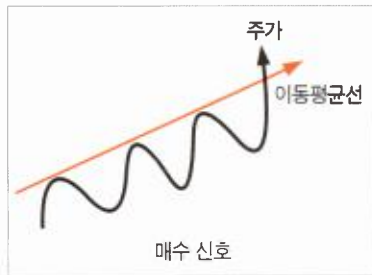
② 약세시장에서는 주가가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파동을 그리며 하락합니다. 하락추세를 보이는 주가는 5일 이동평균선 아래에서만 등락을 거듭하며 하락합니다.



③ 보합국면에서 주가가 이동평균선과 밀착되어 있을 때에는 파동을 그리면서 상승이든 하락이든 방향을 결정하여 이탈해 나갑니다.



④ 주가가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할 때에는 매수 신호이고, 하향 돌파할 때에는 매도 신호입니다.



★ **알아두세요**

단기 이동평균선이 중장기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것을 골든크로스 또는 데드크로스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29쪽 <잠깐만요>를 참조하세요.

⑤ 주가와 단기 이동평균선이 중장기 이동평균선을 돌파할 때에는 중장기 추세가 반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일 이동평균선이 20일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하면 주가는 중기적으로 상승 추세로 전환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20일 이동평균선이 120일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하면 대세 상승으로 봅니다. 마찬가지로 20일 이동평균선이 120일 이동평균선을 하향 돌파하면 대세가 장기적인 하락으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가의 추세를 확인하고 또 전환 변곡점을 찾아내어 매입·매도의 신호로 활용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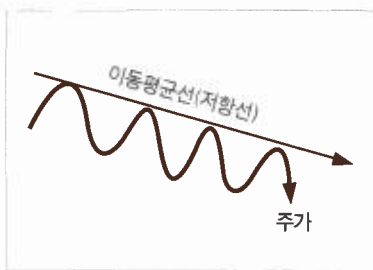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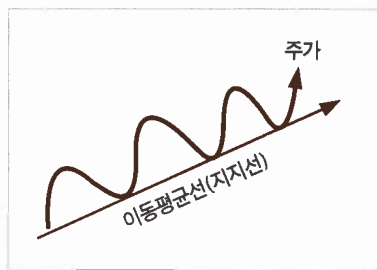
다만, 시장이 강세시장인지 약세시장인지를 먼저 파악한 후 매매 신호를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강세시장에서는 주가가 이동평균선을 깨고 내려오더라도 오히려 매수 신호가 될 경우가 있고, 약세시장에서는 주가가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하더라도 오히려 매도 신호가 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 **알아두세요**

주가의 회귀 속성을 이용해 만든 분석기법이 이격률입니다. 이격률을 이용하는 방법은 13장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⑥ 주가는 회귀 속성이 있어 이동평균선에서 멀어지면 다시 돌아오려는 특성이 있습니다.

⑦ 이동평균선은 지지선과 저항선의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주가가 2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이동평균선을 따라 상승하는 경우에는 이동평균선이 지지선이 됩니다. 그러나 주가가 20일 이동평균선 밑에서 하락하고 있을 때는 이동평균선이 저항선이 되어 주가의 추가 상승을 저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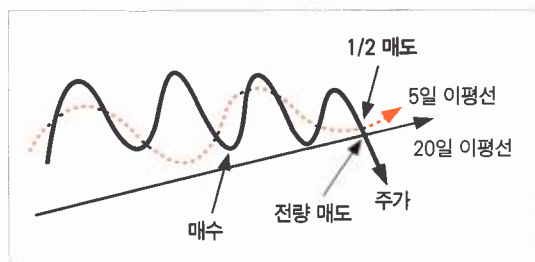
이동평균선을 이용한 매매방법 4가지

1. 이동평균선이 상승추세에 있을 때

이동평균선이 상승추세에 있을 때는 주식을 매수하거나 보유합니다. 이동평균선은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추세인 이동평균선에 접근하면 매수합니다. 상승의 힘이 강한 종목은 5일 이동평균선을 타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주가가 이동평균선을 깨고 내려오면 매도합니다. 보유수량이 많을 때는 5일 이동평균선을 깨면 1/2을 매도하고, 20일 이동평균선을 깨면 전량 매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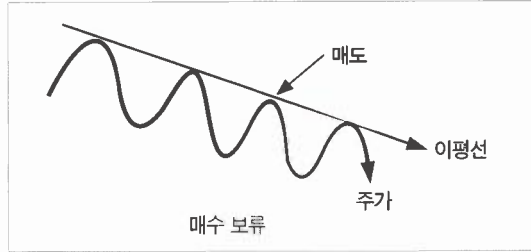
★ 알아두세요

주가가 20일선을 일시적으로 이탈했다가 다시 기존의 이평선으로 복귀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속임수 이탈이라고 합니다. 속임수 이탈인지 추세적 이탈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20일선을 이탈한 주가가 낮어도 2~3일 이내에 기존의 20일선 안으로 복귀해야 합니다. 4일 이상이면 일단 추세 이탈이라고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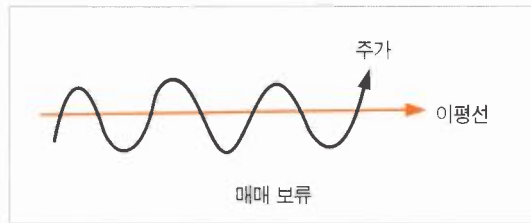
2. 이동평균선이 하락추세에 있을 때

이동평균선이 하락추세에 있다면 매수를 하지 말아야 하고, 주가가 반등하여 이동평균선에 접근하면 매도하여야 합니다.



3. 이동평균선이 횡보하고 있을 때

이동평균선이 횡보하고 있을 때는 이동평균선을 중심축으로 하여 변화가 있을 때까지 기다려보는 것이 좋습니다.



4. 장단기 이동평균선이 수렴한 후 주가의 변화가 있을 때

장단기 이동평균선이 수렴한다는 것은 주가가 상당 기간 횡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주가를 끌어올리는 세력이 지금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누군가가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주식을 사서 모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단기 이동평균선이 수렴하고 있을 때 거래가 급증하면 주가가 급등하거나 급락할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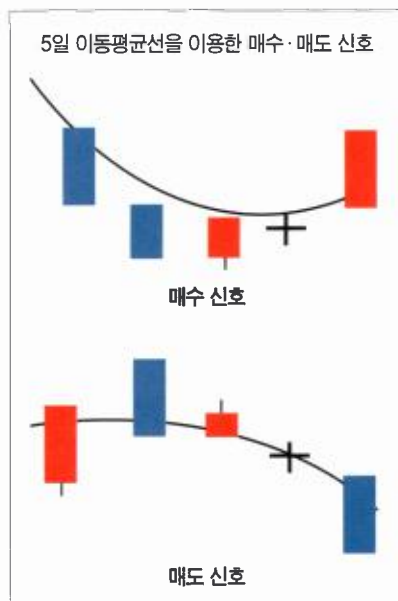
주가가 하락 또는 횡보한 이후에 장단기 이동평균선이 수렴하는 것은 주가가 바닥임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5일선과 20일선이 수렴하고 주가가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하면 중단기 상승세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5일에서 120일 선까지 수렴하고 있을 때 주가가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면 중장기 대세 상승 신호로 볼 수 있으며 이때 매수를 한 투자자는 장기보유할 경우 수익을 크게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장단기 이동평균선이 수렴되었을 때 주가가 이동평균선을 하향 돌파하면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5일 이동평균선은 매수 · 매도의 출발선

주가가 5일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하면 매수시점이 되고, 반대로 하향 돌파하면 매도시점이 됩니다. 5일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한다는 것은 최근 5일 동안의 평균 시세를 돌파한다는 뜻입니다. 5일 동안 주가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결국 상승으로 전환하면 투자심리가 급속도로 살아나 추세 전환의 중요한 실마리가 됩니다. 따라서 주가가 5일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하면 매수하거나 최소한 매수 관점으로 주가를 보아야 합니다. 반대로 주가가 5일 이동평균선을 하향 돌파하면 보유 주식을 매도하거나 최소한 주가 하락의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20일 이동평균선은 주가의 생명선

20일 이동평균선이 상승하고 있으면 주가가 상승추세이고, 20일 이동평균선이 하락하고 있으면 주가가 하락추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장기 투자자의 경우 60일선과 120일선을 기준으로 상승추세나 하락추세를 판단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 개인투자자는 20일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따라서 20일 이동평균선이 상승추세이고 5일선과 주가가 20일선 위에 있을 경우에는 매수의 관점을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5일선과 주가가 20일선 아래로 내려오면 20일선도 조만간 하락으로 전환될 것이며 주가는 하락으로 전환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5일선과 주가가 20일선 위로 올라가면 주가는 상승추세로 전환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2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상승과 하락을 판단하고 그에 따라 매매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어 마음 편한 매매가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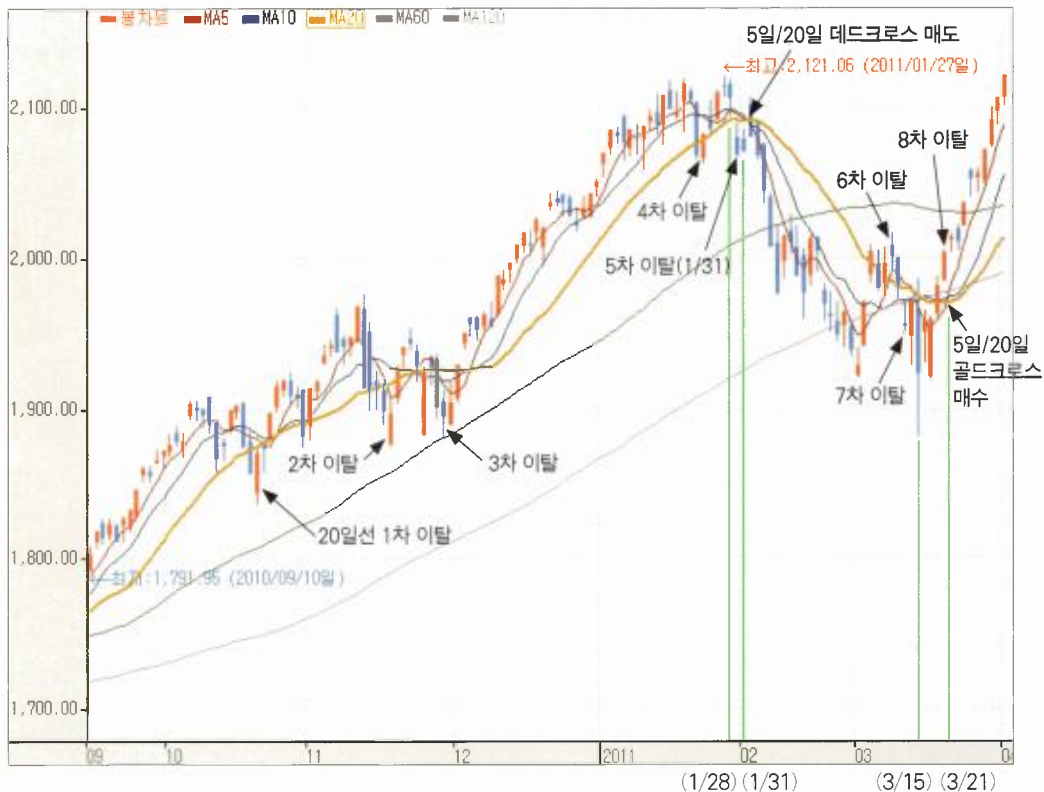
물론 매수 · 매도의 출발점이 되는 5일 이동평균선과 주가의 생명선 역할을 하는 20일 이동평균선을 이용할 때에도 추세의 강도와 신뢰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방법은 셋째마당에서 배울 보조지표인 MACD, 스토크스틱, 일목균형표, 볼린저밴드를 이용하면 됩니다.

예제 다음 그래프는 KOSPI 일봉 그래프입니다. 그래프에 나타난 이동평균선과 주가로 과거 주가 흐름을 살펴보고 향후 주가를 전망해 보세요.



KOSPI 일봉 그래프(2010. 9. 10~2011. 4. 1)

이동평균선으로 과거 주가 흐름을 알아보고 미래 주가를 예측해 봅니다.



1 | 120일 이동평균선

경기선인 120일선이 상승중이므로 중장기 추세는 상승이라고 판단합니다. 대세가 상승하는 한 120일선은 지지선이 됩니다.

2 | 60일 이동평균선

수급선인 60일선 역시 전반적으로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중기추세도 상승으로 봅니다.

2011년 2월~3월 주가가 60일선을 하락 이탈하여 중기추세가 훼손되었으나 120일선에서 지지를 받아 다

시 상승하였습니다.

3 | 20일 이동평균선

- 2011년 1월 28일까지 상승
- 1월 28일~3월 15일 사이 하락
- 3월 21일 이후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리선인 20일선은 단기적인 주가 방향을 말해 줍니다. 즉 20일선이 상승하는 동안은 주가도 상승한다고 보고, 20일선이 하락하는 동안은 주가도 하락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4 | 결론 및 주가 전망

- 2010년 9월 이후 2011년 1월 말까지 이평선 모두가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주가가 제일 위에 있고 5일선 → 10일선 → 20일선 → 60일선 → 120일선 순으로 정배열되어 있어 주가는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 2011년 1월 31일 음봉이 출현하여 5일선과 20일선을 차례로 하락 이탈하였고 이후 20일선 → 10일선 → 5일선 → 주가 순으로 단기선이 역배열되어 주가는 단기적으로 하락추세를 보였습니다.
- 2011년 3월 21일 주가는 5일선과 20일선을 차례로 상향 돌파하였고 이후 다시 정배열 상태이므로 주가는 상승한다고 예측합니다.

5 | 기타 참고사항

주가가 상승추세일 때는 가격이 10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10일선 위에서 상승을 이어갑니다. 반대로 주가가 하락추세일 때는 가격이 10일선 아래에서 하락을 지속합니다.

예외적으로 10일선 또는 20일선을 일시적으로 이탈하였다가 본래의 추세로 복귀하는 속임수 이탈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속임수 이탈인지 추세적 이탈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가격이 2~3일 이내에 기존 추세로 복귀하는가 여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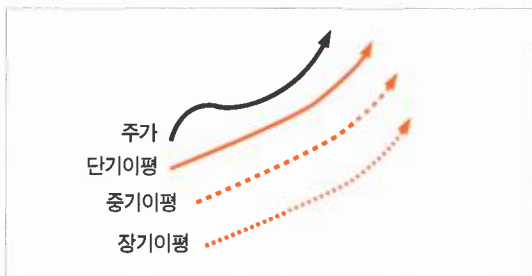
위 이평선 그래프에서 1차~8차 이탈 중에서 5차와 8차만 추세적 이탈이라고 보고 나머지는 모두 속임수 이탈이라고 봅니다. 5차와 8차는 5일선/20일선이 각각 데드크로스와 골든크로스를 만들었고 2~3일 이내에 기존 추세로 복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장 · 단기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고 매매시점 판단하기

지금까지는 이동평균선과 주가의 모양을 보고 투자판단을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주가와 장단기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고 투자판단을 해보겠습니다.

1) 정배열

위로부터 주가, 단기 이동평균선, 중기 이동평균선, 장기 이동평균선 순으로 나란히 상승중일 경우, 전형적인 정배열 상태입니다. 주가와 장단기 이동평균선이 정배열되어 있다는 것은 손실을 보고 있는 투자자 없이 모두가 이익을 보고 있다는 뜻이므로 매물 부담이 적어 상승추세가 이어진다고 봅니다.



투자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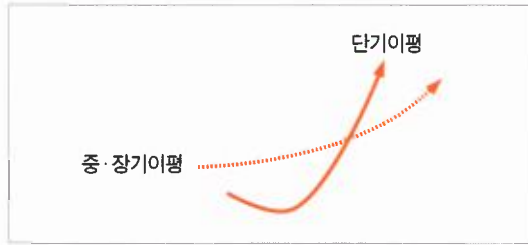
안심하고 매수 또는 보유, 매도는 매도 신호가 나타날 때까지 보유

2) 골든크로스

단기 이동평균선이 중장기 이동평균선을 급속히 상향 돌파할 때 발생하는 모양으로, 이런 모양이 나타날 때 주식을 매수하면 황금을 얻는 것과 같이 좋은 매수시점이 된다는 뜻에서 황금 십자가(Golden cross)라고 부릅니다.

★ 알아두세요

골든크로스는 좋은 매수시점인 것은 분명하지만 시장의 대세를 보고 달리 판단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129쪽의 <잠깐만요>를 참조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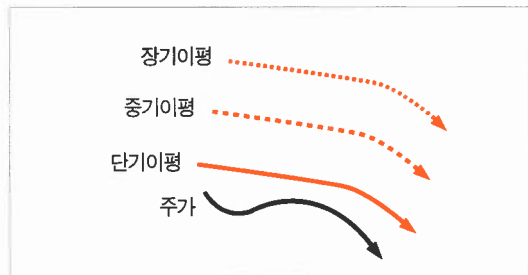


투자
포인트

매수. 특히 주가가 바닥일 때 나타나면 적극 매수

3) 역배열

위로부터 장기 이동평균선, 중기 이동평균선, 단기 이동평균선, 주가 순으로 나란히 하락추세에 있을 경우, 정배열의 반대 모양으로 전형적인 역배열 상태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가 손실을 입고 있는 경우이므로 하락추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상승으로 전환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투자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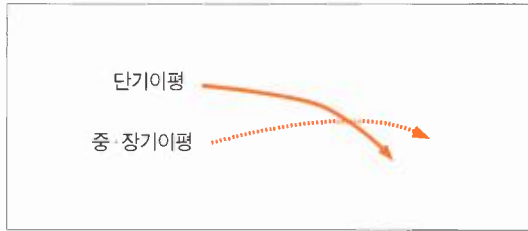
매도하되 매수는 매수 신호가 나타날 때까지 보류

★ **알아두세요**

시장의 대세가 어떠한가에 따라 데드크로스가 매수 시점이 될 때도 있습니다. 129쪽의 <잠깐만요>를 참조하세요.

4) 데드크로스

단기 이동평균선이 중장기 이동평균선을 급속히 하향 돌파할 때 발생하는 모양으로, 이때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뜻으로 죽음의 십자가(Dead cross)라 부릅니다.



투자 포인트

매도, 특히 주가가 천정일 때 나타나면 적극 매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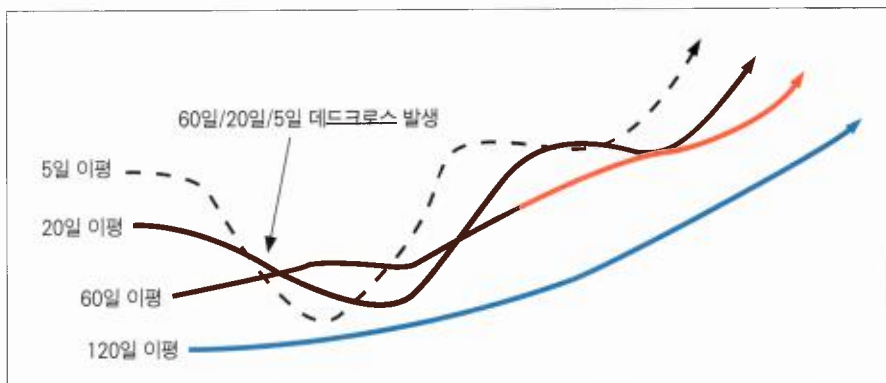
골든크로스(Golden Cross)란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아래에서 위로 상향 돌파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황금 십자가라는 말 그대로 가장 좋은 매수시점이라는 뜻이지요. 특히 주가가 바닥상태일 때 나타나면 더욱 좋은 매수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데드크로스(Dead Cross)는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위에서 아래로 하향 돌파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럴 때 주식을 사면 죽는다고 해서 죽음의 십자가란 말이 붙었습니다. 특히 주가가 천정권일 때 발생하는 데드크로스는 좋은 매도시점이 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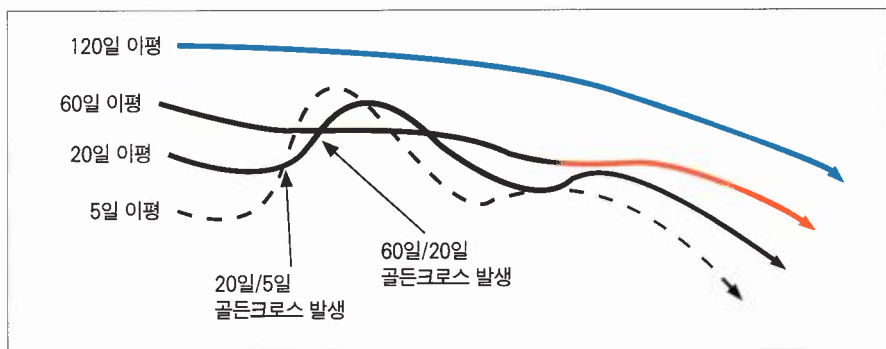
골든크로스과 데드크로스는 일반적으로 매수·매도 시점 파악에 많이 활용하는 대표적인 차트분석 기법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 모든 골든크로스가 매수시점은 아니었고, 모든 데드크로스가 매도시점도 아니었습니다. 대세가 강세시장이나 약세시장이나에 따라 정반대로 해석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강세시장에서의 데드크로스는 상승추세 속에서의 조정기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시점이 될 수 있습니다(역 데드크로스). 또한 약세시장에서 나타나는 골든크로스는 오히려 매도시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역 골든크로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일봉에서 5일 이동평균선과 20일 이동평균선이 D.C(데드크로스의 약자)를 그리더라도 120일, 200일 이동평균선이 상승추세를 계속하고 있다면 D.C는 오히려 매수시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20일 이동평균선이 60일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하는 G.C(골든크로스의 약자)가 나타나더라도 중장기 선인 120일, 200일 이동평균선이 하락을 계속하고 있다면 매도시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음 쪽의 그림을 한번 보세요. 5일선과 20일선이 60일선을 하향 돌파하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하였지만 60일선과 120일선이 상승추세이므로 오히려 매수시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20일/5일, 그리고 60일/20일 이동평균선이 골든크로스를 그리고 있지만 중장기 이동평균선인 60일선과 120일선이 하락추세에 있으므로 오히려 매도시점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물체는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그 힘은 질량의 크기에 비례한다는 데서 비롯된 그랜빌의 이론에 따르면, 이동평균선은 장기일수록 그 질량이 크므로 단기 이동평균선이 중장기 이동평균선과 같은 방향일 때는 추세가 강화되고 서로 다를 때는 보다 힘이 센 장기선의 방향으로 단기선이 끌려간다고 합니다.

★ **알아두세요**

주가가 올라갈 자리에서 올라가지 못하면 주가는 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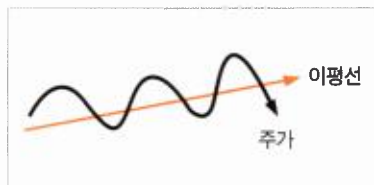
흔히 “주가가 올라갈 자리에서 올라가지 못하면 주가는 떨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지지선의 역할을 기대했던 추세선이나 이동평균선이 지지가 되지 못하고 시간을 끌거나, 지지선이 힘이없이 무너지는 경우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주가가 올라가야 할 자리에서 올라가지 못한다면 주가는 떨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일단 현금화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주가가 떨어질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으면 주가는 올라간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것은 주가가 지지선이나 이동평균선을 깨고 하락할 것으로 보였으나 추세선이나 이동평균선이 뚫리지 않고 반등하는 경우이므로 적극적인 매수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동평균선의 예상 진로로 주가 예측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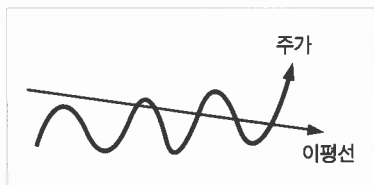
주가와 이동평균선은 동시에 움직입니다. 그러나 주가는 이동평균선보다 선행하여 움직이고 이동평균선은 주가의 움직임에 따라 후행하여 움직입니다. 그래프를 보면 이동평균선은 하나의 추세를 가지고 서서히 변해 가기 때문에 그 진로를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동평균선의 진로를 예상해 보면 미래 주가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1. 주가가 이동평균선을 반복해서 돌파하려 하면 이동평균선이 뚫린다.

주가가 이동평균선을 여러 번 반복하여 돌파를 시도하면 결국 이동평균선은 뚫리게 됩니다. 지지나 저항의 역할을 하던 이동평균선에 반복해서 돌파 시도가 가해지면 지지나 저항 세력의 힘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반복 하향 돌파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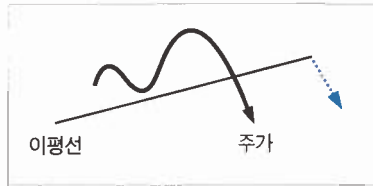


반복 상승 돌파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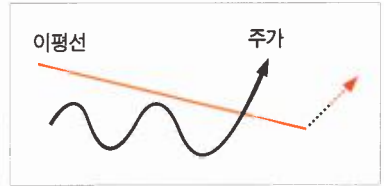
2. 주가가 이동평균선을 뚫으면 이동평균선의 방향이 바뀐다.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하면 이동평균선은 하락을 멈추고,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 이동평균선은 하락 → 횡보 → 상승으로 점진적으로 전환됩니다.

마찬가지로 상승하고 있는 이동평균선을 주가가 하향 돌파하면 이동평균선은 상승을 멈추고 횡보 또는 하락하게 됩니다.



이평선 하락 전환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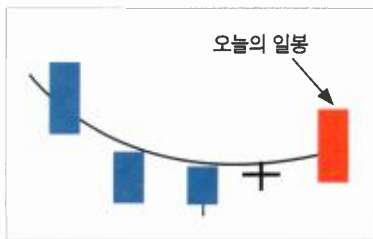


이평선 상승 전환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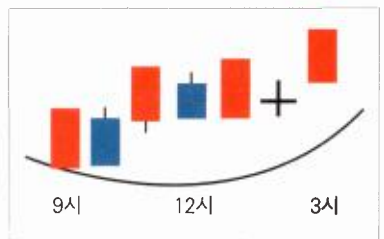
3. 이동평균선을 시간단위로 세분해서 보면 주가 변화를 미리 알 수 있다.

주가 바뀔 때는 분봉 → 시간봉 → 일봉 → 주봉 → 월봉 순으로 바뀌어갑니다. 따라서 주봉의 변화를 미리 감지하려면 일봉의 움직임을 보면 되고, 일봉의 변화를 미리 감지하려면 시간봉(1시간봉, 2시간봉) 또는 분봉(30분봉, 15분봉, 5분봉, 1분봉 등)의 움직임을 보면 됩니다.

파생상품인 선물과 옵션을 매매할 때와 개별종목을 단타매매할 경우에는 단기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추세를 보고 방향을 결정했을 경우에도 주문을 낼 때는 30분봉 또는 5분봉을 꼭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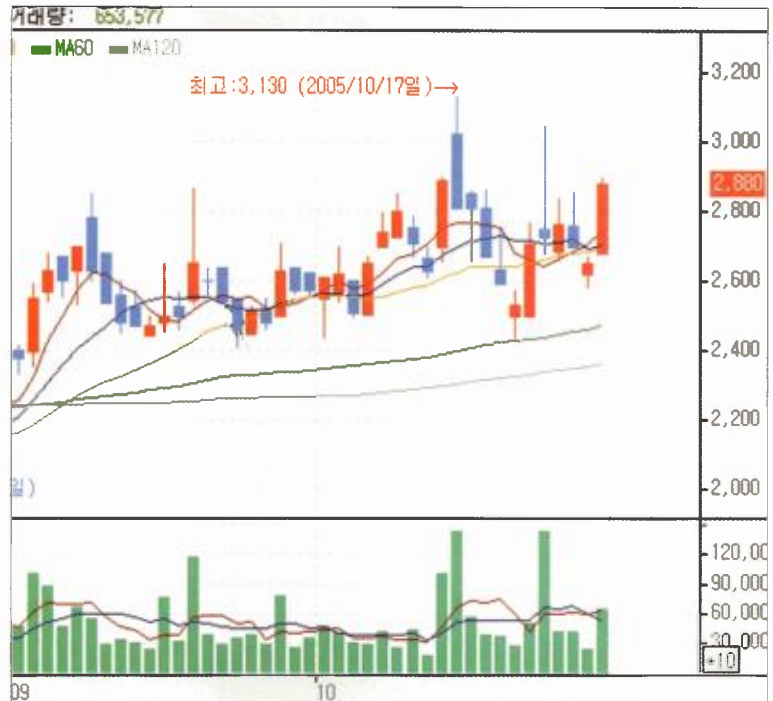


일봉



1시간봉

아래 그래프는 시공테크(020710)의 2005년 10월 31일 일봉 종가 그래프입니다. 당일 장중에는 오늘의 주가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시공테크 일봉 그래프(2005. 9~2005. 10. 31)

그러나 30분봉을 보면 주가가 상승추세에 있으므로 오늘의 주가가 상승한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다음 쪽 그래프 참조). 따라서 매매주문을 낼 때는 반드시 분봉을 보면서 주문을 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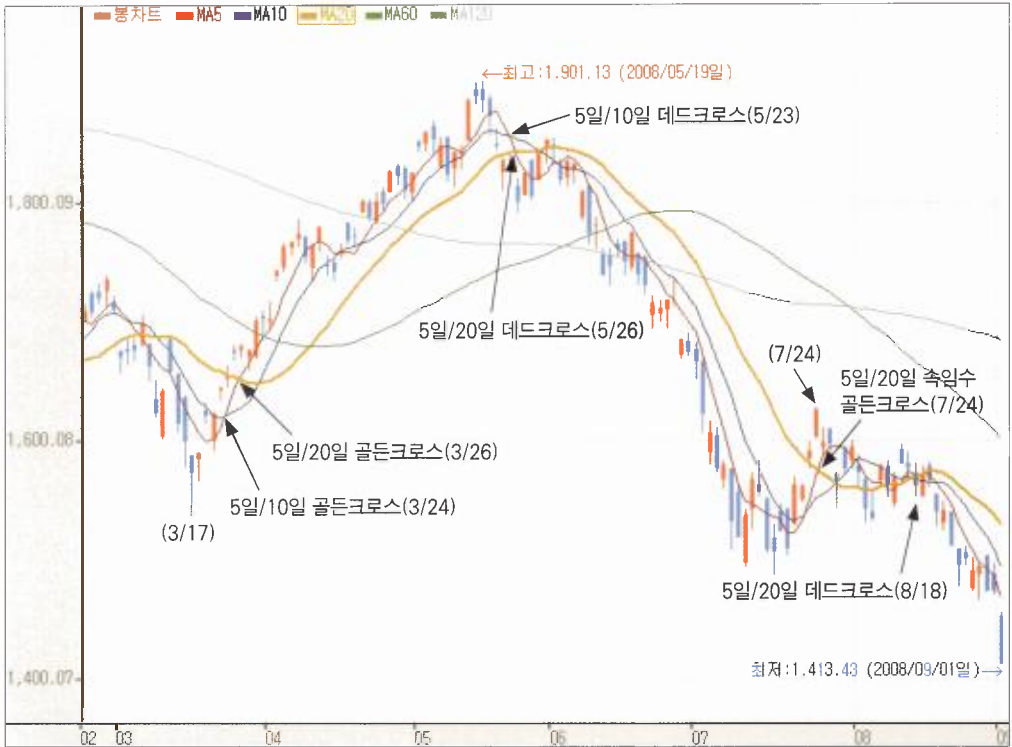
시공테크 30분봉 그래프(2005. 10. 31)

예제 1 다음 그래프는 KOSPI 일봉 그래프입니다.

1. 그래프에 나타난 이동평균선과 주가로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을 찾아보세요.
2. 향후 주가를 전망해 보세요.



KOSPI 일봉 그래프(2008. 2~2008. 9. 1)



KOSPI 일봉 그래프(2008. 2~2008. 9. 1)

1 주가와 이동평균선으로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을 찾아봅니다.

① 3월 17일 전형적인 추세반전형인 음봉 망치형을 출현시킨 주가가 연속해서 양봉 망치형을 출현시킨 뒤 5일선과 10일선 그리고 20일선을 차례로 상향 돌파하였습니다. 따라서 주가를 볼 때 5일선을 상향 돌파하면 종전의 매도 관점에서 매수의 관점으로 전환합니다. 파생상품의 경우 매도 포지션은 일단 정리해 둡니다.

그리고 주가가 5일선/10일선을 돌파하는 골든크로스(3월 24일) 발생시 1차 분할매수하고, 5일선/20일선을 돌파하면(3월 26일) 추가 매수합니다. 20일선을 돌파한 주가가 3일 이상 상승 돌파했으므로 추세적 전환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② 5월 19일 고점을 찍은 주가가 연속된 3개의 음봉을 출현시킨 뒤 5월 21일 5일 이평선을 하향 이탈하였으므로 종전의 매수 관점에서 매도 관점으로 전환합니다. 파생상품의 경우 매수 포지션은 일단 정리해 둡니다.

5일선/10일선 데드크로스(5월 23일) 발생시 분할매도하고, 5일선/20일선 데드크로스(5월 26일) 발생 때 전량 매도합니다. 20일선을 하향 이탈한 가격이 3일 이상 지속되었으므로 추세 전환 이탈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③ 7월 24일 주가가 20일선을 상향 돌파하고 5일선/20일선 골든크로스를 만들어 투자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장기 이평선인 120일선과 60일선이 하락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출현하는 골든크로스는 속임수 골든크로스인 경우가 많습니다. 주가도 7월 24일의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하락하였습니다.

④ 8월 18일 5일선/20일선 데드크로스 발생으로 추세 하락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2! 이동평균선으로 과거 주가를 확인하고 미래 주가를 예측해 봅니다.

① 120일선이 하락하고 있으므로 중장기 추세는 하락세입니다.

② 수급선인 60일선도 하락 → 횡보 → 하락으로 하락세입니다.

③ 심리선인 20일선으로 보면 4~5월은 상승, 6월 이후는 하락입니다. 20일선이 상승이면 단기추세는 상승으로, 20일선이 하락이면 단기추세는 하락이라고 판단합니다.

④ 주가가 상승추세일 때는 주가가 제일 높이 위치한 가운데 주가 → 5일선 → 10일선 → 20일선으로 정배열을 보이고, 주가가 하락할 동안에는 20일선 → 10일선 → 5일선 → 주가로 역배열을 보입니다.

⑤ 주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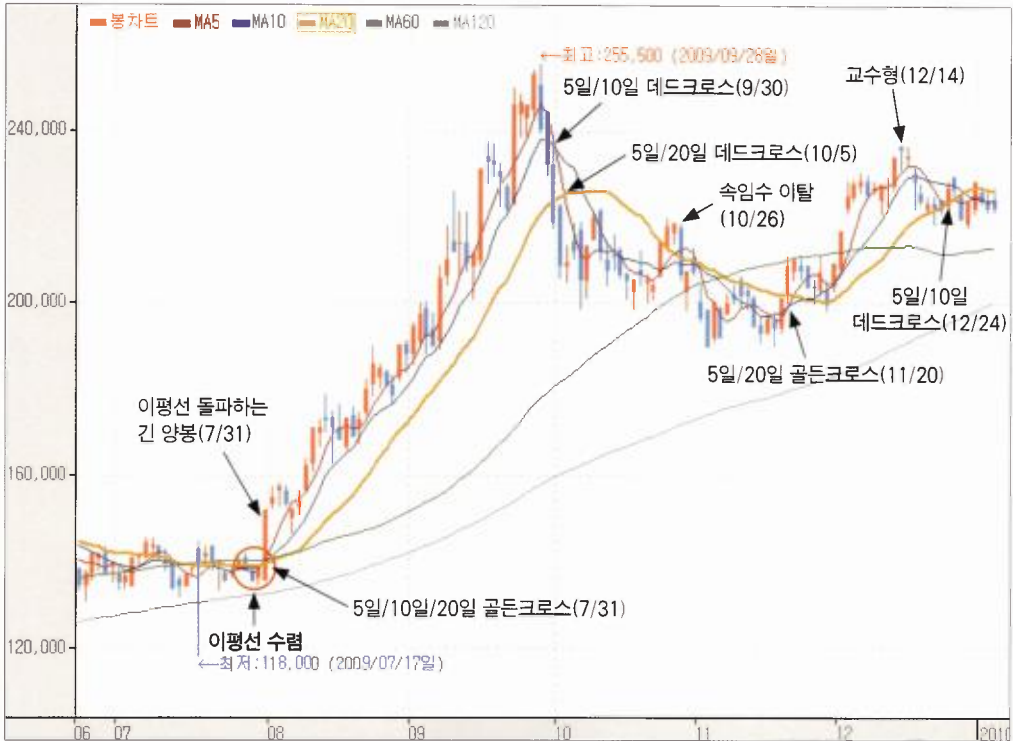
9월 1일 주가가 갭 하락으로 긴 음봉을 만들고 있습니다. 역배열 상태에서 주가가 하락할 때에는 추가 하락을 예측하여야 합니다.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고 선불리 바닥이라 판단하고 매수해서는 안 됩니다.

예제 2 아래 그래프는 LG화학(051910) 일봉 그래프입니다.

1. 그래프에서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을 찾아보세요.
2. 2010년 1월 6일 현재 향후 주가를 전망해 보세요.



LG화학 일봉 그래프(2009. 6~2010. 1. 6)



LG화학 일봉 그래프(2009. 6~2010. 1. 6)

1 | 주가와 이동평균선으로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을 찾아봅니다.

① 이평선 수렴을 돌파하는 양봉은 매수 신호

7월 30일까지 138,000원 선에서 횡보를 보여 주가와 장단기 이평선이 한곳에 수렴해 있습니다. 그런데 7월 31일 긴 양봉이 출현하여 5일선, 10일선, 20일선을 일시에 돌파하였습니다. 이평선 수렴을 상향 돌파하면 강력한 매수 신호가 되고 상승폭도 큰 경우가 많습니다. 주가는 138,000원에서 255,000원까지(9월 28일) 85%나 상승하였습니다. 주가가 상승하는 동안 10일선이 지지선이 되었고 한번도 10일선을 깨지 않았습니다.

② 9월 28일 하락장악형 봉이 출현한 이후 4일 연속 긴 음봉을 출현시키면서 5일선, 10일선, 20일선을 차례로 하락 돌파하였습니다. 5일선/10일선 데드크로스 발생시 분할매도하고, 5일선/20일선 데드크로스

발생시 확인 매도합니다.

③ 10월 26일 주가가 20일선을 상향 돌파하였으나 3일을 버티지 못하고 다시 20일선 아래로 내려갔기 때문에 속임수 돌파라고 봅니다.

④ 11월 20일 5일선/20일선 골든크로스가 발생하였으므로 매수합니다.

⑤ 12월 14일 교수형 봉이 출현한 뒤 12월 24일 5일선/20일선 데드크로스가 발생하여 매도 신호를 주고 있으므로 분할매도합니다.

2 | 2010년 1월 6일 이후 주가를 예측해 봅니다.

양봉과 음봉을 반복해서 출현시키면서 주가와 이평선이 다시 수렴하는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가는 새로운 신호를 보낼 때까지 횡보로 전망합니다.

예제 3 아래 그래프는 LG화학(051910) 일봉 그래프입니다.

1. 그래프에서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을 찾아보세요.
2. 2009년 1월 15일 현재 향후 주가를 전망해 보세요.



LG화학 일봉 그래프(2008. 7~2009. 1. 15)

해설 3

1 주가와 이동평균선으로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을 찾아봅니다.

- ① 중장기 이평선인 120일선, 60일선이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는 158,330원(2008년 8월 11일)을 고점으로 76,112원(2008년 11월 21일 장중 저점)까지 51.8% 하락하였습니다.
- ② 8월 22일 긴 음봉이 출현하면서 5일선, 10일선, 20일선을 모두 하락 이탈하였으므로 매도합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파생상품의 경우 매수 포지션을 정리하고 매도 포지션은 보유합니다.



③ 9월 23일 긴 양봉을 출현시키면서 5일선/20일선 골든크로스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주가는 60일 저항선에 막혀 다시 하락하였습니다. 5일선/10일선 데드크로스(10월 1일)가 발생할 때 분할매도하고, 5일선/20일선 데드크로스(10월 6일)가 발생할 때 전량 매도합니다.

④ 11월에 20일선을 두 차례 돌파하였으나 속임수 돌파임이 확인되었습니다.

⑤ 그러나 11월 21일 상승장악형인 긴 양봉을 출현시킨 후 주가는 상승으로 전환되었습니다. 12월 10일 긴 양봉을 출현시키면서 5일선/10일선/20일선 골든크로스가 발생하였으므로 매수합니다.

2 | 2009년 1월 15일 이후 주가를 예측해 봅니다.

1월 15일 음봉이 출현해 20일선에 닿아 있습니다. 그러나 주가는 20일선 위에 있고 이평선의 데드크로스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주식 보유자는 매수 관점을 유지하되 주가 추이를 좀더 관망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시스템 트레이딩(System Trading)이란 자신의 자의적인 판단이나 편견을 배제하고 일정한 매매 규칙을 이용하여 일관되게 매매를 함으로써 목표수익률을 실현하고자 하는 매매방식입니다. 특정 종목의 매수가격과 수량 또는 매도가격과 수량을 컴퓨터에 프로그래밍해 두고 사전에 정해 놓은 매매조건이 충족되면 컴퓨터가 매매를 체결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트레이딩을 하게 되면 큰 손해를 보지 않는 장점이 있는 대신 잦은 매매로 큰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단점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추세선과 이동평균선을 복습하는 의미에서 존 머피(John Murphy)의 시스템 트레이딩 원칙 10가지를 소개합니다.

1. 장기 차트를 분석하라(Map the trends).
2. 추세를 찾아 그에 따라라(Spot the trend and go with it).
3. 지지와 저항 수준을 찾아라(Find the low and high of it).
4. 되돌림 수준을 고려하라(Know how far to backtrack).
5. 추세선을 그려보라(Draw the line).
6. 이동평균선을 활용하라(Follow that average).
7. 전환 시점을 탐지하라(Learn the turns).
8. 경고 신호를 확인하라(Know the warning signs).
9. 추세인지 아닌지 확인하라(Trend or not a trend).
10. 신뢰할 수 있는 지표인지 알아보라(Know the confirming signs).

여기서 4번 항목의 되돌림이란 주가가 추세 또는 파동을 그릴 때 기존의 방향과는 반대방향으로 반작용이나 조정을 보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계나 시스템은 인간에게 도움을 줄 수는 있어도 인간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만이 예기치 못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스템 트레이딩의 한계입니다.



장비가 매표소를 박살낸 이후

삼국지의 주인공 유비, 관우, 장비 삼형제가 극장에 갔다. 막내인 장비가 표를 사러 가더니 표는 사지 않고 극장 매표소를 박살내고 있었다. 깜짝 놀란 유비가 그 까닭을 묻자 장비가 말했다.

“아, 조조만 할인해 준다잖아요.”

주식은 바닥에서 살 수 없듯이 꼭지에서 팔지 못합니다. 설령 바닥에서 사고 꼭지에서 팔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실력이라기보다 우연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바닥에서 사고 꼭지에서 팔지는 못하더라도 차트분석을 활용하면 바닥권에서 사고 천정권에서 팔 수는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법 3가지를 소개합니다. 첫째는 추세선을 이용하여 저항선을 돌파하면 매수하고, 지지선을 벗어나면 매도하는 방법입니다. 두번째는 주가 파동 이론을 적용하여 주가가 저점을 높이는 두번째 파동이 있을 때 매수하고, 주가가 고점을 낮추는 두번째 파동이 있을 때 매도합니다. 세번째는 이동평균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주가가 5일 이동평균선과 20일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할 때마다 매수하고, 주가가 5일 이동평균선과 20일 이동평균선을 하향 돌파할 때마다 매도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무릎에서 사고 어깨에서 파는' 기본적인 기술은 익힌 셈입니다. 그러나 좀더 정밀하게 매매하려면 MACD, 스토크스틱 등의 보조지표를 활용해야 합니다.



패턴 분석을 이용한 매매방법

패턴 분석은 과거의 패턴이 미래에도 반복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예외가 많으므로 투자 결정을 위해서는 신기술적 분석 지표를 동시에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패턴 분석이란?

증권 전문가들은 오랫동안 축적된 경험과 과거 데이터의 분석을 통해서 그래프의 모양에 따라 주가가 오르고 내린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래프의 모양을 몇 가지 형태로 정형화해 패턴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고, 이를 분석해 앞으로의 주가 향방을 예측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과거의 주가 흐름을 통해 검증된 패턴을 현재의 주가 흐름에 대입해 주가의 등락을 예측하는 것을 패턴 분석이라고 합니다. 통계학적인 관점의 확률론과 유사한 것이죠. 그럼에도 다수의 투자자가 동일한 판단자료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은 패턴이 그만큼 위력 있는 정보라는 것을 반증한다 할 수 있습니다.

패턴에는 크게 반전형 패턴과 지속형 패턴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전형 패턴은 다시 하락하던 주가가 상승으로 전환되는 상승 반전형 패턴과 상승하던 주가가 하락으로 반전되는 하락반전형 패턴으로 구분됩니다.

상승 반전형 패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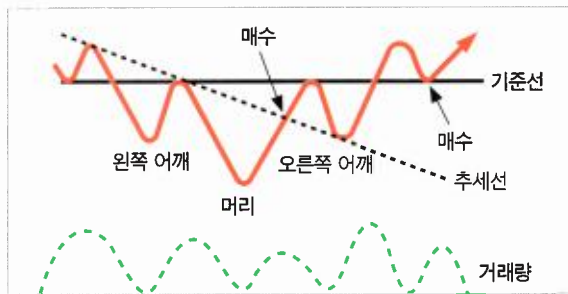
삼중바닥형(역Head&Shoulder형), 이중바닥형(쌍바닥형), 원형바닥형, V자형바닥형, 상승삼각형, 상승박스형, 대칭삼각형

투자
포인트

이런 패턴이 나타날 때는 매수의 기회로 생각합니다.

1) 삼중바닥형(역H&S형)

삼중천정형(150쪽 참고)을 거꾸로 돌려놓은 그림입니다. 주가 상승의 대표적인 모양 중의 하나입니다. 거래량은 왼쪽 어깨에서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주가가 급락한 머리 부분에서 가장 저조합니다. 그러나 오른쪽 어깨에서는 거래가 급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

추세선인 저항선을 상향 돌파할 때 매수, 기준선까지 되돌림 현상 발생시 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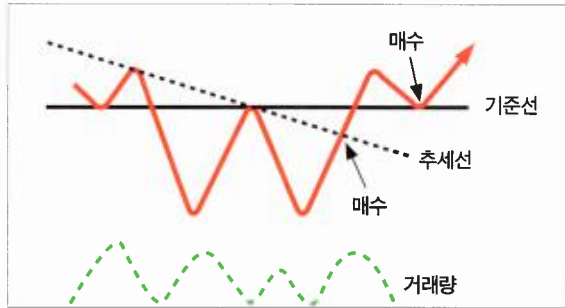
2) 이중바닥형(쌍바닥형 또는 W자형)

이중천정형(150쪽 참고)을 거꾸로 돌려놓은 모양입니다. 바닥에서 두 차례나 지지를 받아 상승하기 때문에 전형적인 상승 모양입니다.

★ 알아두세요

기준선이란?

기준선은 목선(Neck Line)이라고도 하며 의미 있는 고점과 저점을 연결하였을 때 만들어지는 수평선으로 시세의 균형선의 의미를 갖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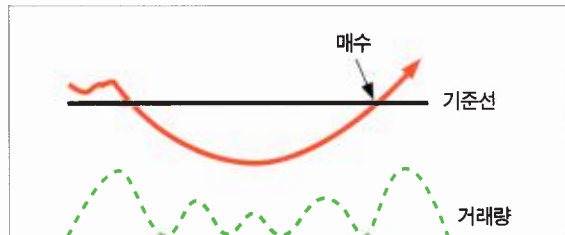


투자
포인트

추세선 돌파시 매수, 기준선까지 조정시 매수

3) 원형바닥형

원형천정형(151쪽 참고)을 거꾸로 돌려놓은 그림입니다. 원형을 완성한 후 보합권을 이탈하여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상승할 경우 추가 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바닥 이후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다가 기준선을 넘어설 때는 거래량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보통 원형바닥형이 완성되고 나면 큰 폭으로 주가 상승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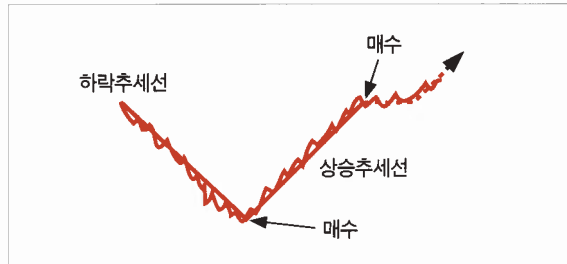


투자
포인트

기준선 상향 돌파시 매수

4) V자형바닥형

하락하던 주가가 상승으로 방향을 전환한 경우입니다. 상승추세선에서 거래량이 늘면 상승에 대한 신뢰도 높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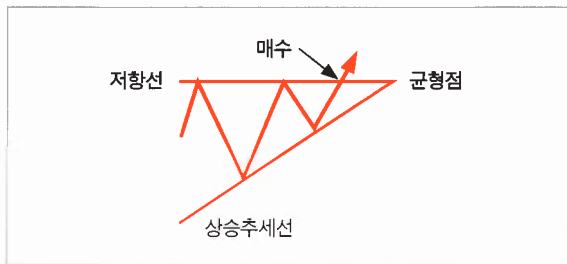


투자
포인트

매수

5) 상승삼각형

저점은 상승추세선을 타고 높아지고 고점은 저항선으로 만들어진 삼각형입니다. 삼각형 수평선(저항선)을 돌파할 경우 추가 상승이 예상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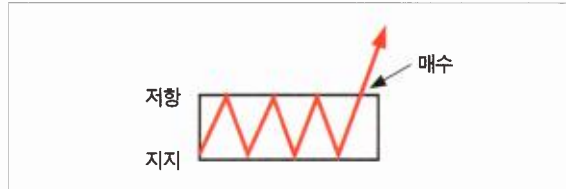


투자
포인트

저항선 상향 돌파시 매수

6) 상승박스형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던 주가가 박스를 상향 돌파할 때 추가 상승이 예상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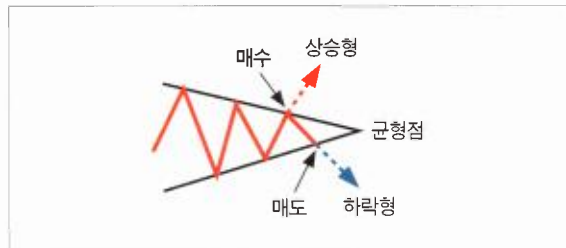


투자
포인트

박스권 상향 돌파시 매수

7) 대칭삼각형

고점 추세선은 하락하고 저점 추세선은 상승하여 균형이 잡힌 삼각깃대형입니다. 이럴 경우는 삼각깃발을 어느 방향으로 돌파하느냐에 따라 상승 또는 하락이 예상됩니다.



투자
포인트

상향 이탈시 매수, 하향 이탈시 매도

하락 반전형 패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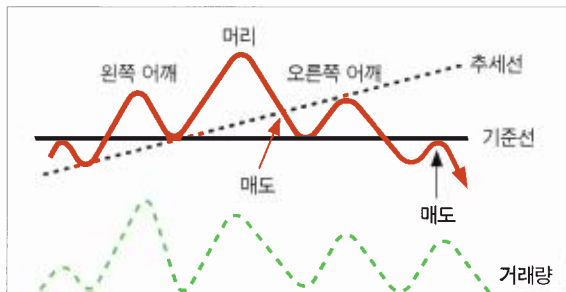
삼중천정형(Head&Shoulder형), 이중천정형(쌍봉형), 원형천정형, 역V자형천정형, 하락삼각형, 하락박스형, 확장삼각형

투자
포인트

이런 패턴이 나타날 때는 매도의 기회로 생각합니다.

1) 삼중천정형(H&S형)

봉우리 3개가 사람의 머리와 어깨처럼 그려진 패턴입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고 주가 하락의 전형적인 모양 중 하나입니다. 거래량은 왼쪽 어깨에서 가장 많고 최고점인 머리 부분에서는 거래량이 줄어 상승에너지가 둔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투자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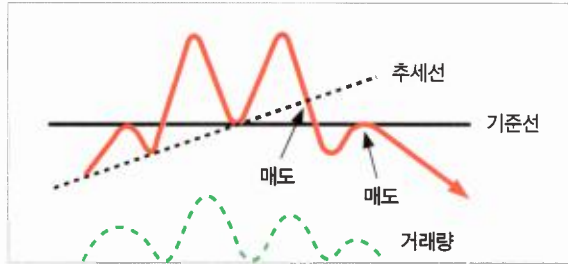
추세선 하향 이탈시 매도, 기준선까지 반등시 매도

최소 예상 하락폭은 기준선에서 머리까지의 수직 높이임

2) 이중천정형(쌍봉형 또는 M자형)

두 개의 산봉우리가 만들어진 쌍봉 그림입니다. 두 차례나 동일한 가격 선에서 저항을 받아 내려오기 때문에 전형적인 하락 모양입

니다. 두번째 봉우리에서의 거래량은 첫번째 봉우리에 비해 적은 것이 보통입니다. 봉우리 사이의 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고점에서 30% 이상 하락해야 쌍봉으로서의 의미를 갖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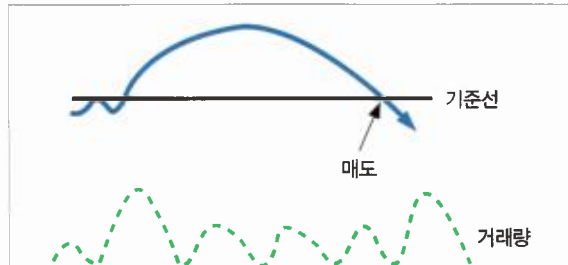


투자
포인트

추세선 이탈시 매도, 기준선까지 반등시 매도

3) 원형천정형

주가가 상승 후에 힘에 부쳐 원형으로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주가가 상승하는 동안엔 거래량이 늘었다가 원형 정상에서는 줄어드는 특색이 있습니다. 이 모형은 수요와 공급이 점진적으로 변화하여 형성되기 때문에 대칭성이 강하고, 형성기간이 길기 때문에 모형이 완성되고 나면 낙폭이 큰 것이 특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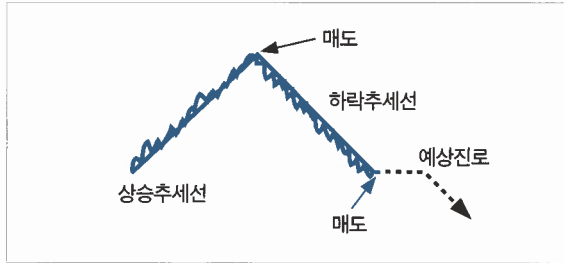


투자
포인트

기준선에서 반등하지 못할 때는 매도

4) 역V자형천정형

V자형바닥형과 반대로, 기세 좋게 오르던 주가가 하락으로 방향을 전환한 경우입니다. 상승과 하락 사이의 각도가 유사합니다. 특히 거래량이 줄어들 때에는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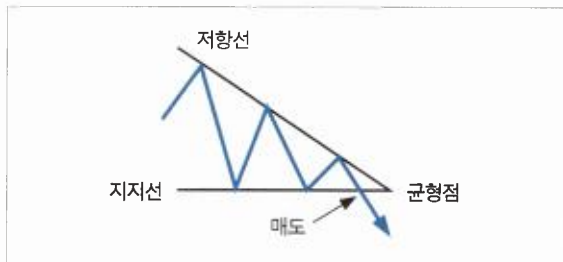


투자
포인트

매도

5) 하락삼각형

고점은 하락추세선을 타고 낮아지고 저점은 수평선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지지선을 하향 돌파할 때 추가 하락이 예상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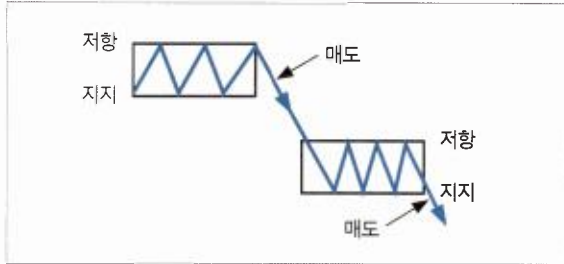


투자
포인트

지지선 하향 돌파시 매도

6) 하락박스형

주가가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다가 박스를 하향 돌파할 때 추가 하락이 예상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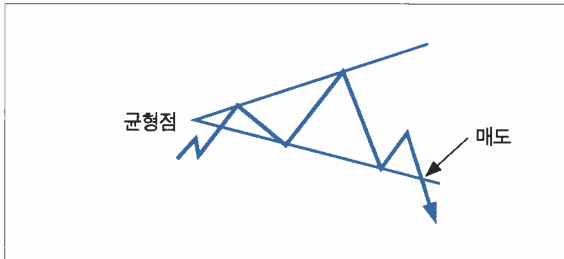


투자
포인트

박스권 하향 돌파시 매도

7) 확장삼각형

대칭삼각형과 반대로 균형점에서 주가가 확산되어 가는 모양입니다. 상승추세가 끝나고 하락으로 전환될 때 나타납니다.



투자
포인트

하향 이탈시 폭락이 나올 수 있으므로 매도

패턴 분석의 한계와 보완방법

다수의 투자자들이 매매시점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는 패턴 분석은 투자분석 방법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기는 하지만, 과거의 패턴이 미래에도 똑같이 되풀이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패턴 분석은 거래량 분석과 동시에 해야 더욱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주가를 예측할 때는 패턴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래프의 기본인 봉, 추세선, 이동평균선을 먼저 보고 패턴은 참고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보조지표인 MACD, 스톡캐스틱, 일목균형표도 함께 보면 적중률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예제 1 다음은 SK이노베이션(096770) 일봉 그래프입니다. 삼중바닥형(역Head&Shoulder형) 패턴을 그려보고 매수시점을 찾아보세요.



SK이노베이션 일봉 그래프(2008. 7~2009. 2)

해설 1

삼중바닥형은 바닥이 3개인 경우로 삼중천정형(Head&Shoulder형)을 꺼꾸로 세워둔 모양입니다. 추가 바닥은 봉우리가 하나뿐인 외바닥, 봉우리가 둘인 쌍바닥(이중바닥 또는 W자형), 봉우리가 셋인 삼중바



SK이노베이션 일봉 그래프(2008. 7~2009. 2)

닥, 봉우리가 넷 이상인 다중바닥이 있습니다. 대체로 외바닥에 비해 이중바닥 또는 삼중바닥이 바닥에 대한 신뢰가 높습니다. 삼중바닥은 세 봉우리 중 머리에 해당하는 가운데 봉우리가 가장 낮고 양옆의 두 봉우리는 높습니다. 유의할 점은 패턴을 그릴 때는 꼬리도 포함해서 그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1 먼저 추세선을 그려봅니다. 하락추세에서 추세선은 고점과 고점을 이은 선으로 주가 상승을 가로막는 저항선 역할을 합니다.

2 저항선 역할을 하는 추세선을 돌파하면 매수 신호입니다(1차 매수 신호).

3 기준선을 돌파하면 2차 매수 신호입니다. 기준선은 등락폭의 중심이 되는 선으로 매수세력과 매도세력이 힘을 겨루는 양대 세력의 중간 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준선은 자동으로 그려지지 않으므로 본인이 직접 그려보아야 합니다.

4 삼중바닥형은 일반적으로 왼쪽 어깨보다 가운데 머리와 오른쪽 어깨에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예제 2 다음은 삼성전자(005930) 일봉 그래프입니다. 그래프에서 삼중천정형을 그려보고 매도시점을 찾아보세요.



삼성전자 일봉 그래프(2008. 2~2008. 8)



삼성전자 일봉 그래프 (2008. 2~2008. 8)

삼중천정형은 천정권에서 봉우리 3개를 만들고 하락으로 전환되는 전형적인 하락 패턴입니다. 가운데 제일 높은 봉우리를 머리라 하고, 왼쪽 봉우리를 왼쪽 어깨, 오른쪽 봉우리를 오른쪽 어깨라고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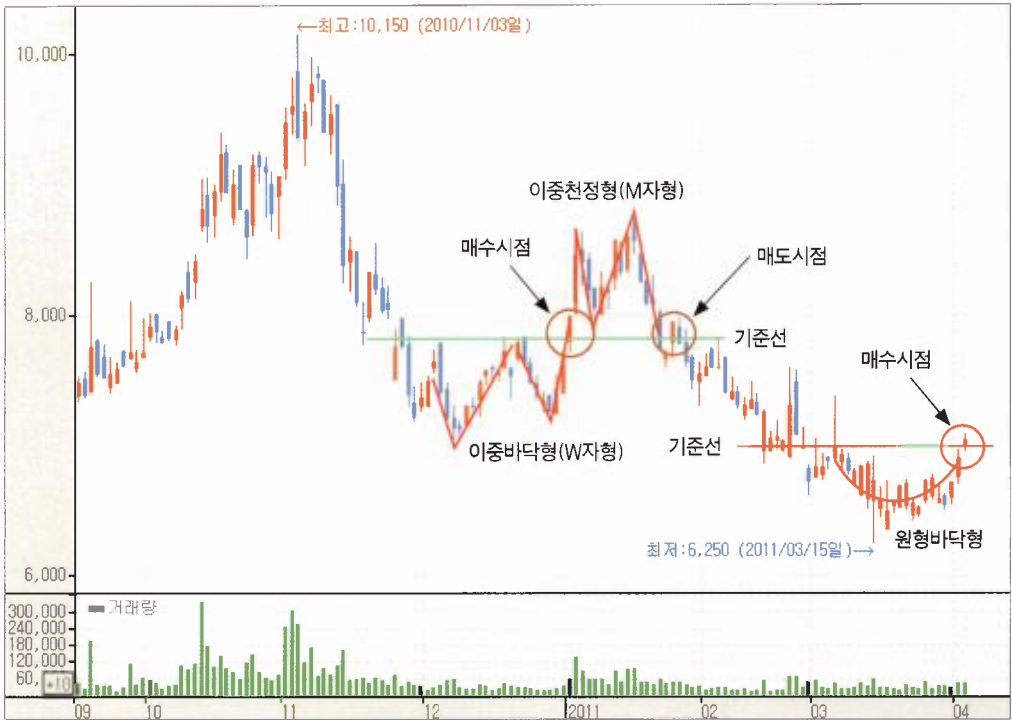
1 먼저 추세선을 그려봅니다. 저점과 저점을 잇는 상승추세선은 주가 상승을 지지하므로 지지선이 됩니다. 따라서 주가가 지지선을 하락 이탈하면 1차 매도시점이 됩니다.

2 3번째 봉우리에서 갭으로 기준선을 하락 이탈하였으므로 2차 매도시점이 됩니다.

예제 3 다음은 동국S&C(100130) 일봉 그래프입니다. 그래프에 있는 봉을 보고 이중바닥형, 이중천정형, 원형바닥형 등을 그려보고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을 찾아보세요.



동국S&C 일봉 그래프(2010. 9~2011.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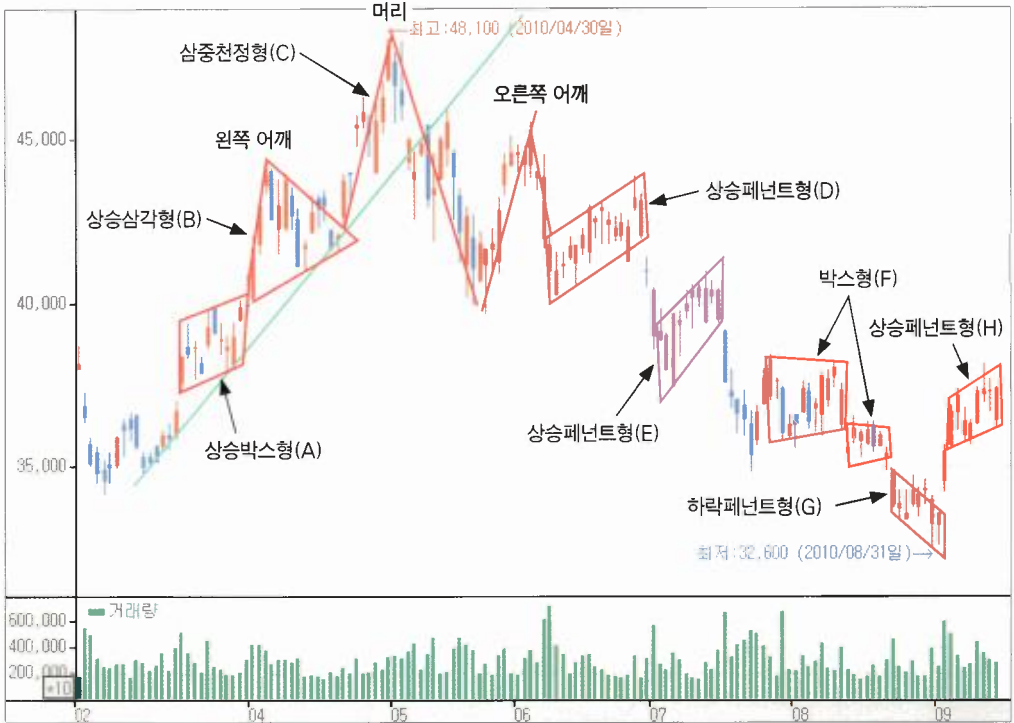
동국S&C 일봉 그래프(2010. 9~2011. 4)

- 1 | 이중바닥형을 만든 후 기준선을 상향 돌파하는 시점이 매수시점이 됩니다.
- 2 | 이중천정형을 만든 후 기준선을 하락 이탈하는 시점이 매도시점이 됩니다.
- 3 | 원형바닥형의 경우에도 기준선을 상향 돌파하면 매수시점이 됩니다. 원형바닥형의 경우 원의 지름이 크면 클수록 주가 상승폭도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제 4 다음은 LG디스플레이(034220) 일봉 그래프입니다. 그래프에서 주가 패턴을 그려보고 매수·매도 시점을 찾아보세요.



LG디스플레이 일봉 그래프(2010. 2~2010. 9)



1개의 삼각형 패턴과 다수의 사각박스형이 보입니다. 어느 경우에도 패턴을 상향 돌파하면 매수시점이 되고, 패턴을 하락 이탈하면 매도시점이 됩니다.

- 1 | A는 상승박스형입니다. 박스는 반드시 정사각형일 필요는 없습니다. 박스형 상향 돌파는 매수시점입니다.
- 2 | B는 상승추세에서 자주 발생하는 상승삼각형 모양입니다. 상승삼각형을 상향 돌파하면 매수시점이 됩니다.
- 3 | C는 천정권에서 봉우리가 3개 있으므로 삼중천정형에 해당하고 제일 높은 봉우리에서 추세를 하락 이탈하면 매도시점이 됩니다.
- 4 | D는 박스형 중에서 펜넌트(pennant)같이 생겼다고 해서 펜넌트형이라고도 합니다. 박스권 하락 이탈이면 매도시점이 됩니다.
- 5 | E, F, G도 모두 광의의 박스형입니다. 모두가 박스권 이탈은 매도시점이었습니다.
- 6 | H는 G박스를 상향 돌파하였으므로 매수 신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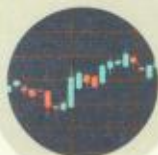
“심조불산하니 호보연자라.”

큰스님이 10년 동안의 와불좌선(눕지 않고 앉아서 참선을 하는 것)을 끝내고 동굴 밖으로 나오는 날이었다. 모든 스님들이 동굴 입구까지 가서 큰스님을 모시고 절로 내려왔다. 법당에 좌정한 큰스님에게 모두들 한말씀 해달라고 간청을 하자 청에 못 이긴 큰스님이 한마디 했다.

“심조불산하니 호보연자라.”

이 말을 들은 스님들은 그 뜻을 몰라 서로 얼굴만 쳐다보다가 큰스님에게 설명을 청했다. 그러자 큰스님은 “야 이놈들아, 두 눈을 뜨고도 눈에 보이는 것을 보지 못하면서 어찌 보이지 않는 도를 얻으려고 하느냐”라고 호통을 친 후에 당신이 산을 내려오다 본 ‘자연보호 산불조심’이라고 쓰인 현수막을 보이는 대로 읽은 것 뿐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좌정해 있던 스님들은 큰스님의 설법에 크게 깨우쳤다고 한다.

차트를 읽는 사람들은 그래프를 볼 때 빠른 시간 안에 크게 오를 종목을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장기간의 추세를 벗어나 새로운 추세를 형성하는 종목, 골든크로스를 만드는 종목, 강한 양봉을 만드는 종목,布林저밴드를 벗어나는 종목, 갭으로 상승이나 하락한 종목, 대량거래를 수반하는 종목 등이 급등 종목을 찾는 데 활용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급등하거나 급락한 종목을 선정할 경우에는 자칫 상투에서 주식을 매수하거나 바닥에서 매도하는 실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실수를 줄이려면 그래프를 거꾸로 뒤집어놓고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프를 뒤집어놓고 보면 똑바로 보는 그래프와 비교도 되고 내가 사거나 팔 때 나와 반대편에서 매매상대가 되는 사람들의 생각을 헤아려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래량 분석을 이용한 매매방법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사고판 주식수, 즉 거래량을 보고도 어느 정도는 주가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거래량 증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거래량 지표 활용법을 알아봅니다. 거래량 그래프는 보통 막대그림으로 가격 그래프 아래에 그려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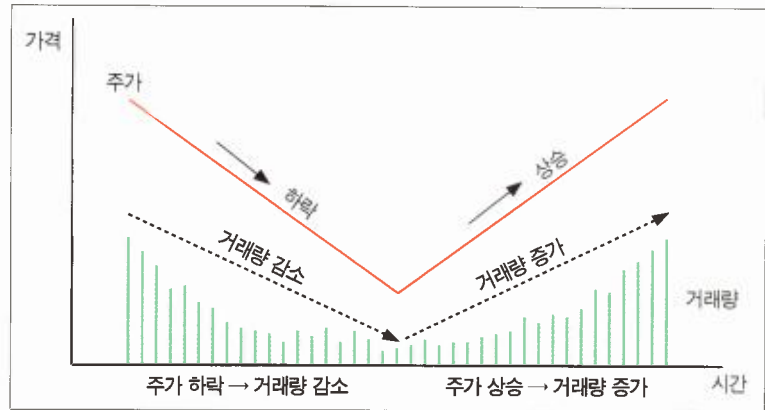
거래량 분석이란?

주가가 시장에서의 가격 흐름을 나타낸 것이라면, 거래량은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사고판 주식수를 말합니다.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힘을 겨룬 결과인 거래량의 변화를 보고 주가의 흐름을 예측하는 것을 거래량 분석이라고 하는데, 거래량 그래프는 보통 막대그림으로 가격 그래프 아래에 그려집니다.

일반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때는 거래량이 증가하고, 주가가 하락할 때는 거래량이 감소합니다. 다시 말해 거래량은 주가의 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추세와 반대로 움직인다면 이는 주가의 추세가 반전될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입니다.

거래량을 보고 주가 예측하기

① 거래량은 주가의 그림자라 할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늘면 주가가 상승하고, 거래량이 줄면 주가도 하락합니다. 주가가 상승하면 이익실현 욕구로 매도물량이 증가하고, 추가 상승을 기대하는 매수세력이 새로 진입해 자연스레 거래가 증가합니다.



아래 거래량 그래프는 반도체 장비(Asher) 제조업체인 코스닥 상장기업 피에스케이(031980) 일봉 그래프입니다.



피에스케이 일봉 그래프(2010. 3. 25~2010. 10.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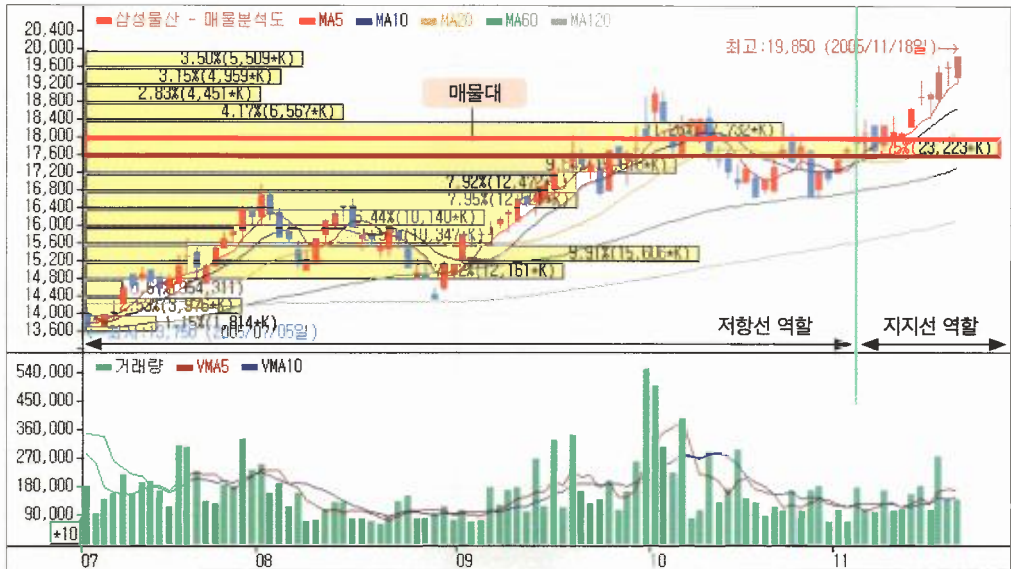
위 그래프를 통해서도 주가가 상승할 때는 거래량이 증가하고 주가가 하락할 때는 거래량이 감소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5월 17일~27일에는 주가가 폭락하고 있음에도 거래량이 줄기는커녕 오히려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주가는 장기적으로 하락하였습니다.

② 주가가 매물대를 상향 돌파할 때는 주가의 추가 상승이 예상되고, 매물대는 새로운 지지선이 됩니다. 반대로 매물대를 하향 돌파하는 경우에는 주가가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매물대는 저항선이 됩니다.

매물대란 일정한 가격대에 거래가 집중됨으로써 이 구간을 돌파하는 것이 부담이 되는 가격대를 말합니다. 주가가 매물대에도달하면 기다리고 있던 이익실현 물량과 손절매성 물량이 출현하여 주가 상승에 부담이 되는 벽이 되기 때문에 매물부담벽이라고도 합니다.

매물부담 차트는 오른쪽 그래프와 같이 가격대별로 막대그래프로 그려집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삼성물산의 일봉 매물대 그래프입니다. 2005년 1월에서 11월까지의 10개월 거래량 중 17,600원~18,000원대에서 전체 거래량의 약 30%가 거래되어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2005년 11월 8일까지는 매물대가 저항선으로 작용하였으나 매물대를 돌파하고 상승한 이후에는 저항선에서 지지선으로 바뀌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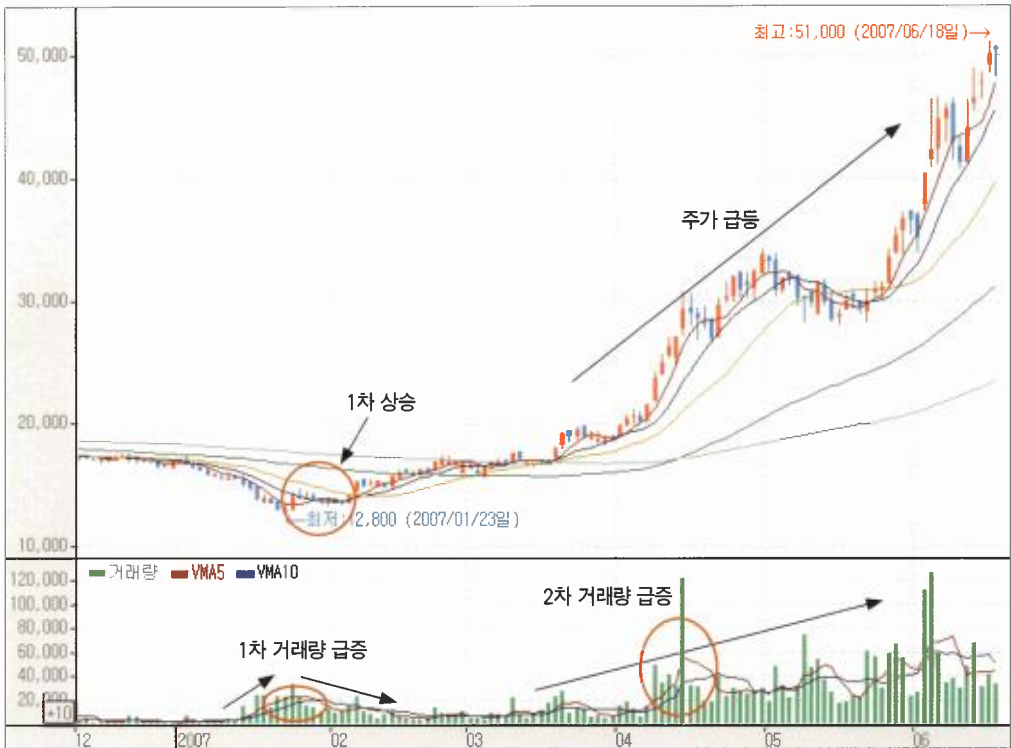


삼성물산 일봉 매물대 그래프(2005. 7~2005. 11)

③ 주가가 장기간 횡보하던 중에 거래량이 급증하면 대세 상승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주가가 장기간 횡보하게 되면 거래량도 위축되게 마련인데 거래량이 갑자기 증가한다는 것은 매수세력이 개입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래량이 갑자기 증가하는 경우 바로 대세 상승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대기매물에 밀려 잠시 쉬었다가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다시 말해 매수세력에 의한 매집이 끝난 뒤에 대세 상승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그래프는 OCI머티리얼즈(036490) 일봉 그래프입니다. 2007년 1월까지 17,000원 선에서 주가가 횡보할 때에는 거래량도 소강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1월 말에 거래량이 갑자기



OCI머티리얼즈 일봉 그래프(2006. 12~2007. 6)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후 다시 17,000원 선에서 횡보하던 주가가 3개월 후인 4월에 다시 1월보다 더 많은 대량거래와 함께 급등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가 급증하는 종목은 급등주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심종목에 넣어두고 지켜보아야 합니다.

④ 대량거래를 수반하며 거래량이 꽃을 피울 때는 큰손이 보유 물량을 팔고 나가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주가도 붕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매도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앞의 피에스케이 그래

★ **알아두세요**

매집과 분산

매집은 추가 상승을 예상하고 세력이 주식을 사모는 것을 말하고, 분산은 세력이 손을 털고 이탈하는 것을 말합니다.

★ **알아두세요**

거래량 이동평균선 활용 방법

거래량이 거래량 5일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다면 추세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줄었다는 뜻이며 이는 반전이 임박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반대로 거래량이 거래량 이동평균선 위에 있다면 추세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프에서도 5월 14일 주가가 정점일 때 거래량이 108,000주에 육박해 일평균 거래량의 5배가 넘는 모습을 보인 뒤 주가가 폭락하였습니다.

⑤ 큰손이 거래할 때는 매매단위가 크고, 일반투자자들이 거래할 때는 거래단위가 적습니다. 따라서 장중 시세에서 나타나는 거래단위를 보면 큰손의 개입 여부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⑥ 주가가 상승한 날의 거래량은 매집물량이고, 주가가 떨어진 날의 거래량은 분산물량입니다. 앞의 피에스케이와 OCI머티리얼즈 그래프에서 양봉 발생일 거래량은 매집물량이고, 음봉 발생일 거래량은 보유 주식을 털고 나가는 분산물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래량 이동평균선과 거래대금 이동평균선

주가 이동평균선과 거래량 이동평균선은 대체로 등락을 같이합니다. 다만 거래량 이동평균선이 주가보다 다소간 선행한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래량 이동평균선의 활용방법은 원칙적으로 주가 이동평균선과 같습니다(05장 참조).

개별종목보다 시장의 방향을 전망할 때는 거래량 이동평균선과 함께 거래대금 이동평균선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래량은 적는데 거래대금이 많다면 고가주가 주로 거래되었다는 뜻이고, 거래량은 많은데 거래대금이 적다면 저가주가 많이 거래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고가주가 많이 거래되었다는 것은 우

★ **알아두세요**

OBV선은 어떻게 활용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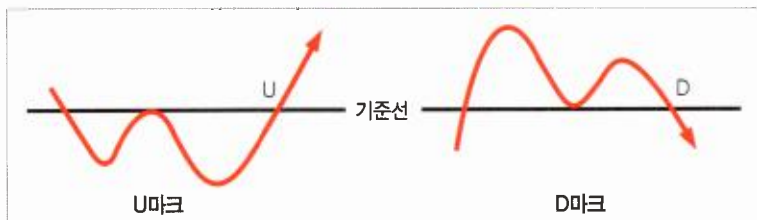
OBV선은 '거래량은 주가에 선행한다' (Volume precedes price)는 전제하에 그래프를 만든 지표로서 큰손이나 세력이 주식을 단계적으로 매집하거나 처분하려고 할 때 활용하는 지표입니다. 계산은 컴퓨터가 다 알아서 해주므로 어떻게 그려지는지 정도만 알아두세요.

거래량 분석의 보조지표 OBV선

OBV(On Balance Volume)선은 특정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주가가 상승한 날의 거래량 합계(Up-Volume)에서 하락한 날의 거래량 합계(Down-Volume)를 차감하고 이를 매일 누적 집계하여 그래프화한 것입니다. 주가가 오른 날의 거래량은 매집으로 보고, 주가가 떨어진 날의 거래량은 분산으로 보아 매수세력과 매도세력의 힘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OBV선 그리는 방법

- ① 특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날의 거래량을 OBV 산출기준으로 삼는다.
 - ② 주가 상승일의 거래량은 전일 OBV에 가산한다.
 - ③ 주가 하락일의 거래량은 전일 OBV에서 차감한다.
 - ④ 주가 무변동일의 거래량은 무시하고 전일 OBV를 그대로 이용한다.
 - ⑤ 강세시장은 U마크(Up), 약세시장은 D마크(Down)로 표시한다.
- 강세시장은 OBV선의 고점이 이전의 고점보다 높게 형성되는데 이전의 고점을 돌파하는 시점을 U마크로 표시합니다. 약세시장은 OBV선의 저점이 이전의 저점보다 낮게 형성되는데 이전의 저점을 돌파하는 시점을 D마크로 표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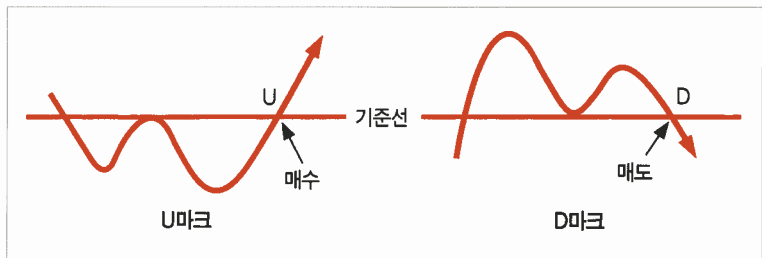
U마크와 D마크

OBV선은 어떻게 참고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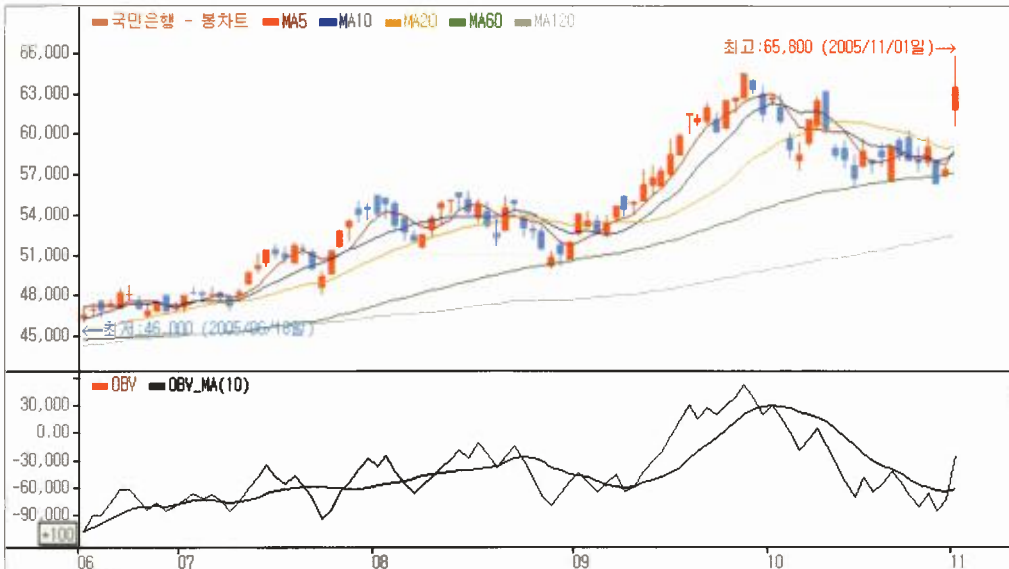
- ① OBV선의 상승은 매집세력이 매수한 것이고, OBV선의 하락은 매집세력이 매도한 것으로 봅니다.
- ② OBV선이 장기적으로 상승하면 대세 상승장으로 보고, OBV선이 장기적으로 하락하면 대세 하락장으로 봅니다.
- ③ OBV는 거래량은 가격 변화보다 선행한다는 이론입니다. 따라서 OBV선이 상승하는데 주가가 하락하면 상승 반전이, OBV선이 하락하는데 주가가 상승하면 하락 반전이 예상됩니다.

OBV선을 이용해 투자시점 판단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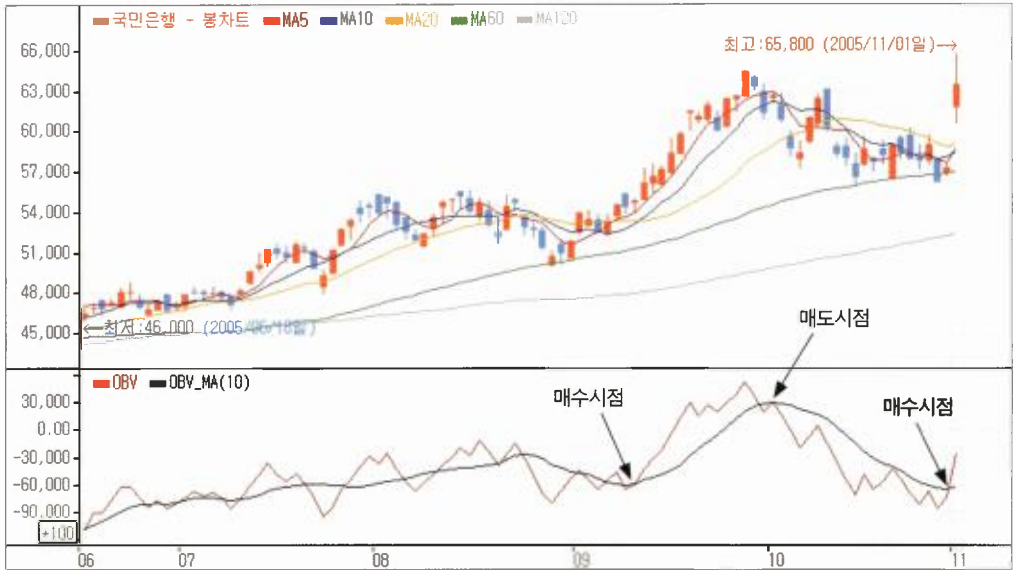
- ① OBV선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U마크가 나타날 때 → 매수
OBV선을 이동평균하여 기준선으로 삼고, 기준선을 상향 돌파하면 매수합니다. 만약 기준선을 하향 돌파하면 매도하되, 원칙적으로 단기적인 관점에서 매도합니다. OBV선의 상승은 장기적인 추세의 상승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 ② OBV선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D마크가 나타날 때 → 매도
OBV선을 이동평균하여 기준선으로 삼고, 기준선을 하향 돌파하면 매도합니다. 만약 기준선을 상향 돌파하면 매수하되, 원칙적으로 단기적인 관점에서 매수합니다. OBV선의 하락은 장기적인 추세의 하락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제 아래 그래프는 KB금융(105560)의 일봉 그래프입니다. OBV선의 추세를 보고, 또 OBV선과 기준선(OBV선의 10일 이동평균선)의 교차점을 이용해 매매시점을 찾아보세요.



KB금융 일봉 그래프(2005. 6~2005. 11. 1)



KB금융 일봉 그래프(2005. 6~2005. 11. 1)

위 OBV 그래프에서 붉은색 선은 OBV선이고 검은색 선은 OBV를 10일간 이동평균한 선입니다. OBV 이동평균선은 주가 이동평균선(10일)과 유사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가 추세는 OBV 이동평균선을 따라 판단하고, 매매시점은 골든크로스나 데드크로스의 원리를 이용합니다.

★ 알아두세요

OBV선의 지표값은 기준일을 언제나 잡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지표를 무시하고 OBV선의 방향과 기준선(OBV 이동평균선)과의 교차점만 보시기 바랍니다.



복수불반분 (覆水不返盆)

중국 주(周)나라 고사이다. 제(齊)나라에 강태공(姜太公, 본명은 여상呂尙)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책을 읽고 끝은 낚싯대로 낚시를 하면서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학문만 하고 일을 하지 않아 생활이 궁핍하자 부인 마씨(馬氏)는 이혼을 하고서 친정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후 주나라 문왕(文王)이 사냥을 나갔다가 강태공을 만나 사람됨을 알아보고 자기의 수레에 태우고 돌아가서 스승으로 삼았다. 뒤에 주나라가 중국을 통일하자 태공은 제나라 제후로 봉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옛 부인인 마씨가 태공을 찾아와 함께 살자고 애원하였다. 그러자 태공은 물을 한 그릇 떠오게 한 후 그 물을 마당에 쏟으라 하고 마씨에게 물을 그릇에 도로 담아보라고 했다. 마씨가 어이없어하자 강태공이 말했다.

“한번 엷질러진 물은 다시는 그릇에 담을 수가 없느니라(覆水不返盆).”

끝내 그는 옛 부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사격을 할 때 총구에 가로선과 세로선을 그려두고 목표물이 가늠자 위에 놓일 때 방아쇠를 당깁니다. 사격의 원리와 마찬가지로 검토해 놓은 매매대상 종목이 내가 사전에 설정해 놓은 매수원칙 또는 매도원칙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결정적인 타이밍이 오면 과감하게 매매주문을 냅니다. 주지표인 봉차트, 이동평균선, 거래량 등이 총구에서 세로선이라면, 보조지표인 MACD, 스톡스틱, 일목균형표, 볼린저밴드 등은 가로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능치는 투자자의 심리상태입니다. 정해진 원칙에 따라 흔들리지 말고 방아쇠를 당길 수 있어야 합니다. 목표물이 사격권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강태공이 자기를 알아줄 주군이 나타날 때까지 낚싯바늘 없는 낚싯대로 낚시를 하면서 세월을 낚았듯이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Stock Charts and Technical Analysis

고수로 가는 신기술적 분석 지표

주식은 바닥에서 사고 꼭지에서 팔지는 못하더라도 차트분석을 활용하면 바닥권에서 사고 천정권에서 팔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MACD, 스토크스틱 등의 보조지표를 활용하면 좀더 정밀하게 매매할 수 있습니다.

셋째 마당



- 08장 | 모멘텀 지표 이해하기
- 09장 | MACD 활용하기
- 10장 | 스토크스틱 활용하기
- 11장 | 일목균형표 활용하기
- 12장 | 볼린저밴드 활용하기
- 13장 | 기타 보조지표 활용하기



모멘텀 지표 이해하기

모멘텀 지표는 앞으로 공부하게 될 각종 보조지표의 중심이 되는 이론이기 때문에 그 원리와 활용방법을 알아두면 여타 다른 지표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모멘텀 지표의 원리와 주가 예측에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 알아두세요

모멘텀의 의미
모멘텀(Momentum)이란 원래 물리학 용어로서 운동에너지 또는 가속도를 말합니다. 기하학적으로는 곡선 위의 한 점의 기울기를 말하고, 경제학적으로는 한계변화율(限界變化率)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흔히 사용하는 기업의 성장 모멘텀 또는 이익 모멘텀이라 할 때의 모멘텀은 기업의 성장추진력과 이익을 낼 수 있는 추진력을 의미합니다.

주가 예측 기법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발전하고 변천해 왔으며 새로운 기법들이 끊임없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모멘텀(Momentum)을 이용한 신기술적 분석기법을 보조지표로 많이 활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모멘텀 지표는 앞으로 공부하게 될 각종 보조지표의 중심이 되는 이론이기 때문에 그 원리와 활용방법을 알아두면 여타 다른 지표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모멘텀 지표의 원리와 주가 예측에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모멘텀 지표란?

모멘텀 지표는 **현재 주가와** 일정 기간 전 주가의 차이(差) 또는 비율(比率)로 나타낸 지표입니다. 현재의 가격이 일정 기간 전과 동일하면 균형상태인 '0'으로 표시하고 주가를 횡보추세로 봅니다. 그리고 현재의 주가가 일정 기간 전의 주가보다 높으면 현재 주가는 플러스(+)권이므로 상승추세에 있다고 보고, 현재의 주가가 일정 기간 전의 주가보다 낮으면 현재 주가는 마이너스(-)권이므로

하향추세에 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현재의 주가와 과거 일정 시점의 주가를 연속적으로 비교해 보면 주가가 균형선(0)을 중심으로 오르고 내림을 반복하는 진동을 그리게 되는데 진동 그래프를 이용하면 주가 추세의 방향과 추세의 강도를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 모멘텀 지표의 원리입니다.

모멘텀 지표 작성 방법

모멘텀 지표는 현재 주가를 일정 기간 전의 주가와 어떻게 비교하느냐에 따라 일정 기간 전 주가와의 차이로 계산하는 방법과 비율로 계산하는 방법으로 나누어집니다.

방법 1 | 일정 기간 전 주가와의 차이로 계산하는 방법

$$\text{ROC(Rate of Change)} = \text{현재 주가} - \text{일정 기간 전 주가}$$

주가의 단기 이동평균값과 장기 이동평균값의 차이로 계산하는 MACD 지표가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방법 2 | 일정 기간 전 주가와의 비율로 계산하는 방법

$$\text{ROC(비율 1)} = \frac{\text{현재 주가}}{\text{일정 기간 전 주가}} \times 100$$

$$\text{ROC(비율 2)} = \frac{(\text{현재 주가} - \text{일정 기간 전 주가})}{\text{일정 기간 전 주가}} \times 100$$

스토캐스틱, CCI, TRIX 등의 지표가 일정 기간 전의 주가와 현재 주가의 비율을 계산하여 만든 모멘텀 지표입니다. 특히 ROC(비율 2)의 방법은 미분값을 구하여 주가 변화의 기울기로 주가의 방향을 예측하는 기법으로 스토캐스틱, SONAR 등의 차트에서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일정 기간이란 5일, 10일, 16일, 20일, 30일 등으로 임의로 정해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기간이 짧으면 짧은 파동이 자주 발생하고, 기간이 길면 길수록 완만한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이 책에서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주일 단위인 5일을 사용해서 일정 기간 전의 주가와 차이를 이용한 모멘텀 지표를 그려보겠습니다.

모멘텀 지표 그리기

하루에 1,000원 단위로 상승 또는 하락하는 A회사의 주가가 다음과 같이 움직였다고 가정할 때 A회사의 주가와 모멘텀을 그려보면 <그림 8-1>과 같이 그려집니다.

● A회사의 주가와 모멘텀 지표 계산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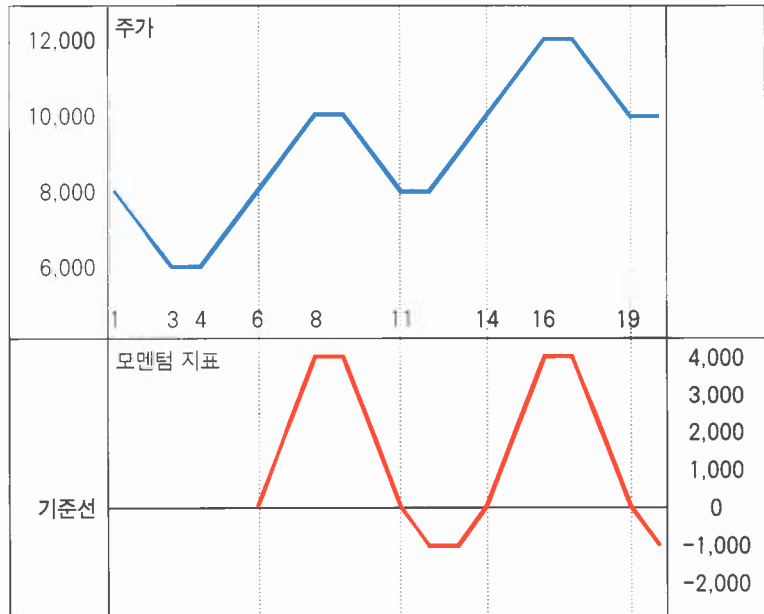
일자	현재가(전일비 등락)	5일 전 주가	모멘텀 지표(현재가-5일 전 주가)
1	8,000		
2	7,000(-1,000)		
3	6,000(-1,000)		
4	6,000		
5	7,000(+1,000)		
6	8,000(+1,000)	8,000	0
7	9,000(+1,000)	7,000	2,000

8	10,000(+1,000)	6,000	4,000
9	10,000	6,000	4,000
10	9,000(-1,000)	7,000	2,000
11	8,000(-1,000)	8,000	0
12	8,000	9,000	-1,000
13	9,000(+1,000)	10,000	-1,000
14	10,000(+1,000)	10,000	0
15	11,000(+1,000)	9,000	2,000
16	12,000(+1,000)	8,000	4,000
17	12,000	8,000	4,000
18	11,000(-1,000)	9,000	2,000
19	10,000(-1,000)	10,000	0
20	10,000	11,000	-1,000

★ 알아두세요

모멘텀 지표를 이해하면
신기술적 지표가 한층 쉬
워진다!

모멘텀 지표가 다소 생소
하고 어렵다고요? 조금
힘이 들더라도 이해를 하
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
다. 모멘텀만 제대로 이
해해 두면 앞으로 공부하
게 될 각종 신기술적 지
표, 예를 들면 MACD,
스토캐스틱, 볼린저밴드,
일목균형표, RSI, DMI
등을 공부하기가 쉬워집
니다. 신기술적 지표의
원리는 동일하기 때문입
니다.



〈그림 8-1〉 주가 그래프와 모멘텀 지표

〈그림 8-1〉의 윗부분은 주가 그래프로서 첫날 8,000원 하던 A 회사의 주가가 이틀에 걸쳐 6,000원으로 떨어지고 4일 하루 보합에 머물다가 4일간 연속으로 올라 10,000원이 되었으며 9일 하루 보합에 머물다가 다시 이를 연속 하락하여 8,000원이 되고 또 4일 연속 올라 12,000원이 되는 주가의 상승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A회사의 주가를 모멘텀 지표(현재가-5일 전 주가)로 그려보면 기준선 0을 중심으로 +4,000원에서 -1,000원 사이를 반복하는 아랫부분의 그림이 됩니다.

모멘텀 지표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아시겠지요? 그렇다면 모멘텀 지표를 보고 어떻게 주가를 예측하는 걸까요? 〈그림 8-1〉을 찬찬히 살펴보면 주가 그래프와 모멘텀 지표 사이의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특징을 이용해 주가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모멘텀 지표의 특징 5가지

★ 알아두세요

모멘텀 지표에서 기준선이란?

모멘텀 지표에서 기준선은 운동에너지가 균형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숫자 0으로 표시합니다. 운동에너지가 상승하여 균형을 깨고 위로 올라가면(+상태가 되면) 주가도 상승하게 되므로 매수하고, 운동에너지가 하락하여 균형을 깨고 아래로 내려가면(-상태가 되면) 주가도 하락하게 되므로 매도합니다.

1. 주가 그래프를 보는 것보다 모멘텀 지표를 보는 것이 주가 흐름을 파악하기가 쉽다.

모멘텀 지표와 주가는 유사한 모양의 파동을 그림니다. 그러나 모멘텀 지표는 기준선인 0을 중심으로 하여 규칙적인 파동을 그리기 때문에 주가 파동의 사이클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림 8-1〉을 보고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을 찾으려고 할 경우 윗부분의 주가 그래프와 아랫부분의 모멘텀 차트 중 어느 것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다고 생각되십니까? 당연히 모멘텀 지표가 일반 그래프보다 매매시점을 찾기가 쉽습니다. 모멘텀 지표는 기준선인 0을 중

★

알아두세요

진동지표란?

진동지표를 오실레이터라고도 하는데, 이는 중심선을 기준으로 반복적으로 왔다갔다한다는 뜻입니다. 시계추의 움직임을 연상하면 이해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오실레이터 지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212쪽의 <잠깐만요>를 참고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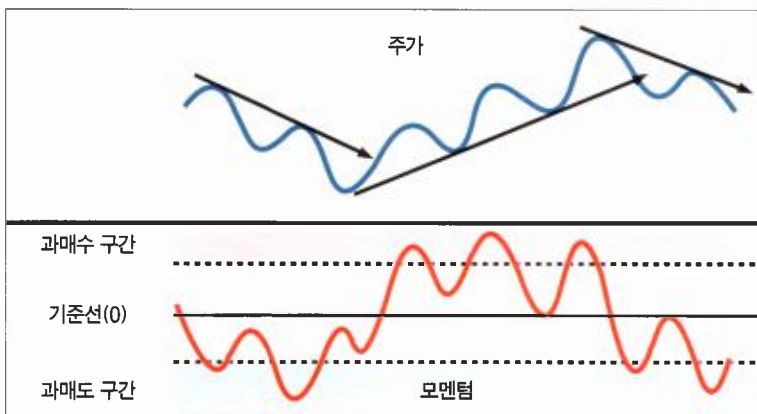
심으로 진동을 반복하기 때문에 일종의 진동지표(Oscillator)라 할 수 있습니다.

2. 기준선을 이용하면 주가의 방향과 추세를 알 수 있다.

<그림 8-1>에서 모멘텀의 파동을 살펴보면, 모멘텀이 기준선인 0 위에 있을 때는 주가가 상승파동을 그리고, 모멘텀이 기준선인 0 아래에 있을 때는 주가가 하락파동을 그리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모멘텀이 기준선 위쪽에 있다는 것은 운동에너지가 강하다는 것을 말해 주고, 기준선 아래쪽에 있다는 것은 운동에너지가 약하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3. 과매수·과매도 구간에 들어가면 주가는 방향 전환을 하는 경향이 있다.

플러스(+)권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극단적인 구간을 과매수 구간으로 정하고, 마이너스(-)권에서 일정 수준 이하의 극단적인 구간을 과매도 구간으로 하였을 때 이들 구간에 들어가면 주가가 방향을 전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림 8-2> 모멘텀 지표의 과매수·과매도 구간

〈그림 8-2〉에서도 과매수·과매도 구간에 진입하고 난 다음에는 주가가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매수·과매도 구간은 스토크스틱 지표와 같이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어(과매수 구간 : 80 이상, 과매도 구간 : 20 이하) 이용하기에 편리한 경우도 있고, MACD 지표처럼 분석대상 기업의 주가 수준에 따라 고무줄처럼 줄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하여 이용하기에 다소 불편한 경우도 있습니다.

4. 모멘텀 지표와 신호선(시그널 곡선)의 만남으로 매매시점을 알 수 있다.

신호선(Signal Line)이란 모멘텀 지표를 일정한 기간(예를 들면 3일, 5일, 10일, 16일 등) 이동평균하여 만든 선입니다. 따라서 신호선은 모멘텀 곡선에 비해 완만하고 후행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모멘텀 곡선과 느리게 움직이는 신호선이 교차하는 모양을 보면 매매시점을 알 수 있습니다. 단기 이동평균선과 장기 이동평균선의 교차점을 이용하여 매매시점을 찾는 방법과 같은 원리입니다.

모멘텀 곡선이 신호선을 상향 돌파하면 → 매수 신호

모멘텀 곡선이 신호선을 하향 돌파하면 → 매도 신호

5. 다이버전스가 발생하면 추세 전환을 미리 알 수 있다.

상승추세에 있는 주식을 언제 매도하는 것이 좋을지, 또 하락하고 있는 주식을 언제 매수하는 것이 좋을지를 미리 알 수 있다면 마법의 지팡이를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 꿈과 같은 분석기법이 바로 다이버전스(Divergence)라는 것입니다.

★ 알아두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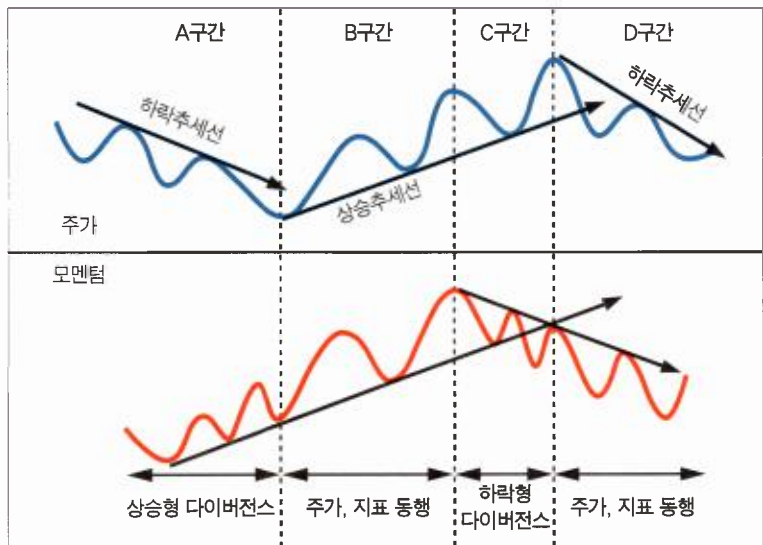
다이버전스란?

다이버전스(Divergence)라는 말은 '같은 점에서 갈라져 나온다'라는 의미도 있고 '확산'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모멘텀 차트에서 다이버전스라 하면 주가와 모멘텀 지표가 서로 반대방향으로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주가와 모멘텀 지표는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보통이지만, 때에 따라 반대방향으로 움직일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가는 상승하고 있는데 모멘텀 지표는 하락하고 있다든지, 또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데 모멘텀 지표는 상승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이버전스가 나타나는 이유는 주가의 진행 가속도가 점차 탄력을 잃어가고 있음에도 주가의 추세 전환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시차를 두고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다이버전스는 모든 그래프에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다이버전스를 발견하는 것은 주가의 추세 전환을 남보다 먼저 알 수 있는 행운을 잡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 좀더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림 8-3〉 상승형 다이버전스와 하락형 다이버전스

〈그림 8-3〉에서 B구간과 D구간은 주가와 모멘텀 지표가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A구간과 C구간은 주가와 모멘텀이 정반대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A구간과 같이 주가는 저점을 낮추며 하락을 지속하고 있는데 모멘텀 지표는 상승하고 있는 경우를 **상승형 다이버전스(Positive Divergence)**라 합니다. 상승형 다이버전스가 나타나면 하락하던 주가가 조만간 상승으로 전환될 것을 예고해 주므로 적극적으로 매수를 검토해야 합니다. 물론 매도는 보류해야 되겠지요.

반대로 C구간처럼 주가는 고점을 높이며 상승을 지속하고 있는데 모멘텀 지표는 하락하는 경우를 **하락형 다이버전스(Negative Divergence)**라 합니다. 하락형 다이버전스가 나타나면 상승하던 주가가 조만간 하락으로 전환될 것을 예고해 주므로 적극적으로 매도를 검토해야 합니다. 물론 매수는 보류해야 합니다.

필자는 모멘텀을 이용한 신기술적 분석기법 중에서 MACD 지표와 스토크스틱 지표는 반드시 활용하고, 일목균형표와 볼린저밴드는 참고로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 책에서도 이상의 4개 지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사례를 검토하고 무작정 따라하기 형식으로 모의분석을 하여 실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물론 더 많은 보조지표를 활용하는 사람도 있고, 좀더 적중률이 높은 다른 지표도 있을 수 있지만,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고 또 일반인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대표적 신기술적 지표로 4개를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기법을 아는 것보다 한 가지라도 확실하게 이해하고, 반복 실습을 통해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정주영 회장이 억울한 이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어렸을 때의 일이다. 하루는 멀리 외지에 갔다 돌아오는 길에 강을 건너야 하는데 동전 한닢 없이 돈이 떨어져 나룻배를 탈 수가 없었다. 만나절을 망설이다가 ‘에라 모르겠다. 일단 배를 타고 보자’는 심정으로 배를 타게 되었다. 배삯을 주지 못한 정주영은 뱃사공에게 주먹으로 몇 차례 얻어맞았다. 그리고 나서 사공이 말했다.

“야, 맞는 게 억울하냐?”

그러자 정주영이 말했다.

“억울해요. 이렇게 몇 대만 맞고 배를 탈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좀더 일찍 배를 탔을 텐데 만나절을 기다린 것이 억울합니다.”

사공: “음...”

모멘텀 지표는 현재 주가에서 과거의 주가 수준을 차감하거나 과거 주가와와의 비율을 계산하여 만들어집니다. 모멘텀은 주가의 추세나 변곡점을 찾기 위한 여러 종류의 신기술적 분석기법에 있어 공통되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신기술적 분석기법은 과거 주가를 이용하여 미래의 주가를 예측한다는 점에서는 기존의 전통적인 분석기법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운동에너지의 탄력도나 기울기를 이용하여 미래 주가를 예측한다는 점에서는 종래의 분석기법과 다르다 할 수 있습니다.



MACD 활용하기

주가 흐름의 추세를 확인하고 추세의 변화를 파악하는 주지표는 추세선과 이동평균선이
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세 확인과 추세 변화를 예측하는 데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보조지표가 MACD 지표입니다. MACD의 의미와 활용방법을 알아본 뒤 무작
정 따라하기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추세 분석 지표 MACD

먼저 MACD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보까요? MACD는
Moving Average Convergence & Divergence의 머리글자를 따
서 만든 용어입니다. 여기서 Moving Average는 이동평균선을
뜻하고, Convergence는 ‘수렴한다’ ‘모아진다’, Divergence는
‘멀어진다’ ‘갈라져 나간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종합해 보면 이
동평균선이 모아지고 멀어지는 정도를 표시하는 지표, 즉 ‘이동
평균선의 수렴과 확산 지표’라 할 수 있습니다.

즉, MACD는 단기 이동평균선과 장기 이동평균선이 서로 멀어
졌다 가까워졌다는 점을 이용하여 주가 흐름의 추
세를 확인하고, 또 추세의 변화를 파악하는 데 활용하는 대표적
인 추세 확인 보조지표로서 제럴드 아펠(Gerald Appel)이 개발한
지표입니다.

MACD의 원리

이동평균선은 기간이 짧은 것일수록 가장 최근의 주가 상황을

★ **알아두세요**

기간 개념에서 사용하는 일수가 이상해요.

MACD 지표는 두 개의 이동평균선을 사용하는데 하나는 12일선, 다른 하나는 26일선입니다. MACD 이외의 모멘텀 지표에서 사용하는 기간은 6일, 26일, 54일 등이고요. 왜 이런 일수를 사용할까요? 그 이유는 증권시장이 문을 여는 영업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였기 때문입니다. 지표가 개발될 당시에는 토요일에도 시장이 열렸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1999년 들어서야 토요일 장이 없어지고 주5일 영업일이 되었습니다. 토요일 근무가 없어진 오늘날의 증시를 기준으로 한다면 5일, 10일, 20일, 60일, 120일 등의 일수를 사용하였을 것입니다.

반영하고, 기간이 길수록 후행성 지표가 됩니다. 최근 12일간의 이동평균선이 26일간의 이동평균선보다 선행하는 것이죠. 따라서 주가가 상승할 때는 12일선이 26일선 위에서 선행할 것이고, 주가가 하락할 경우에는 12일선이 26일선 아래에서 26일선을 선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두 개의 이동평균선, 즉 단기 이동평균선과 장기 이동평균선의 차이를 계산한 것이 MACD 곡선입니다.

$$\text{MACD 곡선} = \text{단기 이동평균선} - \text{장기 이동평균선}$$

MACD의 구성

MACD 차트는 MACD 곡선과 시그널(Signal) 곡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MACD 곡선은 단기 이동평균선과 장기 이동평균선의 차이를 계산한 것이고, 시그널 곡선은 MACD 지수 이동평균값을 다시 이동평균한 것입니다(시그널 곡선 = N일 동안의 MACD 지수 이동평균). 이동평균값을 구하는 방법은 같지만 시그널 곡선은 가까운 날에 가중치를 더 두어 비중을 높인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MACD 지표에 시그널 곡선이 왜 필요할까요? 시그널 곡선을 만든 이유는 단기 이동평균선과 장기 이동평균선 간의 괴리가 가장 큰 시점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이동평균선의 차이를 다시 이동평균으로 산출하여 만들어진 시그널 곡선을 보면 어느 시점에서 두 개의 이동평균선의 차이가 최대가 되는가를 판

단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MACD 곡선과 시그널 곡선이 만나는
시점이 장·단기 이동평균선의 괴리가 가장 큰 시점이 됩니다.
그래프를 보면 이해하기 더 쉽겠지요?

아래 MACD 차트를 보면 왼쪽 상단에 MACD(12, 26), 시그널(9)라
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12는 단기 이동평균선으로 12일
이동평균을 사용했다는 것이며, 26은 장기 이동평균선으로 26
일 이동평균을 사용했다는 뜻입니다. 9라는 숫자는 시그널 곡선
을 만들 때 이용한 기간(N일)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MACD를
9일간 이동평균하여 만든 선입니다.



KOSPI 일봉 그래프(2010. 2~2011. 4. 11)

MACD와 시그널 지수는 MACD(5, 20) 시그널(3), 또는 MACD(10, 20) 시그널(7) 등 투자자가 숫자를 클릭하여 다양하게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두 개의 이동평균선으로 12일선과 26일선을 쓰고, 시그널은 9일을 사용했을까요? 그것은 투자자의 투자목적이나 투자기간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안정적인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기간이 긴 것을,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엔 짧은 것을 이용하는데,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하는 것은 MACD(12, 26) 시그널(9)입니다. 며칠에서 몇 개월 단위로 매매하는 일반투자자의 경우엔 12일과 26일이 가장 적절하기 때문입니다.

MACD를 이용한 주가 예측 방법 4가지

1. 기준선을 이용하면 주가 추세를 알 수 있다.

기준선은 운동에너지가 중립인 상태를 말하며 숫자 0으로 표시합니다. MACD 곡선이 기준선인 0 위로 올라가면 MACD 곡선은 +로 변하게 되고 주가는 상승합니다. 반대로 MACD 곡선이 -가 되어 기준선 아래로 내려오면 주가는 하락추세로 전환됩니다. +가 된 MACD 곡선이 기준선 이하로 내려오지 않으면 상승추세가 꺾였다고 보지 않습니다. 반면에 MACD 곡선이 기준선 위로 올라가지 못하면 주가가 상승으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MACD 곡선이 기준선 위에 있을 때 → 주가는 상승추세

MACD 곡선이 기준선 아래에 있을 때 → 주가는 하락추세

2. 과매수 · 과매도 상태가 되면 추세가 반전될 가능성이 높다.

주가가 과매수 · 과매도 구간에 들어가면 추세가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은 지나치면 기운다는 원리와 같습니다. 그럼에도 과매수 · 과매도 구간을 활용할 때는 다음 세 가지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① 과매수 · 과매도 구간에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선불리 매매를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표가 과매수 구간에 진입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급등하거나, 과매도 구간에 진입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급락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② 따라서 과매수 · 과매도 구간을 벗어나면 매매를 준비하고 있다가 MACD가 시그널 곡선을 하향 돌파하면 매도하고, 상향 돌파하면 매수합니다.

③ 과매수 · 과매도 구간을 활용할 때는 일봉이나 주봉 차트에서 추세선과 이동평균선을 이용하여 주가의 추세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결과 뚜렷한 추세가 없는 경우에는 과매수 · 과매도 구간을 벗어나는 것을 매매시점으로 활용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상승추세 또는 하락추세가 장기간 이어질 때는 추세가 끝나기도 전에 과매수 · 과매도 구간을 벗어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 추세가 끝났다고 선불리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MACD 곡선에서 과매수 · 과매도 구간은 무엇을 기준으로 설정할까요? 스토크스틱은 100이라는 범위를 고정

해 두고 80 이상을 과매수, 20 이하를 과매도로 보고 있으나, MACD 곡선에서는 분석대상 기업의 주가가 변동하는 폭에 따라 MACD 구간의 폭이 각기 다른 것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일정한 기간 동안 주가의 변동폭이 큰 경우는 MACD 변동폭이 1,000단위 이상으로 벌어지기도 하고 주가 변동폭이 작을 경우에는 10단위 이하로 그 범위가 줄어들기도 합니다. MACD 곡선은 장·단기 이동평균값의 차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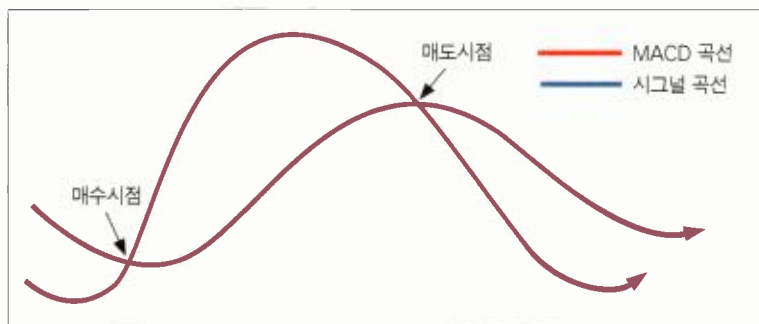
3. 시그널 곡선을 이용하면 매수·매도 시점을 알 수 있다.

MACD 곡선이 시그널 곡선을 상향 돌파하면(골든크로스) → 매수 신호
MACD 곡선이 시그널 곡선을 하향 돌파하면(데드크로스) → 매도 신호

★ 알아두세요

시그널 곡선과 MACD 곡선의 교차는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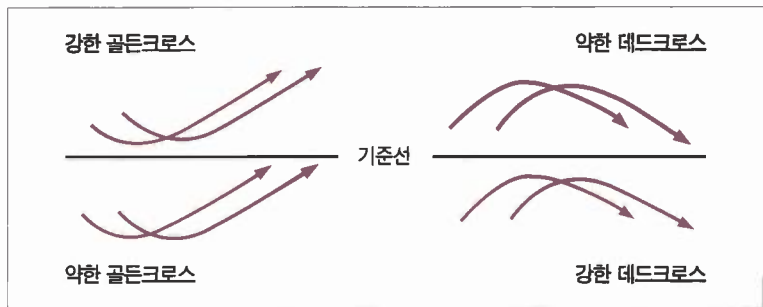
시그널 곡선과 MACD 곡선의 교차는 매수세력과 매도세력의 균형에 변화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빠른 MACD 곡선이 늦은 시그널 곡선을 상향 돌파하면 매수세력이 시장을 주도한다는 뜻이고, MACD 곡선이 시그널 곡선을 하향 돌파하면 매도세력이 시장을 주도한다는 뜻입니다.



〈그림 9-1〉 시그널 곡선과 MACD

〈그림 9-1〉이 보여주듯이 시그널 곡선과 MACD 곡선이 교차하면서 만드는 골든크로스과 데드크로스는 시각적으로 매수·매도 시점을 명쾌하게 보여주므로 활용하기에 편리합니다.

참고로 MACD의 골든크로스과 데드크로스는 시그널 곡선과 MACD 곡선이 만나는 위치에 따라 강약의 의미가 다릅니다. 골든크로스의 경우 과매도 구간에서 기준선에 가까운 위쪽에 있을수록 상승 반전이 강력하고, 데드크로스의 경우 과매수 구간에서 기준선에 가까운 아래쪽에 있을수록 하락 강도가 강합니다. 이는 일봉 그래프에서 20일 이동평균선이 하락중일 때 주가가 20일 이동평균선을 뚫는 것보다 20일 이동평균선이 횡보중이거나 상승중일 때 주가가 20일 이동평균선을 뚫는 것이 더욱 상승탄력이 강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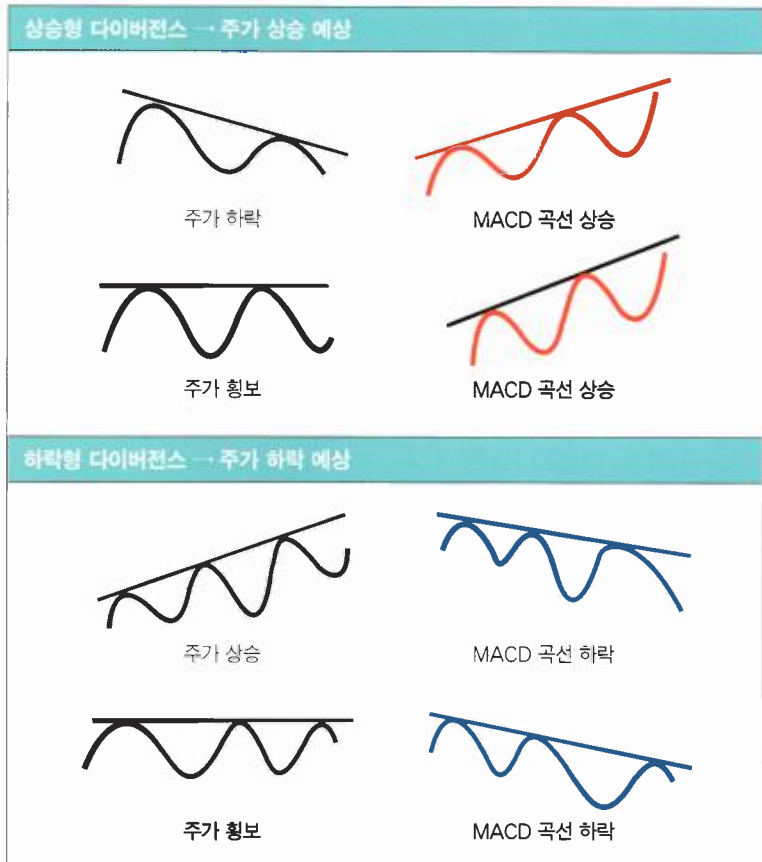
〈그림 9-2〉 골든크로스과 데드크로스의 위치와 강약

4. 다이버전스가 발생하면 추세 전환이 예상된다.

주가 추세와 MACD 곡선이 반대로 움직이는 것을 다이버전스라고 합니다.

상승형 다이버전스는 주가가 하락 또는 횡보하고 있을 때 MACD 곡선은 상승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럴 경우엔 하락하던 주가가 조만간 상승으로 전환될 것이 예상되므로 적극 매수해야 하며 최소한 매도는 유보해야 합니다.

하락형 다이버전스는 주가가 상승 또는 횡보하고 있을 때 MACD 곡선은 하락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럴 경우엔 상승하던 주가가 조만간 하락으로 전환될 것이 예상되므로 주식을 매도하되 최소한 매수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림 9-3〉 상승형 다이버전스와 하락형 다이버전스

다이버전스는 추세가 전환될 때마다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간혹 발생하지만 다이버전스가 나타나면 일단 추세 전환을 전제로 투자판단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프를 통해 직접 확인해 보면 더 도움이 되겠지요?

아래 그래프는 현대건설(000720)의 2010년 11월~2011년 4월의 일봉 그래프입니다.



현대건설 일봉 그래프(2010. 11~2011. 4. 11)

① 먼저 봉차트와 MACD로 추세의 방향과 전환을 파악합니다.

현대건설 주가는 2010년 11월 17일을 기점으로 하락추세에서 상승추세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나 MACD는 그보다 조금 늦은 12월 1일에 골든크로스 발생과 함께 매수 신호를 보냈습니다. MACD는 추세가 확인되고 나서 매수 신호를 보내므로 봉차트보

다 다소 늦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MACD가 상승 추세를 확인시켜 주므로 추세에 대한 확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봉차트 기준으로 2011년 1월 18일 이후 하락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MACD는 거래일 기준 4일 후에야 매도 신호를 보내고 있고, 2월 24일 상승 전환의 경우도 역시 4일 후에 매수 신호를 보냈습니다.

MACD는 추세를 확인해 주는 보조지표입니다. 한발 늦더라도 MACD로 추세를 확인하고 매매를 하는 것이 잘못된 판단을 줄이고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② 다음으로 다이버전스를 확인해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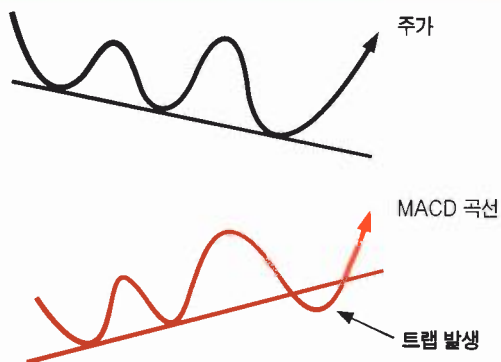
위 그래프에서 A, B, D는 상승형 다이버전스입니다. 주가 하락이 나타나면 누구나 이것이 추세 하락이 아닌가 불안해지게 마련입니다. 이럴 때 MACD를 확인해 보세요. MACD가 하락으로 전환되지 않는 한 추세 하락으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위 그래프에서 C는 하락형 다이버전스입니다. 주가가 상승하고 있지만 MACD는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도 다시 하락으로 전환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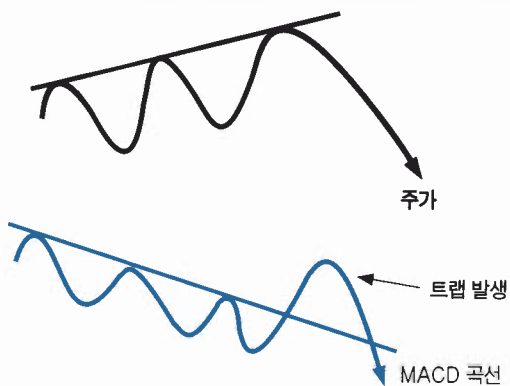


다이버전스 트랩(Divergence Trap)이란 다이버전스가 나타났다가 일시적으로 그 반대의 모습이 출현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트랩은 '덫'이라는 뜻으로 다이버전스가 발생했을 때 덫에 걸리지 말고 일관되게 지켜나가라는 것입니다.

상승형 다이버전스 트랩 → 강력한 상승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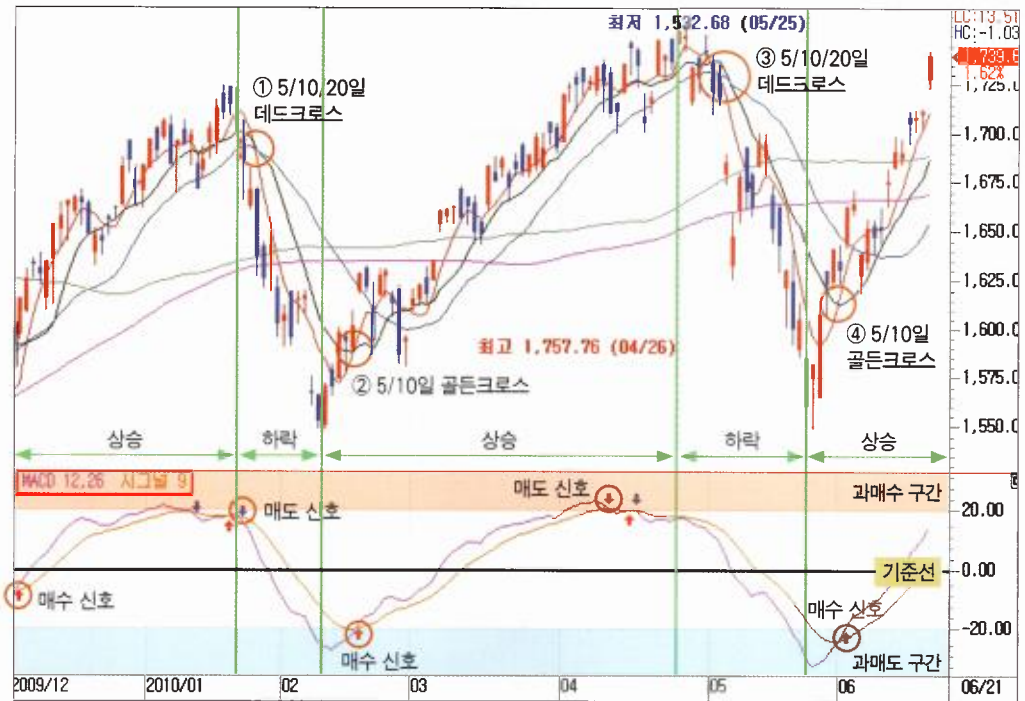
하락형 다이버전스 트랩 → 강력한 하락 예상



〈그림 9-4〉 상승형 다이버전스 트랩과 하락형 다이버전스 트랩

MACD 활용방법 정리하기

아래 그래프는 2009년 12월~2010년 6월의 KOSPI 일봉으로 이 동평균선과 보조지표인 MACD를 함께 나타낸 것입니다. 복습하는 의미에서 이 그래프를 보면서 MACD 곡선의 활용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KOSPI 일봉 그래프(2009. 12~2010. 6)

1. 기준선 활용방법

위 그래프를 보면 MACD 곡선이 기준선(0) 위로 상승하면 주가가 상승추세에 있고, MACD 곡선이 기준선 아래로 내려가면 즉 MACD 곡선이 마이너스(-)권에 있을 때는 주가가 하락추세임

을 알 수 있습니다. 기준선은 차트를 보는 기간(2009. 12~2010. 6) 동안 매수세력과 매도세력의 균형점인 셈입니다.

2. 과매수·과매도 구간 활용방법

위 그래프에서 -20 이하는 과매도 구간이고, +20 이상은 과매수 구간입니다. 숫자 20은 업종이나 종목에 따라 다르므로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과매도·과매수 구간을 활용할 때 유의할 점은 과매도 구간에 진입한 뒤 추가 하락하는 경우가 있고, 과매수 구간에 진입한 뒤 추가 상승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과매도 구간에서는 매수의 관점에서 보고 있다가 과매도 구간을 돌파할 때 매수하는 것이 더욱 안전합니다. 마찬가지로 과매수 구간에 있을 때는 매도의 관점에서 주가를 보다가 과매수 구간을 하락 이탈할 때 매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 그래프에서도 이동평균선의 골든크로스(5일/10일/20일)가 발생한 시점인 ②번과 ④번의 경우 MACD도 과매도 구간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동평균선의 데드크로스가 발생할 시점, 즉 ①번과 ③번에서 MACD는 과매수 구간을 하락 이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 시그널 곡선 활용방법

MACD 곡선이 시그널 곡선을 상향 돌파(골든크로스)하면 매수하고, MACD 곡선이 시그널 곡선을 하향 이탈(데드크로스)하면 매도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동평균선으로 매수·매도를 결정하는 것보다 MACD 곡선을 함께 보면 더욱 확신이 셉니다. 특히 이동평균선에서 5일/10

일/20일 골든크로스가 발생하고 MACD에서도 매수 신호가 나타나면 일단 매수를 실행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동평균선에서 데드크로스가 발생하고 MACD에서도 동시에 매도 신호가 나타나면 일단 매도해 보십시오. 위 그래프에서 보듯이 성공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문을 실행할 때에는 일봉보다 120분봉, 30분봉, 5분봉 등을 활용하여 최적의 매수·매도 시점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MACD 활용시에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1. MACD는 대표적인 추세 확인 보조지표입니다.

MACD는 추세를 확인하고, 추세의 변화를 파악하는 대표적인 추세 확인 보조지표입니다.

MACD가 상승중이고 기준선 위에 있을 때 → 주가는 상승중이므로 매수 하되 매도는 보류한다. 특히 선물, 옵션, ELW 같은 파생상품의 경우엔 하방향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MACD가 하락중이고 기준선 아래에 있을 때 → 주가는 하락중이므로 매도 하되 매수는 보류한다. 특히 선물, 옵션, ELW 같은 파생상품의 경우엔 상방향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2. MACD 곡선은 기간이 긴 단위의 차트일수록 활용도가 높습니다.

MACD 지표는 종합주가지수 차트, 개별종목 차트, 선물과 옵션 차트 모두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단위 차트로써 월봉, 주봉, 일봉, 분봉을 이용할 수 있으며 분봉에 있어서는 60분봉 이

상의 경우에 유용하나, 30분봉 이하 특히 5분봉 이하는 스토크스틱 지표에 비해 효용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3. MACD 신호와 다른 보조지표 신호가 상반되게 나타날 때는 매매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MACD는 추세 보조지표입니다. 따라서 MACD와 다른 보조지표가 상반되게 나타날 경우에는 결정을 뒤로 미루고 주지표인 일봉이나 주봉 차트에서 주가와 추세선 그리고 이동평균선의 변화를 보고, 확실히 추세의 변화로 볼 수 있는지 확인한 후에 판단하십시오.

MACD를 이용한 매수 · 매도 방법 총정리

매수할 때

1. MACD가 시그널선을 상향 돌파하면 매수한다.
2. MACD가 기준선 위에 있는 한 주가는 상승추세이거나 또는 하락하지 않는다.
3. 시그널 추세가 상승하는 한 매도 신호가 나올 때까지 주식을 보유한다.
4. 상승형 다이버전스가 발생하면 적극 매수를 검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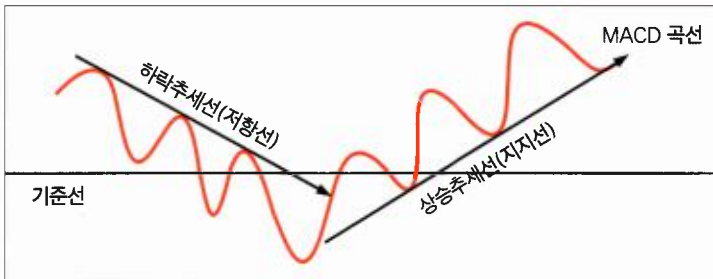
매도할 때

1. MACD가 시그널선을 하향 돌파하면 매도한다.
2. MACD가 기준선 아래에 있는 한 주가는 하향추세이거나 또는 상승하지 못한다.
3. 시그널 추세가 하향인 한 매수 신호가 나타날 때까지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다.
4. 하락형 다이버전스가 발생하면 적극 매도를 검토한다.



1. 추세 분석

상승추세에서는 저점과 저점을 이은 직선으로 지지선을 확인하십시오. 그러나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주기가 뚜렷한 추세를 가지고 상승을 지속할 경우에는 고점에서 큰 파동 없이 MACD 곡선이 완만하게 하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락추세에서는 고점과 고점을 이은 직선을 그려보고 저항선을 확인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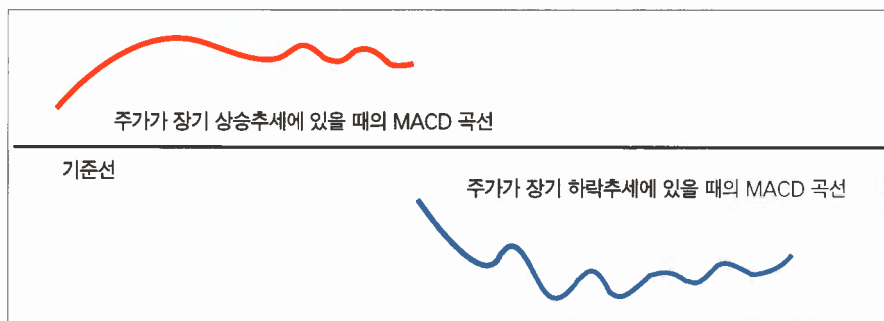


〈그림 9-5〉 MACD의 지지선과 저항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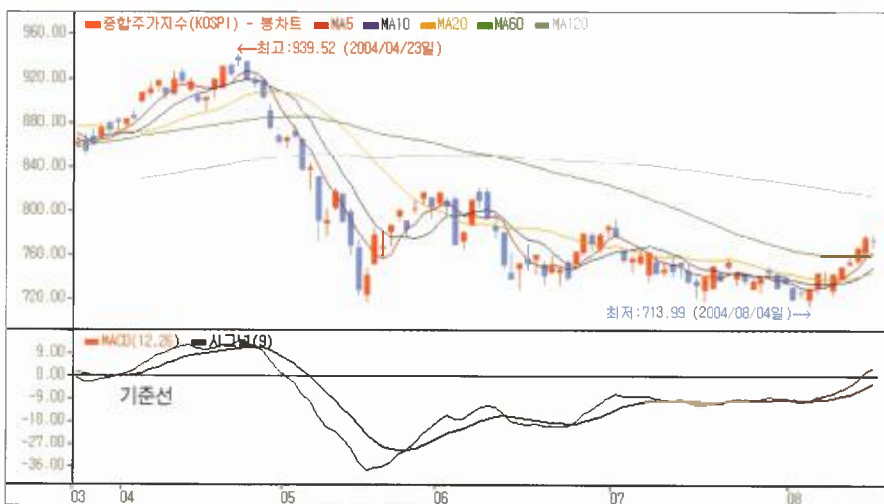


NHN(035420) 일봉과 MACD(2003. 12~2004. 12)

주가가 장기적으로 하락추세를 지속할 경우에는 MACD 곡선이 점진적으로 완만하게 상승을 하지만 기준선을 돌파하지는 못합니다. 아래 그래프에서도 2004년 6월 이후 주가는 장기 하락을 하고 있지만 MACD 곡선은 기준선 아래에서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가가 장기적으로 상승추세를 지속할 경우에도 MACD 곡선은 완만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기준선 아래로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그림 9-6〉 주가가 장기추세를 보이고 있을 때의 MACD 곡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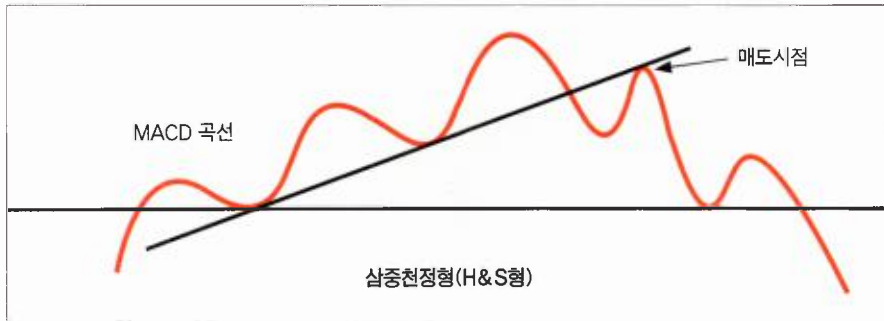
KOSPI 일봉과 MACD(2004. 3~2004. 8)

2. 이동평균선 분석

주가와 이동평균선의 관계, 단기 이동평균선과 장기 이동평균선의 관계, 골든크로스과 데드크로스 등으로 주가를 예측하는 방법은 일반 차트분석과 동일하게 MACD에도 적용이 됩니다.

3. 패턴 분석

MACD 곡선에 나타나는 삼중바닥형, 이중바닥형, 원형바닥형, V자형바닥형 등의 상승형 패턴은 일봉 그래프에서와 동일하게 응용이 됩니다. 하락이 예상되는 삼중천정형, 이중천정형, 원형천정형, 역V자형천정형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림 9-7〉 MACD 패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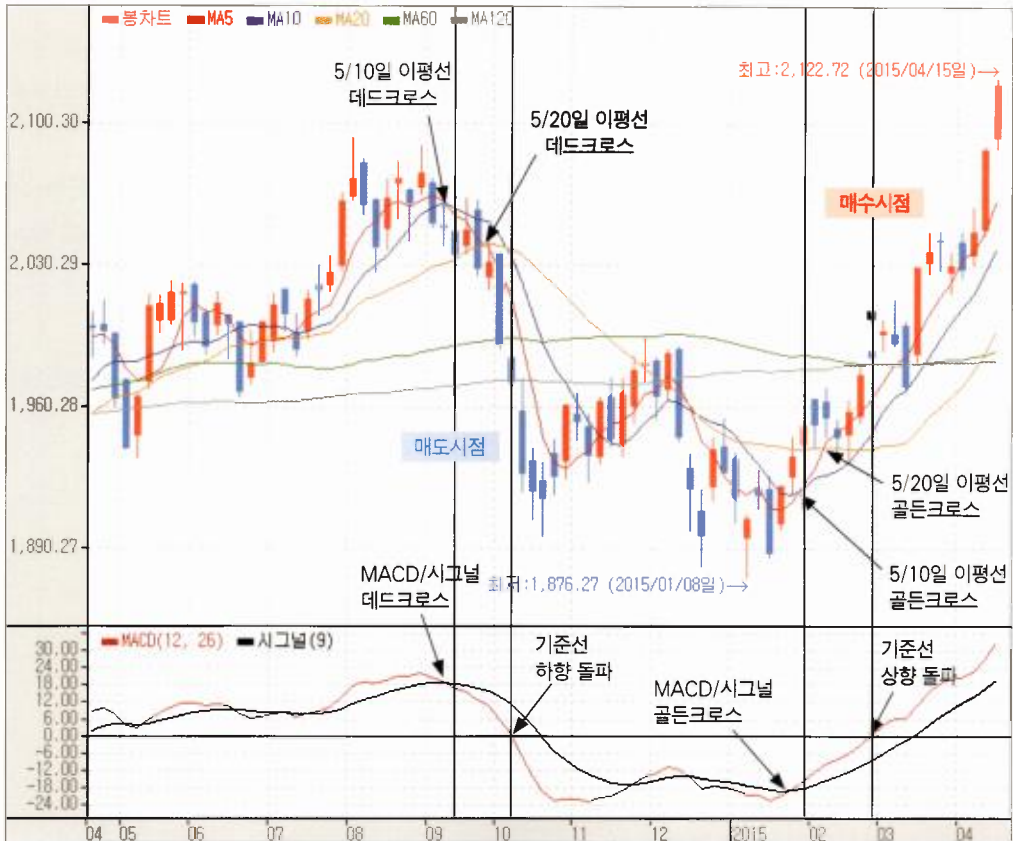
예제 1 아래 그래프는 종합주가지수(KOSPI) 일봉 그래프입니다. 지수와 MACD를 활용해 매매시점을 판단해 보세요. 그리고 이동평균선의 매매시점과 비교해 보십시오.



KOSPI 일봉 그래프(2014. 4~2015. 4)

해설 1

MACD 지표를 보면 한 번의 매도시점과 한 번의 매수시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면서 그 이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KOSPI 일봉 그래프(2014. 4~2015. 4)

1 먼저 매도시점을 알아봅니다. 5/10일 이평선의 데드크로스가 나왔을 때 주식이 하락하는 것이 아닐까 하고 의심이 될 때 MACD 지표를 봅니다. 이 시점에 MACD 지표는 MACD/시그널선의 데드크로스가 발생하여 주가 하락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후 MACD 곡선이 기준선(0)을 하향 돌파한 후 주가 하락 하였습니다.

즉, 2014년 9월 초경 이평선을 보고 '혹시 이러다 주가가 다시 반등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막연한 기대를 향해 MACD는 '아니야, 하락이 확실해'라고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 매수시점을 알아봅니다. 5/10일 이평선의 골든크로스가 신뢰성 있는 골든크로스인지를 MACD 지표로 확인합니다. MACD/시그널선의 골든크로스 발생은 5/10일 이평선 골든크로스가 매수시점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후 5/20일 이평선 골든크로스는 MACD 곡선의 기준선 돌파로 상승 전환되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즉, 2015년 1월 말경 이평선을 보고 '5/10일 이평선의 골든크로스가 발생했지만 이러다 다시 하락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대해 MACD 지표는 '의심할 여지가 없어. 상승이 확실해'라고 확신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평선 또는 추세선이 신호를 보낼 때 이 신호가 믿을 수 있는 신호인지를 판단할 때 스톡캐스틱 또는 MACD 지표를 이용하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예제 2 아래 그래프는 2008년 4월~2010년 3월의 KOSPI 주봉 그래프입니다. MACD 지표를 보고 지수의 상승 시점과 하락 시점을 찾아보세요.



KOSPI 주봉 그래프(2008. 4~2010. 3)

해설 2

두 번의 하락 시점과 한 번의 상승 시점이 보입니다. 그 이유를 알아볼까요.



KOSPI 주봉 그래프(2008.4~2010.3)

1 | 두 번의 매도시점이 보이지만 해석은 각기 달라합니다.

매도시점 1

MACD/시그널선 데드크로스가 발생하여 5/10일 이평선 데드크로스과 5/20일 이평선 데드크로스가 모두 진정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MACD 곡선이 기준선(0)을 하향 돌파한 후 본격적으로 하락하였습니다.

매도시점 2

MACD/시그널선 데드크로스가 발생하여 매도시점임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MACD 곡선이 기준선을 하향 돌파하지 않고 있어 본격적인 하락세는 아님을 말해 줍니다. 이동평균선을 보더라도 5/10일 이평선의 데드크로스가 나왔으나 5/20일 이평선의 데드크로스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MACD 곡선이 매도시점을 알려주더라도 기준선 위에 있는 동안에는 하락폭이 크지 않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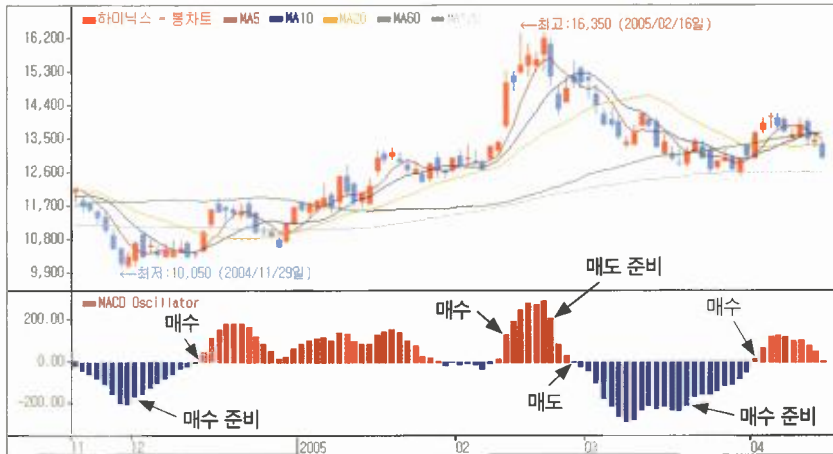
21 한 번의 매수시점이 보입니다.

2008년 12월 말경 MACD/시그널선의 강력한 골든크로스가 발생하여 직전에 발생한 5/10일 이평선 골든크로스가 시세 반전을 알려주는 것임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MACD 곡선이 기준선을 상향 돌파한 후 본격적으로 상승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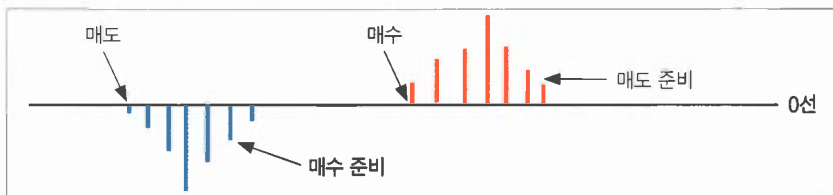
MACD 오실레이터(Oscillator)는 MACD값에서 시그널값을 뺀 수치를 막대그림으로 그린 것으로 일종의 진동지표입니다(MACD 오실레이터 = MACD값 - 시그널값).

MACD값과 시그널값이 같은 경우엔 MACD 오실레이터가 0이 되고, MACD 오실레이터가 0 선을 상승 돌파하면 상승추세로 전환하고, 0선을 하향 돌파하면 하락추세로 전환한다고 봅니다.



SK하이닉스 일봉과 MACD 오실레이터(2004. 11~2005. 4)

MACD 오실레이터 활용법



MACD 오실레이터는 추세를 확인하는 데는 MACD보다 유용도가 떨어지므로 MACD 지표도 함께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추세를 확인한 후 매매시점을 찾을 때는 활용도가 높아 선물과 옵션 등 파생상품 매매에 활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처칠 수상에 임기응변

한 화가가 처칠 수상에게 항의했다.

“한번도 그림을 그린 적이 없는 사람이 국전 심사위원장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도 되는 것입니까?”

처칠이 말했다.

“크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한번도 달걀을 낳아본 일이 없지만 좋은 달걀인지 안 좋은 달걀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화가: “.....?”

차트분석과 가치분석은 서로 보완관계에 있습니다. 가치분석을 도외시하고 차트분석에만 의존하게 되면 주가가 급변할 때 적시에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주가는 기업가치에 따라 그 움직임의 속성이 각기 다릅니다. 기업가치와 무관하게 특정 재료나 테마로 움직이는 주가는 주가 변동폭이 크고 기복이 심합니다. 그리고 재료만으로 급등한 부실주는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상승 전의 주가 수준으로 되돌아옵니다. 이와 같이 기업가치에 따른 주가 움직임의 속성을 미리 예상해 두지 않으면 감정을 지닌 인간이기 때문에 주가가 급변할 때 제대로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치를 분석해 둔 종목 가운데서 차트분석에 따라 매매시점을 찾아 투자를 해야만 실수를 줄이고 성공투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스토캐스틱 활용하기

스토캐스틱은 MACD와 함께 매매시점을 찾아보는 대표적인 모멘텀 분석기법 중 하나입니다. MACD가 주가 추세를 확인하거나 추세 변화를 알아내는 데 유용하다면, 스토캐스틱은 매매시점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MACD로 추세를 확인하고 스토캐스틱은 매매시점을 잡는 데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알아두세요

스토캐스틱이 무슨 뜻인가요?

스토캐스틱(Stochastic)은 원래 통계용어로, 사전적 의미는 '추계학(推計學)의' 혹은 '확률(론)적인'입니다. 그러나 증권분야에서는 조지 레인(George Lane)이 개발한 주가 예측 기법, 즉 '일정 기간의 주가 움직임을 분석하여 향후 주가 변화를 예측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스토캐스틱의 원리와 계산방법

스토캐스틱(Stochastic)은 일정한 기간 동안 등락을 보인 가격범위, 즉 최고가와 최저가 안에서 현재 주가가 어디쯤 있는가를 알아봄으로써 향후 주가를 예측하는 차트분석 기법입니다.

일정 기간 최고 높았던 가격을 100으로 하고 가장 낮았던 가격을 0으로 하면, 주가는 100과 0 사이에서 등락을 보일 것입니다. 따라서 주가가 상승추세라면 현재가는 100에 가까이 있을 것이고, 하락추세라면 0에 가까이 있을 것입니다.

다음 공식을 풀이하면서 좀더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스토캐스틱 계산 공식

■ 패스트 스토캐스틱(Fast Stochastic)

$$\text{Fast\%K} = \frac{(\text{현재가} - \text{N기간 중 최저가})}{(\text{N기간 중 최고가} - \text{N기간 중 최저가})} \times 100$$

Fast%D = Fast%K를 M일로 이동평균한 것

■ 슬로 스토캐스틱(Slow Stochastic)

Slow%K = Fast%D를 M기간으로 이동평균한 것

Slow%D = Slow%K(Fast%D)를 L기간으로 이동평균한 것

공식 풀이

공식을 보면 어렵게 느껴지지요? 앞에서 배운 모멘텀 원리와 MACD 지표를 연상하면서 아래 설명을 읽어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물론 계산은 컴퓨터가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원리는 알고 있어야 자의적인 해석에 빠지지 않습니다.

★

알아두세요

왜 %가 문자 앞에 있는 건가요?

%를 K, D 뒤에 붙여도 의미는 같습니다. 다만 스토캐스틱 지표를 고안해 낸 조지 레인이 K와 D에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가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를 앞쪽에 붙인 것이 아닐까요? 혹은 이름 뒤에 성을 붙이는 서구식 사고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통상 '프로 케이' 또는 '프로 디'라고 발음합니다).

1. 먼저 두 개의 선, 즉 %K선과 %D선의 의미를 알아봅시다.

%K선은 일정한 기간 동안 등락을 보인 가격범위 안에서 현재 주가의 위치를 백분율로 나타낸 지표이고, %D선은 %K에 대한 이동평균선입니다. 일반적으로 %K선이 20을 밑돌면 과매도 국면으로 해석하고, 80을 돌파하면 과열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봅니다. 또 %K선이 %D선을 상향 돌파하면 매수 신호로, 하향 돌파하면 매도 신호로 보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계산을 해보면 이해하기가 더 쉽겠지요?

■ %K선

%K선은 일정 기간의 주가 범위 안에서 현재 주가의 위치를 백분율로 나타낸 지표라고 했지요? 그렇다면 A회사의 최근 5일 동안 최고가가 17,000원이고 최저가가 12,000원인데 오늘의 종가가 16,000원이라면 현재 주가 수준은 어떻게 될까요? 물론 스토크스틱 지표를 보면 단번에 알 수 있지만, 여기서는 직접 계산을 해봄으로써 그 원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선 공식에 대입하여 계산을 해보면 되겠지요?

$$\begin{aligned}\%K &= \frac{(\text{현재가 } 16,000 - \text{최저가 } 12,000)}{(\text{최고가 } 17,000 - \text{최저가 } 12,000)} \times 100 \\ &= \frac{4,000}{5,000} \times 100 \\ &= 80\%\end{aligned}$$

계산 결과 오늘의 종가 16,000원은 5일 동안의 주가 변동폭 0~100 사이에서 80이라는 수준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간선인 50보다 높으므로 주가는 상승중에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는 5일 동안의 주가 변동폭을 사용하였는데 기간은 사용자에 따라 10일, 20일, 30일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길게 잡을수록 진동 사이클이 느려지므로 신속한 매매시점을 포착하려고 할 때는 단기간을 이용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투자를 결정하려고 할 때는 장기간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은 5일을 많이 사용하며, 증권회사 그래프에도 대부분 5일이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 %D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D는 %K를 M일로 이동평균한 것입니다. %D는 급변하는 %K를 이동평균함으로써 완만하게 후행하도록 만든 것으로, MACD 곡선에서 시그널선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즉 두 개의 선에 시차를 두어 매매시점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M일로 이동평균할 때 %K가 10일, 16일, 30일을 기준으로 하였다면 %D는 5일, 7일, 10일을 각각 사용합니다.

2. 기간값의 의미를 알아봅니다.

스토캐스틱 패스트 차트를 보면 왼쪽 상단에 기간값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Fast%K(5), Fast%D(3)' 이 바로 그것이지요. 앞의 숫자 5는 %K의 기간을 5일을 기준으로 했다는 뜻이고, 뒤에 있는 3은 %D의 기간을 3일을 기준으로 했다는 뜻입니다. 기간값이란 주가 사이클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5일의 기간을 사용한다면 5일간의 주가 사이클을 이용하는 것이 되고, 10일이란 기간을 사용한다면 10일 단위의 주가 사이클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기간값이 크면 장기 사이클을 이용한다는 뜻이고, 짧으면 단기 사이클을 이용한다는 뜻입니다. 단기매매를 하는 경우엔 짧은 기간을, 중장기 매매를 할 경우엔 다소 긴 기간을 이용하겠지요?

그러면 기간값 N과 사용일수 M의 값을 어떻게 조합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기간값	5	10	16	30
사용일수	3	5	7	10

기간값과 사용일수는 특별한 조합 원리가 있는 것은 아니고, 스토크스틱 기법을 개발한 조지 레인(George Lane)이 적당하다고 밝힌 수치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2~3일 간격으로 단기매매를 하는 투자자라면 빠른 매매시점을 알려주는 (5, 3) 지표가 유용할 것이고, 일주일에서 몇 개월 기간으로 매매를 하는 투자자라면 (10, 5) 지표가 더욱 유용할 수 있습니다. (5, 3) 지표와 (10, 5) 지표를 동시에 한 화면에서 관찰해 본 후 자신에게 잘 맞는 지표를 선택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아래 그래프의 경우 위로부터 첫번째 것은 기간값을 (5, 3)으로 설정한 것이고, 두번째 것은 (10, 5), 세번째 것은 (16, 10)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기간이 짧을수록 단기매매에 유리하고 기간이 길수록 추세 매매에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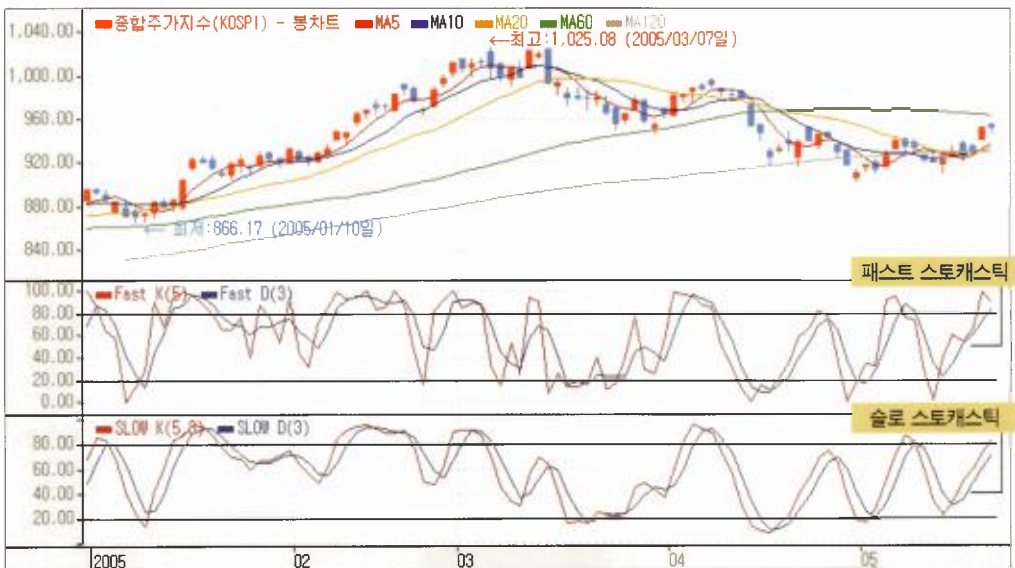


KOSPI 일봉과 스토크스틱(2005. 1~2005. 6)

3. 슬로 스토캐스틱을 더 많이 활용합니다.

스토캐스틱은 패스트 스토캐스틱(Fast Stochastic)과 슬로 스토캐스틱(Slow Stochastic)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슬로 스토캐스틱은 패스트 스토캐스틱의 %K 대신에 %D를 %K로 사용하고, 또 이렇게 해서 구해진 %K의 이동평균값을 %D로 사용한 것입니다. 조금 어렵지요? 패스트 스토캐스틱은 파동이 너무 자주 발생해 투자 판단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파동을 다소 느리고 완만하게 만든 것이 슬로 스토캐스틱이라고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실제로 이용하기에 용이한 슬로 스토캐스틱을 더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면 위쪽이 패스트 스토캐스틱이고 아래쪽이 슬로 스토캐스틱입니다. 슬로 스토캐스틱이 보기에 편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지요? 필자도 슬로 스토캐스틱을 주로 이용합니다.



KOSPI 일봉과 스토캐스틱(2005. 1~2005. 5)

스토캐스틱 활용방법 5가지

1. 스토캐스틱이 과매수 상태에서 80을 하향 돌파하면 매도를 검토하고, 과매도 상태에서 20을 상향 돌파하면 매수를 검토한다.

스토캐스틱 지표는 일정한 기간의 주가 흐름에서 최고가를 100으로 하고 최저가를 0으로 설정한 지표입니다. 따라서 80 이상이면 지금의 주가가 기간중 최고가 근처에 와 있으니 하락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고, 20 이하는 기간중 바닥권에 와 있으니 상승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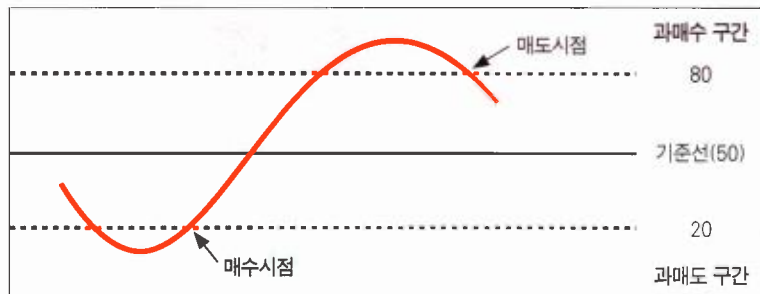
그러나 주가가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상승할 때는 스토캐스틱이 80에 진입하고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있고, 또 주가가 신저가를 갱신하면서 하락할 경우에는 스토캐스틱이 20 이하에 진입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하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80에 진입하면 매수를 해야 하고, 20 이하로 진입하면 매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과매수·과매도 구간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과매수·과매도 구간에 진입했다는 것만으로 바로 매도·매수를 하지 말고 각각의 구간을 벗어날 때 매매를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과매수 구간을 벗어나 80을 깨고 내려올 때 매도를 검토하고, 과매도 구간을 벗어나 20을 상향 돌파할 때 매수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스토캐스틱 지표를 해석할 때 과매수권에서는 매도하고, 과매도권에서는 매수하는 것으로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과매수·과매도 구간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므로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 알아두세요

지표의 추세만 보고 잘못 판단하지 않으려면?

스토캐스틱을 비롯한 모든 모멘텀 지표에서 오른 쪽에 표시되어 있는 숫자의 의미를 알아야 올바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수치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지표의 추세만 보고 판단할 경우 차트를 잘못 읽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스토캐스틱에서 100~60 사이로 완만하게 하락할 경우 곡선이 하락하고 있더라도 추세가 하락하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조정일 가능성이 큼니다. 마찬가지로 스토캐스틱이 10~40 사이에서 완만하게 파동을 그리더라도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된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반등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표의 추이만 보고 단정하기에 앞서 MACD와 같은 추세지표를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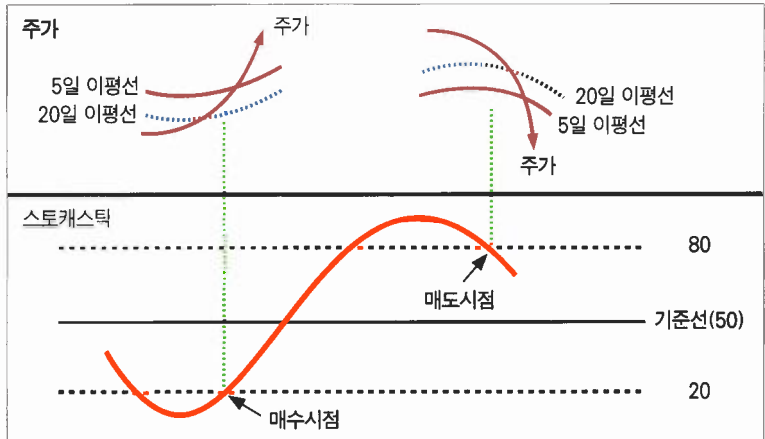


과매수 · 과매도 구간 활용방법

또 하나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스토캐스틱 그래프를 볼 때는 추세 분석 그래프와 함께 보아야 합니다. 스토캐스틱은 파동이 잦은 지표이기 때문에 주가 추세가 한 방향으로 진행되는 동안에도 진동 사이클을 그립니다. 바로 이 잦은 진동 때문에 투자판단에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추세를 확인한 후 스토캐스틱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추세의 변동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봉 차트에 있는 주가와 5일 이동평균선 또는 20일 이동평균선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주가가 5일 또는 20일 이동평균선을 아래로 뚫고 하락하고, 스토캐스틱이 80을 벗어나 하락할 때를 매도시점으로 봅니다. 주가가 5일 또는 2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다는 것은 이동평균선이 역배열 상태에 있는 것이므로 하락추세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05장을 참고하세요). 반대로 주가가 5일 또는 20일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하고, 스토캐스틱이 20을 벗어나 상승할 때는 매수시점으로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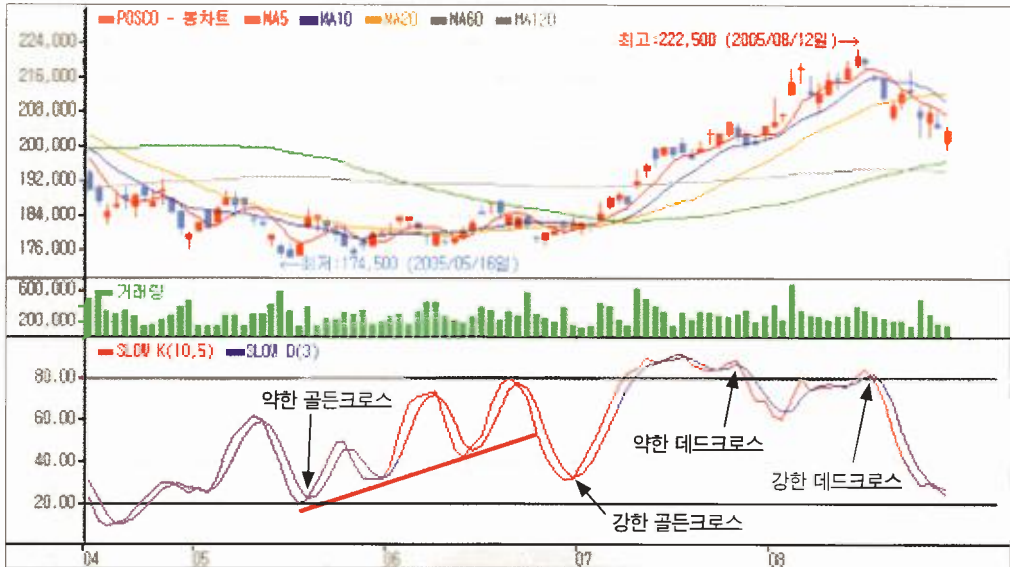
주가 추세와 스토캐스틱을 이용한 매매방법

추세를 확인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MACD 곡선을 보고 추세가 진행중인지 아니면 변동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09장을 참고하세요).

이렇게 하려면 하나의 그래프에 봉차트, MACD, 스토캐스틱을 동시에 띄워놓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2. %K선이 %D선을 상향 돌파하면 매수 신호, %K선이 %D선을 하향 돌파하면 매도 신호이다.

%K는 오늘의 주가 수준이고, %D는 이동평균선입니다. 따라서 주가와 이동평균선이 만나 골든크로스를 그리면 주가는 상승하고, 데드크로스를 그리면 주가는 하락합니다. 그런데 다음 그래프에서도 볼 수 있듯이 막상 스토캐스틱 지표를 보면 골든크로스과 데드크로스가 너무 자주 발생하여 혼란스러운 때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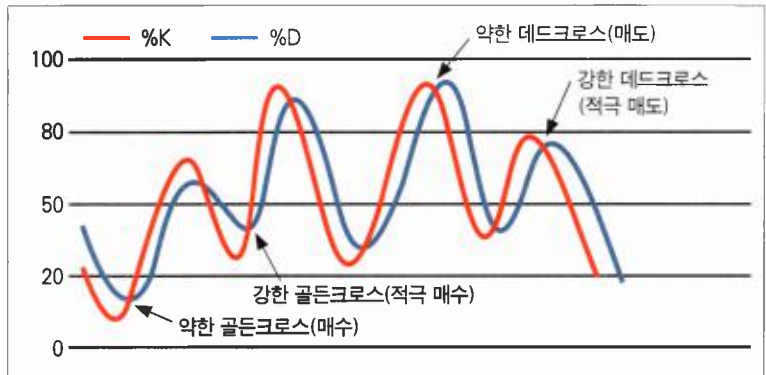


포스코 일봉과 스토캐스틱(2005. 4~2005. 8)

이런 경우에는 투자 결정을 하기 전에 다음 세 가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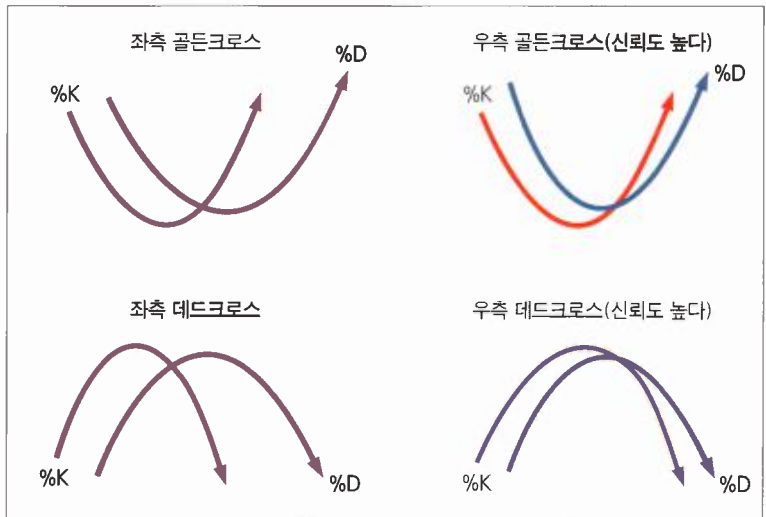
첫번째는 주가 추세가 상승이나 하락이나를 이동평균선과 MACD 지표로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20일 이동평균선과 MACD 지표로 봐서 주가가 상승추세일 때는 스토캐스틱이 그린 골든크로스를 매수시점으로 보되 데드크로스는 무시합니다. 반대로 주가 추세가 하락중일 경우에는 데드크로스를 그릴 때 매도하고 골든크로스는 무시해야 합니다.

두번째는 골든크로스가 발생한 지점이 0에서 100 방향으로 위쪽에 있을수록 강한 골든크로스로 보는 것입니다. 즉 20에서 발생한 골든크로스보다 30~50에서 발생한 골든크로스가 상승탄력이 크다고 보는 것입니다. 반대로 데드크로스의 경우엔 100에서 0 방향으로 아래쪽에 있을수록 강한 데드크로스로 봅니다.



골든크로스과 데드크로스의 강약

세번째는 %K가 %D를 만날 때 어느 위치에서 교차하느냐에 따라 골든크로스과 데드크로스의 신뢰도가 달라집니다. 골든크로스를 그릴 때는 %K가 %D의 정점 오른쪽에서 교차하는 것을 왼쪽에서 교차하는 것보다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골든크로스로 봅니다. %D의 정점 오른쪽에서 교차한다는 의미는 하락하던 주가



%K와 %D의 교차점 위치와 신뢰도

가 충분히 조정을 거친 후 상승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데드 크로스의 경우에도 같은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우측 교차는 드물고 좌측 교차가 흔합니다.

3. 스토캐스틱이 50 이상이면 주가는 상승추세, 50 이하면 하락추세를 의미한다.

스토캐스틱이 중간선인 50 근처에 있으면 주가 방향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따라서 50을 기준으로 상승 또는 하락으로 방향이 전환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방향이 결정되면 그때 투자를 결정합니다.

스토캐스틱이 50 이상에서 상승파동을 그리면 주가가 상승중이거나 최소한 하락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0 이하에서 파동을 그리면 주가가 하락중이거나 최소한 상승하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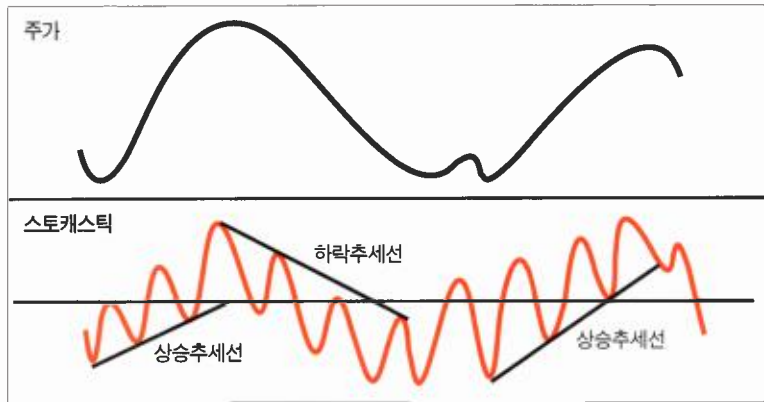
스토캐스틱 곡선이 움직이는 방향도 중요하지만 방향 못지않게 스토캐스틱의 수준도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추세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의 스토캐스틱의 위치는 그 의미가 MACD에 비해 다소 떨어진다고 봅니다.

4. 스토캐스틱이 상승파동을 그리면 주가도 상승하고, 하락파동을 그리면 주가도 하락한다.

주가가 상승중이면 스토캐스틱도 고점과 저점을 높이면서 파동을 그리고, 주가가 하락중이면 스토캐스틱도 고점과 저점을 낮추면서 파동을 그립니다.

그러나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스토캐스틱이 하락을 하더라

도 60 이상에서 완만하게 하락할 때는 추세적 하락이 아니라 일시적인 하락일 경우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스톡캐스틱이 상승할 경우에도 40 이하에서 완만한 상승을 보일 때는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일시적인 반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토캐스틱 추세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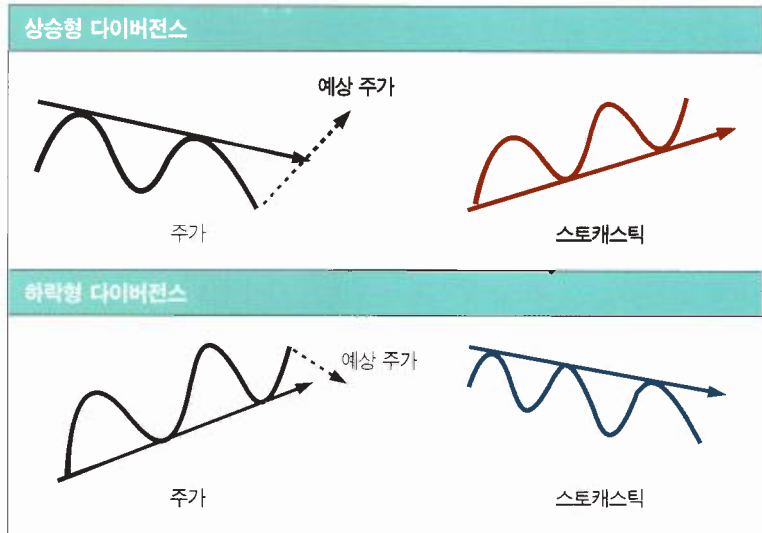
5. 주가와 스톡캐스틱이 역배열되는 다이버전스가 나타나면 주가 방향이 전환된다.

주가와 스톡캐스틱이 반대 추세로 움직이는 것을 다이버전스라고 합니다.

상승형 다이버전스는 주가가 하락하거나 횡보중일 때 스톡캐스틱은 상승추세를 보이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엔 하락하던 주가가 조만간 상승으로 전환될 것이 예상되므로 적극적인 매수 관점에서 주가를 보아야 합니다. 구체적 매수시점은 두번째로 높아지는 파동에서 발생하는 골든크로스에서 매수합니다.

하락형 다이버전스는 주가가 상승중이거나 횡보중일 때 스톡캐

스틱은 반대로 하락추세를 보이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엔 상승하던 주가가 조만간 하락으로 전환될 것이 예상되므로 매도 관점에서 주가를 보아야 합니다. 매도주문을 내는 시점은 두번째로 낮아지는 하락파동에서 데드크로스가 발생할 때입니다.



상승형 다이버전스와 하락형 다이버전스

다이버전스는 추세가 변동될 때마다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발생하더라도 다소 애매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승형 다이버전스가 발생하면 최소한 매도는 하지 말고 기다려보아야 하고, 하락형 다이버전스가 발생하면 일단 매수는 보류하여야 합니다.

다음 그래프는 SK하이닉스(000660) 일봉 그래프입니다. 2010년 1월~6월 기간 동안 모멘텀 지표인 스토캐스틱 그래프로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을 정리해서 알아봅니다.



SK하이닉스 일봉 그래프(2010. 1. 29~2010. 6. 21)

A국면 — 과매도 구간 상향 돌파는 매수 신호

스토캐스틱 지표에서 과매도 구간을 상향 돌파하면 매수 신호라고 했습니다. 봉차트에서도 저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B국면 — 기준선 상향 돌파는 매수 신호

기준선을 돌파하는 날 주가는 10일 이평선을 돌파합니다. 그후 주가는 횡보하는데 스토캐스틱은 기준선을 중심으로 점차 저점과 고점을 높이고 있어 향후 주가 상승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C국면 — 저점을 높인 골든크로스 발생은 매수 신호

스토캐스틱이 저점을 높이는 상승파동을 보이면 주가도 상승합니다. 봉차트에서도 이평선이 정배열(5일/10일/20일)을 만들며 상승추세로 전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D국면 — 속임수 이탈

스토캐스틱이 과매수 구간에 있다고 무조건 매도해서는 안 됩니다. 과매수 구간에 진입한 후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D에서 스토캐스틱이 과매수 구간을 이탈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이탈 후 바로 복귀하는 속임수 이탈입니다. 속임수 이탈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은 추세선이나 이평선을 이탈한 주가가 2~3일 이내에 복귀하느냐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D에서 봉차트를 보면 5일 이평선을 장중에 이탈한 후 5일선 안으로 복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국면 — 과매수 구간 이탈은 매도 신호

E에서 스토캐스틱은 과매수 구간을 이탈하였고 봉차트에서도 하락장악형에 이어 5일 이평선을 하락 이탈하였습니다.

F국면 — 스토캐스틱이 하락추세면 주가도 하락추세

스토캐스틱이 고점과 저점을 낮추며 하락하고 있으면 주가도 하락합니다. 봉차트에서도 5일/10일/20일 이평선이 데드크로스를 만들고 나서 하락추세로 전환되었습니다.

G~H국면 — 스토캐스틱이 골든크로스를 만들고 기준선을 돌파하고 있으므로 매수 신호입니다.

스토캐스틱이 저점을 높이고 주가도 저점을 높이는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스토캐스틱을 볼 때는 반드시 봉차트에서 이동평균선과 함께 보아야 합니다. 다음에 나오는 <무작정 따라하기>에서는 예제를 통해서 봉차트와 스토캐스틱 그리고 추세선인 MACD를 같은 화면에 띄워두고 주가를 예측해 보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스토캐스틱에도 패턴이 있다!



스토캐스틱 분석을 할 때 추세 분석이 아닌 패턴 분석을 통해 주가를 예측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삼중천정형(Head&Shoulder형), 쌍봉형, 원형천정형 등이 나타나면 매도 관점에서 스토캐스틱 지표를 해석하고, 삼중바닥형(역H&S형), 쌍바닥형, 원형바닥형 등이 나타나면 매수 관점에서 스토캐스틱 지표를 해석합니다.

예제 다음은 포스코 그룹사로 엔지니어링과 IT서비스를 주업으로 하는 포스코ICT(022100) 일봉 그래프입니다. 일봉 그래프를 보고 2009년 12월 30일 기준으로 주식을 살 때인지 팔 때인지 아니면 관망해야 할 때인지를 판단해 보십시오. 그리고 스토캐스틱과 MACD 지표를 같은 화면에 나타내고 보조지표를 이용하여 투자판단을 해보십시오.



포스코ICT 일봉 그래프 (2009. 6. 23~2009. 12.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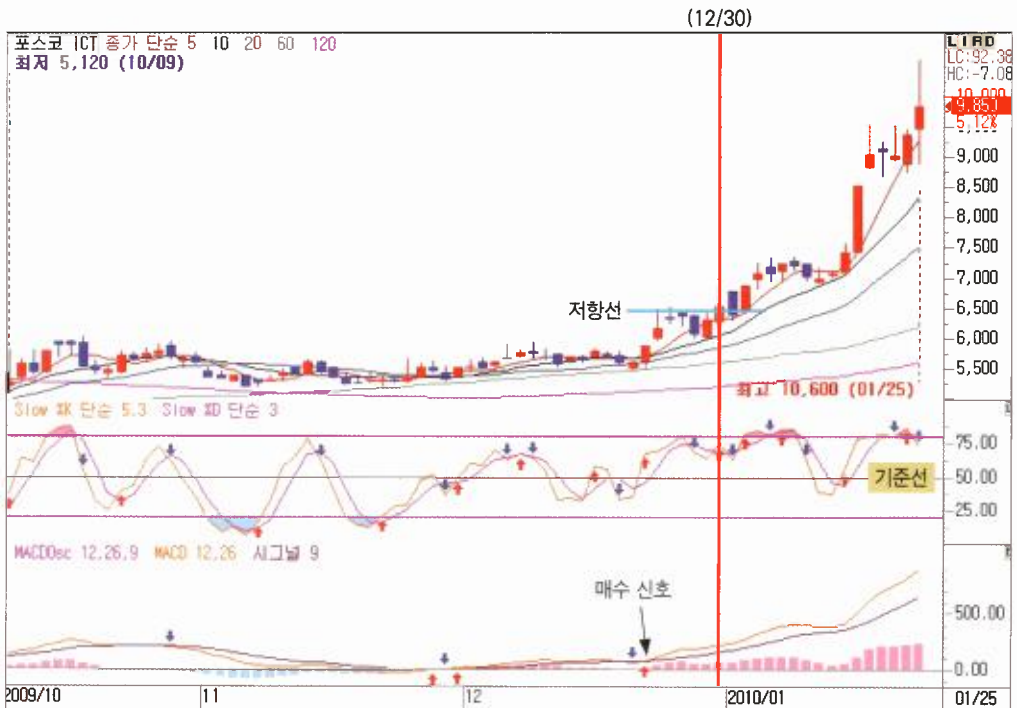
1 | 먼저 일봉 차트를 봅니다.

일봉 → 5일선 → 10일선 → 20일선 → 60일선 → 120일선이 차례로 배치되어 있고, 이평선이 정배열되어 있으므로 주가 추세는 상승이라고 봅니다.

봉도 두 번의 긴 양봉이 출현하여 직전의 저항선으로 작용하던 주가를 돌파하고 있으므로 주가는 상승으로 예측합니다.

2 | 보조지표인 MACD와 스토캐스틱으로 봉차트를 다시 확인해 봅니다.

먼저, MACD는 골든크로스를 만든 후 상승하고 있으므로 주가 추세가 상승임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토캐스틱도 기준선 위에 있으며 저점과 고점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상승으로 예측합니다. 일봉 이외에 보조지표로도 매수임을 확인하였으니 주식을 가진 투자자는 주식을 팔지 말고 계속 보유해야 합니다. 주식을 매수하려는 투자자는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2월 30일 투자를 결정했다면 그후 투자결과가 어떠했는지를 아래 그래프로 확인해 보세요.



포스코ICT 일봉 그래프(2009. 6. 23~12. 30)

스토캐스틱을 이용한 매매원칙과 주의할 점

주식 매매를 할 때는 MACD로 추세를 확인하고 추세에 따라 스토캐스틱으로 매매시점을 잡는다는 원칙을 지키되, 다음과 같은 점들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매수시 주의할 점

%K선이 %D선을 상향 돌파하면 매수 신호로 보되 다음 사항들이 일치하면 매수주문을 실행에 옮긴다.

1. 스토캐스틱 지표가 상승추세를 보이고 50 이상에 있어야 한다(다소 융통성 있게 적용).
2. 스토캐스틱 지표가 저점을 높이는 상승파동에 있어야 한다.
3. 주가가 5일 또는 2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어야 한다.
4. MACD 지표가 상승으로 전환하거나 또는 최소한 하락을 멈추어야 한다.
5. 상승형 다이버전스가 발생하면 매수를 검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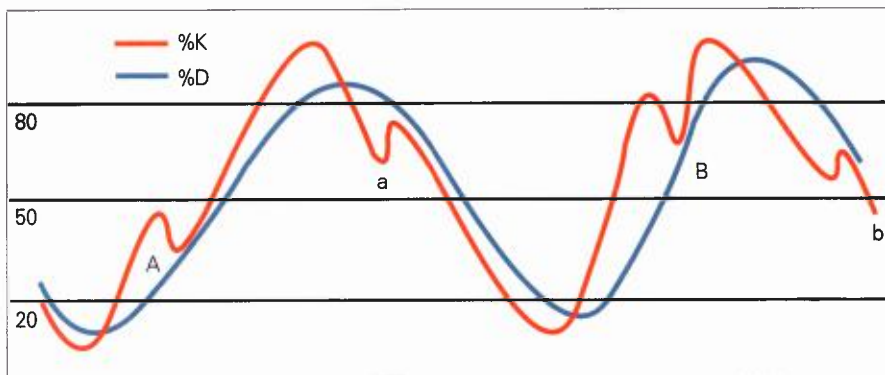
매도시 주의할 점

%K선이 %D선을 하향 돌파하면 매도 신호로 보되 다음 사항들이 일치하면 매도주문을 실행에 옮긴다.

1. 스토캐스틱 지표가 하락추세를 보이고 50 이하에 있어야 한다(다소 융통성 있게 적용).
2. 스토캐스틱 지표가 고점이 낮아지는 하락파동에 있어야 한다.
3. 주가가 5일 또는 2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어야 한다.
4. MACD가 하락으로 전환하거나 또는 최소한 상승을 멈추어야 한다.
5. 하락형 다이버전스가 발생하면 매도를 검토한다.



스토캐스틱 재확인(Retesting)이란 스토캐스틱 선이 일정한 방향으로 추세를 이루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조정이 발생하는 경우로, 일시적인 조정이 끝나면 추세가 강화되거나 지속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스토캐스틱 재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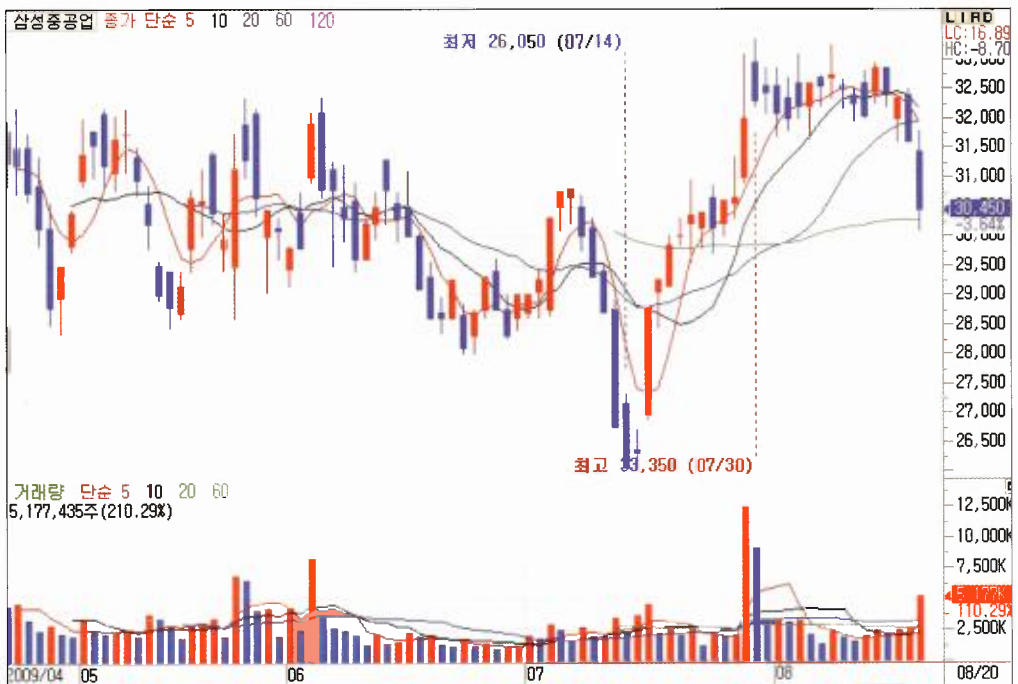
위 그림에서 A와 B는 상승추세 속에서 나타나는 상승추세 재확인 그림이고, a와 b는 하락추세 속에서 나타나는 하락추세 재확인 그림입니다.

추세 재확인처럼 데크로스나 골드크로스가 나타나지 않고 일시 조정하는 경우는 대체로 기존의 추세가 더 강력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시적인 조정을 이용하여 수익을 내려고 하면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추세를 거스르는 매매를 해서는 안 됩니다.

추세 재확인 여부도 5일과 20일 이동평균선을 확인하고, MACD 곡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제 투자자 A씨는 조선주인 삼성중공업(010140) 주식을 2009년 8월 11일 32,500원에 500주 매수하였습니다(1,625만원 투자, 수수료 제외). 그후 며칠이 지난 8월 19일 매수가보다 900원 하락하여 31,600원이 되더니 다음날인 8월 20일에는 30,50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100만원을 손해 보고 있는 A씨는 물타기로 추가 매수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손절매도하는 것이 좋을까요?



삼성중공업 일봉 그래프(2009. 6. 25~2009. 8. 20)

봉차트에 다음과 같이 보조지표인 스토캐스틱과 MACD를 나타내 보십시오.



삼성중공업 일봉 그래프(2009. 6. 25~10. 22)

- 1 | 봉차트를 봅니다. 주가가 5일선, 10일선, 20일선을 차례로 하락 이탈하고 있으므로 추가 하락이 예상됩니다. 이동평균선의 데드크로스(5일/10일/20일선) 발생은 매도 신호입니다. 지지와 저항으로 볼 때 8월달 지지선인 31,800원을 뚫고 아래로 하락 이탈하고 있으므로 매도 신호입니다.
- 2 | 추세지표인 MACD가 데드크로스를 만든 후 하락하고 있으므로 주가는 추세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봅니다.
- 3 | 모멘텀 지표인 스토캐스틱이 고점과 저점을 낮추며 하락하고 있고 또 기준선 아래로 하락하고 있으므로 주가는 추가 하락이 예상됩니다.
- 4 | 봉차트와 이동선이 매도 신호를 보내고 있고 보조지표인 MACD와 스토캐스틱도 매도 신호를 보내고 있으므로 투자판단은 매도입니다. 따라서 손절매도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매수 신호가 나타나기 전까지 물타기를 해서는 안 되며, 투기성이 강한 ELW의 경우엔 콜ELW를 매수해서는 안 됩니다.



뱃사공과 철학자

어느 노(老)철학자가 나룻배를 탔다. 노철학자는 배를 젓고 있는 뱃사공에게 철학을 배웠느냐고 물었다. 뱃사공이 배우지 못했다고 고개를 좌우로 흔들자 철학자가 말했다.

“한심한 사람이군. 자넌 인생의 3분의 1을 헛살았구먼. 그렇다면 자네, 문학에 대해서 공부를 했나?”

철학자의 물음에 뱃사공이 역시 고개를 좌우로 흔들자 이렇게 말했다.

“자넌 인생의 3분의 2를 헛살았구먼.”

잠시 후 배가 강을 절반쯤 건너갔을 무렵, 갑자기 배에 물이 들어와 배가 가라앉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그때 뱃사공이 철학자에게 수영을 배웠느냐고 물었다. 철학자가 수영을 배우지 못했다고 하자 뱃사공이 말했다.

“선생님은 인생 전체를 헛살았군요”

철학자: “음...”

다기망양(多岐亡羊)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도망간 양을 찾기 위해 뒤쫓아간 사람이 여러 갈래로 갈라진 길에 이르러 마침내 양을 놓쳐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차트분석 기법도 이용 도구와 분석 목적에 따라 여러 종류가 많습니다. 투자자라면 다양한 종류의 분석기법의 원리를 이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전에 응용할 때는 주지표인 봉차트, 추세선, 이동평균선 그리고 거래량을 보고, 보조지표로는 MACD, 스토크스틱, 일목균형표, 볼린저밴드, 이격도, 심리도 정도만 확인해도 충분합니다. 이 책을 통해서 이상의 꼭 필요한 분석기법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보십시오. 더 많은 분석기법에 욕심을 내면 오히려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일목균형표 활용하기

MACD와 스토크스틱 그리고 일목균형표는 전문가들도 많이 활용하는 대표적인 지표들입니다. 개인투자자들도 이 세 가지 보조지표를 완전히 이해하고 자기 것으로 만든 후 실전에 활용하면 투자성공률이 한 단계 높아진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 알아두세요

일목균형표는 일본인 차트 분석가 이치모쿠 산징(一目山人)이 신동전환선(新東轉換線)이라는 내용으로 일목균형표 이론을 신문에 소개하면서 세상에 알려진 분석기법입니다. '일목'은 자신의 이름을 딴 것이고 '균형'은 밸런스는 뜻이며 '표'는 차트라는 뜻입니다.

일목균형표란?

일목균형표는 지금의 주가 추세가 어느 시점에 가서 변동될 것인가를 알아봄으로써 향후 주가를 예측하는 분석기법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분석기법과 다른 점은 미래 주가 예측에 시간 개념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즉, 여타 분석기법은 주가 또는 주가와 거래량으로 분석기법을 만든 데 반해 일목균형표는 시간 개념을 적용해 만든 것이 특징입니다. 한마디로 주가 추세는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변한다는 점에 착안한 분석기법인 것이죠.

일목균형표 이론을 만든 이치모쿠 산징(一目山人)은 과거 수많은 시세 파동을 분석한 결과 한 추세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새로운 추세 변화가 예상되는 시점은 기본적으로 일정한 수열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일봉 차트에서 오늘 상승추세가 시작되었으면 9일 혹은 17일 후에는 하락세로 바뀌든가 아니면 급등세로 바뀌는 변화가 온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또 주봉의 경우 만약 첫번째 주에 주가가 하락하였

다면 9주 혹은 17주 후에는 새로운 추세, 즉 상승으로 전환되든
가 아니면 급락세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같은 분석을 토대로 이치모쿠는 주가 변곡점이 되는 수열
로 '9(1절), 17(2절), 26(3절=1기), 33, 52, 76(3기=1순), 129, 172,
226(3순=1환)···'을 제시하고 이를 **기본 수치**라 하였습니다. 기본
수치에서 시간단위 '절'은 일에 해당하고, '기'는 월에 해당하며,
'순'은 분기, '환'은 연에 해당하는 시간단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엘리어트가 주가의 중장기 분석에 이용한 피보나치 수열이 수
학자 피보나치가 이집트 피라미드를 연구하다 발견한 신비의
숫자라면, 이치모쿠가 발견한 수열은 과거 주가 움직임을 분석
한 결과 찾아낸 통계적 숫자입니다.

이치모쿠는 또한 기본 수치 외에 주가가 상승하는 데 걸린 시간
과 하락하는 데 걸린 시간이 같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대등 수치**
라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주가 상승이 2개월 지속되었다면 하락
하는 기간도 상승기간에 비례하여 2개월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일목균형에서 '균형'이라는 의미를 생각해 보게 하는 점입니다.

일목균형표의 작성원리

일목균형표는 5개의 선과 2종류의 구름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
다. 5개의 선은 전환선, 기준선, 후행스팬, 선행스팬 1, 선행스팬
2를 말하고, 구름층은 양운과 음운을 말합니다. 이들 선과 구름
의 계산방법과 그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전환선

최근 9일간의 최고점과 최저점의 중간값을 연결해 만든 선입니다.

$$\text{전환선} = (9\text{일 중 최고점} + \text{최저점}) \div 2$$

9일간의 시세 균형을 나타내는 선이므로 일봉 차트에서 10일 이동평균선과 유사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2. 기준선

최근 26일간의 최고점과 최저점의 중간값을 연결하여 만든 선입니다.

$$\text{기준선} = (26\text{일 중 최고점} + \text{최저점}) \div 2$$

20일 이동평균선이 장·단기 추세선의 중심선이듯 일목균형표에 있어 기준선은 시세의 방향을 알려주는 중심 추세선입니다.

★ 알아두세요

스팬이란?

스팬(span)은 '일정한 간격'을 뜻합니다. 선행스팬이라 하면 '일정한 간격(26일)만큼 선행시킨 지표'이며, 후행스팬이라 하면 현재의 주가를 26일 후행시켜 그린 지표가 됩니다. 이치모쿠는 연속적인 시세를 일정한 간격으로 구분하여 시세의 변화를 파악하려 한 것입니다.

3. 후행스팬

현재의 주가를 26일 후행시켜 연결한 선입니다. 다시 말해 현재의 증가를 기준으로 26일 후행하여 그린 것입니다. 후행스팬으로 한 달 전의 주가와 현재의 주가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4. 선행스팬 1

전환선과 기준선의 중간값을 26일 앞으로 선행하여 그린 선입니다.

$$\text{선행스팬 1} = (\text{기준치} + \text{전환치}) \div 2$$

5. 선행스팬 2

52일간의 최고점과 최저점의 중간값을 계산하여 26일 선행하여 그린 선입니다.

$$\text{선행스팬 2} = (\text{52일간 최고점} + \text{최저점}) \div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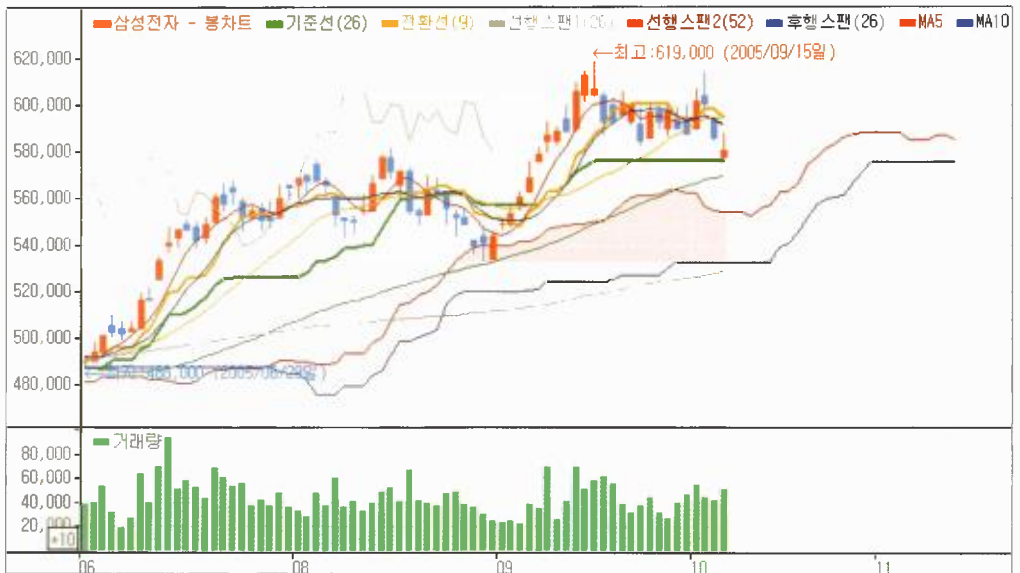
선행스팬은 과거의 주가 움직임이 미래 주가 변화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만든 선으로, 두 개의 선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선행스팬 1은 전환선과 기준선의 중간값으로 기준선보다는 빠르게 움직이지만 전환선보다는 느리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26일 앞쪽에 그려지기 때문에 추세에 대한 민감도는 다소 둔화됩니다. 다음으로 선행스팬 2는 52일간 가격의 중간치로 26일 선행하여 그려지므로 선행스팬 1보다도 시세 변화에 따른 민감도가 더욱 떨어집니다.

6. 구름층(양운과 음운)

구름층은 선행스팬 1과 선행스팬 2 사이에 생기는 간격을 색칠하여 그림니다. 선행스팬 1이 선행스팬 2 위에 있을 때는 '양운'이라 하고 붉은색으로 나타내고, 선행스팬 1이 선행스팬 2 아래에 있을 때는 '음운'이라 하고 파란색으로 나타냅니다.

선행스팬 원리에 입각해서 보면 선행스팬 1이 선행스팬 2보다 주가에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따라서 양운일 경우에는 주가가 상승추세에 있고, 음운일 경우에는 주가가 하락추세에 있다고 봅니다.

아래 두 개의 그래프를 보고 5개 선과 구름층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일봉과 일목균형표(2005. 6~2005. 11)

위쪽 그래프는 봉차트와 일목균형표만을 나타낸 것이고, 아래쪽 그래프는 이동평균선과 거래량이 있는 일봉 그래프와 일목균형표를 함께 나타낸 것입니다. 일목균형표는 일반적으로 아래쪽 그래프와 같이 이동평균선과 함께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동평균선과 함께 보면 여러 개의 선이 중복되어 복잡하게 보이기 때문에 흔히 이동평균선을 지우고 봅니다.

5개의 선을 보니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지요? 그러나 원리를 생각하면서 보면 다음과 같은 4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 ① 흔히 쓰고 있는 이동평균값을 쓰지 않고 중간값을 쓰고 있다.
- ② 전환선과 기준선의 경우는 일봉 차트에서 9일 이동평균선, 26일 이동평균선과 유사하다.
- ③ 후행스팬이나 선행스팬 모두 26일을 기준으로 각기 후행하고 선행하게 한 것이다.
- ④ 앞에서 나온 수열 중에 9, 26, 52를 사용하였다.

■ 일목균형표의 원리 요약

1. 전환선 : 9일간의 최고점과 최저점의 중간값
2. 기준선 : 26일간의 최고점과 최저점의 중간값
3. 후행스팬 : 현재가를 26일 후행
4. 선행스팬 1 : 전환선과 기준선의 중간값으로 26일 선행
5. 선행스팬 2 : 52일간 최고점과 최저점의 중간값
6. 구름층 : 선행스팬 1과 선행스팬 2 사이의 구간
 $\text{선행스팬 1} > \text{선행스팬 2} \rightarrow \text{양운}$
 $\text{선행스팬 1} < \text{선행스팬 2} \rightarrow \text{음운}$

일목균형표 활용방법 4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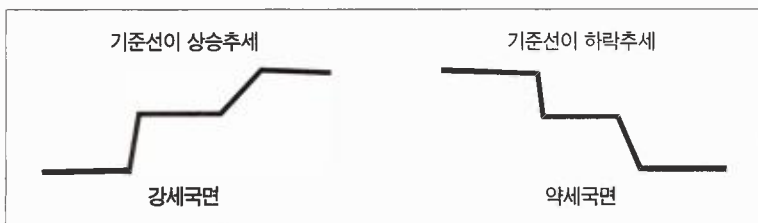
★

알아두세요

일목균형표를 활용하는 방법은 본문에서 설명한 4가지 외에도 시간이론, 파동이론, 가격이론, 균형이론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투자자들이 실전에서 활용하기엔 불편하여 이 책에서는 생략합니다.

1. 기준선을 이용한 매매방법

기준선은 주가 추세의 기준이 되는 선으로, 기준선이 상승추세이면 강세국면이므로 매도는 자제하고 매수 관점에서 주가를 보아야 하고, 기준선이 하락추세이면 약세국면이므로 매수는 자제하고 매도 관점에서 주가를 보아야 합니다.



2. 전환선과 기준선을 이용한 매매방법

① 전환선(9일)은 단기 이동평균선으로, 기준선(26일)은 중기 이동평균선으로 간주하여 활용합니다. 위에서부터 주가 → 전환선 → 기준선 순서로 배열되어 있으면 상승국면을 나타내고, 반대로 기준선 → 전환선 → 주가 순서이면 하락국면을 나타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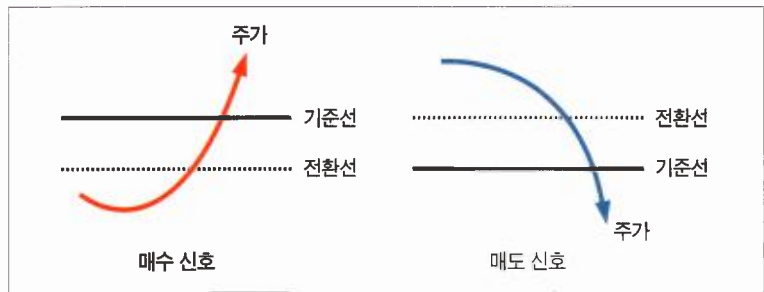
위에서부터 후행스팬 → 주가 → 전환선 → 기준선 → 구름층(양운) 순이면 정배열 상태로 주가는 강세국면입니다.

위에서부터 구름층(음운) → 기준선 → 전환선 → 주가 → 후행스팬 순이면 역배열 상태로 주가는 약세국면입니다.

단, 기준선이 상승추세를 계속하는 때는 주가나 전환선이 일시 하락하더라도 매도를 보류하고, 또한 기준선이 하락추세일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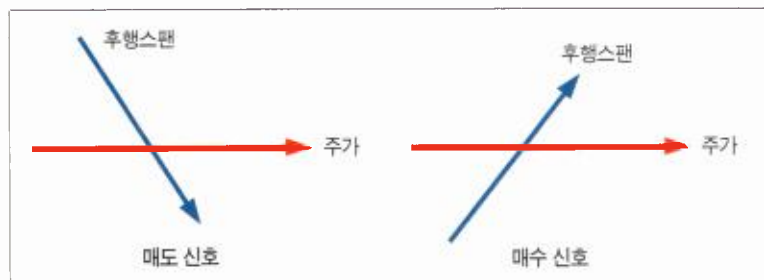
는 주가나 전환선이 일시 상승하더라도 매수는 유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시적인 속임수 주가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② 주가가 전환선을 상향 돌파하거나 전환선이 기준선을 상향 돌파하면 골든크로스로 매수시점이고, 주가가 전환선을 하향 돌파하거나 전환선이 기준선을 하향 돌파하면 데드크로스가 되어 매도시점입니다.



3. 후행스팬을 이용한 매매방법

기준선이 상승추세를 유지하고 있을 때 후행스팬이 주가를 상향 돌파하면 매수 신호로 보고, 하향 돌파하면 매도 신호로 봅니다. 그러나 후행스팬이 상향 돌파하지 못하고 재차 반락할 경우에는 주가 하락세가 더욱 강력해질 경우가 있습니다.



4. 구름층을 이용한 매매방법

구름층은 선행스팬 1과 선행스팬 2의 구간으로 중장기 대세의 흐름을 나타냅니다.

- ① 구름층을 구성하는 두 개의 선, 즉 선행스팬 1과 선행스팬 2는 향후 주가 방향을 예고합니다.
- ② 구름층의 색상은 주가가 강세국면에 있는가, 아니면 약세국면에 있는가를 나타냅니다.

양운(붉은색) → 강세국면

음운(파란색) → 약세국면

- ③ 구름층이 주가 아래에 있으면 구름층은 지지선의 역할을 하고, 구름층이 주가 위에 있으면 구름층은 저항선의 역할을 합니다. 주가가 구름층을 뚫고 내려가면 지지선이 무너진 것이므로 추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가가 구름층을 뚫고 올라가면 저항선이 깨어진 것이므로 추가 상승을 예상합니다.
- ④ 구름층의 두께는 지지나 저항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 ⑤ 구름의 색깔이 바뀔 때는 주가의 추세도 바뀐다고 봅니다.

음운에서 양운으로 바뀌면 → 주가는 상승추세로 전환

양운에서 음운으로 바뀌면 → 주가는 하락추세로 전환

일목균형표도 MACD 지표와 함께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목균형표는 MACD, 스토캐스틱과 함께 광의의 모멘텀 지표라 할 수 있으나 시간의 주기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다른 지표와 차이가 있습니다. 모두가 빠르고 정확한 투자판단을 위해 매우 유용한 지표들임에 분명하지만 어느 지표라도 한 가지만으로는 부족함이 있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스토캐스틱과 마찬가지로 일목균형표도 MACD와 함께 이용하는 것이 활용도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또 보조지표인 MACD, 스토캐스틱, 일목균형표 등으로 매수·매도에 대한 투자 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주문을 낼 때는 30분봉, 15분봉, 5분봉을 활용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구름층은 26일 선행하여 그린 선행스팬 1(전환선과 기준선의 중간값)과 선행스팬 2(52일간 최고점과 최저점의 중간값) 사이에 만들어지는 층입니다. 그러므로 주가의 추세가 바뀌는 변곡점은 현재 주가 아래에 있는 구름이 아니라 26일 선행하여 그려지는 구름층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즉, 아래 그래프에서 향후 주가를 예측하려면 오른쪽 끝에 있는 구름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되는 경우의 예(음운 → 양운)

아래 그래프는 SK(003600)의 일목균형표입니다. SK 일목균형표에서 26일 앞서 그려지는 구름 때가 음운에서 양운으로 바뀌고 있는 시점은 2006년 1월 3일입니다. 이때부터 주가가 상승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목균형표 아래쪽에 있는 MACD와 스토캐스틱도 같은 시기에 주가가 상승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사인을 보내고 있습니다.



SK 일봉과 일목균형표(2005. 10~2006.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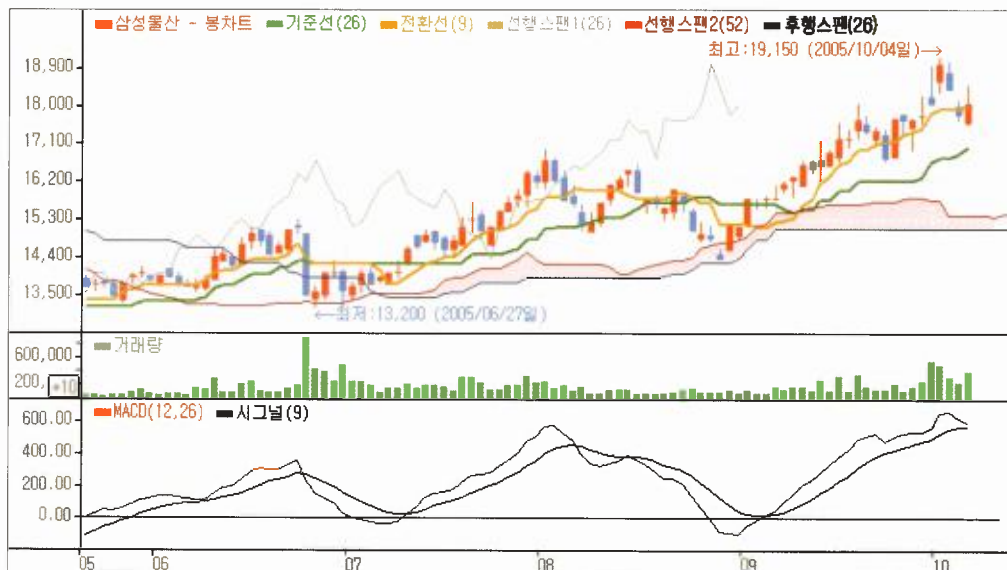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되는 경우의 예(양운 → 음운)

아래 그래프는 기아차(000270)의 일목균형표입니다. 기아차 일목균형표에서 26일 앞서 그려지는 구름띠가 양운에서 음운으로 바뀌고 있는 시점은 2006년 1월 20일이고 주가도 1월 20일 이후 하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운에서 음운으로 전환되는 시기를 보면 주가의 하락세가 진행되고 나서 뒤늦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MACD와 스토캐스틱보다도 전환 시기가 늦습니다. 따라서 추세 전환은 MACD로 확인하고, 일목균형표에 나타나는 구름 색상의 변화는 추세 변화를 확인하는 참고 지표로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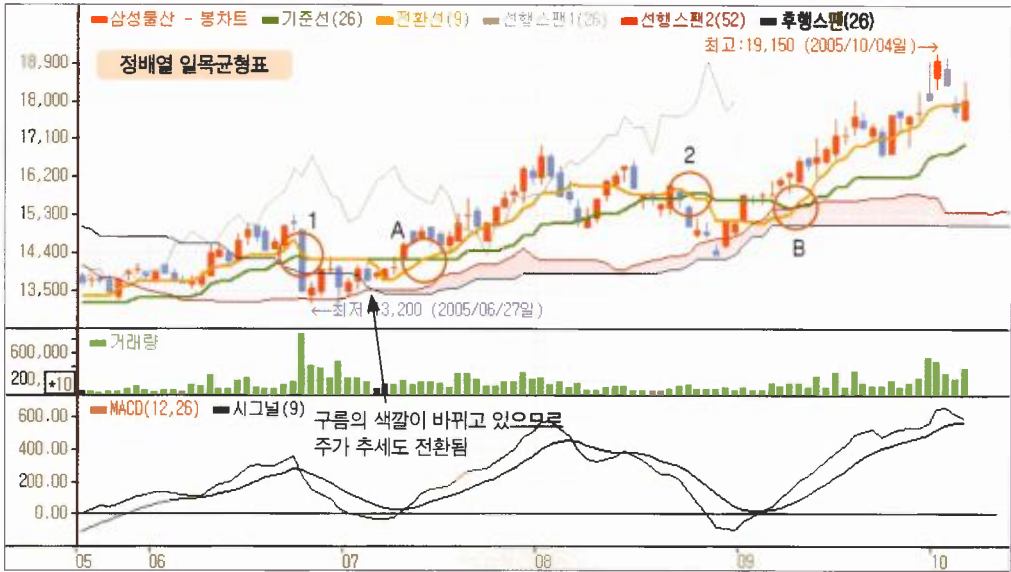
기아차 일봉과 일목균형표(2005. 11~2006. 3)

예제 1 아래 그래프는 삼성물산(000830)의 일목균형표와 MACD 곡선입니다. 앞에서 배운 일목균형표 활용방법 4가지를 이용해 주가 추세와 매매시점을 찾아보세요.



삼성물산 일봉과 일목균형표, MACD(2005. 5~2005. 10)

일목균형표 활용방법 4가지로 분석한 주가 추세와 매매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삼성전자 일봉과 일목균형표, MACD(2005. 5~2005. 10)

1 | 기준선을 이용한 매매방법

기준선이 상승추세이므로 주가도 상승추세가 이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래프를 보아야 합니다. 6월 말경에 주가와 전환선이 일시적으로 기준선을 하향 돌파하였으나 기준선이 하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으로 전환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을 보류합니다. 8월 중후반에 처음으로 기준선이 소폭이나마 하락하고 있어 매도시점이 되고 있습니다. MACD도 하락세를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2 | 전환선과 기준선을 이용한 매매방법

① 그래프 배열이 위에서부터 차례로 주가 → 전환선 → 기준선 → 구름층 순으로 정배열 상태이므로 주가는 상승추세에 있습니다.

② 그래프를 보면 전환선과 기준선이 만나서 두 번의 골든크로스(A, B)와 두 번의 데드크로스(1, 2)를 그리고 있습니다. 골든크로스는 매수시점이 되고 데드크로스는 매도시점이 됩니다. 그러나 첫번째 데드크로

스는 매도시점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기준선이 하락하지 않았고, 구름층이 지지선 역할을 해주고 있으며, MACD 지표가 0 위에서 하락을 멈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발생한 데드크로스는 의미 있는 매도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곧 구름층의 지지를 받아 골든크로스가 발생하였으므로 매도하였다면 매수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MACD도 재매수 시점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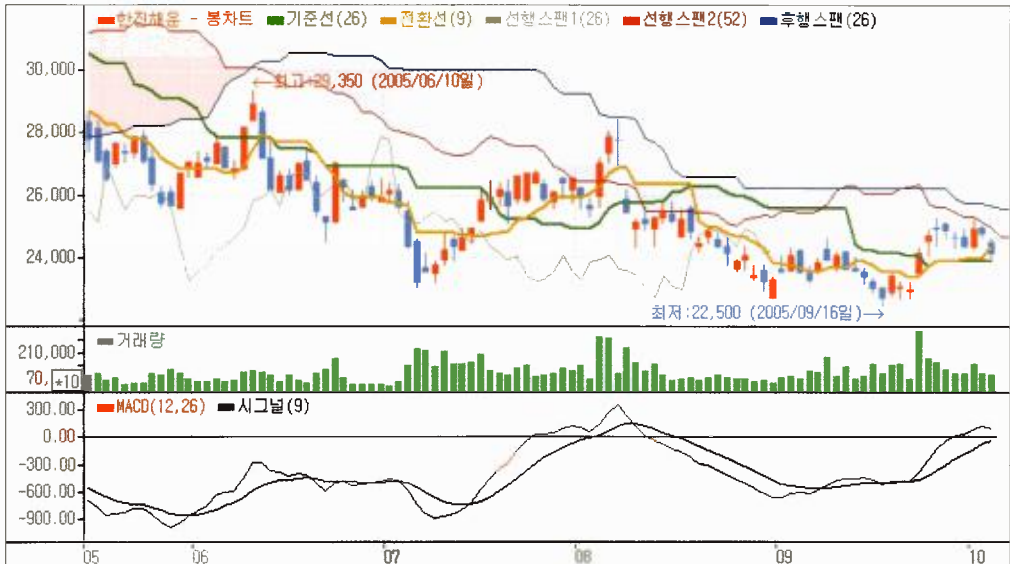
3 | 후행스팬을 이용한 매매방법

5월에 후행스팬이 주가를 상향 돌파하여 매수시점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4 구름층을 이용한 매매방법

6월까지의 주가는 하락추세를 나타내는 음운이고, 7월 초부터 상승추세를 나타내는 양운으로 바뀌어 추세가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됨을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6월 말과 8월 말에는 주가가 구름층까지 하락하였으나 구름층의 지지를 받고 재상승하였습니다. 구름층의 지지를 받고 재상승할 때는 상승탄력이 더욱 강력함을 알 수 있습니다.

예제 2 아래 그래프는 유수홀딩스(000700, 구 한진해운홀딩스)의 일목균형표와 MACD 지표입니다. 일목균형표 활용방법 4가지를 이용해 투자판단을 해보십시오.



유수홀딩스 일봉과 일목균형표, MACD(2005. 5~2005. 10)

해설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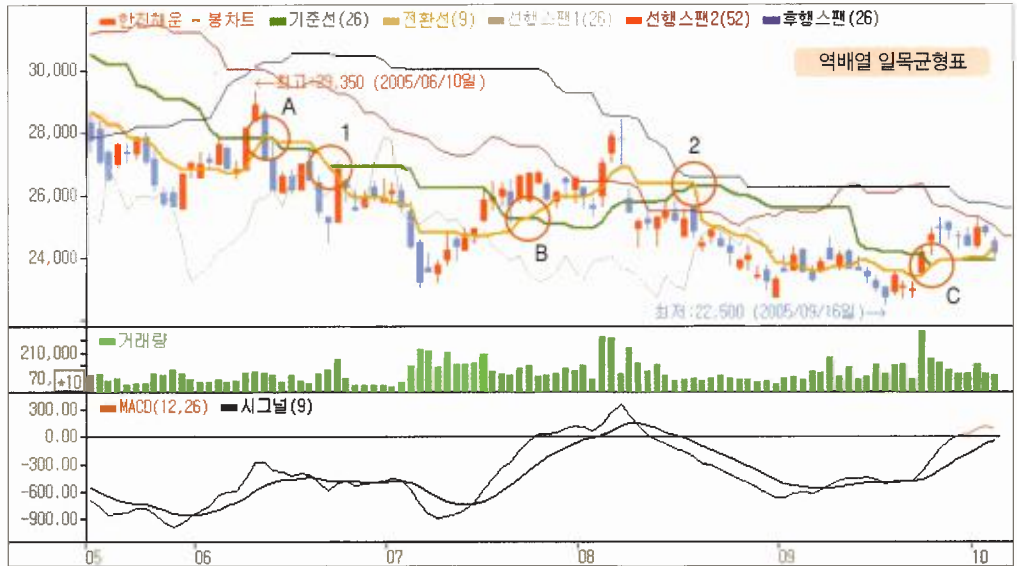
일목균형표 활용방법 4가지로 분석한 투자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 기준선을 이용한 매매방법

기준선이 하향추세이므로 주가도 하락추세임을 전제로 하고 주가를 보아야 합니다. 8월중에 일시 상승으로 전환하였으나 구름층의 저항을 받고 주가가 바로 하락하고 있으며 MACD 지표도 0 이하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상승으로 전환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2 | 전환선과 기준선을 이용한 매매방법

① 그래프 배열이 위에서부터 구름층 → 기준선 → 전환선 → 후행스팬 순으로 역배열 상태이므로 주가는 하락추세에 있는 모양입니다.



유수출당스 일봉과 일목균형표, MACD(2005. 5~2005. 10)

② 전환선이 기준선을 상향 돌파하는 세 번의 골든크로스(A, B, C)와 전환선이 기준선을 하향 돌파하는 두 번의 데드크로스(1, 2)가 발생하였습니다. 첫번째 골든크로스는 속임수 골든크로스라는 점을 기준선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두번째 골든크로스는 MACD도 상승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단기 매수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목균형표를 보고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주가, 전환선, 기준선 모두가 저항선인 음운을 뚫지 못하고 곧바로 데드크로스를 그리며 하락하므로 재매도하여야 합니다. MACD도 다시 매도하라는 신호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3 | 후행스팬을 이용한 매매방법

후행스팬이 주가 아래에서 하향하고 있으므로 하락추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 | 구름층을 이용한 매매방법

6월 초에 추세 하락을 의미하는 음운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음운이 8월까지 두껍게 덮여 있어 추세 하락을 말해 줄 뿐만 아니라 주가 상승시에 저항이 강하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일본 이누가이 외상의 답변

일본 외무장관인 이누가이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일화가 전한다. 한쪽 눈이 없는 이누가이 외상에게 대정부 질문을 하다 한 의원이 시비를 걸었다.

의원: “여보시오, 이누가이 외상. 당신은 한쪽 눈밖에 없지 않소?”

외상: “그렇습니다. 한쪽 눈(一目)이지요.”

의원: “아니, 한쪽 눈으로 어떻게 국제정세를 바로 볼 수 있겠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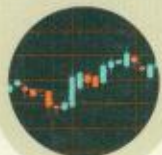
외상: “의원께선 일목(一目)이 요연(瞭然)하다는 말도 못 들어보았습니까?”

의원: “……”

일목균형표는 일본 사람 이치모쿠 산징(一目山人)이 자신의 이름을 따서 만든 주가 예측 기법입니다. 5개의 선 즉 전환선, 기준선, 후행스팬, 선행스팬 1, 선행스팬 2와 두 개의 선행스팬으로 만들어진지는 구름층을 이용하여 주가를 예측합니다. 이치모쿠 산징은 과거 미국과 일본의 주가를 분석해 본 결과 통계적으로 주가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변곡점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로부터 그는 다음과 같은 시간 간격의 수열을 제시하였습니다.

9(1절), 17, 26(3절=1기), 33, 52, 65, 76(3기=1순), 129, 172, 226(3순=1환), …

일목균형표를 보면 복잡한 것 같지만 알고 나면 일목요연한 면이 있습니다. 일목균형표에 대해서는 본문을 참고하세요.



볼린저밴드 활용하기

투자자들 중에는 “나는 왜 주식을 사기만 하면 떨어지고, 팔기만 하면 오를까”라고 하소연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매매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투자자들의 경우 주가의 변동성을 알려주는 볼린저밴드를 활용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알아두세요

표준편차란?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란 어떤 집단이나 평균에서 벗어난 정도를 나타내는 값을 말합니다. 표준편차가 0이면 모두가 동일한 크기라는 뜻이고, 표준편차가 크면 클수록 평균에서 멀리 벗어나 있다는 뜻입니다.

볼린저밴드란?

주가는 등락을 거듭하면서 변하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중심선인 이동평균선을 따라 일정한 밴드 범위 안에서 움직입니다. 이와 같이 이동평균선을 중심으로 표준편차 범위 내에서 주가가 움직인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위쪽에 상한밴드, 아래쪽에 하한밴드를 만들면 가격변동폭의 띠가 형성되는데 이를 볼린저밴드(Bollinger Band)라고 합니다. 존 볼린저(John Bollinger)가 자신의 이름을 따서 만든 것이지요.

볼린저밴드 이론에 따르면, 주가가 큰 폭의 등락을 보이지 않고 횡보하면 주가의 표준편차값이 작아지고 따라서 밴드의 폭도 좁아집니다. 반대로 주가가 뚜렷한 상승추세와 뚜렷한 하락추세를 가지고 움직이거나 급등락 과정을 보이면 표준편차값이 커지고 밴드의 폭도 확대됩니다.

볼린저밴드는 이와 같은 원리를 이용해 밴드폭의 변화 및 밴드 이탈 여부 등 주가의 변동성으로 미래 주가를 예측하는 대표적인 변동성 지표입니다.

볼린저밴드 계산방법

중심선(Middle Band) = 20일 이동평균선

상한선(Upper Band) = 중심선 + (표준편차 × 2)

하한선(Lower Band) = 중심선 - (표준편차 × 2)

중심선은 일반적으로 20일 이동평균선을 사용합니다. 다른 일자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5일과 10일은 너무 단기이고, 60일과 120일은 지나치게 장기라서 매매 타이밍을 맞추는 데는 20일 이동평균선만 못합니다.

볼린저밴드 활용범위

볼린저밴드는 종합주가지수, 개별종목, 선물에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볼린저밴드의 60분봉, 30분봉은 지수선물을 매매할 때 활용도가 높습니다.

볼린저밴드 이론 살펴보기

1. 주가는 95.44%가 밴드 내에서 움직인다.

통계학적으로 표준편차에 2배수를 더하거나 차감한 범위 내에서 이동평균선을 중심으로 주가가 움직일 확률은 95.44%에 달합니다.

2. 밴드의 폭은 일정하지 않고 좁아졌다 넓어졌다를 반복한다.

주가는 상승·하락·횡보 파동을 반복해서 그리며 변동합니다. 그에 따라 밴드의 폭도 좁아졌다 넓어졌다를 반복하는데, 주가가 변동 없이 횡보하면 볼린저밴드의 폭은 좁아집니다. 볼린저

밴드의 폭이 좁아지면 주가는 상승이든 하락이든 새로운 파동을 그리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변동성이 커져서 밴드의 폭이 넓어지면 조만간 그 폭은 다시 좁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주가가 밴드를 벗어나면 추세에 변화가 생긴다.

주가가 밴드 내에서 움직일 확률이 95.44%라는 것은 곧 4.56%는 밴드 밖에서 움직일 확률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확률로 보면 적지만 주가가 밴드를 벗어난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움직임과는 전혀 다른 움직임을 보여준다는 것이며 이는 추세에 변화가 생겼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횡보하던 주가가 상한선을 벗어나면 주가는 상승추세로 전환하고, 하한선을 벗어나면 주가는 하락추세로 전환합니다. 또 상승추세이던 주가가 상한선을 벗어나면 급등세로, 하락하던 주가가 하한선을 벗어나면 급락세로 바뀌게 됩니다.

볼린저밴드 활용방법 4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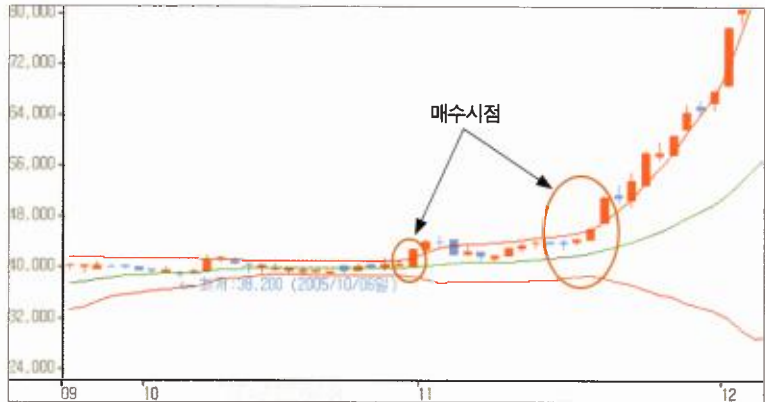
1. 밴드폭을 이용한 매매방법

① 밴드폭이 좁은 경우 : 주가가 횡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곧 주가가 상승이나 하락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가의 횡보기간이 길수록 주가의 탄력성은 큰 폭으로 증가합니다. 밴드폭이 극도로 좁아지는 현상이 나타나면 주가를 예의주시하다가 주가가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 매매하면 됩니다. 이때 스토크스틱, MACD, 일목균형표 등의 보조지

표를 활용하면 주가 방향을 조기에 탐지할 수 있습니다.

② 밴드폭이 과도하게 넓은 경우 : 주가가 추세를 가지고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곧 밴드의 폭이 좁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횡보하던 밴드폭이 넓어지는 경우



포스코 일봉과布林저밴드(2005. 9~2005. 12)

● 상승추세에서 밴드폭이 좁아지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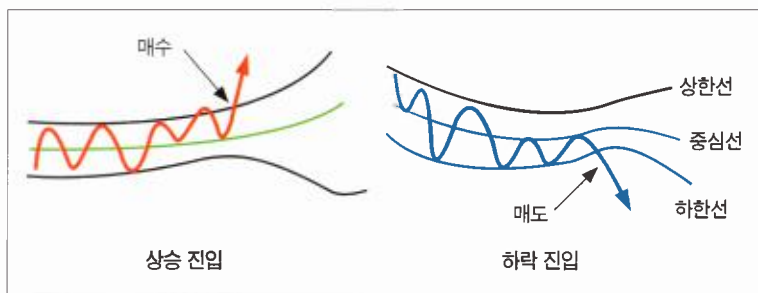


삼성중공업 30분봉과布林저밴드(2006. 2. 19~2006. 2. 27)

2. 밴드 이탈은 새로운 추세 전개를 의미한다.

밴드를 벗어나면 주가는 새로운 추세로 전개되므로 추세에 따라 매매하여야 합니다.

- ① 횡보하던 주가가 상한선 또는 하한선을 이탈하면 이탈 방향에 따라 새로이 추세를 형성하므로 이탈 방향에 따라 매매합니다.
- ② 상승추세에 있던 주가가 상한선을 벗어나면 주가가 급등하므로 매수는 하되 매도는 보류하여야 합니다.
- ③ 하락추세에 있던 주가가 하한선을 벗어나면 주가가 급락하게 되므로 매도하여야 하며, 많이 떨어졌다고 함부로 매수해서는 안 됩니다.
- ④ 밴드폭이 좁아진 상태에서 횡보하던 주가가 상한선을 이탈하고 그에 따라 밴드폭이 갑자기 넓어지는 모양이 나타나면 흔히 '악어가 입을 벌린다'라고 합니다. 이런 모양이 나타나면 급등하는 경우가 있어 대박을 노리는 차트분석가들이 선호한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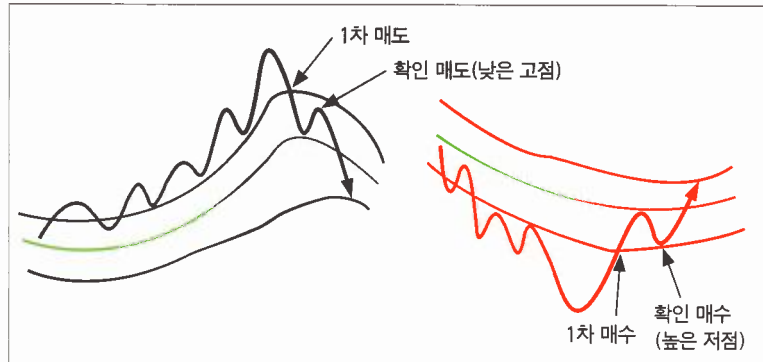
밴드 이탈과 주가 방향

3. 밴드 내 재진입은 추세의 전환을 의미한다.

- ① 상한선 밖에서 고점을 형성하다가 상한선 안으로 진입한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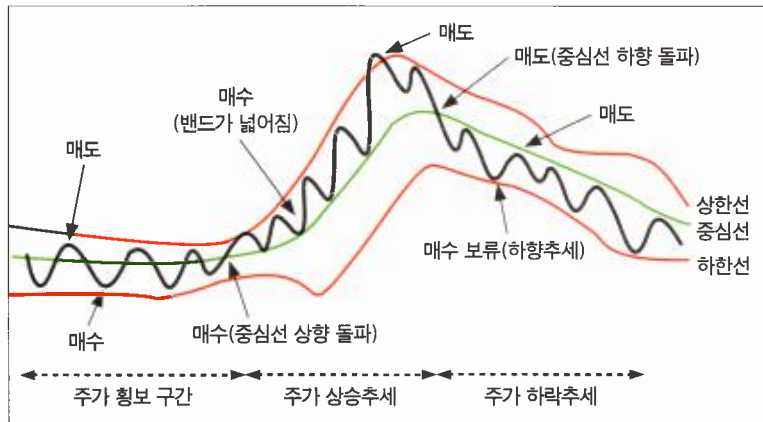
밴드 안에서 재차 고점을 형성하면 주가는 하락으로 전환됩니다.

② 하한선 밖에서 저점을 형성하다가 하한선 안으로 진입한 후 밴드 안에서 재차 저점을 형성하면 주가는 상승으로 전환됩니다. 주가의 파동 원리에 따라 밴드 내에서 2차 파동을 보여야 확실한 상승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밴드 재진입을 이용한 매수·매도 방법

4. 중심선과 상·하한선을 이용한 매매방법



중심선과 상·하한선을 이용한 매매방법

- ① 주가가 횡보국면일 때 : 하한선에서 매수, 상한선에서 매도.
중심선 상향 돌파시 매수, 중심선 하향 돌파시 매도
- ② 주가가 상승추세일 때 : 중심선에서 매수, 상한선에서 매도하
되 상한선을 돌파할 때에는 매수
- ③ 주가가 하락추세일 때 : 중심선에서 매도, 하한선에서 매수하
되 매수는 자제

모멘텀 지표에서 과매수 구간에서 매도하고, 과매도 구간에서 매수하는 원리는 MACD, 스토캐스틱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상한선에서 매도하고 하한선에서 매수합니다. 그러나 주가가 상승추세에 있을 때는 고점이 상한선이 되고 저점은 중심선이 됩니다. 또한 주가가 하락추세에 있을 때는 중심선이 매도시점이 되고 하한선은 매수 또는 매도 보류 시점이 됩니다. 즉 중심선은 주가 상승기에는 지지선이 되고, 주가 하락기에는 저항선이 되는 것입니다(중심선은 20일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상승추세에 있는 주가가 중심선을 하향 돌파하면 지지선이 뚫린 것이므로 매도하여야 하고, 하락추세에 있던 주가가 중심선을 상향 돌파하면 저항선을 뚫은 것이므로 매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시적 주가의 등락도 있을 수 있으므로 추세 확인을 위해 MACD 지표를 함께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상·하한선과 중심선을 이용한 매매방법은 밴드폭이 일정하고 완만한 종합주가지수나 대형주에 활용하는 것이 적합하고 중소형주나 테마주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중소형주나 테마주는 대형주에 비해서 표준편차가 커서 갑자기 밴드폭을 벗어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 현대제철(004020, 구 INI스틸) 그래프를 보고 볼린저밴드를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제철 일봉 그래프(2005. 4~2005. 9)

① 밴드폭을 이용한 매매방법

2005년 6월에 밴드폭이 극도로 좁아지면서 조만간 주가에 변화가 있으리라는 것을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7월 초에는 좁았던 밴드폭이 확대되면서 상한선을 타고 급등하므로 매수합니다. 반면 2005년 8월에는 밴드폭이 과도하게 벌어지면서 주가가 조만간 조정으로 전환될 것을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② 중심선과 상·하한선을 이용한 매매방법

- 주가가 횡보할 때(4~5월) : 상한선에서 매도, 하한선에서 매수
- 주가가 상승추세에서 등락할 때(7~8월) : 상한선에서 매도, 중

심선에서 매수

- 주가가 하락추세일 때(5~6월) : 하한선에서 매수, 중심선에서 매도

③ 주가의 밴드 이탈과 밴드 내 재진입을 이용한 매매방법

밴드 이탈과 밴드 내 재진입은 그 결과를 좀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SK하이닉스(000660) 그래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면 8월 초에 하한선을 일시 이탈하였으나 곧바로 재진입하였습니다. 이때 매수시점은 2차 저점을 찍은 8월 중순입니다. 10월 초에는 상한선을 이탈한 주가가 급등하였습니다. 상한선을 돌파하면 주가가 급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매도시점은 급등하던 주가가 밴드 내로 재진입한 후 2차 고점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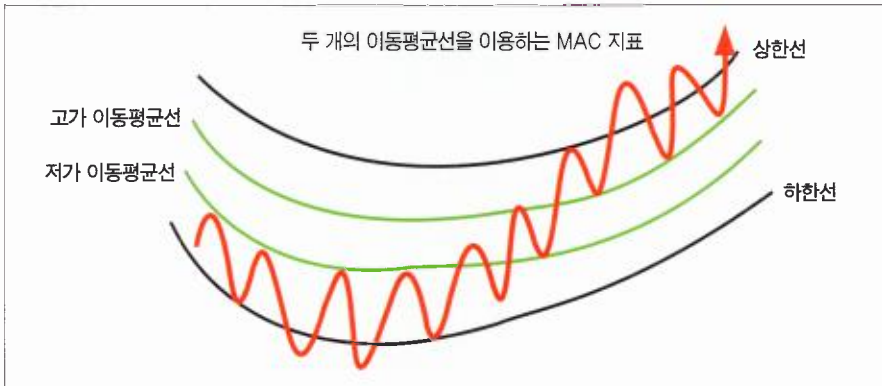
SK하이닉스 일봉 그래프(2004. 6~2004. 11)



미래 주가를 예측하는 변동성 지표로 볼린저밴드를 많이 활용하지만, 그외에 인벨로프(Envelope)와 MAC 지표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먼저 인벨로프(Envelope) 지표는 밴드폭이 일정하지 않은 볼린저밴드와 달리 이동평균선에 일정한 비율을 곱하여 상한선과 하한선을 만들기 때문에 밴드폭이 고정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중심선인 이동평균선은 볼린저밴드와 같이 20일선을 많이 사용하며, 변동률은 이동평균선의 기간과 비례하지만 보통 2~6%를 적용합니다.

다음으로 MAC(Moving Average Channel)는 인벨로프 지표에서 두 개의 이동평균선, 즉 고가 이동평균선과 저가 이동평균선을 만들어 두 개의 선 모두를 중심선으로 이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고가 이동평균선은 주가의 고점을 연결하여 만들고, 저가 이동평균선은 주가의 저점을 연결하여 만듭니다. 고가 이동평균선은 주가가 상승추세일 때 지지선 역할을 하고, 저가 이동평균선은 주가가 하락추세일 때 저항선 역할을 합니다.



예제 아래 그래프는 KOSPI200 선물의 2005년 10월 12일 오후 2시 현재 60분봉 차트입니다. 선물을 매수해야 할까요, 매도해야 할까요?



KOSPI200 선물 60분봉(2005. 9. 22~2005. 10. 11)

정답은 매도입니다. 중심선을 강력하게 하향 돌파하면서 좁았던 밴드폭이 넓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MACD 지표도 하향 전환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오후 2시 이후 그래프를 직접 확인해 보세요. 확연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요?



KOSPI200선물 60분봉 그래프(2005. 9. 27~2005. 10. 14)



케네디 대통령의 위트

미국의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닉슨과 케네디가 세계 최초로 TV 공개토론회를 가졌다. 닉슨은 국정 운영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케네디 후보가 너무 젊고 경륜이 부족하다는 점을 드러내기 위해 이렇게 말을 했다.

“위대한 미국을 이끌 지도자라면 최소한 나처럼 머리카락이 희끗희끗하게 보일 정도의 경륜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을 받아 케네디가 말했다.

“나는 미국을 이끌 지도자의 요건으로 털의 색깔은 그리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털이 어떤 색깔이나보다 털 아래에 있는 것의 기능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케네디의 순간적인 위트에 TV를 지켜보던 국민들은 크게 웃었다. 또한 그의 순간적인 위트가 여성 유권자의 지지표를 많이 얻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주가를 판단하고 매매시점을 찾기 위해 세상에는 다양한 기술적 지표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차트분석 기법은 컴퓨터로 치자면 하드웨어에 불과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100% 맞는 확률을 보이는 지표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술적 지표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래프를 보면서 반복해서 검증해 보는 과정에서 완전히 자기 것으로 소화할 때만이 기술적 지표가 생명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차트분석 기법을 공부한 사람들도 막상 매매를 할 때에는 배운 이론대로 실천이 되지 않는다고 흔히 말을 합니다. 그 원인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차트분석 기법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거나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해서입니다.



기타 보조지표 활용하기

지금까지 기본지표인 봉차트, 추세선, 이동평균선, 거래량과 대표적인 보조지표인 MACD, 스토크스틱, 일목균형표, 볼린저밴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그 밖의 보조지표 중 활용도가 높은 보조지표를 골라 소개하고 이용방법을 알아봅니다.

그래프를 클릭하면 주가와 거래량 그리고 이동평균선이 나오는데, 이를 다른 차트와 구분하기 위해서 기본차트라고 합니다. 이 기본차트 이외에 다양한 보조차트가 있는데 보조차트는 '차트' 창 의 지표/유형 목록에서 사용자가 직접 클릭해야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본지표인 봉차트, 추세선, 이동평균선, 거래량과 대표적인 보조지표인 MACD, 스토크스틱, 일목균형표, 볼린저밴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그밖의 보조지표 중 활용도가 높은 보조지표를 골라 이용방법을 알아봅니다.

★ 알아두세요

보조지표 모두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안다 하더라도 모든 지표를 활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기타 보조지표는 부담 없이 이해만 하고 넘어가세요.

1. 투자심리선

증권시세는 인간의 심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가가 최근 며칠 동안 상승만을 계속했다면 일반투자자들은 어느 정도의 조정을 예상하면서 조심스럽게 매도주문을 냅니다. 또한 주가가 연속 하락하였을 때는 반등을 예상하고 매수주문을 냅니다. 이러한 투자자들의 심리를 이용한 것이 투자심리선입니다. 최근 일정 기간(보통 10일 기준) 동안 주가가 상승한 날

의 백분율을 이용하여 주가가 과열인지 침체인지를 알아봄으로써 투자를 할 때 판단자료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KOSPI 일봉과 투자심리선(2005. 2~2005. 7)

투자심리도 계산방법

$$\text{투자심리도} = \frac{\text{최근 10일간 전일 대비 상승일수}}{10\text{일}} \times 100$$

예를 들어 10일 가운데 상승한 날이 6일이면 투자심리도는 60%입니다. 투자심리도가 75% 이상이면 매수세력이 매우 강한 경우로 과열권에 진입했다고 보고, 25% 이하면 시장이 약세여서 매수세력이 취약한 경우로 침체권에 진입했다고 봅니다.

투자심리선 활용방법

① 침체권 · 과열권에 접어드는 경우

투자심리선이 25% 이하인 경우 침체권이므로 → 매수 검토

투자심리선이 75% 이상인 경우 과열권이므로 → 매도 검토

② 반전 패턴을 보이는 경우

투자심리선이 25% 이하에서 상승 반전하는 경우 → 매수

투자심리선이 75% 이상에서 하락 반전하는 경우 → 매도

그러나 증시가 강세장일 때는 코스피지수의 투자심리선이 80~90%를 왕복하며 상승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고, 증시가 장기 침체장일 경우엔 투자심리선 25% 이하에서도 주가가 본격적으로 하락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투자심리선이 80% 이상이라고 매도하거나 20% 이하라고 매수할 것이 아니라 이격률과 MACD 등 다른 보조지표를 동시에 확인한 후 매매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선물 · 옵션과 같은 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투자자의 경우엔 투자심리선이 90%에 이르면 매도 관점으로 보아야 하며 최소한 매수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투자심리선 10% 이하에서는 신중히 매수를 검토하되 매도는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10일 이상 연속 상승하여 투자심리선이 100%가 되는 경우는 10년에 한두 번 나오기 어려울 정도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1988년 이후 코스피지수의 투자심리선이 100%를 넘은 경우는 1999년에 2회, 그리고 2009년 7월에 11일 연속하여 상승한 바 있고, 코스닥지수는 2005년 11월과 2009년 5월에 각각 21일과 14일 연속하여 상승한 기록이 있습니다.

투자심리선은 종합주가지수나 대형주에는 유용한 반면 예외가 많은 테마주 등 개별종목에는 활용도가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2. 이격률

이격률은 주가가 이동평균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측정하여 투자판단에 활용하는 지표입니다. 주가는 이동평균선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면 이동평균선으로 회귀하고, 이동평균선에 수렴하고 나면 다시 떨어지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가가 이동평균선으로부터 지나치게 떨어져 높게 형성 되면 매도시점으로 보고, 반대로 지나치게 많이 떨어지면 매수시점으로 보는 투자기법입니다. 보통 20일 이격률을 가장 많이 활용합니다.

이격률 계산방법

$$\text{이격률} = (\text{주가} \div \text{n일 이동평균지수}) \times 100$$

$$\text{20일 이격률} = (\text{주가} \div \text{20일 이동평균지수}) \times 100$$

이격률 활용방법

① 대세가 상승하는 강세국면일 경우

2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할 때	98% 이하 → 매수
	108% 이상 → 매도

6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할 때	95% 이하 → 매수
	115% 이상 → 매도

② 대세가 하락하는 약세국면일 경우

2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할 때	92% 이하 → 매수
	102% 이상 → 매도

6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할 때	88% 이하 → 매수
	108% 이상 → 매도

③ 횡보국면일 경우

2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할 때	95% 이하 → 매수
	105% 이상 → 매도

6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할 때	90% 이하 → 매수
	110% 이상 → 매도

예제 아래 그래프는 20일 이격률과 종합주가지수 일봉을 함께 볼 수 있는 차트입니다. 시장이 횡보국면이라고 생각될 때 매도시점과 매수시점을 찾아보세요.



KOSPI 일봉 그래프(2005. 1~2005. 6)

이격률은 시장이 강세장이나 약세장이나 횡보장이나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적용하여야 하며, 코스피와 대형주를 예측할 때 주로 활용합니다. 개별종목 특히 중소형주나 테마주의 경우에는 20일 이격률이 120% 이상 넘어가는 경우가 흔히 있고, 80%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대세가 하락하기거나 기업에 중대한 문제점이 없는 한 20일 이격률이 80% 이하로 하락할 경우에 매수하면 수익을 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단, 개별기업의 경우 이격률만으로 투자시기를 판단해서는 안 되고 투자심리선 등 다른 보조지표를 함께 이용하여야 합니다.



KOSPI 일봉 그래프(2005. 1~2005. 6)

3. 삼선전환도

삼선전환도(Three Line Break)는 주가의 상승과 하락의 전환 시점을 파악하는 데 주로 쓰이는 추세지표입니다.

주가가 이전의 하락선 3개를 상향 돌파하는 경우에 상승선이 그려지는데, 이를 상승 전환이라 하고 매수 신호로 이용합니다. 반대로 주가가 이전의 상승선 3개를 하향 돌파하는 경우엔 하락선이 그려지는데, 이를 하락 전환이라 하고 매도 신호로 이용합니다. 요컨대 주가가 소폭으로 등락하는 것은 대세 전환으로 보지 않고 큰 폭으로 움직일 때만 대세의 변화가 있다고 보는 추세지표인 것입니다.

삼선전환도는 시간을 무시하고 새로운 고점이나 저점을 형성할 때만 상승선과 하락선을 그리므로 주가의 상승 전환이나 하락 전환을 빠르고 쉽게 포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선전환도 활용방법

상승 전환 → 매수 후 하락 전환이 나타날 때까지 보유

하락 전환 → 매도 후 상승 전환이 나타날 때까지 매수 유보

삼선전환도의 한계와 보완방법

삼선전환도의 한계는 크게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일정한 추세 없이 주가가 등락을 반복할 경우 이용하기가 나쁘다.

둘째, 주가가 상·하한가를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급변할 때 적합하지 않다.

★ **알아두세요**

10% 플랜이란?

10% 플랜(Plan)이란 삼선전환도에서 상승 전환이나 하락 전환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주가가 10% 오르면 매수하고, 10% 떨어지면 매도하는 방법으로 삼선전환도의 단점을 보완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반드시 10%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7% 또는 5% 등으로 주가의 속성에 따라 투자자가 결정하여 이용하면 됩니다.

셋째, 주가 상승의 최종단계에서 상승선이 크게 형성될 때는 하락 전환이 쉽게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삼선전환도를 보고 투자판단을 할 때는 10% 플랜으로 보완하고, 동시에 이동평균선과 같은 주지표와 다른 보조지표를 활용하여야 투자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아래 그래프는 기아차(000270)의 삼선전환도입니다.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이 한눈에 보이시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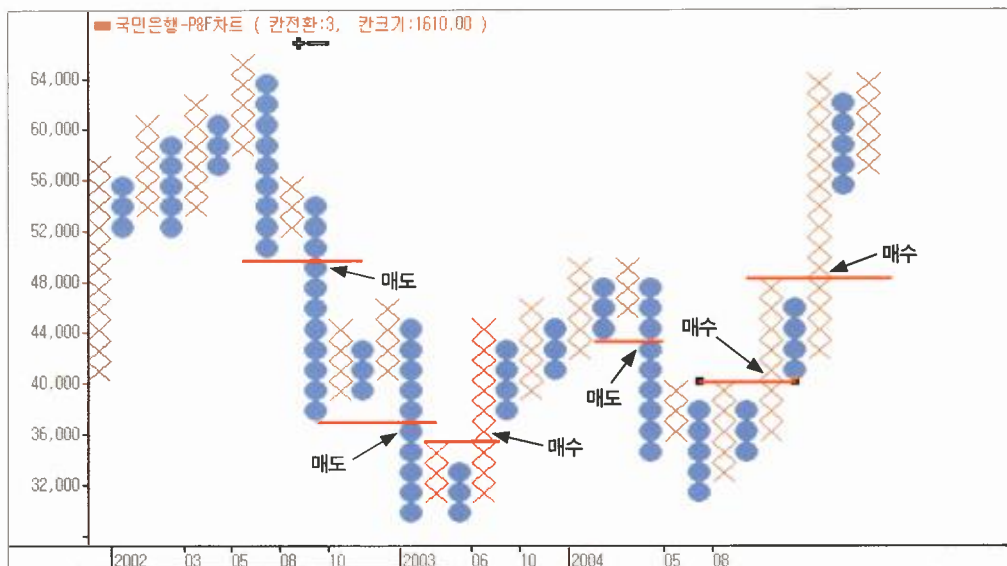


기아차 주봉 삼선전환도(2001~2005)

상승 전환은 매수 신호, 하락 전환은 매도 신호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실전 투자에 활용하세요.

4. P&F차트

P&F(Point & Figure)는 사소한 주가 변화와 시간 개념을 차트에
서 제외시킴으로써 주가의 주된 추세를 쉽게 파악하고자 하는
투자기법입니다.



KB금융 일봉 P&F차트(2002. 1~2004. 8)

P&F차트의 특징

- ① 시간 개념과 거래량을 무시하고 주가만으로 그린 차트로 주
가의 주된 추세를 파악할 수 있다.
- ② 패턴으로 매매신호를 알려준다.
- ③ 시간 개념인 X축이 생략되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 장기간의
기록이 가능하다.
- ④ 주가가 어디까지 상승하고 하락할지 계산할 수 있다. 즉 목표
치 계산을 가능하게 한다.

P&F차트 작성방법

- ① 주가가 상승할 때는 X표, 하락할 때는 O표를 그린다. 주가가 계속 상승할 때는 계속 X표, 주가가 계속 하락할 때는 계속 O표를 그린다.
- ② 주가가 상승에서 하락으로 반전할 때는 X표에서 O표로 전환하는데, 줄을 바꾸어 한 칸 아래에 표시한다. 마찬가지로 하락에서 상승으로 반전할 때는 O표에서 X표로 전환하는데, 이때에도 줄을 바꾸어 한 칸 위에 표시한다.
- ③ 한 칸(X표 또는 O표)의 가격폭을 결정한다. 가격폭은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데 고가주는 1칸의 가격폭을 크게 하고, 저가주는 작게 한다(투자자가 직접 결정하지 않아도 컴퓨터가 알아서 결정해 줍니다).
- ④ 주가가 반전되어 행을 바꿀 때는 3칸의 범위를 벗어날 경우에만 그린다(일반적으로 3칸이 바뀌어야 표시하는 3점도를 이용하고 있으나, 2점도 또는 1점도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 알아두세요

3점도란?

X표 또는 O표 1칸을 1,000원이라고 정했다면 1점도는 1,000원, 2점도는 2,000원, 3점도는 3,000원에 해당합니다. 3점도를 이용한다면, 1칸 $\times$ 1,000원 $\times$ 3점 = 3,000원이란 주가의 변화가 있을 경우에만 행을 바꾸어 그린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3점도를 기본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P&F를 이용한 매매방법 2가지

P&F를 이용하면 주가의 상승목표치를 계산해 볼 수 있고, 주가의 중장기 추세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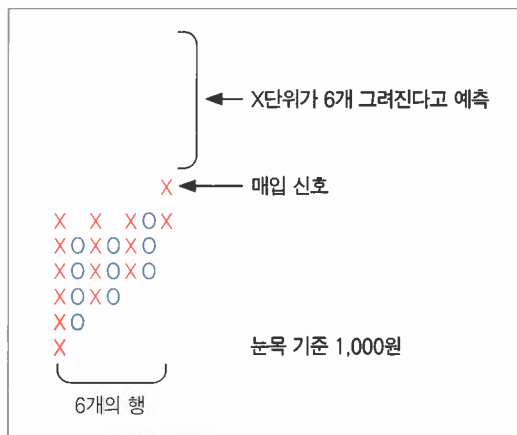
방법 1 | 목표치 계산으로 매매하는 방법

P&F를 이용할 경우 주가가 어디까지 상승하고 하락할지 계산해 볼 수 있다고 했지요? 주식을 매수할 때 어느 정도 상승할 것인지 예상할 수 있다면 투자수익률을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표치 계산법에는 수평계산법과 수직계산법 두 가

지가 있는데, 수직계산법보다 수평계산법을 더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① 수평계산법으로 목표주가 계산하기

수평계산법은 주가의 횡보기간이 길면 길수록 주가가 움직일 때 등락폭이 크다는 데 이론적 근거를 두고 수평인 행을 계산하여 행의 수만큼 주가가 변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행의 수와 1칸의 눈목을 알면 매도가격 또는 매수가격을 미리 정해 놓을 수 있습니다.



매입 신호가 나타나기 전까지 6행이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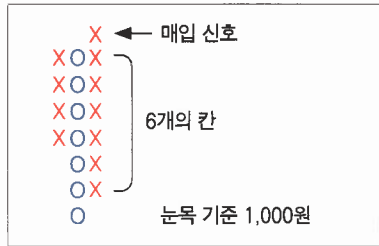
$6(\text{행}) \times 1,000(\text{눈목 단위}) \times 3(\text{점도}) = 18,000\text{원}$.

즉 상승 목표치는 18,000원이므로 18,000원 상승하면 매도합니다.

② 수직계산법으로 목표주가 계산하기

대세 전환 후 최초의 상승폭이 앞으로의 주가 상승 목표치를 암시한다는 데 근거를 두고 있으며, 수평계산법과 달리 수직의 칸

수를 세어서 목표치를 계산합니다.



상승으로 전환된 후 매입 신호가 나타나기까지 수직으로 6개의 칸이 있으므로

$$6(\text{칸}) \times 1,000\text{원}(\text{눈목 단위}) \times 3(\text{점도}) = 18,000\text{원}.$$

역시 18,000원 상승하면 매도합니다.

방법 2 | 패턴 분석으로 매매하는 방법

추세선을 이용한 매매방법과 마찬가지로 P&F차트에서도 지지선과 저항선을 찾아 저항선을 상향 돌파하면 매수 신호로 보고, 지지선을 하향 돌파하면 매도 신호로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 알아두세요

P&F의 추세선 분석방법

P&F의 추세선 분석방법

은 기본차트의 추세 분석

방법과 동일합니다. 패턴

분석에서도 지지선과 저

항선을 이용하는 방법 이

외에 P&F의 삼중바닥형,

쌍바닥형, H&S형, 쌍봉

형 등의 모양에 따라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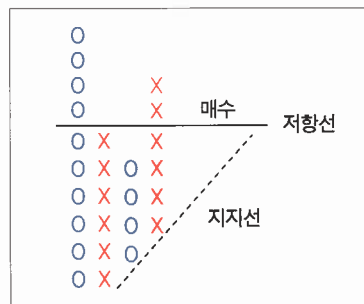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06장 패턴 분석을 참고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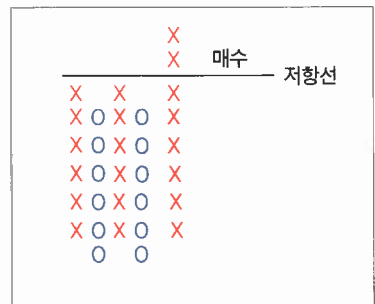
세요.

① 매수 신호 패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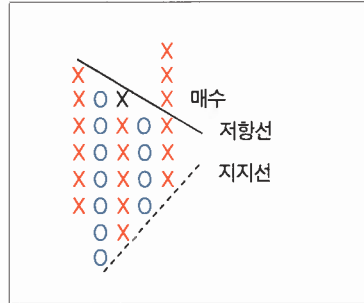
1) 강세 신호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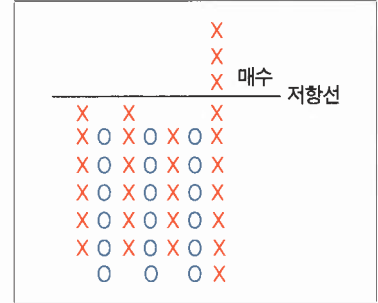
2) 삼중천정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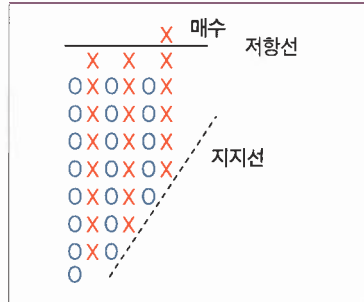
3) 상승삼각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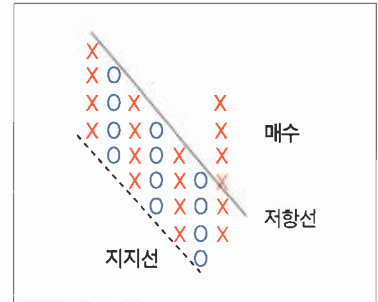
4) 변형된 삼중천정형



5) 강세 삼중천정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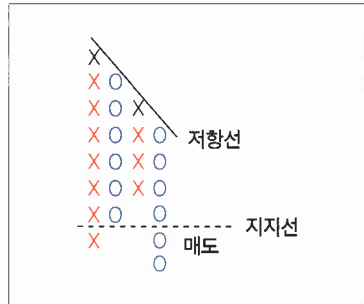
6) 상승 반전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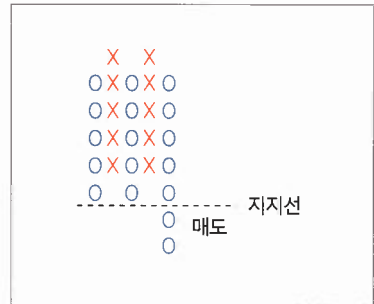
위의 패턴들은 저항선을 뚫은 X에서 매입 신호가 나타났으므로 매수하여야 합니다. 특히 삼중천정형은 장기 저항선이던 매물 벽을 돌파하는 모습으로, 매수하면 성공률이 높은 패턴입니다.

② 매도 신호 패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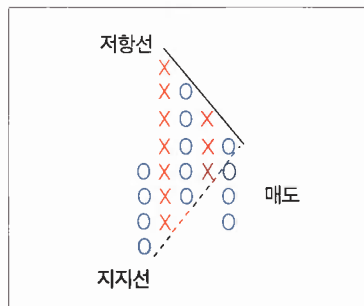
1) 약세 신호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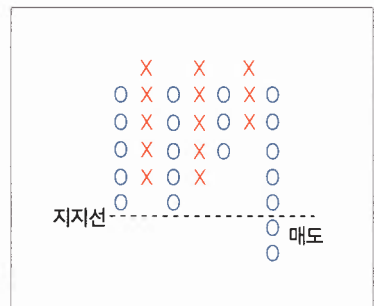
2) 삼중바닥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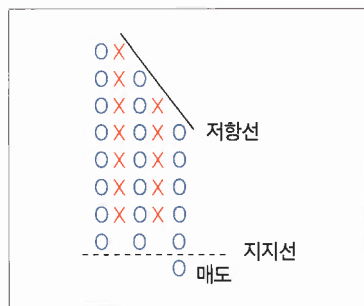
3) 하락삼각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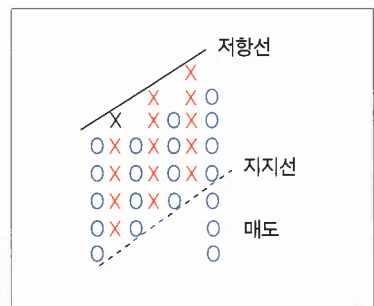
4) 변형된 삼중바닥형



5) 약세 삼중바닥형



6) 하락 반전형



위의 패턴들은 지지선을 아래로 하향 돌파한 O에서 매도 신호가 나타났으므로 매도하여야 합니다. 특히 삼중바닥형에서 지지선을 하락할 때는 하락폭이 클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매도를 검토해야 합니다.

P&F차트의 한계와 보완방법

P&F차트의 한계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P&F 분석방법은 주가 변동이 이루어진 이후에 나타나는 후행성 지표이므로 매수·매도 신호가 늦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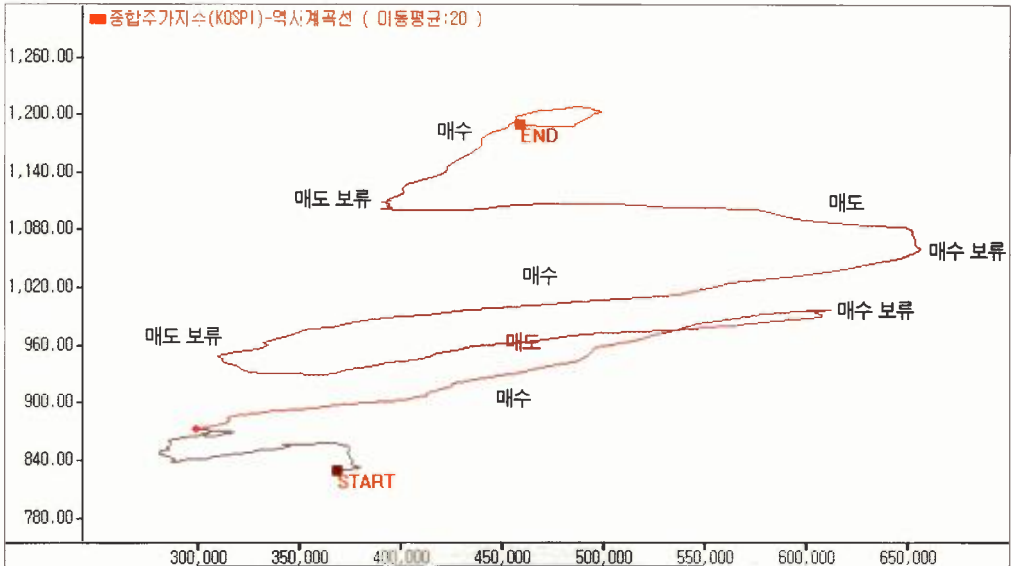
둘째, 주가가 크게 변동될 경우, 예를 들면 1만원 하던 주가가 3만원이 되었을 때 한 칸의 가격폭을 수정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 차트의 연속성이 없어진다.

이와 같은 한계를 보완하는 방법은 주가가 목표치에 도달하면 시세 전환의 신호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매매를 하는 것입니다. 목표치를 계산해 볼 수 있다는 것이 P&F차트의 큰 장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P&F차트만으로 매매를 결정하지 말고 주요 지표와 다른 보조지표를 함께 활용해야 합니다.

5. 역시계곡선(주가-거래량 상관곡선)

주가와 거래량은 상관관계가 매우 높습니다. 주가가 상승할 때는 거래량이 많아지고, 주가가 하락할 때는 거래량이 감소합니다. 또한 거래량은 주가에 선행하는 경향이 있어 주가가 상승하기 전에 거래량이 먼저 증가하고, 반대로 주가가 하락하기 전에 거래량이 먼저 감소합니다. 이와 같은 원리를 이용하여 주가 이

동평균선과 거래량 이동평균선의 교차점을 선으로 연결한 것이 주가-거래량 상관곡선이며, 시계 반대방향으로 회전한다고 해서 역시계곡선이라고 부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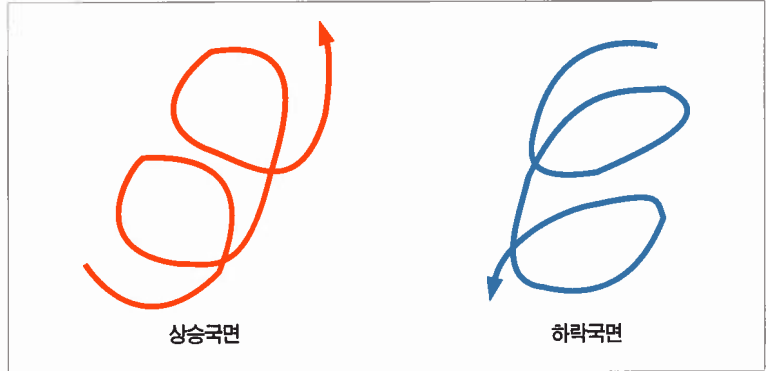


KOSPI 일봉 역시계곡선(2003. 1~2005. 11)

역시계곡선 작성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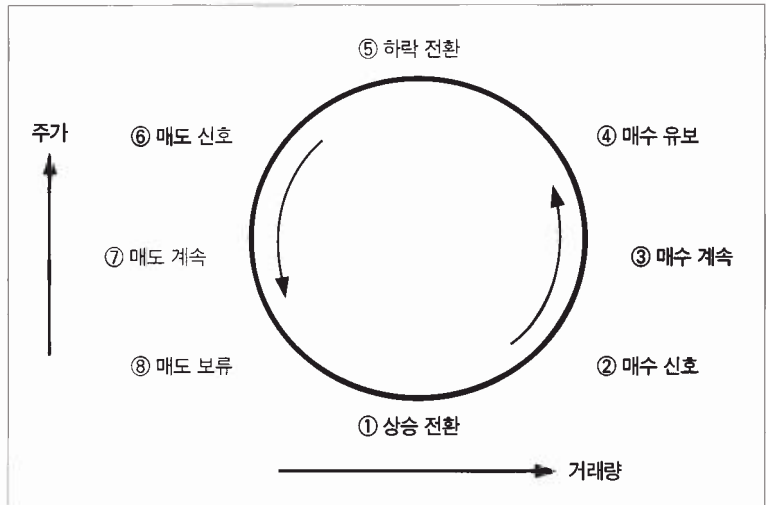
- ① 주가 이동평균선과 거래량 이동평균선을 계산한다. 이때 이동평균선은 통상 20일선을 이용한다(이동평균선 계산방식으로 하되 계산도 그림도 컴퓨터가 다 알아서 해줍니다).
- ② Y축(종축)에 주가를 표시하고, X축(횡축)에 거래량을 표시한다.
- ③ 종축과 횡축의 교차점을 연결한다.

역시계곡선의 국면별 유형



역시계곡선의 상승 모양과 하락 모양

역시계곡선을 이용한 매매방법



- ① 상승 전환 : 주가는 횡보하고 있지만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주가 상승이 예상됩니다.
- ② 매수 신호 : 거래량이 증가하고 주가도 오르므로 매수합니다.

- ③ 매수 계속 : 거래량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지만 주가가 상승하고 있으므로 매수합니다.
- ④ 매수 유보 : 주가와 거래량 모두 탄력이 둔화되고 있으므로 매수는 보류합니다.
- ⑤ 하락 전환 : 주가는 횡보하고 있지만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매도합니다.
- ⑥ 매도 신호 : 거래량 감소와 더불어 주가도 하락하고 있으므로 적극 매도합니다.
- ⑦ 매도 계속 : 거래량은 변화가 없는데 주가만 하락하는 경우로 매도하여야 합니다.
- ⑧ 매도 보류 : 주가 하락이 둔화되는 가운데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매도를 보류합니다.

역시계곡선의 한계와 보완방법

역시계곡선은 주가와 거래량 모두 이동평균선을 이용해 그려지기 때문에 매매시점 파악이 너무 늦습니다. 또한 실제 그래프를 보면 그림이 명확하지 못한 단점도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에 차트분석 지표로는 활용도가 다소 떨어집니다. 따라서 역시계곡선만으로 투자판단을 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으므로 다른 보조지표와 함께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알아두세요

CCI 지표는 원래 도널드 램버트(Donard R. Lambert)가 상품선물시장에서 상품가격의 계절성이나 주기성을 알아보기 위해 만든 지표였으나 표준편차를 이용하면서 순환진동하는 기술적 지표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6. CCI

CCI(Commodity Channel Index)는 주가와 주가를 이동평균한 값의 편차를 내어 주가가 일정 기간의 평균값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알아보는 변동성 지표입니다. 이동평균선과의 괴리

도를 나타내는 이격도 개념과 동일하게 출발하되 과매수 구간 (+100)과 과매도(-100) 구간을 순환하여 움직이도록 만들어놓아 추세의 방향과 강도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지표입니다.

CCI 계산방법

$$I = (M - m) \div (0.015 \times d)$$

$$M = (\text{고가} + \text{저가} + \text{종가}) \div 3$$

※ 일봉일 경우 당일 고가, 저가, 종가의 평균값으로 계산

$$m = M \text{의 } N \text{기간 동안의 단순 이동평균}$$

$$d = (M - m) \text{의 절대값의 } N \text{기간 단순 이동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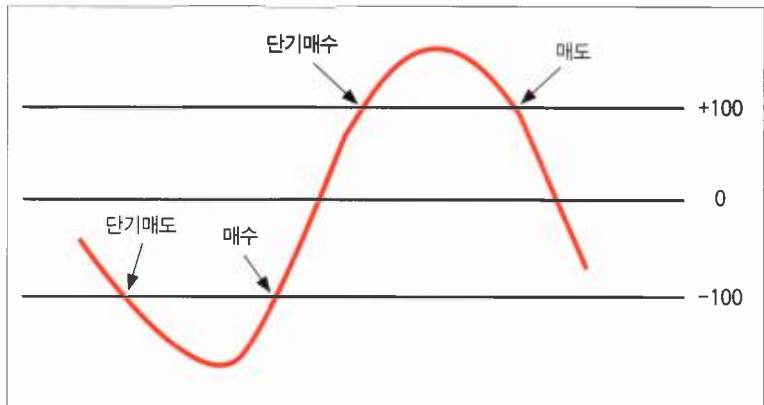
- ① 기간을 나타내는 N은 14일이나 20일을 많이 사용합니다(사용자에 따라 다른 기간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30분봉에서 20일 이하의 봉차트는 파생상품과 같이 단기매매를 할 때 이용하고, 20일 이상 봉차트는 중장기 매매를 할 때 이용합니다.
- ② 상수 0.015를 d에 곱해 주는 이유는 CCI의 움직임이 +100에서 -100 사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상수 0.015는 진동주기를 계산하는 값입니다.

CCI 지표 해석

- ① CCI는 주가와 주가를 이동평균한 값의 차이를 가격의 평균편차로 조정한 것입니다.
- ② CCI값이 0이라는 의미는 현재 주가가 이동평균선에 수렴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 ③ CCI값이 +이면 상승세이고, -이면 하락세입니다.

- ④ CCI값이 +100 이상이면 과매수 구간이고, -100 이하면 과매도 구간으로 봅니다.
- ⑤ CCI값이 클수록 추세의 강도가 강하고, 작을수록 추세의 강도가 약합니다.

CCI 지표를 이용한 매매방법



- ① 중장기적 관점에서 0을 상향 돌파하면 매수하고, 하향 돌파하면 매도합니다.
- ② 단기적 관점에서 과매수 구간인 +100을 상향 돌파하면 매수하고, +100을 하향 돌파하면 매도합니다. 마찬가지로 과매도 구간에서 -100을 하향 돌파하면 매도하고, -100을 상향 돌파하면 매수합니다. +100 이상에서는 상승탄력이 크고, -100 이하에서는 하락탄력이 크므로 단기매매 구간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특히 선물 매매를 할 경우에 이 구간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 ③ 다이버전스가 발생하면 추세 전환을 예상합니다.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생한 경우 → 주가가 하락하고 있지만 CC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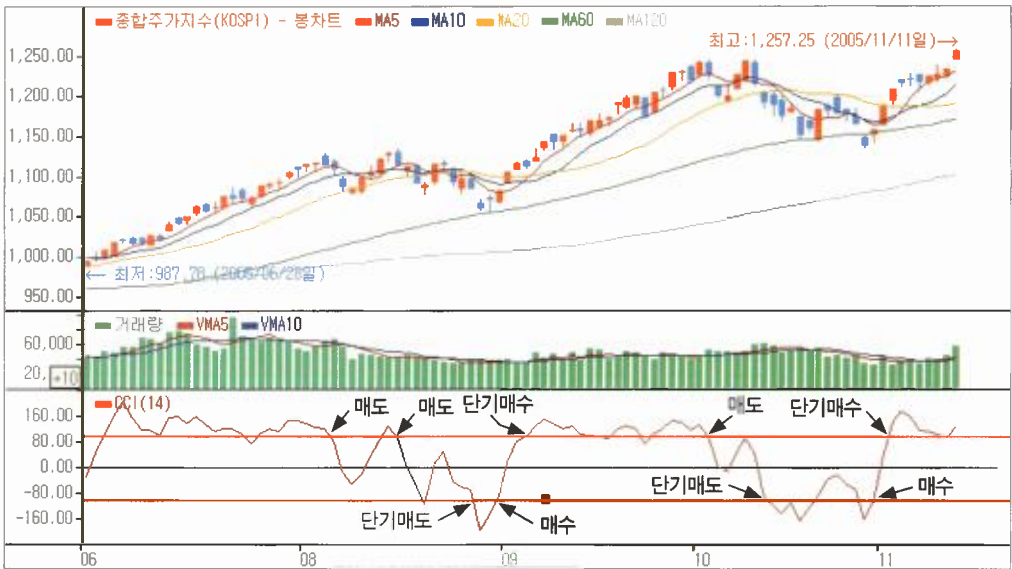
★ 알아두세요

좀더 구체적인 다이버전스 이용방법은 MACD와 스토크스틱을 참고하세요.

지표는 상승하는 경우엔 매수시점을 찾습니다.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생한 경우 → 주가가 상승하고 있지만 CCI 지표는 하락하는 경우엔 매도시점을 찾습니다.

아래 그래프는 종합주가지수 일봉 차트입니다. CCI 지표를 이용한 매매방법을 생각하며 매수·매도 시점을 찾아보세요.



KOSPI 일봉과 CCI(2005. 6~2005. 11)

CCI 지표의 한계와 보완방법

CCI 지표의 과매수·과매도 구간을 이용하면 시세의 강도를 알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선물 매매를 할 때 많이 활용됩니다. 그러나 변동이 심하여 중장기 추세 매매를 할 때는 혼란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CCI 지표도 이동평균선과 MACD, 스토캐스틱 등의 보조지표와 함께 이용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RSI에서 말하는 강도는 웰레스 윌더(J. Welles Wilder)가 개발한 지표로, 흔히 말하는 시장상대강도(Comparative Relative Strength)와 그 의미가 다릅니다. 시장상대강도는 개별종목이 종합주가지수에 비해 상승탄력과 하락탄력을 얼마나 더 갖느냐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시장상대강도 = (개별주가 상승률 ÷ 종합주가지수 상승률) × 100

7. RSI

RSI(Relative Strength Index)는 추세가 가지고 있는 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세의 강도를 백분율로 나타내어 추세가 언제 전환될 것인지를 예측하는 투자기법입니다. RSI가 0이라면 주가가 14일간 상승 없이 하락만 한 경우이고, 100이라면 주가가 하락 없이 14일간 오르기만 하였다는 뜻입니다. RSI는 0에서 100 사이를 순환하며 움직이도록 만들어진 진동지표라는 점에서 스톡캐스틱과 유사합니다.

RSI 계산방법

$$RSI = 100 - 100(1 + RS)$$

$$RS = (N일간의 상승폭 평균 / N일간의 하락폭 평균)$$

- ① 지난 N일간의 종가를 구한다. 이 중에서 전날의 종가보다 높은 것을 찾아 그 순증가분의 누적 합계를 구한다. 이 합계를 N으로 나누어 증가 상승분의 평균을 구한다.
- ② N일간 중 전일 종가보다 낮은 것을 찾아 그 순증가분의 누적 합계를 구한다. 이것을 N일로 나누어 증가 하락분의 평균을 구한다.
- ③ 증가 상승분 평균을 증가 하락분 평균으로 나누어 RS를 구한다. 이것을 위의 공식에 대입하여 RSI를 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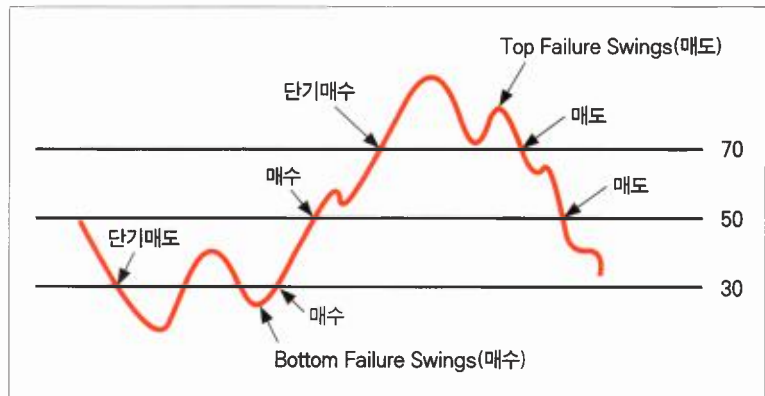
지표에서 이용하는 기간은 9일, 14일, 25일, 50일 등 사용 목적에 따라 달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로 사용하는 기간은

14일입니다. RSI 개발자인 웰레스 윌더(J. Welles Wilder)가 14일 이용을 권유하기 때문에 증권사 HTS에서도 14일을 기본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RSI 지표 해석

RSI값이 100에 접근하면 더 이상의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고, 0에 접근하면 더 이상의 하락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70 이상이면 과매수 구간이라 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 구간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매수 구간에서는 매도 준비를, 과매도 구간에서는 매수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꺼지기 직전의 마지막 불꽃이 가장 밝듯이 상승탄력은 70 이상에서 가장 강하고, 하락탄력은 30 이하에서 가장 강합니다.

RSI를 이용한 매매방법



① 기준선 활용방법

RSI값 50을 기준선으로 하고

50선을 상향 돌파하면 → 상승추세로 보고 매수 관점

50선을 하향 돌파하면 → 하락추세로 보고 매도 관점

② 과매도 · 과매수 구간 활용방법

70 이상을 과매수 구간으로 보되

70선을 상향 돌파하면 → 단기매수

70선을 하향 돌파하면 → 매도

30 이하를 과매도 구간으로 보되

30선을 하향 돌파하면 → 단기매도

30선을 상향 돌파하면 → 매수

③ 다이버전스 활용방법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생한 경우 → 주가가 하락하고 있지만 RSI는 상승하고 있으면 상승에너지가 점차 강해진다고 보므로 매수합니다. 과매도 구간에서 유용합니다.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생한 경우 → 주가가 상승하고 있지만 RSI는 하락하고 있으면 상승에너지가 약해지고 있다고 보므로 매도합니다. 과매수 구간에서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④ 신호선 활용방법

RSI선을 이동평균하여 신호선을 만들고

RSI선이 신호선을 상향 돌파하면 → 매수

RSI선이 신호선을 하향 돌파하면 → 매도

⑤ 기타

패턴 분석이나 지지선과 저항선을 이용하는 방법 등은 스톡케
스틱과 동일합니다.

잠깐만요

Failure Swings를 이용한 매매방법



Top Failure Swings

과매수 구간인 70 이상에서 고점이 낮아질 때 → 매도시점

Bottom Failure Swings

과매도 구간인 30 이하에서 저점이 높아질 때 → 매수시점

앞에서 주가 파동 이론을 설명할 때 천정권에 다다른 주가의 고점이 낮아질 때 매도시점이고, 저점이 높아질 때 매수시점이라 했습니다. 똑같은 원리가 RSI에서도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른쪽의 KOSPI200 선물 60분봉 그래프에서 확인해 보세요.

아래 그래프는 KOSPI200 선물 60분봉입니다. RSI를 이용하여 매매시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배운 매매방법을 복습한다 생각하고 주의해서 살펴보세요.



KOSPI200 선물 60분봉과 RSI(2005. 10. 17~2005. 11. 2)

8. DMI와 ADX

DMI(Directional Movement Index)는 시장이 추세를 가지고 있는지, 또 있다면 어떤 추세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는 지표입니다. ADX(Average Directional Movement Index)는 DMI를 이동평균한 것으로 추세가 유효한 추세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추세의 강도를 나타냅니다.

DMI와 ADX는 함께 이용함으로써 추세의 방향과 강도를 동시

에 파악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지표의 이론적 근거는 시장이 상승추세일 경우에는 당일 고가가 전일 고가보다 높고, 시장이 하락추세일 경우에는 당일 저가가 전일 저가보다 낮다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DMI와 ADX 계산방법

+DM = (당일 고가 - 전일 고가)의 절대값

-DM = (당일 저가 - 전일 저가)의 절대값

CL = (당일 종가 - 전일 종가)의 절대값

TR(True Range) = MAX(+DM, -DM, CL)

진정한 변동폭 = (+DM, -DM, CL) 중 최대값

+DMN = +DM의 N일(14일) 이동평균

-DMN = -DM의 N일(14일) 이동평균

TRN = TR의 N일(14일) 이동평균

■ DMI의 구성

+DI = +DMN ÷ TRN

-DI = -DMN ÷ TRN

■ ADX의 구성

ADX = DX의 N일 이동평균

ADXR = ADX의 N일 이동평균

$$DX = \frac{[(+DI) - (-DI)] \text{의 절대값}}{(+DI) + (-DI)} \times 100$$

* N은 주가의 주기로 보통 14일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ADXR은 9일 이동평균을 사용합니다.

DMI와 ADX 지표 해석

① +DI는 상승 강도를 나타내므로 -DI보다 크면 클수록 상승탄

력이 크고, -DI는 하락 강도를 나타내므로 +DI보다 크면 클수록 하락탄력이 크다고 봅니다.

② TR(True Range)의 값은 절대값 기준이므로 주가의 방향과 관계 없이 주가 움직임이 크면 커지고, 주가가 횡보하면 작아집니다.

③ DX의 의미를 알아봅니다.

$$DX = (DI의 차 \div DI의 합) \times 100$$

$$DI의 차 = |(+DI) - (-DI)|$$

$$DI의 합 = (+DI) + (-DI)$$

공식만 봐서는 그 의미가 다가오지 않지요?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14일 중에 +DI가 40%이고 -DI가 20%였다면, 14일 동안 상승추세가 40%였고, 하락추세는 20%였으며, 나머지 40%는 횡보추세였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DX를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DI의 차 = |40 - 20| = 20$$

$$DI의 합 = 40 + 20 = 60$$

$$DX = (20 \div 60) \times 100 = 33.3$$

반대로 14일 중에 +DI가 20%이고 -DI가 60%인 하락추세에서 DX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DI의 차 = |20 - 60| = 40$$

$$DI의 합 = 20 + 60 = 80$$

$$DX = (40 \div 80) \times 100 = 50$$

이상의 계산을 참고해 보면 DX는 +DI든 -DI든 그 값이 커지면 올라가고 작아지면 내려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DX는 추세의 강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ADX는 이러한 DX를 이동평균한 것이고요. 따라서 ADX가 상승하면 어느 방향이든 추세가 결정된다고 예상합니다.

DMI와 ADX를 이용한 매매방법 2가지

방법 1 | +DI와 -DI의 교차점을 이용해 매매하는 방법

+DI가 -DI를 상향 돌파할 때 → 매수
-DI가 +DI를 상향 돌파할 때 → 매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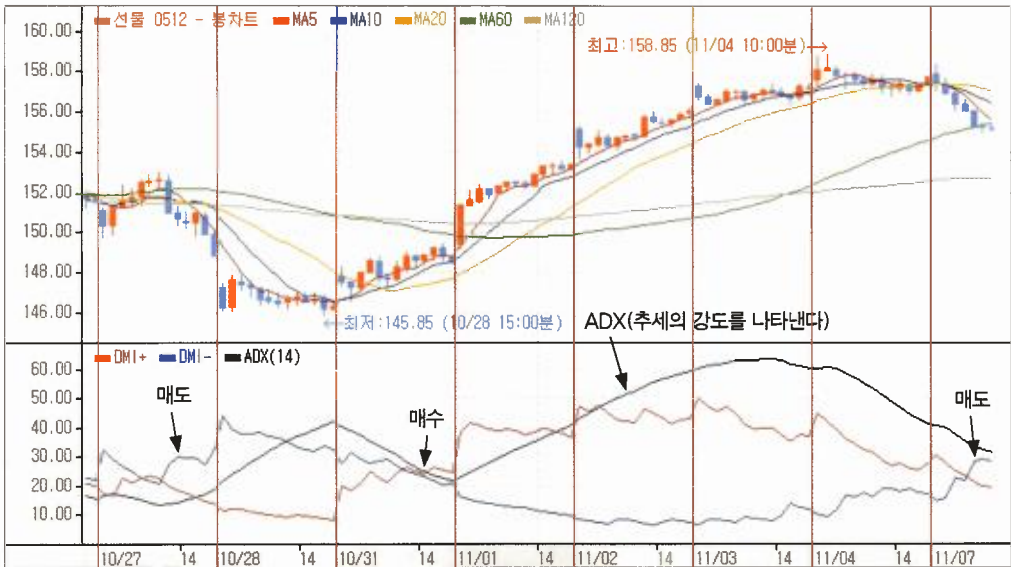
그러나 이러한 기준을 적용할 때 속임수 지표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DI가 -DI를 상향 돌파하는 날의 고점 주가를 돌파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고점 돌파를 확인하고 매수합니다. 매도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원칙이 적용됩니다(이를 극점 돌파 규칙 Extreme Point Rule이라고 합니다).

방법 2 | +DI, -DI와 ADX를 병행 이용해 매매하는 방법

① +DI와 -DI가 교차할 때 ADX로 추세를 확인합니다.

+DI가 -DI를 상향 돌파하여 상승추세가 예상되더라도 상승 강도를 나타내는 ADX가 20 이상으로 동행하여 상승해야만 진정한 상승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ADX가 상승하지 못한다면 매수를 보류해야 합니다. 하락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② ADX가 +DI, -DI보다 낮은 값이거나 ADX가 20 이하이면 주가 탄력이 떨어진다고 보므로 기존의 포지션을 정리해 둡니다.
- ③ +DI와 -DI의 차가 최대치를 형성한 이후 그 차이가 좁혀지면 ADX가 주가와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면 추세가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이버전스 발생).



KOSPI200 선물 30분봉과 DMI와 ADX(2005. 10. 27~2005. 11. 7)

DMI와 ADX 지표의 한계와 보완방법

DMI와 ADX는 추세의 방향과 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데이트레이딩이나 선물 매매시 흔히 활용하는 지표입니다. 그러나 이 지표는 보기에 다소 혼란스럽고 명쾌하지 못한 구간이 많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DMI와 ADX 지표를 이용할 때에도 이동평균선, MACD, 스톡캐스틱과 같은 다른 보조지표와 함께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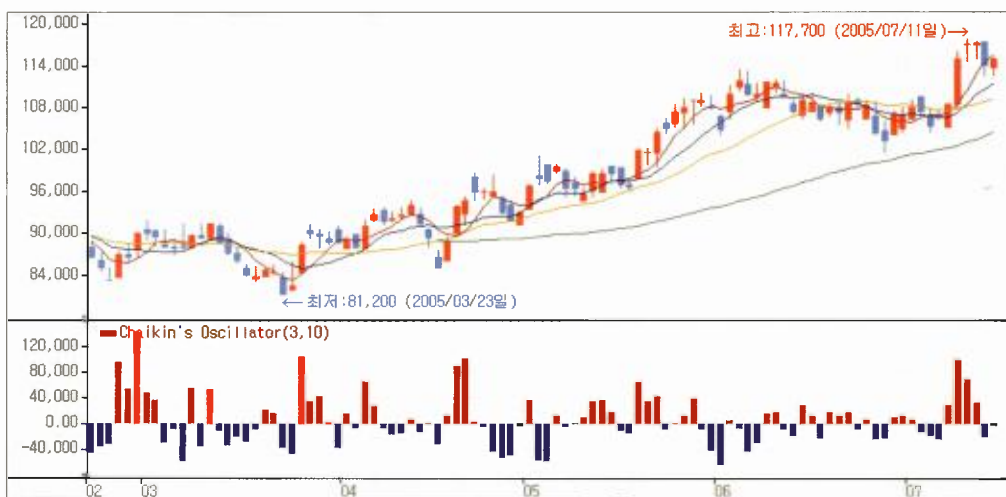
★

알아두세요

CO는 Chaikin's Oscillator의 머리글자를 딴 것입니다. Chaikin은 CO 지표의 개발자인 마크 채킨(Marc Chaikin)의 이름에서 딴 것이고 Oscillator는 진동지표라는 뜻입니다.

9. CO(Chaikin's Oscillator)

주가가 바닥권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거래량이 줄어들다가 차츰 매집세력에 의해 거래가 다시 증가하고, 반대로 주가가 천정권에 있을 때는 초기에 매물이 나오지 않아 거래량이 일시 줄어들다가 나중에는 매도세력에 의해 거래량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와 같이 바닥에서 일어나는 매집(Accumulation)과 천정권에서 일어나는 분산(Distribution)을 계산하여 진동지표로 만든 것이 CO(Chaikin's Oscillator)입니다.



NHN 일봉과 CO(2005. 2~2005. 7)

CO 계산방법

CO = 단기 N일 A/D지수 이동평균 - 장기 N일 A/D지수 이동평균

$$A/D = \frac{(\text{종가} - \text{저가}) - (\text{고가} - \text{종가})}{\text{고가} - \text{저가}} \times \text{거래량} + \text{전일 A/D}$$

* N은 기간으로 단기는 3일, 장기는 10일을 이용합니다.

* A는 Accumulation(매집)의 약자, D는 Distribution(분산)의 약자입니다.

CO 지표 해석

- ① 종가가 그날 가격의 중간값($(\text{고가} + \text{저가}) \div 2$) 이상에서 형성되면 매집이고, 반대로 그 이하에서 형성되면 분산으로 봅니다. 종가가 당일 고가에 가까우면 매집 정도가 강하고, 저가에 가까우면 분산 정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② 주가가 상승하면 CO값은 증가하고, 주가가 하락하면 CO값은 감소합니다.

CO를 이용한 매매방법 3가지

① 기준선 활용방법

CO값이 기준선(0)을 상향 돌파하면 → 매수

CO값이 기준선(0)을 하향 돌파하면 → 매도

- ② 가격과 CO의 역배열, 즉 다이버전스가 발생하면 추세 반전이 예상됩니다.
- ③ CO가 기준선인 0선 근처에 있을 때는 기존에 거래된 거래량 수준을 유지해야 기존 추세가 유지됩니다.

10. 그물차트

기간값이 서로 다른 여러 개의 이동평균선을 한 화면에 표시하여 이동평균선들의 간격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을 이용하여 추세를 판단하는 지표입니다. 생긴 모양이 그물 같다고 해서 그물차트 또는 그물망차트라고 부릅니다. 이동평균선 분석을 좀 더 확장한 지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물차트 계산방법

기준선 : n 일 이동평균선

첫번째 그물선 : $(n일 + a)일$ 이동평균선

두번째 그물선 : $(n일 + 2a)일$ 이동평균선

세번째 그물선 : $(n일 + 3a)일$ 이동평균선

⋮

t 번째 그물선 : $(n일 + t \times a)일$ 이동평균선

★ 알아두세요

증권회사 HTS 화면을 보면 그물의 개수는 사용자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5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하고 간격을 5일, 개수를 12개로 한다면 '5일+10일+15일+20일+25일+30일+35일+40일+45일+50일+55일+60일' 이동평균선이 만들어집니다. 그물의 수는 4개부터 30개까지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물차트를 이용한 매매방법

① 그물차트의 간격이 넓어졌다 좁아지는 경우

바닥권에서 그물차트의 간격이 좁아지면 → 매수 신호

천정권에서 그물차트의 간격이 좁아지면 → 매도 신호

② 그물차트가 밀집되었다가 간격이 확대되는 경우

위로 넓어지면 → 매수 신호

아래로 넓어지면 → 매도 신호



SK하이닉스 그물차트(2004. 11~2005. 6). 사용한 그물의 수 12개

그물차트의 한계와 보완방법

그물차트는 장단기 이동평균선 여러 개를 동시에 나타낸 것이므로 중장기 추세를 확인하거나 추세의 변화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주가의 변곡점 파악에는 다소 느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곡점 파악은 다른 보조지표를 활용하고 그물차트는 추세를 확인할 때 참고로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벗 라인(Pivot Line)은 선물 매매나 당일 매매(Day-trading)와 같이 단기거래를 빈번하게 할 때 이용하는 지표입니다. 전일의 선물이나 주가 범위를 이용해 지지와 저항으로 삼고, 다음날의 주가 변동 범위를 추측하는 방법입니다.

피벗 계산방법

$$2차\ 저항 = 피벗\ 포인트 + 고가 - 저가$$

$$1차\ 저항 = (피벗\ 포인트 \times 2) - 저가$$

$$피벗\ 포인트 = (고가 + 저가 + 종가) \div 3$$

$$1차\ 지지 = (피벗\ 포인트 \times 2) - 고가$$

$$2차\ 지지 = 피벗\ 포인트 - 고가 + 저가$$

피벗을 이용한 매매방법

피벗 포인트는 하루의 평균적인 가격흐름을 나타내는 것으로 단기추세의 중심 가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주가가 피벗 포인트 이상에서 움직인다면 시장이 강세국면이라 할 수 있고, 피벗 포인트 아래에서 움직인다면 약세국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피벗의 원리를 이용하면 다음날의 고가와 저가 수준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주가가 상승국면이면 → 그날의 저가와 종가는 전일의 1차 저항 또는 2차 저항 수준에서 결정될 확률이 높고,

주가가 하락국면이면 → 그날의 고가나 종가는 전일의 1차 지지 또는 2차 지지 수준에서 결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차트가 애매하거나 서로 다른 신호를 보낼 때는?

차트를 보다 보면 이론처럼 명쾌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 때로는 기술적 지표마다 각기 다른 신호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트가 애매할 때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1. 분석대상에 따라 가장 잘 맞는 분석기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프를 볼 때는 분석대상이 종합주가지수나 개별종목이나 선물·옵션과 같은 파생상품이나에 따라 어떤 분석기법을 이용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① 종합주가지수와 대형주의 경우 : 추세선, 이동평균선, 거래량, MACD, 패턴 분석 순으로 보고, 보조지표는 심리도, 이격도, 일목균형표, CCI, RSI, 스토캐스틱 등의 순으로 봅니다.

② 재료주나 테마주의 경우 : 추세선, 이동평균선, 거래량, MACD를 기본으로 하되 보조지표로 볼린저밴드, 일목균형표, 스토캐스틱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투자 목적에 따라 보는 지표를 달리하여야 합니다.

① 여유자금으로 중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할 경우 : 중장기 지표인 주봉과 일봉상의 추세선이나 이동평균선을 이용하고, 보조지표의 경우에도 MACD, CCI 등의 지표를 보아야 합니다.

② 선물·옵션과 개별종목을 데이트레이딩하는 경우 : 먼저 일봉, 시간봉(1시간 또는 2시간)으로 추세 확인을 하고 나서 매매 타

이밍 결정은 30분봉, 5분봉, 2분봉과 같은 짧은 시간단위의 차트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조지표로는 MACD, 스토크스틱, DMI와 ADX, 피벗 같은 지표를 동시에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조금 더 긴 시간단위의 그래프를 봅니다.

일봉으로 판단하기 곤란할 때에는 주봉이나 월봉을 보십시오. 예를 들어 중장기 차트는 바닥권에 있는데 단기 차트가 상투권에 도달했다면 단기매수자는 좀더 기다렸다가 매수하거나 분할하여 매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중장기 차트가 천정권에 있는데 단기 차트가 바닥에 이르렀을 때는 매매를 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매매를 하더라도 단기매매로 대응해야 합니다.

4. 시장의 대세를 참고합니다.

종합주가지수가 천정권에서 하락하고 있는데 개별종목이 바닥권에서 상승할 경우에는 개별종목의 상승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대세가 상승중인데 개별종목이 바닥에서 움직일 때는 상승의 관점에서 그래프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래프를 볼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총체적으로 활용해서 주가를 판단할 수 있는 인간의 통합적인 능력이 요구됩니다. 여러모로 분석을 했는데도 판단이 안 설 때는 매매를 중단하거나 보류하십시오. 증권시장에서는 자금을 가지고 기다리면 기회는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힐러리 친구 밥(Bop)

클린턴과 힐러리가 기름을 넣기 위해 주유소에 들렀다. 마침 주유를 하는 사람이 힐러리의 학교 동창인 밥이었다. 기름을 다 넣고 힐러리와 밥은 잠시 인사말을 나누었다. 차가 출발하자 클린턴이 말했다.

“당신이 저 친구와 결혼했다면 지금쯤 저 친구의 기름 묻은 바지를 빨고 있겠지.”
그러자 힐러리가 말했다.

“여보, 내가 만약 밥과 결혼했다면 아마 그가 지금 백악관에 있을 거예요.”

이동평균선은 주가에 대해 구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가가 이동평균선에서 지나치게 멀어지면 이동평균선에 수렴하려는 경향이 있고, 수렴하고 나면 다시 멀어지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가의 속성을 이용해 주가가 이동평균선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가를 알아보고 투자판단에 활용하고자 만든 지표가 이격률입니다. 종합주가지수 20일 이동평균선을 100이라 할 때 강세장일 경우 108 이상이면 매도하고, 98 이하면 매수로 이용합니다. 반대로 약세장일 때는 102 이상이면 매도하고, 92 이하면 매수시점으로 이용합니다. 그러나 이격률은 여러 종류의 보조지표 중의 하나이므로 다른 지표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Stock Charts and Technical Analysis

진검 승부를 위한 매매원칙 총정리

주식투자를 하다 손해를 보면 마음이 조급해져 무리한 투자를 하게 됩니다. 주식투자에 성공하려면 시장을 읽을 수 있는 지식을 쌓고 자기 나름의 투자원칙을 세워 차트분석에 따라 매매시점을 찾아 투자를 해야만 실수를 줄이고 성공투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넷째 마당



14장 | 주식시장 대세를 읽어라!

15장 | 차트분석으로 종목 선정하기

16장 | 돈 되는 매매 타이밍을 잡아라!



주식시장 대세를 읽어라!

주식투자를 할 때는 시장의 대세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세 상승기에는 투자수익을 내기가 쉽지만 대세 하락기에는 전문가도 수익을 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투자시기를 가늠하는 데 꼭 필요한 대세 판단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세 상승기에는 시장에 적극 참여하고 대세 하락기에는 시장을 떠나 쉬는 것이 좋습니다. 쉬는 것도 하나의 투자방법이라 말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숲을 보고 나무를 보아야 실수가 없듯이 주식투자를 할 때도 시장의 흐름을 알아야 종목 선정에서 잘못된 선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숲은 대세이고 나무는 개별종목에 해당합니다.

대세를 판단하는 방법은 그래프로 판단하는 방법, 경제요인으로 판단하는 방법, 그래프·경제요인·시장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대세를 판단하는 방법 중 대표적인 4가지 방법, 즉 장기 그래프로 판단하는 방법, 엘리엇 파동이론으로 판단하는 방법, 다우의 시장 6국면 이론으로 판단하는 방법, 그리고 우라카미의 장세 4단계 이론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 대세 판단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면, 경제적 요인으로 판단하는 방법과 차트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나누어 집니다. 전자는 GDP성장을, 물가, 금리, 시장PER 등 경제요인에 따라 시장을 예측하는 방법으로 회귀분석 기법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후자는 시계열분석 기법에 기초를 두고 차트에 근거하여 대세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이 장에서는 차트로 대세를 판단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주식시장 대세 판단법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고 싶으면 《주식시장 대세판단 무작정 따라하기》를 읽어 보세요.

대세 판단법 1 차트로 대세 판단하기

1. 대세 판단은 월봉으로 한다

중시 대세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이용하려면 장기 그래프를 보아야 합니다. 장기대세는 월봉 그래프를 기본으로 하고 주봉 그래프를 보조로 활용합니다. 장기대세 속에서도 주가는 직선을 그리지 않고 등락을 반복하는데 이러한 등락은 주봉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월봉으로 장기대세를 판단하고 중기대세는 주봉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월봉과 주봉으로 대세 판단을 한 뒤 매매주문을 실행할 때에는 일봉과 시간봉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세 판단 그래프 확인 순서 : 월봉 → 주봉

일봉 → 주봉 → 월봉 순으로 그래프를 보면 안 되는 이유는 일봉에서 본 단기시장 흐름으로 생긴 선입견이 주봉과 월봉을 볼 때 영향을 미쳐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대세를 판단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러나 복잡한 기법을 모두 활용할 경우 오히려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프 가운데 가장 기본인 추세선과 이동평균선만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보조지표는 MACD면 족합니다.

앞에서 추세선, 이동평균선, MACD를 활용하는 방법을 익혔으므로, 복습하는 의미에서 월봉으로 대세 판단하는 방법을 요약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은 한국중시 대세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외증시 그래프를 참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한지붕 지구촌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증권시장간 자금이동은 장벽이 사라진 지 오래되어 시공간을 초월하여 실시간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금은 비록 규모는 적지만 한국증시를 세계증시의 한 축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증시를 예측하려면 세계증시 특히 미국의 다우, 나스닥, S&P 등의 지수 추이를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브릭스(BRICS,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를 포함한 아시아와 남미의 이머징국가 증시를 확인하는 것도 미국증시 이상으로 중요해졌습니다. 해외증시 차트를 읽는 방법은 국내증시 차트를 보는 방법과 다르지 않습니다.

2. 추세선으로 대세 확인하기

그래프로 대세를 확인하는 첫번째 방법은 주가의 추세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추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추세선이고 다른 하나는 지지와 저항선입니다.

1) 추세선

주가는 한번 방향을 잡으면 추세를 형성하고 또 추세가 전환될 때까지 같은 방향으로 지속해서 움직이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상승추세선은 주가가 상승할 때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여 그리고, 하락추세선은 주가가 하락할 때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여 그립니다. 주가가 하락추세선을 상향 돌파하면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되었다고 하고, 주가가 상승추세선을 하향 이탈하면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되었다고 판단합니다.



KOSPI 월봉 그래프(2001~2011. 4. 16)

위 그래프에서 대세가 상승할 때는 상승추세선을 하락 이탈하지 않고 추세선 위에서 상승하고, 대세가 하락할 때는 상승추세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추세선 아래에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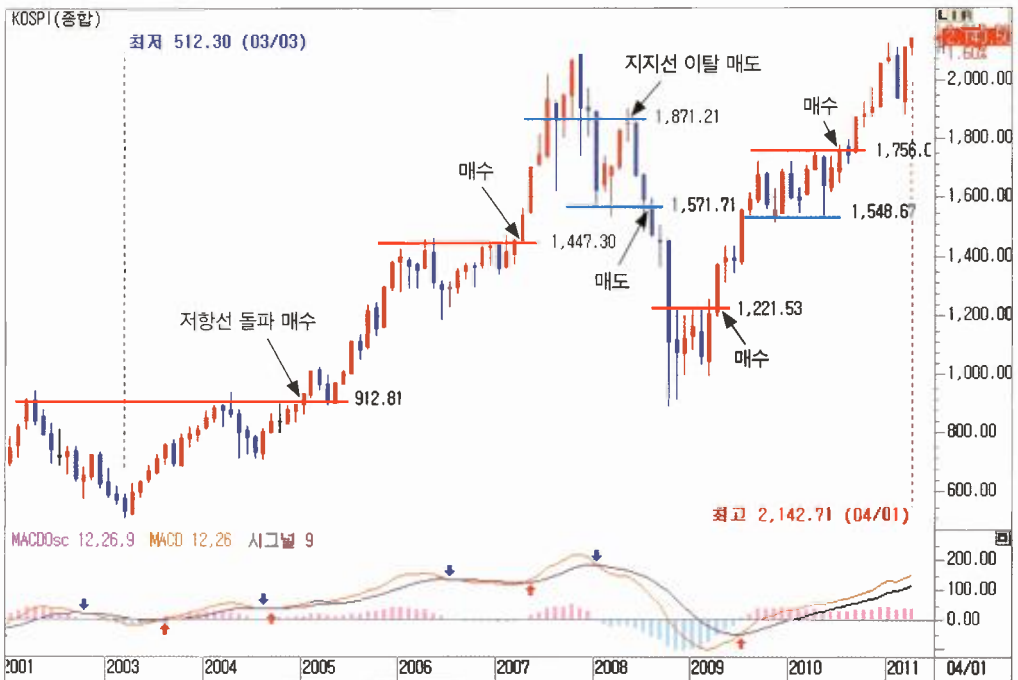
또 기울기가 45도 이상 가파른 상승추세선 다음에는 주가가 조정을 거치거나 하락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세선을 일시적으로 1~2개월 이탈 또는 돌파하였다가 다시 본래의 추세선으로 환원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일종의 속임수 이탈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경제의 펀드멘털을 점검해보고 판단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 지지선과 저항선

주가는 매수세와 매도세가 만나 가격이 결정됩니다. 주가가 박스권에서 움직일 때 박스권 상단에 닿으면 매도세력의 강력한 저항을 받아 떨어지고, 박스권 하단에 닿으면 주가가 충분히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매수세력에 의해 지지를 받아 다시 상승하는 것입니다. 이때 박스권 상단의 선을 저항선이라 하는데 주가가 저항선을 뚫고 위로 돌파하면 새로운 상승추세가 생기고, 반대로 박스권 하단인 지지선을 하향 이탈하면 하락추세로 전환됩니다.

아래 그래프에서 푸른색은 지지선, 붉은색은 저항선입니다. 지지선과 저항선으로 새로운 추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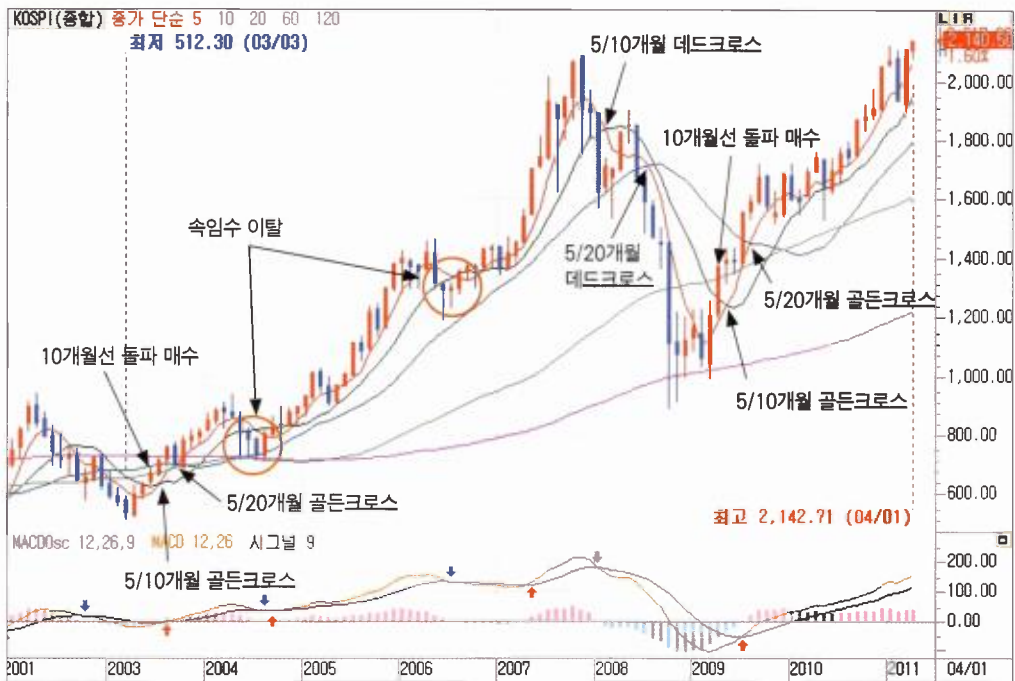


KOSPI 월봉 그래프(2001~2011. 4. 16)

3. 이동평균선으로 대세 확인하기

추세선 다음으로 확인해 볼 것은 이동평균선입니다. 이동평균선은 변화무쌍한 주가의 흐름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평균가격을 연결한 선으로, 시장가치에 대한 투자자들의 평균적인 합의가 반영된 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세 판단을 할 때는 월봉과 주봉을 중심으로 보아야 하므로 월봉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KOSPI 월봉 그래프(2001~2011. 4. 16)

1) 10개월 이동평균선은 대세 판단의 출발선

위 그래프를 보면 대세가 상승중일 때는 5개월 이평선을 지지선으로 하고 그 위에서 상승을 지속하고, 대세가 하락중일 때는 5개

월 이평선을 저항선으로 하고 그 아래에서 하락을 지속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5개월선이 일시 돌파되더라도 10개월선은 유지가 됩니다. 그러나 주가가 10개월선을 돌파하면 대세가 바뀌고 있음을 감지해야 합니다. 월봉이 10개월선을 상향 돌파하면 대세는 상승으로 전환된다고 보고, 월봉이 10개월선을 하향 돌파하면 대세는 하락으로 전환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주가가 추세를 가지고 움직일 때 일시적으로 이동평균선을 이탈하였다가 다시 기존의 이평선 안으로 돌아가는 속임수 이탈입니다. 보통 속임수 이탈은 1~3개월 이내에 기존 이동평균선으로 복귀하느냐 못하느냐로 판단합니다. 1개월 이탈이라도 그 폭이 지나치게 클 경우에는 복귀가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경제의 펀드멘털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2) 20개월선은 대세 전환을 확인하는 선

월봉이 20개월선을 상향 돌파하면 '이제는 대세가 상승으로 전환되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조금 늦었지만 대세 상승에 맞는 적극적인 투자전략을 짜야 합니다. 그리고 20개월선을 하향 이탈하면 '이제는 대세가 하락으로 전환되었구나' 라고 판단하고 늦었지만 대세 하락에 맞는 투자전략을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대세가 하락으로 전환되었는데도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하면 경제적 손실과 마음고생이 동시에 찾아올 것입니다.

위 그래프에서 보듯이 20개월 이동평균선을 돌파할 때는 대세가 전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지만, 그와 동시에 시기적으로는 상당히 늦어졌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3) 5개월선과 20개월선으로 대세 확인하는 방법

단기 이동평균선인 5개월선이 중기 이동평균선인 20개월선을 밑에서 위로 상향 돌파하는 경우 즉 골든크로스가 나타날 때는 대세 상승 전환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5개월선이 위에서 아래로 하향 돌파하는 경우 즉 데드크로스가 발생하면 대세 하락 전환으로 판단합니다.

위 그래프를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5개월선이 20개월선을 돌파하기 전 10개월선을 먼저 돌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5개월선과 20개월선의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5개월선×20개월선)가 발생하기 전에 5개월선과 10개월선에서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5개월선×10개월선)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5개월선과 10개월선을 보고 대세를 판단하는 것이 5개월선과 20개월선을 보는 것보다 시기적으로 더 빨리 대세 전환을 판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5개월선이 10개월선을 일시적으로 돌파했다가 다시 정상궤도로 되돌아가는 속임수 크로스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경제 펀드멘털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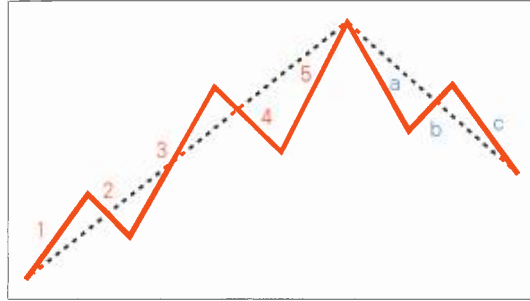
★ 알아두세요

1930년대에 피터 엘리엇트는 76년간의 미국 주식 시장 데이터를 분석하여 파동이론을 완성하고 주가의 파동도 '자연의 법칙-우주의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고 하였습니다.

대세 판단법 2 엘리엇 파동이론으로 대세 판단하기

그래프로 대세를 파악하는 대표적인 이론 중에 엘리엇 파동이론이 있습니다. 엘리엇 파동이론은 주가가 그리는 파동은 일정한 패턴(Pattern)을 가지고 움직이며, 패턴에는 고유한 비율(Ratio)과 시간(Time)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론에서 출발합니다. 엘리엇 파동이론을 단순하게 요약하면 주가 흐름은 상승 5파와 하락 3파로 끊임없이 순환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엇 파동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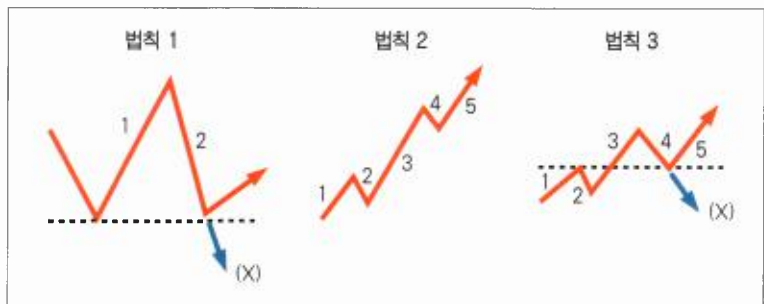
론은 주가의 장기 대세 파동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며, 피보나치 수열을 이용해 각 파동의 상승폭과 하락폭을 예측한 것이 특징입니다.



1 2 3 4 5는 상승 5파이고, a b c는 하락 3파입니다.

엘리어트 파동이론의 기본법칙 5가지

상승 5파에서 1, 3, 5를 충격파동이라 하고, 2, 4는 상승 충격에 따른 조정파동이라 합니다. 하락 3파에서는 a, c를 충격파동이라 하고, b는 하락 충격에 따른 조정파동이라 하며 다음과 같은 5가지 기본법칙을 제시합니다.



엘리어트 파동이론의 기본법칙

법칙 1 : 2번 파동이 1번 파동의 출발점 이하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법칙 2 : 3번 충격파동이 가장 강력한 파동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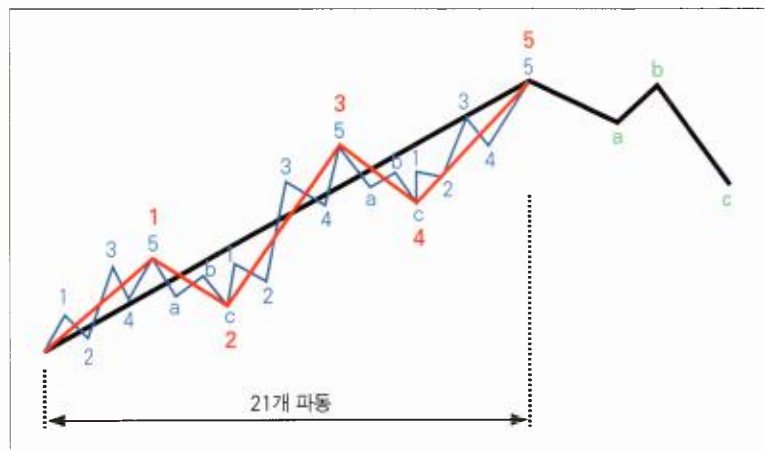
법칙 3 : 4번 조정파동은 결코 1번 파동과 겹칠 수 없다.

법칙 4 : 어느 한 파동이 연장되면 나머지 파동은 결코 연장되지 않는다.

법칙 5 : 2, 4번 조정파동의 형태는 반복되지 않으며 연장되지도 않는다.

파동별 특징과 주가 변동폭 예측하기

상승 5파와 하락 3파라는 큰 파동은 각각 다시 5개의 작은 상승 파동과 3개의 작은 하락파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상승 1파는 5개의 작은 파동이 완성될 때 비로소 1번 파동이 되고, 2번 파동은 3개의 작은 하락파동이 완성될 때 비로소 2번 파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작은 파동 21개가 모여 상승 5파동이 완성됩니다.



아래 그래프는 2001년 3월~2009년 3월까지의 KOSPI 월봉입니다. 한국증시는 1989년부터 15년간 KOSPI지수 500~1,000포인트라는 장기 박스권에 갇혀 있다가 2005년 들어 대세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3년 가까이 상승하던 지수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여파로 2007년 11월 1일 2,085포인트를 찍고 하락으로 전환되어 892포인트까지 급락하였습니다. 그후 세계 각국이 저금리와 양적완화 전략을 구사한 결과 대세는 다시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2011년부터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적자로 인한 경제위기와 미국경제의 더블딥에 대한 우려로 다시 하락으로 전환되었습니다.



KOSPI 월봉 그래프(2001. 3~2009. 3)

위 KOSPI 월봉 그래프를 보면서 각 파동의 특징과 피보나치 수열을 이용한 코스피지수의 상승폭과 하락폭을 예상해 보겠습니다.

1) 1번 충격파동(상승파)

추세가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되는 파동입니다. 보통 기존의 하락추세가 무너지고 새로운 상승추세가 시작되는 파동을 상승 1파, 상승 1파 안에서 작은 5개의 파동이 완성될 때 1번 파동이라고 합니다. 코스피지수를 보면 1989년부터 2003년까지 약 15년간 500~1,000포인트 박스권에 머물다가 2003년 3월 512포인트부터 새로운 추세가 형성되었습니다. 엘리엇 파동이론에 따라 코스피지수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상승를 계산 : 2003년 3월 512포인트에서 새로운 추세가 시작된 코스피지수는 2004년 4월 939포인트까지 올라 1차 상승폭이 427포인트입니다.

2) 2번 조정파동(하락파)

상승 1파에 대한 조정파동으로 2번 파동도 그 안에 3개의 작은 하락파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2번 파동은 절대로 1번 파동의 출발점인 512포인트 아래로 내려가서는 안 됩니다. 만약 1번 파동 출발점인 512포인트 아래로 내려가면 1번 파동을 새롭게 시작한 파동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하락을 계산 : 1번 파동의 상승폭에서 38.2% 비율로 하락하거나, 또는 61.8% 비율로 추가 하락합니다. 1번 파동에서 상승폭이

427포인트였으므로 163포인트($427\text{포인트} \times 38.2\%$) 하락하거나, 264포인트($427\text{포인트} \times 61.8\%$) 추가로 하락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939포인트에서 조정을 한다면 1차 예상치는 776포인트(상승 1파 후 지수 939-2번 파동 예상 하락지수 163)가 되고 추가로 하락한다면 2차 예상치는 675포인트($939-264$)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717포인트까지 하락하였으므로 1차 조정 예상치와 2차조정 예상치 사이에서 멈추었습니다.

3) 3번 충격파동(상승파)

3번 충격파동은 추세가 힘을 받아 강력하게 움직이는 파동으로서 그 안에 5개의 작은 파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5파 중에 가장 폭이 크고 긴 파동으로, 주가 상승폭이 제일 큰 파동입니다. 따라서 2번 파동 말기와 3번 파동 초기에 투자한 사람은 단기에 가장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상승률 계산 : 1번 파동 상승폭의 1.618배로 상승하므로 690포인트가 상승한다고 봅니다($1\text{번 파동 상승폭 } 427 \times 1.618$). 코스피지수 기준으로는 1,407포인트가 되어야 합니다(2번 파동 조정 후 지수 $717+3\text{번 파동 예상 상승폭 } 690$). 그러나 실제로는 747포인트 올라 1,464포인트(2007년 11월)까지 도달하였습니다.

4) 4번 조정파동(하락파)

3번 파동의 되돌림 현상으로 그 안에 3개의 작은 파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4번 파동의 저점은 1번 파동의 고점 이하로 하락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 5파의 틀이 지속될 수 없다고 봅니다.

하락을 계산 : 3번 파동 상승폭의 38.2%인 285포인트(3번 파동 상승폭 747포인트 $\times$ 38.2%) 하락합니다. 코스피지수 기준으로 1,179포인트(3번 파동 후 지수 1,464-4번 파동 예상 하락폭 285)가 되고 실제 지수는 272포인트가 하락한 1,192포인트(2006년 6월 13일)로 엘리엇 파동이론과 비슷하게 하락하였습니다.

만약 이번 하락이 2번 파동 저점인 717포인트 아래로 내려간다면 상승 5파의 기본틀은 사라집니다.

5) 5번 충격파동(상승파)

상승 5파의 마무리 파동으로 3개의 작은 하락파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을 팔아 현금화했다가 재투자 시기를 찾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승률 계산 : 3번 파동 상승폭의 61.8% 비율로 상승하거나 추가 상승이 있으면 1번 파동 상승폭과 같습니다. 3번 파동 상승폭의 61.8%를 적용하면 1,654포인트(4번 파동 종료 후 지수 1,192+3번 파동 상승폭 747 $\times$ 61.8%)가 되고 1번 파동 상승폭인 427포인트를 적용하면 1,619포인트(4번 파동 종료 후 지수 1,192+427)가 됩니다. 실제 결과는 2,085포인트(2007년 11월 1일)로 상승 5파를 마무리하고 대세는 하락으로 전환하였습니다.

6) a 충격파동(하락파)

a파동은 상승추세에서 하락추세로 전환되는 파동입니다. 그 안에 3개의 작은 파동이 있습니다. 하락으로 전환되는 파동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상승 5파동 안에 있는 작은 파동이 21개가

되는지 세어보면 됩니다(상승파동 3개×각 파동 속에 있는 소파동 5개+하락파동 2개×각 파동 속에 있는 소파동 3개=21개 소파동).

7) b 조정파동(조정파)

a파동의 되돌림 현상으로 a파동 길이의 38.2% 또는 61.8%만큼 반등합니다.

8) c 충격파동(하락파)

c파동 길이는 a파동 길이와 비슷하며, a파동 저점보다 현저하게 하락합니다. 보통 패턴 분석 중 삼중천정형(Head&Shoulder형)의 오른쪽 어깨 모양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엘리어트 파동이론의 한계

엘리어트 파동이론은 상승파동일 때는 1, 3, 5번 파동을 충격파동으로 보고 2, 3번 파동을 조정파동으로 봅니다. 또한 하락파동일 때는 a, c를 충격파동으로 보고 b를 조정파동으로 봅니다. 충격파동은 파동의 폭이 크고 길며 가파른 반면 조정파동은 기울기가 완만하고 짧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상승추세일 때는 적극적 매수 관점에서 대응하고, 하락추세일 경우에는 매도 관점에서 대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파동이 완성된 후에는 누구나 알 수 있지만 파동이 진행중일 때는 어느 파동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울러 단기추세에서 매매시점을 잡기가 어려운 단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파동의 개수보다는 지금이 어느 파동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승폭과 하락폭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파동의 원리를 이해하고 참고하면 됩니다.

잠깐만요

피보나치 수열이란?



12세기 이탈리아 수학자 피보나치가 이집트 피라미드를 연구하다 발견한 황금분할비율의 계수로, 1, 2, 3, 5, 8, 13, 21, 34, 55, 89, 144로 나가는 숫자입니다. 이 숫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 이어지는 두 숫자를 더하면 그 다음 숫자가 됩니다. 즉, $3+5=8$, $5+8=13$ 이 됩니다. 둘째, 수열 34부터 앞에 있는 수의 1.618배이고, 두번째 앞에 있는 수의 2.618배입니다. 셋째, 어떤 수를 두번째 앞에 있는 수로 나눌 때 몫은 2이고 나머지는 그 어떤 수의 세번째 앞에 있는 수와 일치합니다. 예를 들면 21을 8로 나누면 몫은 2이고 나머지가 5인데, 5는 8 앞에 있는 수라는 것입니다. 넷째, 어떤 수를 제곱한 수에서 그 수의 두번째 앞에 있는 수를 제곱한 수를 뺄 때 나타나는 수는 피보나치 수열이 됩니다. 다섯째, 연속하는 어떤 두 수의 제곱을 더하면 그 수는 항상 그 연속하는 두 수 가운데 높은 수의 순번만큼 그 높은 수 뒤에 있는 수와 일치합니다. 예를 들면 5와 8의 제곱을 더한 수는 $25+64=89$ 인데 8이 전체 수열에서 다섯번째 수이므로 8 이후로 다섯번째 수인 89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서양에서는 이 숫자에 따르면 마음이 평온해진다고 하여 각종 예술작품과 생활용품에 응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대세 판단법 3 다우의 시장 6국면으로 대세 판단하기

다우의 시장 6국면은 주식시장은 규칙적인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인다는 이론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을 창간한 찰스 다우(Charles H. Dow)가 고안해 낸 이론입니다.

증권시장의 순환과정을 규명한 다우이론은 강세시장과 약세시장을 구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우는 증권시장을 총 6개 국면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강세시장 3국면과 약세시장 3국면으로 나눕니다. 강세시장은 매집국면, 마크업(Mark Up)국면, 과열국면의 3개 국면으로 진행되고, 약세시장은 분산국면, 공포국면, 침체국면의 3개 국면으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강세시장 제1국면 — 매집국면

강세시장 초기국면인 매집국면은 경제와 기업환경 그리고 시장여건까지 회복되지 못하여 장래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느낀 투자자들이 투매하는 과정입니다. 이때는 언론에도 어두운 기사만 가득합니다. 그러나 전문투자자들은 일반인들의 실망매물을 사들이는 국면입니다. 이 시기에 주식을 매수하여 중장기로 보유하는 사람은 큰 수익을 얻게 됩니다. 일반인들의 시장을 떠나는 매물과 전문투자자의 매수로 거래량은 점차 증가합니다.

강세시장 제2국면 — 마크업국면

강세시장의 제2국면인 마크업(Mark Up)국면에서는 전반적으로 경제여건이 좋아지고 기업의 수익이 증가함으로써 일반투자자들의 시장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어 주가가 상승합니다. 마크업국면에 접어들면 호재에는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만 악재에는

별로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차트분석에 따라 주식투자를 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투자수익을 올릴 수 있는 때입니다.

강세시장 제3국면 — 과열국면

강세시장의 제3국면인 과열국면에서는 경제와 기업의 수익에 관한 각종 통계수치가 호조를 보이고 신주 발행도 급격히 증가하며 신문이나 매스컴에 증권시장에 관한 내용이 톱뉴스로 등장할 만큼 과열 기미를 보입니다. 일반투자자와 주식투자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계속 망설이다가 비로소 확신을 갖고 적극 매입에 나서기 때문에 시장이 과열됩니다. 그러나 이때의 매수자는 흔히 손해를 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약세시장 제1국면 — 분산국면

약세시장 제1국면인 분산국면은 전문투자자들이 시장의 과열을 감지하고 이익을 실현한 후 시장을 빠져나가는 국면입니다. 호재에 반응이 없고 악재에 민감하며 해외뉴스가 하락의 계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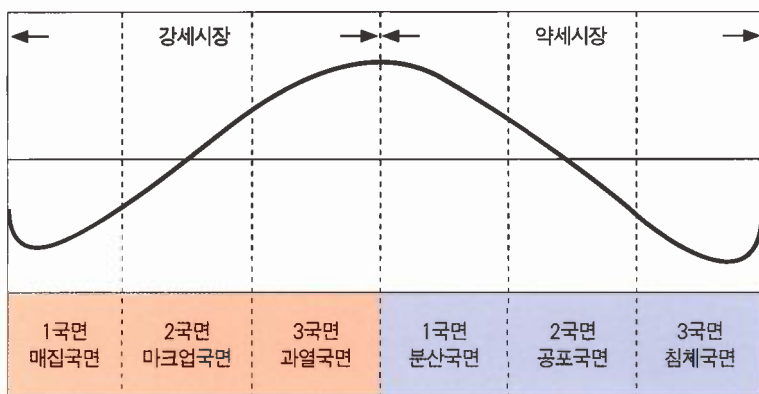
약세시장 제2국면 — 공포국면

경제 및 기업의 수익에 관한 실적발표가 나쁘게 나오며 따라 매도하려는 투자자의 마음이 조급해지고 매수세력은 위축되어 주가가 수직으로 급락합니다. 이때 거래량도 급격히 감소하는데 이러한 상태를 공황국면(Panic Phase)이라고도 합니다. 이후에는 상당히 긴 회복국면이나 보합상태가 나타나 약세시장 제3국면이 시작됩니다.

약세시장 제3국면 — 침체국면

공포국면에서 미처 처분하지 못한 투자자들의 실망매물이 시장에 나뭇으로써 투매 양상이 나타납니다. 주가는 지루하게 하락하지만 시간이 경과할수록 낙폭은 줄어듭니다.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주가가 계속 떨어진다는 정보가 주식시장에 퍼져 있기 때문에 이를 침체국면이라고 합니다.

● 다우의 순환 6국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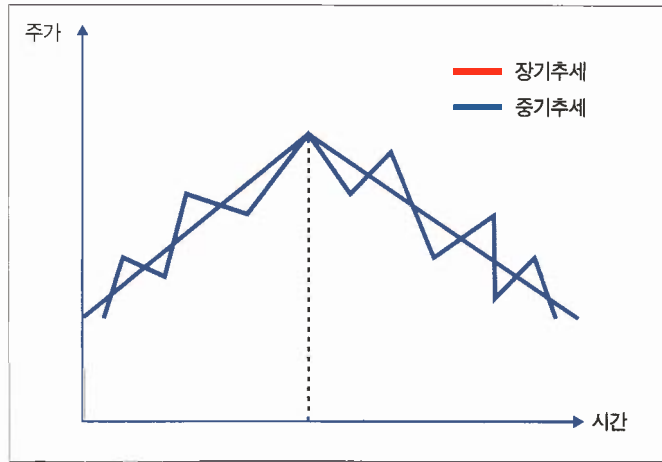
다우의 3가지 추세 구분하기

다우는 증권시장의 추세를 단기추세, 중기추세, 장기추세로 구분합니다.

단기추세는 매일매일의 주가 움직임을 말하며 단기적으로 진폭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분석의 가치가 없습니다.

중기추세는 통상 수주에서 수개월의 주가 추세를 말하며 장기추세를 예측하고 장기추세의 전환 시기를 포착하는 데 활용하는 주된 추세입니다.

장기추세는 2년에서 10년에 걸친 증권시장의 흐름을 말합니다.



대세 판단법 4 우라카미의 장세 4단계로 대세 판단하기

일본 사람 우라카미 쿠니오는 경제실적과 금리 변화에 따른 자금의 이동이라는 두 가지 변수로 주식시장의 장세를 크게 4가지로 구분하고, 4가지 장세가 순환하며 진행된다고 하였습니다.

1단계 — 금융장세

경기가 좋지 않아 계속해서 금리를 내리거나 저금리가 지속되는 국면입니다.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시중자금이 채권에서 주식으로 대거 이동하여 주가는 대량거래를 수반하면서 상승합니다. 경기나 기업의 실적이 호전되는 기미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증시로의 자금유입만으로 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금융장세 또는 유동성 장세라고도 합니다. 경기호전을 체감하지 못하는 일반투자자는 시장에 참여하기가 어렵고 소수의 전문가만이 참여하는 장세입니다.

★ **알아두세요**

해외증시가 대세에 미치는 영향은?

대세 파악을 하려면 해외 증시도 참고해야 합니다. 세계 금융시장의 지표 역할을 하는 미국의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 우리나라와 산업구조가 유사한 일본과 대만 증시를 중심으로 해외증시도 틈틈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증권회사 홈트레이딩 시스템을 이용하면 실시간으로 각국의 증시 동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2단계 — 실적장세

금융장세 다음으로 나타나는 것이 실적장세입니다. 경기가 바닥에서 서서히 호전되어 가고 기업실적도 개선되는 국면입니다. 경기호전으로 기업의 자금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금리도 상승추세로 전환됩니다. 기업의 실적이 호전됨에 따라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합니다. 경기호전과 주가 상승 뉴스가 매스컴에 연일 보도되고 일반투자자들이 대거 시장에 참여하게 됩니다.

3단계 — 역금융장세

실적장세가 지나면 역금융장세가 옵니다. 경기가 과열되어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금리를 최고 수준으로 올리고 기업실적도 점차 둔화되는 시기입니다. 금리가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을 만큼 상승한 후에는 채권시장이 바닥을 칠 것이라 예측한 발빠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빼서 채권시장으로 서서히 옮겨가게 됩니다. 따라서 주가도 대세 하락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피부로 느끼는 경기는 아직 좋은데 주식시장의 자금이 채권시장으로 빠져나가면서 발생하는 시장의 하락을 역금융장세라 합니다. 일반투자자들은 역금융장세에서 대세가 꺾인 것을 간파하지 못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4단계 — 역실적장세

주식시장의 대세가 꺾이고 나서 본격적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국면인 역실적장세가 나타납니다. 이 시기에는 경기와 기업실적이 악화되고 주가도 폭락장세가 이어집니다. 경기 하락으로 기업의 자금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금리도 하락합니다. 정부에

서 경기부양과 주가부양 대책을 내놓지만 시장은 지루하게 하락을 계속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손실은 좀처럼 회복되지 못합니다. 매스컴에는 연일 경제지표와 기업실적이 나쁘다는 악재만 가득 실립니다.

우라카미의 대세 4단계는 다우의 시장 6국면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 두 이론은 짧게는 1~2년, 길게는 3~4년의 사이클을 갖는 주가의 장기파동, 즉 대세를 파악하는 데 참고가 됩니다. 대세가 파악되면 대세에 따라 증권시장에 임하는 자세가 달라져야 합니다.

잠깐만요

장세별 주도업종은 어떤 것이 있나요?



금융장세 주도업종 : 금리 민감주(은행, 증권, 보험), 재정, 투·융자 관련 종목(건설, 부동산 관련주), 공공서비스 관련주(전력, 가스, 항공, 방송), 불황 저항력이 있는 종목(식품, 제약)

실적장세 주도업종 : 전반부는 소재산업 관련 대형주(철강, 화학, 시멘트, 비철금속, 섬유, 제지), 후반부는 가공산업 관련주(기계, 전기전자, 자동차, 정밀기기)

역금융장세 주도업종 : 방어적 투자 관점에서 중소형 우량기업(저PER주, M&A주)

역실적장세 주도업종 : 전반에는 질적으로 불량한 각종 재료 보유주(투기적 매수, 인위적 시세 조종 종목). 후반에는 향후 상승장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우량주를 저점에 매수할 기회



앨런 그린스펀의 생각

2006년 1월 벤 버냉키에게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직을 물려준 앨런 그린스펀은 18년간의 재임기간 중 세계의 경제대통령이라고 불릴 만큼 전세계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컸다. 그린스펀은 시장현실을 바탕으로 한 유연하고 다양한 통화와 금리 정책으로도 유명하였지만 독특한 화법으로도 유명했다. 한번은 하원청문회에서 어느 하원의원이 그린스펀에게 말했다.

“증언을 듣고 나니 이제 당신의 생각을 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 말뜻이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하원의원 : “?.....”

주식시장이 강세장이나 약세장이나 혹은 그 중간인 횡보장이나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첫째 경제요인으로 판단하는 방법, 둘째 수급 즉 증권시장으로 유입되는 자금의 양과 주식의 물량을 비교하여 판단하는 방법, 셋째 증장기 그래프를 보고 기술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증권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요인으로서는 경기흐름, 경제성장률의 높고 낮음, 금리 수준, 환율, 유가를 포함한 물가수준 등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금리 측면에서 주식시장을 읽는 방법은 금리와 주가는 반대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즉 금리가 높으면 주가는 약세, 금리가 낮으면 주가는 강세를 보입니다. 저금리가 되면 주식투자에 대한 기대수익률이 예금이나 기타 대체 투자수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기흐름이 좋아지고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면서 금리가 서서히 상승하더라도 주가는 횡보하거나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물경기가 하락하는 가운데 물가상승을 막기 위해 또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금리를 낮추는 경우엔 주가는 하락세를 보이게 됩니다.



차트분석으로 종목 선정하기

주식투자를 할 때는 시장의 대세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세 상승기에는 투자수익을 내기가 쉽지만 대세 하락기에는 전문가도 수익을 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투자시기를 가능하게 해 꼭 필요한 대세 판단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 대세 판단방법 2가지

주식투자를 할 때는 현재의 시장이 강세장인지 횡보장인지 하락장인지를 판단하여 대세에 따라 각기 다른 투자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개별종목 선정 방법을 알아보기에 앞서 대세 판단방법과 대세에 따른 투자전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그래프로 판단하기

먼저 종합주가지수인 코스피(KOSPI)의 월봉, 주봉, 일봉 그래프를 봅니다.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이 시장을 주도하고, 선물·옵션과 같은 파생상품의 중심 지표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대세 판단의 지표로 삼습니다. 그리고 일반투자자가 주도하고 있는 코스닥지수도 참고해서 보면 좋습니다.

① 위로부터 차례로 5일, 20일, 60일, 120일 이동평균선이 정배열되어 있으면 시장은 강세시장이고 또한 상승중에 있다고 봅니다. 5일, 20일 선은 상황에 따라 하락하더라도 60일, 120일 선

이 상승중이면 상승 대세가 살아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동평균선이 역배열 상태이면 하락장이고, 수렴하고 있으면 횡보장으로 봅니다. 대세를 파악하는 데는 일봉보다 주봉이, 주봉보다 월봉이 더욱 신뢰도가 높습니다.

② 보조지표로 MACD를 봅니다. MACD가 기준선인 0 이상에서 상승하면 대세 상승국면으로, 0 이하에서 하락하면 대세 하락국면으로 봅니다. 대세를 추가로 확인하고 싶을 때는 CCI 지표를 봅니다. CCI가 0 이상이면 대세 상승, 0 이하면 대세 하락으로 봅니다.

2. 엘리엇 파동이론, 다우의 시장 6국면, 우라카미의 장세 4단계 이론으로 판단하기

① 엘리엇 파동이론에 따라 상승 5파, 하락 3파 가운데 어느 국면에 해당하는지 분석해 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파동이론(03장 '봉차트와 주가 파동 이론' 참조)의 연장이라 생각하고 숫자에 얽매이지 말고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② 다우의 강세국면(매집국면, 마크업국면, 과열국면)과 약세국면(분산국면, 공포국면, 침체국면) 가운데 지금의 상황이 어느 국면에 해당하는지 생각해 봅니다.

③ 우라카미의 장세 4국면, 즉 금융장세, 실적장세, 역금융장세, 역실적장세 가운데 지금 상황이 어느 국면에 해당하는지 생각해 봅니다.

주식시장 대세에 따른 투자전략

1. 강세장일 경우

강세장은 오를 때는 상승폭이 크고 조정될 때는 하락폭이 작은 것이 특징입니다. 강세장에서는 업종 대표주, 대형 우량주 중심으로 공격적으로 매수하고 장기보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승 초기에 턴어라운드 종목을 발굴하면 대박이 날 수도 있습니다. 조정기에는 재료 보유 종목과 테마주 중에서 주도 종목을 매수하면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선물은 매수 관점에서 매매하되 주가가 조정될 때 적극적 매수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횡보장일 경우

중립적 관점에서 현금 비중을 50%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량주, 재료 보유주, 테마주 위주로 매매하되 부실주는 철저하게 제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하락장일 경우

시장을 잠시 떠나 있는 것도 좋습니다. 현금 비중을 70% 이상 높이고 목표수익률도 낮게 잡아야 합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선호하는 대형 우량주 중심으로 매매하는 것이 좋고, 부실주 투자는 적극 피해야 합니다. 특히 하락장에서 데이트레이딩과 미수 거래는 큰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절대 금물입니다. 선물투자는 매도 관점에서 매매하되 반등시에는 매도로 대응하여야 하고 단기반등을 노려 쉽게 매수 포지션을 보유해서는 안 됩니다. 선물은 하락장에서 수익을 올리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증권시장에서 자금과 주가의 관계는 연과 바람의 관계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야 연을 높이 띄울 수 있듯이 자금이 증권시장으로 유입되면 주가가 상승하고, 자금이 증시를 빠져나가면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대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증시 자금의 흐름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시 자금의 유출입은 해외자금 유출입과 국내자금 유출입으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1. 한국관련 해외펀드 자금 추이

한국증시에 투자하는 대표적인 글로벌 펀드(Global Fund)로는 글로벌 이머징마켓 펀드(GME Fund), 아시아지역(일본 제외) 펀드(Asia ex Japan Fund), 인터내셔널 펀드(International Fund), 태평양 펀드(Pacific Fund) 등 4가지입니다. 이들 해외펀드에 자금이 유입되면 한국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반대로 자금이 유출되면 외국인이 매도한다고 추정합니다. 한국관련 해외펀드 자금동향은 이머징 포트폴리오 닷컴(Emerging Portfolio.com)에서 주간단위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고객예탁금과 주식형 수익증권 잔고 추이

고객예탁금은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기 위해 증권회사 계좌에 넣어둔 자금으로, 주가가 상승하면 증가하고, 주가가 하락하면 감소하는 시장흐름의 후행지표입니다. 기관투자자는 위탁증거금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고객예탁금은 개인과 일반 법인의 계좌에 들어 있는 자금만을 일컫습니다. 2010년 이후 고객예탁금 수준으로 보아서 15조원 이하면 침체장이고, 20조원 이상이면 활황장이었습니다.

주식형 수익증권은 펀드자금의 6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혼합형 펀드도 주식에 일부 투자를 하고 있지만 주식투자 비중이 가변적이기 때문에 국내 펀드자금 동향을 파악할 때는 주식형 펀드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고객예탁금과 주식형 펀드자금 추이 그리고 신용융자잔고 등은 증권사 HTS에서 '시장동향분석' 또는 '증시주변자금분석' 창을 클릭하면 볼 수 있습니다.



고객예탁금, 주식형펀드, 신용융자잔고와 코스피지수(2014. 4~2015. 5. 6)

3. 시중금리 추이

금리는 시중자금의 흐름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금리 추이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금리가 저금리 수준에 있거나, 저금리에서 경기회복과 더불어 완만한 상승을 보일 때는 채권시장의 자금이 빠져나와 기대수익이 높은 주식시장으로 유입됩니다. 반면에 금리가 고금리이거나 고금리에서 경기부양을 이유로 서서히 하락할 때는 주식시장의 자금이 투자수익이 높은 채권시장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개별종목 고르는 방법 2가지

시장의 대세를 판단하였다면 이제 투자할 종목을 선정해야 합니다. 종목 선정은 손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1,900개가 넘는 종목 중에서 내가 투자할 종목을 어떻게 선정할까요?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기본적 분석에 의한 선정 방법과 차트분석 기법에 의한 선정방법으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 분석에 의한 선정방법은 기업의 가치나 재료를 근거로 하여 종목을 선정한 다음 매매시점은 차트분석 기법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반면에 차트분석 기법에 의한 선정방법은 처음부터 차트분석으로 종목을 발굴한 이후에 기업의 재료를 참고하는 방법입니다.

1. 기본적 분석으로 종목 선정하기

★ 알아두세요

기본적 분석으로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은 《주식투자 무작정 따라하기》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① 기업가치 대비 저평가 종목

기업의 가치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선정합니다. 해당 기업의 자기자본이익률(ROE), 주가수익비율(PER), 이브이에비타(EV/EBITDA), 주가순자산비율(PBR) 등을 같은 업종의 유사한 종목과 비교해 보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② 성장성이 높은 기업

짧게는 1~2년, 길게는 5~10년 후 매출액 증가율과 이익증가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성장산업 또는 첨단산업에 해당하는 기업의 주식을 선정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IT산업, 생명과학, 나노테크놀로지, 빅데이터, 친환경 녹색산업, 사물인터넷(IoT), 로봇, 헬스케어 관련 소비산업 등이 향후에도 성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③ 시장흐름으로 보아 주도주와 테마주에 해당하는 기업

주도주와 테마주가 좋은 주식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것이 주도주이고 테마주인지 알아내기가 쉽지 않을 뿐이지요. 주도주와 테마주를 찾아내는 방법은 매일 '상승률 상위종목'과 '테마별 등락'을 체크해 보는 것입니다.

④ 외국인 또는 기관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

⑤ 호재성 재료가 있는 종목

기본적 분석에 필요한 자료는 경제신문, 증권관련 인터넷 사이트, 증권회사 발간자료(데일리, 상장기업 분석책자 등), 전문가의 추천 등을 통하여 얻습니다. 특히 상장기업 분석책자는 매우 유용한 자료이므로 증권회사에서 무료로 얻거나 서점에서 구입해 구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차트분석 기법으로 종목 선정하기

증권회사 홈트레이딩 시스템(HTS)을 이용하여 투자대상 종목을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차트분석 기법을 터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장기업 전 종목을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검색창'을 이용하면 아주 간편하게 시장흐름에 맞는 투자대상 종목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1. HTS 화면에서 '검색창'을 클릭하고 다음과 같은 항목을 검색해 봅니다.

- ① 거래량 최고치 갱신 종목
- ② 당일 상승률 상위 종목(상한가 종목)
- ③ 급등주 초기형 패턴(최근 급등 지속 종목)
- ④ 신고가 예상 종목
- ⑤ 박스권 돌파 종목
- ⑥ 매물벽 돌파 종목
- ⑦ 기관, 외국인 동시 매수 종목
- ⑧ 리포터 추천이 많은 종목

2. 검색창으로 찾아낸 종목 중에서 다음과 같은 종목은 제외합니다.

- ① 관리종목, 투자유의 종목, 자본잠식 종목
- ② 거래량이 적은 종목
- ③ 기타 악재가 걸려 있는 종목

기본적 분석으로 종목을 선정하고, 매매시점은 차트분석으로!

차트분석 기법으로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은 자기 나름의 투자 원칙을 정립한 사람이 단기투자를 하려고 할 때 흔히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일반투자자들은 기본적 분석에 따라 종목을 선택한 후 차트분석 기법을 이용해 주문 시점을 찾는 것이 보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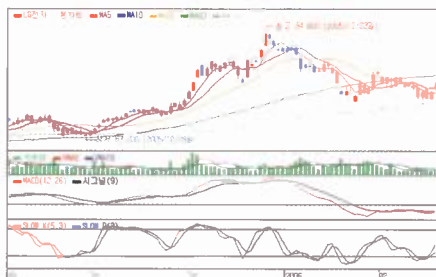


그래프 모양이 예쁘다는 것은 추세나 형태가 규칙적이고 일정하여 투자자가 보고 주가를 예측하기가 쉽다는 뜻입니다. 더불어 시세를 주도하는 투자주체가 분명히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쁜 그래프는 차트분석 기법을 적용하기가 용이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내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그래프 모양이 좋지 못한 경우는 주가 변동이 불규칙하여 투자수익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주도세력이 없다는 뜻도 됩니다. 당연히 모양이 예쁜 그래프를 골라야겠지요? 같은 종목이라도 모양이 좋을 때 매매하고 모양이 나빠지면 손을 떼는 것이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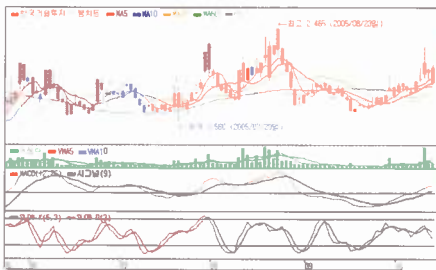
아래 4개 그래프 중에서 기아차 그래프와 LG전자 그래프는 모양이 좋은 그래프로 추세와 이동평균선 그리고 MACD와 스토크스틱만으로도 쉽게 향후 주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기술투자 그래프와 현대디지털텍 그래프로는 주가를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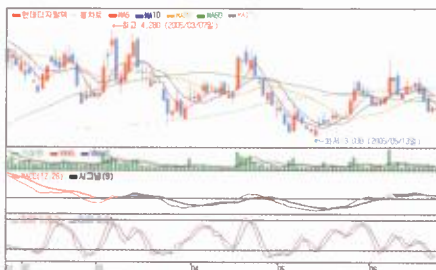
기아차 일봉(2005. 9~2006. 1)



LG전자 일봉(2005. 10~2006. 2)



한국기술투자 일봉(2005. 5~2005. 10)



현대디지털텍 일봉(2005. 1~2005. 6)



주유소에 간 사오정

자정이 다된 시각에 사오정이 주유소에서 종업원에게 기름을 1만원어치 넣어달라고 했다. 그러자 종업원이 기름을 넣으면서 말을 했다.

“아저씨가 종전 가격으로 기름을 넣는 마지막 분인가 봐요.”

이 말을 들은 사오정은 순간적으로 흥분을 했다.

“그래? 그것 참 신나는 일이네. 빨리 기름을 만탱크 채우라고.”

기름을 가득 채우고 계산을 끝내자 종업원이 의아하다는 듯이 사오정의 얼굴을 보면서 말했다.

“1분만 있으면 리터당 50원씩 내리는데...”

파생상품인 선물과 옵션은 금융상품 중에서 가장 위험도 높고 수익도 높은 상품입니다. 특히 인간이 만든 최고의 금융상품이라는 옵션의 경우엔 단 하루 만에도 3배 또는 10배 이상 투자수익이 발생하기도 하고, 당일예 휴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수익·고위험 상품이므로 그만큼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선물·옵션에 투자할 때는 그전에 현물시장에서 충분한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장을 읽을 수 있는 지식을 쌓고 또 자기 나름의 투자원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선물·옵션 투자에 뛰어들면 투자원금을 모두 날린 뒤라야 어림פות이나마 투자원칙이 보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물·옵션에서 성공하려면 책이나 인터넷으로 이론공부를 하십시오. 그런 다음 최소금액 예를 들어 선물은 1계약, 옵션은 30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투자하면서 매일매일 투자일지를 적어보십시오. 파생상품에 경험이 많은 사람의 노하우를 전수받는 것도 파생상품 투자원칙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돈 되는 매매 타이밍을 잡아라!

차트분석으로 좋은 주식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매매시점을 잘 포착해야만 투자수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차트분석 기법으로 매매시점을 찾아내는 방법을 요약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식 매수시점 요약정리 **기본지표를 이용한 매수시점**

1. 일봉 차트와 주봉 차트에서 추세선을 그려보고 주가와 추세선이 다음과 같을 때 매수합니다.

- ① 주가가 저항선을 상향 돌파하면 매수 관점에서 보고, 주가가 추세선을 하향 돌파하지 않는 한 매도하지 않습니다.
- ② 횡보추세에서 박스권을 탈피하는 긴 양봉이 나타나면 매수를 검토합니다.
- ③ 주가 파동을 N자로 이해하고 저점이 높아지면 매수합니다. 상승추세에서 상승파동은 폭이 크고 길지만, 조정할 때의 하락폭은 적고 짧으므로 주가가 조정될 때에는 적극 매수에 동참합니다.

2. 이동평균선이 다음의 상태일 때는 매수합니다.

- ① 장단기 이동평균선이 수렴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5일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하거나 5일 이동평균선이 상승으로 전환될 때



알아두세요

눌림목이란?

주가 상승 후 조정국면을 보이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바닥을 확인한 주가가 거래량 증가와 함께 수일 혹은 수주간 단기급등한 후 차익매물을 소화하기 위해 단기 조정기간을 거치는데, 이를 눌림목이라고 합니다. 보통 재상승을 위한 에너지 비축기간으로 봅니다.

② 장단기 이동평균선이 정배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5일 이동평균선에 접근할 때(눌림목 매수)

③ 주가가 5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고 5일 이동평균선이 20일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할 때

3. 주가의 패턴을 보고 다음과 같은 모양의 패턴이 나타나면 매수 관점에서 검토합니다.

삼중바닥형(역Head&Shoulder형), 원형바닥형, 쌍바닥형(이중바닥형 또는 W자형), V자형바닥형, 상승삼각형, 강세바닥형 등

4. 거래량이 급증하면 매수 관점에서 봅니다.

주가가 횡보하는 중에 거래가 급증하면 주가 상승 징후로 봅니다.

주식 매수시점 요약정리 보조지표를 이용한 매수시점

1. MACD로 추세 변화를 확인합니다.

① MACD 곡선이 시그널선을 만나 골든크로스를 만들거나 골든크로스를 만든 후 기준선인 0 이상으로 상승할 때

② MACD 곡선의 파동에서 저점이 높아지는 두번째 파동이 상승으로 전환될 때

③ 상승형 다이버전스(주가가 하락하거나 횡보중일 때 MACD 곡선이 상승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매수를 검토합니다.

2. 스토캐스틱으로 매수시점을 찾아봅니다.

① 스토캐스틱 차트에서 %K선이 %D선을 상향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를 만들고 과매도 상태인 20을 상향 돌파할 때

② 스토크스틱 파동이 20 이상에서 저점을 높이는 두번째 파동이 상승으로 전환될 때

③ 상승형 다이버전스(주가가 하락 또는 횡보중일 때 스토크스틱 지표가 상승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매수시점으로 간주합니다.

주식 매수시점 요약정리 **그밖의 보조지표를 활용할 때**

보조지표는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적용할 때는 자기에게 잘 맞는 2~3개 지표면 충분합니다. 아래에 열거된 보조지표는 필요한 사람이 예외적으로 참고로 보는 지표들입니다. 이 중에서 일목균형표, 볼린저밴드, CCI, DMI 등은 다수가 이용하는 지표입니다.

1. 일목균형표로 본 매수시점

① 주가가 전환선과 기준선을 차례로 상향 돌파하거나, 전환선이 기준선을 상향 돌파하면서 골든크로스를 그릴 때

② 위로부터 후행스팬, 주가, 전환선, 기준선, 구름층으로 정배열 상태일 때

③ 음운이 양운으로 바뀔 때

2. 볼린저밴드로 본 매수시점

① 주가가 중심선(20일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하면서 좁은 밴드 폭이 넓어질 때

② 주가가 밴드의 상한선을 상향 돌파할 때

3. CCI 지표가 0 이상 상승하거나 100을 상향 돌파할 때

4. RSI가 50 이상 상향 돌파할 때

잠깐만요

매수주문을 낼 때 체크할 사항



1. 일자별 주가 흐름으로 매수시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HTS의 현재가 창에서 '일자별 주가'를 클릭하면 최근일부터 일자별로 시가, 고가, 저가, 종가 그리고 거래량이 나타납니다. 주가가 상승추세일 때는 장중 고점과 저점이 점차 높아지고 거래량도 증가하는 반면, 주가가 하락추세일 경우에는 장중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고 거래량도 감소합니다. 따라서 장중 저점이 낮아지고 있는 동안에는 매수주문은 보류해 두었다가 장중 고점과 저점이 높아질 때 매수주문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2. 오늘의 주가가 전일 주가 흐름의 고점 부근에서 움직일 때는 오늘 하루 주가를 상승으로 봅니다. 반대로 오늘 주가 흐름이 전일 주가 흐름의 저점 부근에서 움직일 때는 매수는 일단 보류하고 주가 추이를 좀더 지켜본 후에 매수주문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3. 30분봉과 5분봉을 켜두고 저점에서 상승으로 전환될 때 매수주문을 냅니다. 이때 MACD와 스토크스틱을 동시에 보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선물·옵션을 매매할 때는 틱차트를 활용하여 주문을 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4. 매수하려고 하는 종목이 순간적으로 급등하면 흥분하여 서둘러 매수주문을 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수록 시간을 갖고 냉정하게 주가 추이를 지켜본 후 주문을 낼 필요가 있습니다. 거래원별 매수창구를 보아서 사이버거래 비중이 높은 키움닷컴, 미래에셋, 대신증권이 매수의 주창구일 경우에는 데이트레이딩 거래로서 당일 매물화할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5. DMI와 ADX 차트에서 +DI가 -DI를 돌파한 후 ADX가 20 이상으로 상승할 때

6. Chaikin's Oscillator가 0 이상일 때

7. 그물차트에서 좁아진 그물망이 위로 넓어질 때

8. 삼선전환도, P&F차트가 상승을 그리고 있을 때

주식 매도시점 요약정리 **기본지표를 이용한 매도시점**

1. 일봉 차트와 주봉 차트에서 추세선을 그려보고 주가와 추세선이 다음과 같을 때는 매도를 검토합니다.

① 주가가 지지선을 하향 돌파하면 매도의 관점에서 보아야 하고, 상승추세로 전환될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주식을 보유하지 않습니다.

② 상승추세 또는 횡보추세에서 추세를 하향 이탈하는 긴 음봉이 나타나면 매도합니다.

③ 주가 파동을 역N자로 이해하고 고점이 낮아지면 매도합니다. 하락추세에서 주가가 하락할 때는 폭이 크고 길지만 반등은 미미한 만큼 단기차익을 노린 매수는 실패할 확률이 높으므로 삼가야 합니다.

2. 이동평균선이 다음의 상태일 때는 매도하고 매수는 하지 않습니다.

① 주가가 5일 이동평균선을 하향 돌파하거나 5일 이동평균선

이 하락으로 전환되면 매도의 관점으로 봅니다.

② 장단기 이동평균선이 역배열되어 있을 때는 5일 이동평균선까지 단기 반등할 때 매도합니다.

③ 장단기 이동평균선이 횡보하여 수렴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하락하거나 5일 이동평균선이 하락 전환할 때 매도합니다.

3. 다음과 같은 주가 패턴이 나타날 때 매도를 검토합니다.

삼중천정형(Head&Shoulder형), 원형천정형, 쌍봉형(이중천정형 또는 M자형), 역V자형천정형, 하락삼각형, 약세박스형 등

4. 거래량이 감소하면 매도 관점에서 봅니다.

주가의 상승 기울기가 가팔라지고 거래가 폭발할 때는 단기 급등락이 나타나는 때입니다. 만약 천정권에서 상승을 이어가면서 거래가 일시 감소하였다가 다시 폭발하면 매도하여야 합니다.

주식 매도시점 요약정리 보조지표를 이용한 매도시점

1. MACD로 매도시점을 확인합니다.

① MACD 곡선이 시그널선을 만나 데드크로스를 만들거나, 기준선인 0 이하로 하락할 때

② MACD 곡선의 파동에서 고점이 낮아지는 두번째 파동이 하락으로 전환될 때

③ 하락형 다이버전스(주가가 상승하거나 상승 후 횡보하고 있지만 MACD 곡선이 하락하고 있을 경우)가 발생하면 매도를 검토합니다.

2. 스톡캐스틱으로 매도시점을 찾아봅니다.

- ① 스톡캐스틱 %K선이 %D선을 하향 돌파하여 데드크로스를 만들고, 과매수 구간인 80을 하향 돌파할 때 매도를 검토합니다.
- ② 스톡캐스틱 파동이 80 이하에서 고점을 낮추는 두번째 파동을 그릴 때
- ③ 하락형 다이버전스(주가가 상승중이지만 스톡캐스틱이 하락 파동을 그릴 경우)가 발생하면 매도를 검토합니다.

주식 매도시점 요약정리 **그밖의 보조지표를 활용할 때**

1. 일목균형표로 본 매도시점

- ① 주가가 전환선과 기준선을 차례로 하향 돌파하거나, 전환선이 기준선을 하향 돌파할 때
- ② 위로부터 구름층, 기준선, 전환선, 주가, 후행스팬 순으로 역배열 상태일 때
- ③ 양운이 음운으로 바뀌면 매도합니다.

2. 볼린저밴드로 본 매도시점

- ① 주가가 중심선(20일 이동평균선)을 하향 돌파하면서 좁았던 밴드폭이 넓어질 때
- ② 주가가 하한선을 뚫고 내려오면 단기매도합니다.

3. CCI 지표가 0 이하로 하락하거나 -100을 하향 돌파할 때

4. RSI가 50 이하로 하향 돌파할 때

- 5. DMI와 ADX 지표에서 -DI가 +DI를 돌파한 후 ADX가 80 이하로 하락할 때
- 6. CO가 0 이하일 때
- 7. 그물차트가 좁아졌다가 아래로 넓어질 때
- 8. 삼선전환도와 P&F차트가 하락하고 있을 때

잠깐만요

손절매도와 물타기는 언제 어떻게 하는 건가요?



손절매도는 어느 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손절매도(Loss Cut)는 현재의 손실을 정리함으로써 더 이상의 추가 손실을 막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손절매도를 할 것인가는 투자자의 투자목적과 종목 선정 이유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기업실적과 무관하게 특정 재료나 테마주로 급등한 종목일 경우에는 그래프 분석으로 매도시점이 나타나면 과감하게 손실 처리하여야 합니다. 현금화 시기를 놓치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우량주로서 반등폭이 크지 않았고 MACD 지표가 기준선인 0 이상에 있을 경우에는 시장 대세가 하락추세가 아니면 손절매도를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손절매도 기준

1. 하락률 기준으로 3~20% 사이에서 임의로 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매수가격보다 10% 내외로 하락하면 매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주가가 이동평균선을 하향 돌파할 경우 손절매도를 합니다.

단순 하락률보다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하여 5일 이동평균선을 하향 돌파하면 보유 주식의 반을 매도하고 20일 이동평균선을 하향 돌파하면 전량 매도합니다.

3. MACD 지표로 추세를 확인해 보고 MACD가 하락국면이거나 기준선인 0 이하에 있을 경우엔 하락률과 관계없이 매도합니다.

4. 특정 재료나 정보를 근거로 매수했을 때 그 정보가 근거가 없거나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순간 수익률과 관계없이 즉시 현금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투자를 할 땐 목표수익 가격과 더불어 손절매도 가격도 함께 설정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익을 기대하고 투자했다가 오히려 손실을 보고 정리하는 것은 속이 상하고 가슴이 쓰린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손절매도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면 직접투자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적은 금액의 손실에 연연해하다 더 큰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유의 사람이라면 직접투자보다는 펀드에 가입하여 간접투자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타기는 하는 것이 좋은가요?

손절매도와 반대로 물타기라는 것도 있습니다. 물타기는 매입한 주식이 큰 폭으로 떨어졌을 때 추가로 매입하여 평균 매입단가를 낮추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물타기는 추가 손실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으므로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계단에서 발을 헛디뎠다 쓰러진 사람은 곧 일어나 걸을 수 있지만 3층에서 떨어진 사람은 중상을 입어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이치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선행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는 예외적으로 물타기가 필요한 경우로서 물타기를 하면 평균 매입단가를 낮추게 되어 주가가 상승할 경우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물타기의 선행조건

1. 시장 대세가 상승추세일 때
2. 기업가치 대비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될 때
3. 해당 종목의 이동평균선, MACD가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되고 있을 때



사실은...

5명의 자식을 둔 한 남자가 막내아들을 유난히 구박하였다. 막내는 다른 자식들과 다르게 머리도 곱슬이고 성격도 내성적이었기 때문에 남자는 늘 이렇게 생각했다. ‘막내는 마누라가 바람을 피워서 낳은 자식이 틀림없을 거야.’ 그러나 구체적인 증거가 없었으므로 마음속에 묻어두고 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남자는 많은 재산을 막내만 빼고 다른 자식들에게 모두 나누어주었다. 그리고 임종이 가까워 오자 남자는 아내를 용서해 주리라 마음을 먹고 부인을 불렀다.

“여보, 죽을 때가 되니 그동안 구박한 막내에게 미안한 생각이 드는구려. 이제 모든 것을 용서해 줄 테니 막내의 애비가 누구인지만 밝혀주구려.”

남편의 말에 눈물을 흘리며 부인이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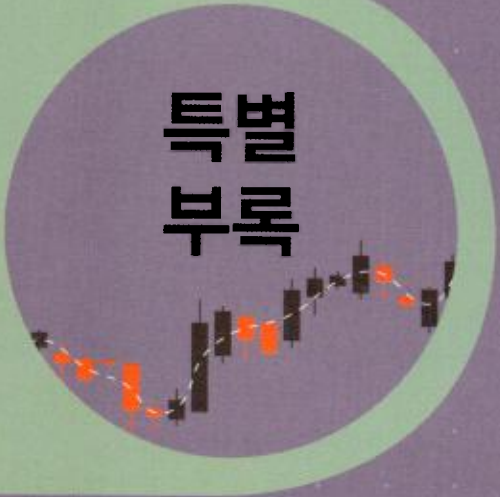
“여보, 당신에게 죄송해요. 사실은 그애만 진짜 당신 자식이에요.”

증권시장에는 “주식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정 종목에만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면 다른 주식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는 사랑에 빠지면 세상의 다른 상대는 아예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과 이치가 같습니다. 증권투자를 하는 사람들 중에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 종목에 대해서만 그래프를 수없이 확인하고, 같은 재료도 반복해서 확인해 보면서 다른 종목에 대해서는 알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증권투자를 하는 사람은 사랑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 주도주가 무엇이며, 인기 테마주가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우량주라도 시장 흐름에 맞는 종목일수록 수익이 많이 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는 일간과 주간 단위로 상승률 상위종목, 거래량 상위종목, 외국인 및 기관 매수 상위종목, 테마별 주가 등락률 등을 HTS나 매크컴으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Stock Charts and Technical Analysis

투자하기 전 꼭 읽어야 할
모의투자 10선

특별 부록



- 문제 1 | LG화학 주가 예측하기
- 문제 2 | SK하이닉스 주가 예측하기
- 문제 3 | 롯데케미칼 주가 예측하기
- 문제 4 | 포스코ICT 주가 예측하기
- 문제 5 | GS건설 주가 예측하기
- 문제 6 | 미래에셋증권 주가 예측하기
- 문제 7 | KOSPI 주봉으로 증시 흐름 알아보기
- 문제 8 | KOSPI 일봉으로 증권시장 예측하기
- 문제 9 | 선물 30분봉으로 선물투자 판단하기 1
- 문제 10 | 선물 30분봉으로 선물투자 판단하기 2

문제풀이로 차트분석 기법 익히기

지금까지 배운 차트분석 기법을 직접 적용해 볼 수 있도록 연습문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변화무쌍한 주가를 몇 개의 기법으로 완벽하게 예측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석기법에 관한 이론을 현실 주가에 반복해서 적용해보고 자기 나름의 이론을 정립하는 길만이 성공투자에 이르는 첩경입니다.

문제를 풀 때 고려할 사항

첫째, 핵심 분석기법 8가지를 기준으로 예측해 봅니다.

연습문제에서 이용하는 분석기법은 모두 8가지입니다. ① 봉차트와 주가 파동 이론, ② 추세선과 패턴 분석, ③ 이동평균선, ④ 거래량과 거래량 이동평균선, ⑤ 일목균형표, ⑥ 볼린저밴드, ⑦ MACD, ⑧ 스토캐스틱. 물론 이 8가지 이외에도 도움이 되는 분석기법이 많이 있지만 너무 많은 기법을 이용할 경우 오히려 혼란스러울 수 있어 기법의 수를 제한하였습니다.

참고로 MACD 지표에서 사용한 두 개의 이동평균선은 (12, 26)이고, 시그널은 (9)를 사용하였습니다. 스토캐스틱은 슬로 스토캐스틱을 이용하였으며 기간은 SLOW K(5, 3) SLOW D(3)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상 8가지 이외에 추가 기법을 활용하는 것과 기간을 달리 설정해 사용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독자들의 능력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시장 대세의 강약에 따라 유연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프를 볼 때 시장이 강세시장인지 또는 약세시장인지에 따라 분석기법 적

용을 융통성 있게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장이 강세장이면 그래프가 애매하거나 일부 상반된 그래프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승 쪽으로 해석하는 것이 실수를 줄일 수 있고, 반대로 약세장일 경우엔 하락 쪽으로 해석하는 것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동일 업종의 주가를 참고합니다.

LG전자 주가 그래프를 볼 때는 유사한 성격의 그래프, 즉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그래프를 보는 것이 도움이 되며, 삼성중공업의 주가를 볼 때는 같은 조선업종인 대우해양조선이나 현대중공업의 그래프를 보면 도움이 됩니다. 동일한 업종 내에서 유사한 매출구조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주가가 동행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기간별 그래프를 확인해 봅니다.

일봉 그래프가 있다면 주봉, 월봉, 분봉 그래프도 보는 것이 참고가 됩니다. 중장기 투자를 할 때라도 주문을 낼 때는 분봉을 활용해야 하고, 단기 데이트레이딩을 할 때에도 일봉과 주봉을 보고 추세를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주거래 창구의 매매동향을 참고합니다.

외국인 또는 기관이 매매주체일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동향도 그래프 해석에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개별 중소형주의 경우에는 주거래 창구가 매수하고 있는지 매도하고 있는지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를 푸는 도중에 분석기법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본문으로 돌아가 다시 한번 정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1 | LG화학 주가 예측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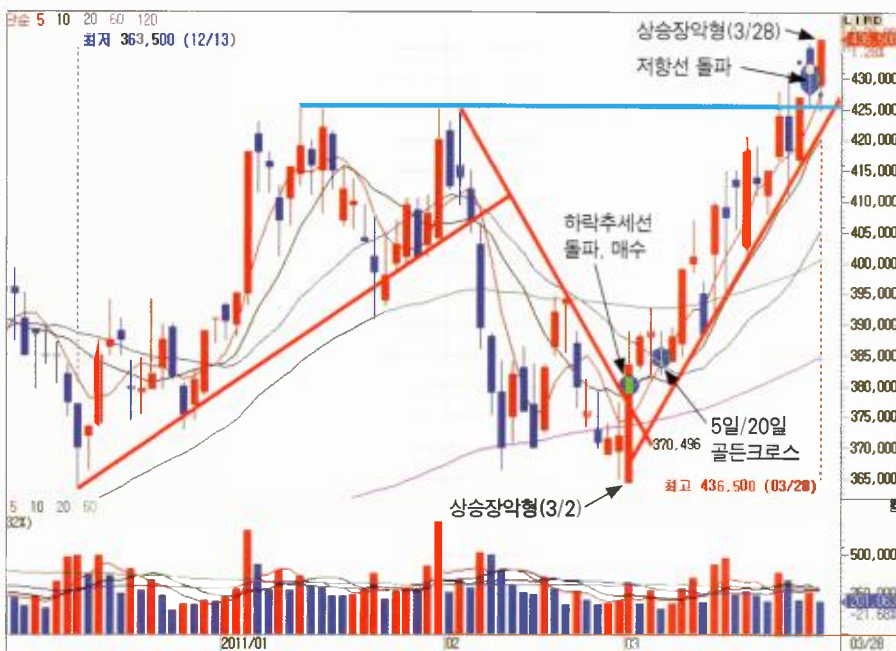
다음은 자동차용 2차전지 분야 세계 1위를 지향하는 LG화학(051910) 일봉 그래프입니다. 2011년 3월 28일 현재 436,500원에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주가가 올랐으니 매도하는 것이 좋을까요?

- 1) 추세선과 봉으로 판단해 보세요. 혹시 투자판단에 도움이 되는 패턴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 2) 이동평균선으로 판단해 보세요.
- 3) 거래량에 특징이 있나요?
- 4) MACD는 매수, 매도 중 무슨 신호를 주고 있나요?
- 5) 스토크스틱으로 볼 때 매수입니까? 매도입니까?
- 6) 볼린저밴드로 볼 때 향후 주가 예측을 해보세요.



LG화학 일봉 그래프(2010. 11~2011. 3. 28)

해설



LG화학 일봉 그래프(2010. 12~2011. 3. 28)

1 | 봉, 추세선, 지지와 저항, 패턴 그리고 거래량을 봅니다.

- ① 3월 2일 긴 상승장악형 봉이 출현하며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주가가 직전 5일간의 가격을 뛰어넘었다는 것은 추세의 전환을 말해 줍니다. 3월 8일에도 상승장악형 양봉이 출현하였으므로 주가는 상승을 예상합니다.
- ② 주가가 하락추세선을 상향 돌파하였으므로 주가는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되었습니다.
- ③ 주가가 5일과 10일 이평선을 돌파하여 주가는 상승으로 전환되었다고 판단합니다. 그후 가격은 상승추세선을 지지선으로 하고 추세선 위에서 상승하고 있으므로 매수입니다.
- ④ 지지와 저항의 관점에서 425,000원의 저항선을 돌파하고 있으므로 매수입니다.



- ⑤ 패턴의 관점에서 보면 1~2월에 쌍봉이 있지만 현재 주가는 쌍봉을 돌파하였으므로 쌍봉의 의미는 없습니다.
- ⑥ 거래량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종목은 거래량 특징이 잘 나타납니다. 그러나 외국인과 기관이 선호하는 종목은 특별한 특징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2 | 이동평균선을 봅니다.

이동평균선은 주가가 제일 위에 있고 다음에 5일선/10일선/20일선/60일선/120일선 순으로 차례로 정배열을 이루고 있으므로 전형적인 매수의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 차트입니다.

3 | 보조지표인 MACD, 스토크스틱, 볼린저밴드를 확인해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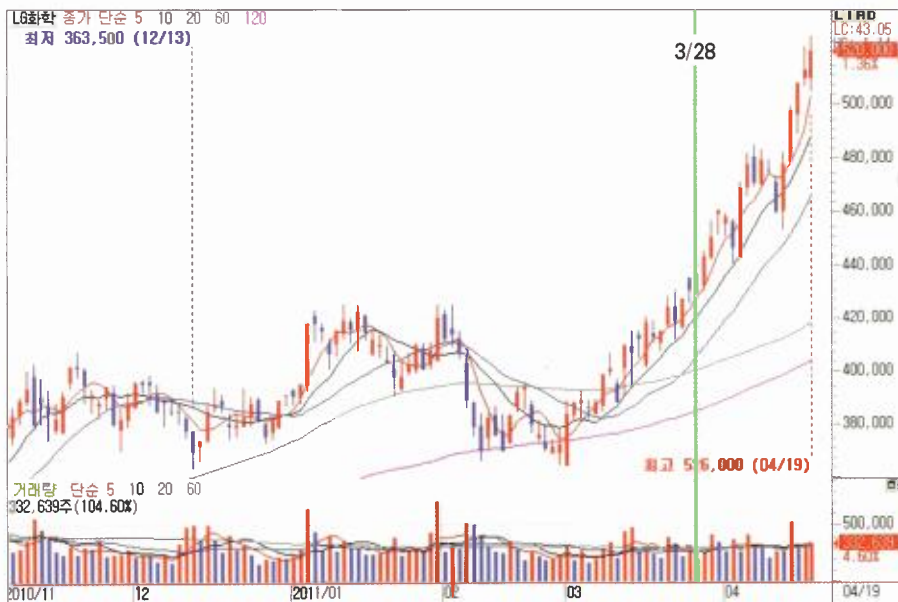


LG화학 일봉 그래프(2010. 11~2011. 3. 28)

- ① MACD는 3월 2일 매수 신호를 주고 상승하고 있으므로 주가는 상승추세라고 봅니다.
- ② 스토캐스틱은 저점을 높이고 있으므로 매수입니다. 과매수 구간에 있지만 매도시점은 과매도 구간을 벗어나는 때라고 했으므로 쉽게 매도해서는 안 됩니다.
- ③ 밴드폭을 벗어나는 것은 새로운 추세를 만드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A와 B는 상한선을 돌파하였지만 바로 밴드 내로 들어왔기 때문에 새로운 추세를 형성하지 못하였습니다. C만이 밴드 내로 재진입하지 않고 상한선을 따라가므로 볼린저밴드로 볼 때도 매수입니다.

정답

정답은 매수입니다. 기본 차트인 추세선, 이동평균선, 봉 그리고 보조지표인 MACD, 스토캐스틱, 볼린저밴드 모두가 매수 신호이므로 매수입니다. 다음 차트에서 3월 28일 이후의 주가를 확인해 보세요.



LG화학 일봉 그래프(2010. 11~2011. 4. 19)



문제 2 | SK하이닉스 주가 예측하기

다음 그래프는 2010년 6월 29일 SK하이닉스(000660) 일봉 그래프입니다. 향후 주가를 예측하고 주식을 살 때인지 팔 때인지를 판단해 보세요.

- 1) 추세선과 봉으로 판단해 보세요. 혹시 투자판단에 도움이 되는 패턴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 2) 이동평균선으로 판단해 보세요.
- 3) 거래량에 특징이 있나요?
- 4) MACD는 매수, 매도 중 무슨 신호를 주고 있나요?
- 5) 스토캐스틱으로 볼 때 매수입니까? 매도입니까?
- 6) 볼린저밴드를 보고 주가를 예측해 보세요.



SK하이닉스 일봉 그래프 (2010. 1 ~ 2010. 6. 29)

해설



SK하이닉스 일봉 그래프(2010. 3~2010. 6. 29)

1 | 봉, 추세선, 지지와 저항, 패턴 그리고 거래량을 봅니다.

- ① 봉을 봅니다. 긴 음봉이 3개 연속해서 출현하였습니다. 흑삼병 출현은 강력한 하락 신호입니다.
- ② 추세선을 봅니다. 5월 25일 긴 꼬리가 달린 망치형 봉이 출현한 이후 상승하던 주가가 상승추세선을 하락 돌파하였으므로 매도입니다.
- ③ 지지와 저항을 봅니다. 6월 21일 고점 주가가 4월 6일 고점, 4월 23일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하락하고 있습니다. 3개의 고점이 저항선 역할을 하게 되므로 주가는 상승의 힘을 잃고 있습니다.
- ④ 거래량을 봅니다. 3월 16일 대량거래가 이루어지고 당일 주가는 음봉을 그렸습니다. 그후 상승추세는 이어졌지만 24,300원(3월 16일 고점)에 거래된 대

량물량은 주가 하락시에 매물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2 | 이동평균선을 봅니다.

① 주가가 5일 이평선을 하락 돌파한 후 차례로 10일선, 20일선을 돌파하고 있으므로 매도입니다.

② 5일 이평선이 10일선과 20일선을 차례로 데드크로스하고 있으므로 매도입니다. 5일선 이탈은 매도의 관점, 20일선 이탈은 매도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겠지요?

3 | 보조지표인 MACD, 스토크스틱, 볼린저밴드를 확인해 봅니다.



SK하이닉스 일봉 그래프(2010. 3~2010. 6. 29)

① 추세지표인 MACD는 데드크로스를 만들고 하락으로 전환되고 있으므로 매도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MACD 오실레이터도 기준선 아래로 매도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 ② 모멘텀 지표인 스토크스틱은 하락하고 있으므로 매도입니다.
 ③ 볼린저밴드는 주가가 중심선을 하락 이탈하고 있으므로 매도 신호입니다.

정답

정답은 주식을 팔 때입니다. 기본지표인 봉, 추세선, 지지와 저항, 이동평균선, 거래량 모두 매도 신호입니다. 보조지표도 모두 매도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으므로 투자판단은 주식을 팔 때입니다. 아래 그래프로 6월 29일 이후 주가를 확인해 보세요.



SK하이닉스 일봉 그래프(2010. 3~2010. 9. 14)



문제 3 | 롯데케미칼 주가 예측하기

다음 그래프는 롯데케미칼(011170, 구 호남석유) 일봉 그래프입니다. 2010년 9월 15일 주가가 201,000원이 되었습니다. 이때가 주식을 매수할 때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매도할 때라고 생각합니까? 다음의 순서로 주가를 예측해 보십시오.

- 1) 기본지표인 봉, 추세선, 이동평균선으로 주가를 예측해 보세요.
- 2) 거래량에 특별한 것이 있는지 알아보세요.
- 3) 보조지표인 MACD로 주가를 예측해 보세요.
- 4) 보조지표인 일목균형표로 향후 주가를 예상해 보세요.



롯데케미칼 일봉 그래프(2010. 3~2010. 9. 15)

해설



롯데케미칼 일봉 그래프(2010. 3~2010. 9. 15)

1 | 봉, 추세선, 지지와 저항을 봅니다.

- ① 9월 15일 봉은 갭 상승하였습니다. 갭 상승은 갭이 메워질 때까지 상승이 지속된다고 봅니다.
- ② 추세선과 지지와 저항을 봅니다. 상승추세 후 주가는 17만원을 지지선으로, 19만원을 저항선으로 하여 박스권에서 횡보하였는데 주가가 저항선을 돌파하였으므로 추가 상승을 예상합니다.

2 | 이동평균선을 봅니다.

장단기 이평선이 정배열되어 있으므로 주가는 상승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5일선/10일선/20일선이 한곳에 수렴되어 있는데 주가가 밀집구간을 돌파하였으



므로 주가 상승을 예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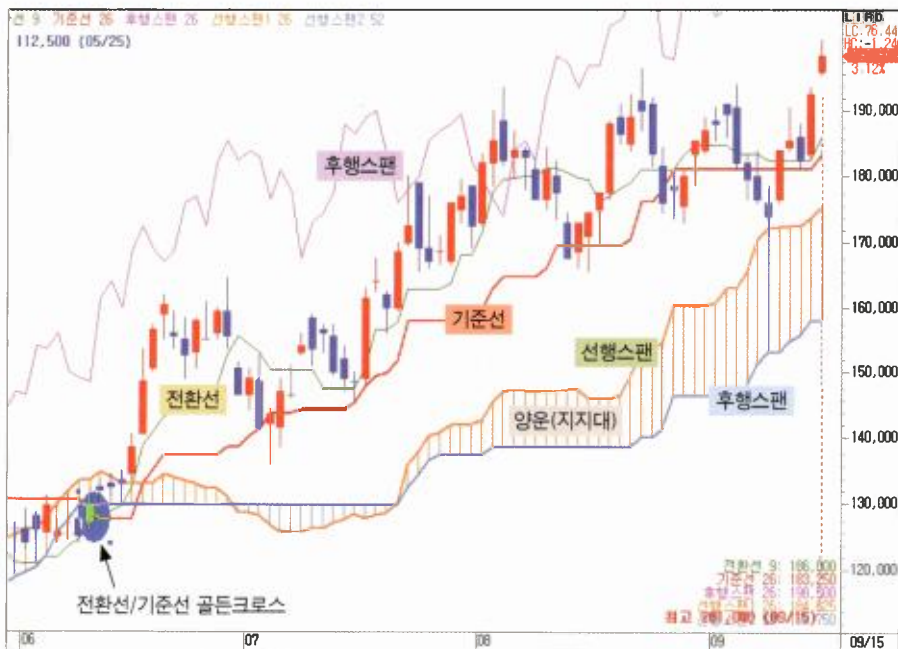
3 | 거래량을 봅니다.

롯데케미칼 그래프를 보면 주가가 상승으로 전환할 때마다 대량거래를 수반 하였습니다. 이번에도 대량거래가 수반되었으므로 상승에 대한 신뢰가 높다고 봅니다.

4 | 보조지표인 MACD를 확인해 봅니다.

MACD 곡선이 시그널선을 상향 돌파하며 골든크로스를 만들고 있으므로 매수 신호입니다. MACD 오실레이터도 기준선 위로 매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5 | 보조지표인 일목균형표를 확인해 봅니다.



롯데케미칼 일목균형표 그래프(2010. 5. 30~2010. 9. 15)

- ① 기준선이 상승중이므로 주가는 상승추세라고 봅니다.
- ② 후행스팬/주가/전환선/기준선/양운(선행스팬이 위에 있고 후행스팬이 아래에 있어 붉은 구름을 만듦)이 위에서부터 차례로 정배열되어 있으므로 주가는 상승추세라고 봅니다.
- ③ 주가가 기준선과 전환선을 차례로 상향 돌파하였으므로 주가는 상승으로 예상합니다.

정답

정답은 매수입니다. 9월 15일 이후 주가를 아래 그래프로 확인해 보세요.



롯데케미칼 일봉 그래프(2010. 7~2011. 1.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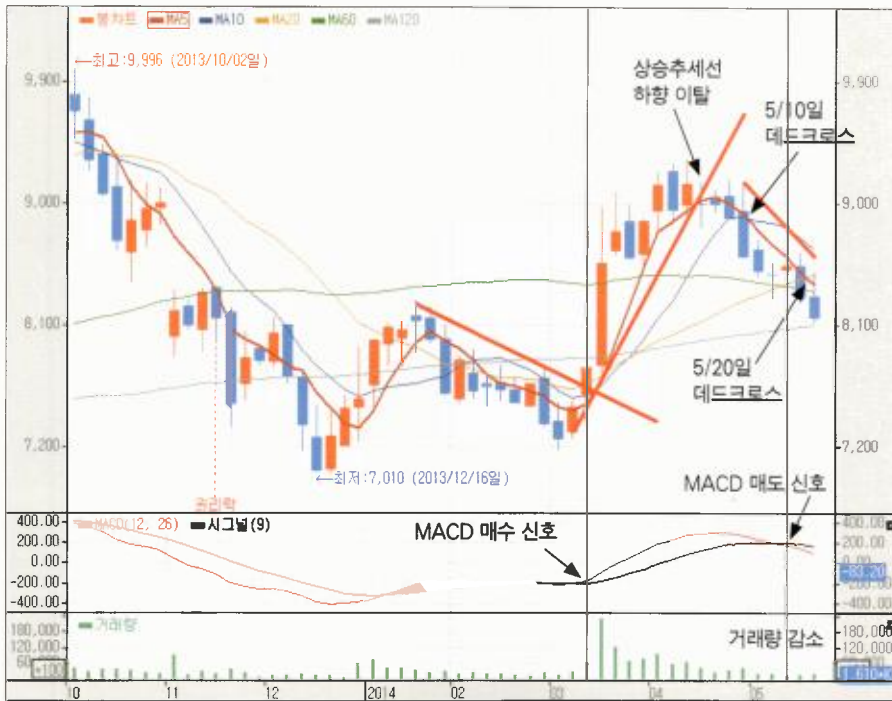
문제 4 | 포스코ICT 주가 예측하기

투자자 송문제씨는 2014년 5월 22일 포스코ICT(022100) 일봉 그래프를 보고 주식을 매수하려고 합니다. 10,000원까지 올라가던 주가가 최근 10일 동안 17%나 하락하여 8,300원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매수 적기로 생각한 것입니다. 송문제씨의 투자판단이 옳은 것일까요, 틀린 것일까요? 결과를 보기 전에 여러분들도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포스코ICT 일봉 그래프(2013. 4~2014. 5. 22)

해설



포스코ICT 일봉 그래프(2013. 10~2014. 5)

1 | 추세선을 봅니다.

4월 15일 지지선인 상승추세선을 하향 돌파하여 1차 매도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후 저항선인 하락추세선을 따라 하락을 지속하고 있고 아직 매수 신호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므로 주가는 하락이 지속된다고 봅니다.

2 | 이동평균선을 봅니다.

4월 28일 5/10일 데드크로스를 발생하여 2차 매도 신호를 보낸 데 이어 5월 19 일에는 5/20일 데드크로스를 만들어 3차 매도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3 | 봉을 봅니다.

5월 28일 장대 음봉은 5일선과 10일선을 단번에 하락 돌파하여 매도 신호입니다. 이후 연속되게 음봉을 발생시켜 매도 신호를 주고 있으므로 매수는 보류합니다.

4 | 거래량을 봅니다.

3월 급등시 대량거래를 수반하였으나 이후 특별한 신호를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5 | 보조지표인 MACD로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을 확인해 봅니다.

MACD 곡선이 골든크로스를 만든 3월 12일은 추세선 돌파 시점, 그리고 5/10일 골든크로스 시점과 일치하여 매수시점임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MACD 곡선이 데드크로스를 발생시킨 시점은 5/10일 데드크로스를 만든 시점보다 다소 늦었지만 확실하게 매도 신호를 주고 있으므로 매매시점 판단은 매도로 보아야 합니다.

6 | 보조지표인 일목균형표를 확인해 봅니다.

- ① 주가가 전환선을 하향 돌파한 후 다시 전환선이 기준선을 돌파하여 매도신호인 데드크로스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 ② 양운(붉은색 면)이 음운(파란색 면)으로 바뀐 후 음운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매도입니다.
- ③ 후행스팬이 주가 아래로 떨어지고 하락을 지속하고 있으므로 하락추세로 봅니다.
- ④ 배열 상태를 보면 상승할 때 위로부터 후행스팬/주가/전환선/기준선이던 것이 기준선/전환선/주가/후행스팬으로 반전되고 있으므로 하락으로 봅니다.



포스코ICT 일목균형표(2013. 10~2014. 6)



정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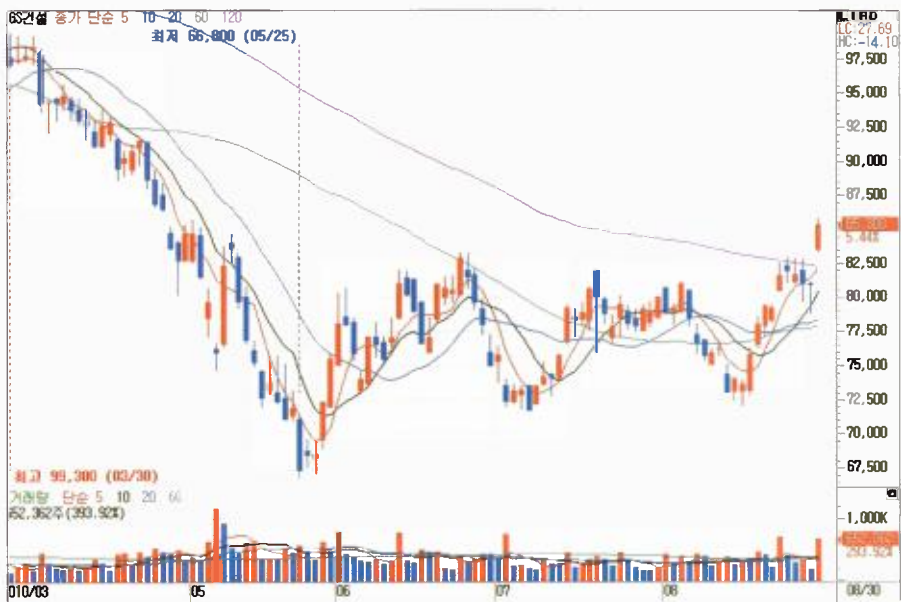
5월 22일 8,300원에 포스코ICT를 매수한 정문제씨의 투자판단은 잘못된 것입니다. 주지표인 추세선, 이동평균선, 거래량, 봉 등 모든 지표가 매도 신호를 보이고 있고 보조지표인 MACD와 일목균형표도 매도 신호를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때는 매도를 해야지 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주식을 바닥에서 사기는 어렵습니다. 주가가 떨어졌다고 무조건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닥에서 조금 올랐더라도 지표가 매수 신호를 보낼 때 매수하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 길입니다. 특히 신용으로 매매할 때는 주관적 선입견을 버리고 신호에 따라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포스코ICT 주가가 이후 어떻게 움직였는지 아래 그래프로 확인해 보세요.



포스코ICT 일봉 그래프(2013. 11~2015. 2)

문제 5 | GS건설 주가 예측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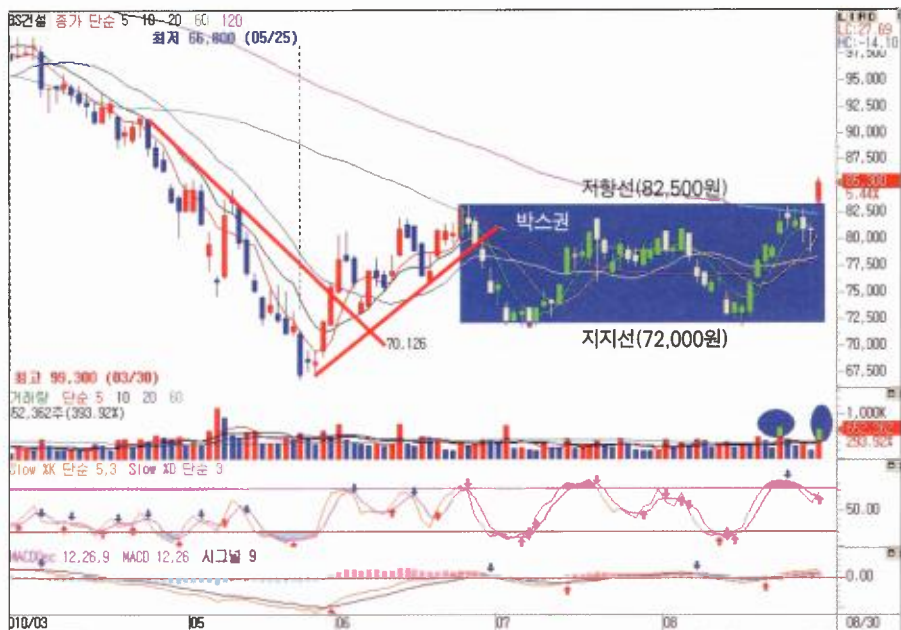
다음 그래프는 GS건설(006360) 일봉 그래프입니다. 2010년 8월 30일 주가가 전일에 비해 4,400원(5.4%) 오른 85,300원이 되었습니다. 지금이 주식을 팔 때인지, 살 때인지를 판단해 보세요.



GS건설 일봉 그래프(2010. 3~2010. 8. 30)



해설



GS건설 일봉 그래프(2010. 31~8. 30)

1 | 봉을 봅니다.

전날 키다리형 도지가 나타난 후 30일에는 갭 상승과 함께 긴 양봉을 그렸습니다. 키다리형 도지는 전형적인 상승반전형 봉입니다. 갭 상승은 갭이 메워질 때까지 추가 상승을 예상합니다.

2 | 추세선 및 지지와 저항을 봅니다.

주가는 7월 이후 72,000원을 지지선으로 하고, 82,500원을 저항선으로 하여 박스권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8월 30일 저항선을 상향 돌파하여 추가 상승을 예고하였습니다.

3 | 이평선은 5일/10일/20일/60일선 골든크로스가 발생하였고 주가는 120일 선까지 돌파하여 강력한 상승을 예고했습니다.

4 | 거래량이 증가하여 상승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습니다.

5 | 추세지표인 MACD와 MACD 오실레이터가 상승추세임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6 | 아래 정답 그래프의 볼린저밴드에서 주가가 상한밴드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상한밴드 돌파는 주가가 상승추세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정답

정답은 매수입니다. 박스권 상향 돌파는 강력한 상승 신호입니다. 따라서 GS건설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주가가 상승했다고 쉽게 매도해서는 안 됩니다. 매수는 적극적으로 하되 주가가 떨어지면 수익이 나는 풋ELW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 일단 매도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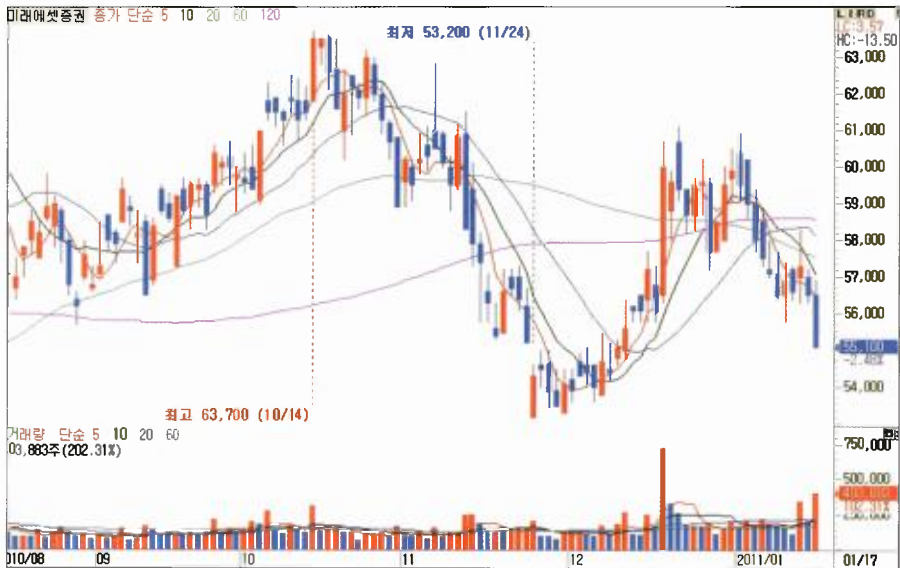


GS건설 일봉 그래프(2010. 7~2010. 12.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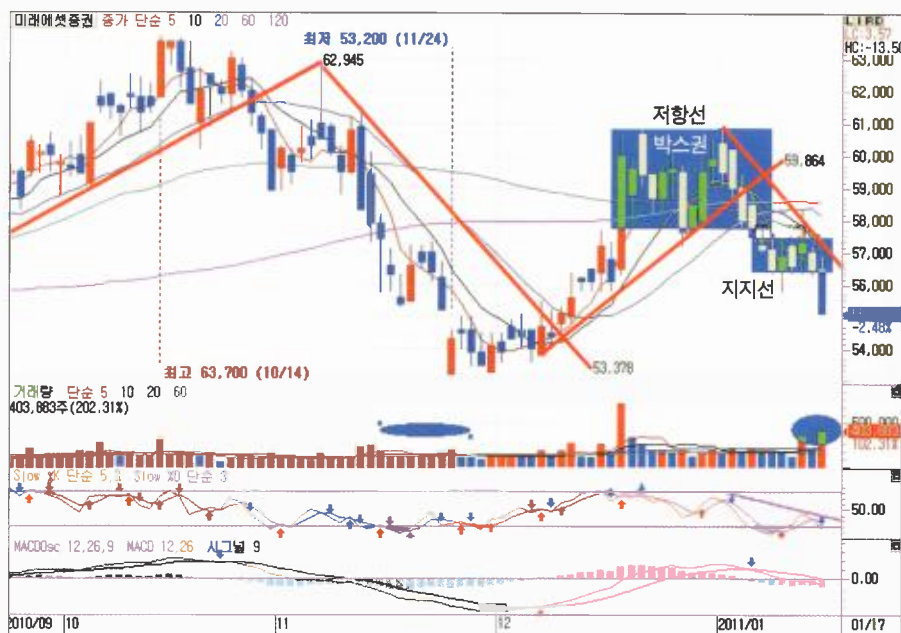
문제 6 | 미래에셋증권 주가 예측하기

투자자 A씨는 미래에셋증권을 60,000원에 매수한 후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1년 1월 17일 주가는 전일에 비해 900원 떨어진 55,100원이 되어 8.2%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A씨는 주가가 매수가보다 많이 하락하였으므로 몰타기로 추가 매수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손절매도하는 것이 좋을까요? 다음의 미래에셋증권(037620) 일봉 그래프를 보고 판단해 보세요.



미래에셋증권 일봉 그래프(2010. 9~2011. 1. 17)

해설



미래에셋증권 일봉 그래프(2010. 9~2011. 1. 17)

- 1 | 긴 음봉 출현은 시가부터 매도세력이 매수세력을 압도하였다고 봅니다.
- 2 | 추세선 및 지지와 저항을 봅니다. 하락추세선은 저항선으로 작용하여 추세선 아래에서 하락을 지속합니다. 주가가 박스권에서 등락을 할 때 박스권 하단 즉 지지선을 하락 이탈하는 것은 주가의 추가 하락을 예상합니다.
- 3 | 이동평균선은 120일/60일/20일/10일/5일/주가 순으로 역배열되어 있으므로 하락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5일/10일/20일 데드크로스가 연속해서 발생하였고, 주가는 5일선을 저항선으로 하여 5일선 아래에서 하락하고 있으므로 주가 하락을 예상합니다.
- 4 | 거래량을 봅니다. 11월 주가가 하락할 때는 거래량이 줄었습니다. 주가가 반등하려면 거래량이 줄어드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1월 15~17일 주가가



하락함에도 거래량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락시 거래량 증가는 반등 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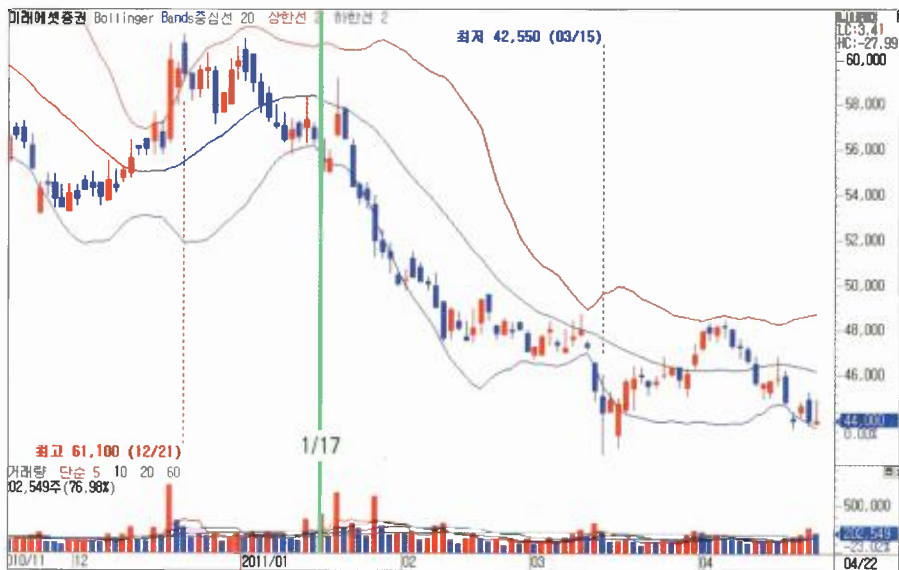
5 | MACD는 시그널선을 데크크로스한 후 하락하고 있고, MACD 오실레이터도 기준선 아래로 떨어져 매도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6 | 아래 정답 그래프의 볼린저밴드에서 주가가 하한선을 아래로 돌파하고 있으므로 매도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답

정답은 손절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8.2% 손실을 본 주식을 팔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래프를 투자기준으로 삼고 있는 한 매도를 실행에 옮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프에서 매도 신호가 나왔는데도 매도하지 않는다면 그래프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보유 주식을 모두 매도하기 힘들다면 절반이라도 매도해 보세요.

아래 그래프를 보면 1월 17일 이후 이틀간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삼일 후 바로 5일선 아래로 재진입하여 반등은 속임수 반등이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일봉 그래프(2010. 11~2011. 4. 22)

문제 7 | KOSPI 주봉으로 증시 흐름 알아보기

주식시장 장기대세는 월봉으로 판단하고 중기대세는 주봉으로 판단합니다. 주식시장 큰 흐름을 파악하려면 먼저 월봉 → 주봉 → 일봉 순으로 그래프를 봅니다. 일봉을 먼저 보면 최근의 시황으로 생긴 선입견 때문에 큰 흐름을 오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세를 파악하고 난 뒤 시장흐름의 변화를 예측하려면 일봉 → 주봉 → 월봉 순으로 봅니다.

다음은 2008년 6월 30일 KOSPI 주봉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를 보고 앞의 예제들과 같은 방법으로 시장흐름이 상승인지 하락인지 파악해 보십시오.



KOSPI 주봉 그래프(2006. 12~2008. 6. 30)



해설



KOSPI 주봉 그래프(2006. 12~2008. 6. 30)

- 1 | 봉을 봅니다. 4주에 걸쳐 음봉을 내고 있는 가운데 최근 주에는 긴 음봉이 출현하여 시장이 급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쉽게 반등을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 2 | 주가가 상승추세선을 이탈한 뒤 하락하고 있으므로 추세는 하락입니다. 1,550포인트 지지선을 아래로 하향 돌파하였으므로 추세는 하락으로 봅니다.
- 3 | 이동평균선을 봅니다. 5주/10주/20주 선이 데드크로스를 만든 뒤 주가가 5주 이평선 아래에서 하락을 지속하고 있으므로 주가는 하락을 예상합니다.
- 4 | 거래량 측면에서도 2007년 중순에 이루어진 많은 거래량은 주가 반등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 5 | 추세지표인 MACD와 MACD 오실레이터도 기준선 아래로 하락하고 있어

하락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6 | 모멘텀 지표인 스토캐스틱도 하락 신호만 줄 뿐 반등 신호는 없습니다.

정답

정답은 하락입니다. 기본지표와 보조지표 모두 시장흐름은 하락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고 쉽게 반등을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 일봉으로 반등 신호를 확인한 후에 반등이라고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후의 주가 흐름을 확인해 보세요. 2008년 6월 1,577포인트이던 지수가 10월에는 890포인트까지 하락하였습니다.



KOSPI 주봉 그래프 (2007. 6 ~ 2009. 6. 29)



문제 8 | KOSPI 일봉으로 증권시장 예측하기

투자자 김문제씨는 2015년 2월 27일 KOSPI 일봉 그래프를 보고 증권시장 전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프로 볼 때 시장이 상승한다고 봐야 할까요, 하락한다고 봐야 할까요? 독자 여러분들도 해답을 보기 전에 추세선, 이동평균선, 봉, 거래량과 같은 기본지표와 스토캐스틱, MACD 같은 보조지표를 이용해 투자판단을 해보십시오.



KOSPI 일봉 그래프(2014. 5~2015. 2. 25)

해설



KOSPI 일봉 그래프(2014. 5~2015. 2. 25)

1 | 추세선을 봅니다.

적삼병이 나타나 저항선(하락추세선)을 돌파하고 있으므로 상승 신호입니다.

2 | 이동평균선을 봅니다.

5일/10일선이 골든크로스를 만든 후 연이어 5일/20일선도 골든크로스를 만들고 있으므로 상승입니다. 주가가 5일선을 타고 상승중이므로 상승이 지속된다고 봅니다.



3 | 봉을 봅니다.

상승장악형 봉에 이어 나타난 적삼병은 전형적인 상승봉의 형태입니다.

4 | 거래량도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상승에 신뢰가 더해집니다.

5 | 모멘텀 지표인 스토크스틱 지표가 50을 넘어 상승 파동을 그리고 있으므로 상승중에 있음을 알려줍니다.

6 | 추세지표인 MACD는 시그널선과 골든크로스를 만든 후 기준선인 0을 돌파하고 있으므로 상승추세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정답

정답은 상승추세 시장입니다. 기본지표인 추세선, 이동평균선, 봉과 거래량 모두 상승 신호를 보내고 있으며, 보조지표인 스토캐스틱, MACD 지표도 시장이 상승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의 경우 매수하고 매도는 일단 보류해야 합니다. 특히 선물 시장의 경우는 매도 포지션에서 매수 포지션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2월 27일 이후 시장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볼까요?



KOSPI 일봉 그래프 (2014. 5~2015. 5. 4)



문제 9 | 선물 30분봉으로 선물투자 판단하기 1

다음 그래프는 KOSPI200 선물 30분봉 차트입니다. 2011년 4월 13일 오후 1시 30분 현재 전일에 비해 1포인트 올라 277.20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선물을 매수해야 할까요, 아니면 매도해야 할까요?

- 1) 봉, 추세선, 지지와 저항 그리고 이동평균선으로 판단해 보세요.
- 2) 보조지표인 MACD 곡선, MACD 오실레이터, 스토크스틱, 볼린저밴드로 판단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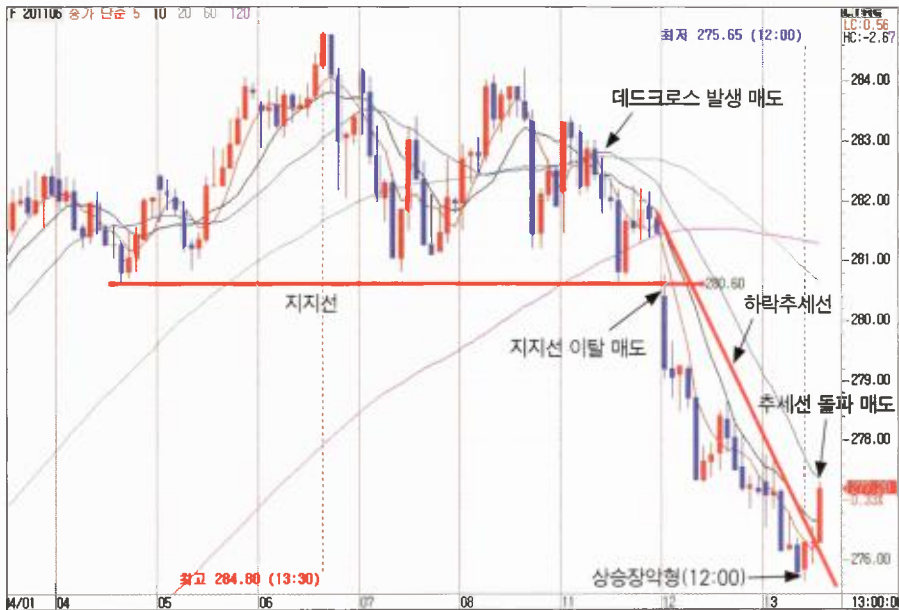


KOSPI200 선물 30분봉 그래프(2011년 4월 1일~13일 오후 1시 30분)

해설

1 | 봉, 추세선, 지지와 저항, 이동평균선으로 판단해 봅니다.

- ① 분봉을 보는 방법도 일봉을 보는 방법과 다르지 않습니다. 13일 12시 봉은 상승장악형으로 주가 변화를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1시 30분 봉은 직전 5개 봉을 모두 장악하고 있는 강력한 상승반전형입니다.
- ② 1시 이후 하락추세선을 돌파하였으므로 주가 상승으로 전망합니다.
- ③ 이평선은 11일에 데드크로스를 만든 후 하락추세를 지속했으나 13일 1시 30분 봉이 이평선 5와 이평선 10을 상향 돌파하였으므로 상승으로 판단합니다.



KOSPI200 선물30분봉 그래프(2011년 4월 1일~13일 오후 1시)

2 | MACD 곡선, MACD 오실레이터, 볼린저밴드로 판단해 봅니다.

- ① MACD 지표는 시그널선을 골든크로스하고 상승으로 반전하고 있으므로 상승으로 예측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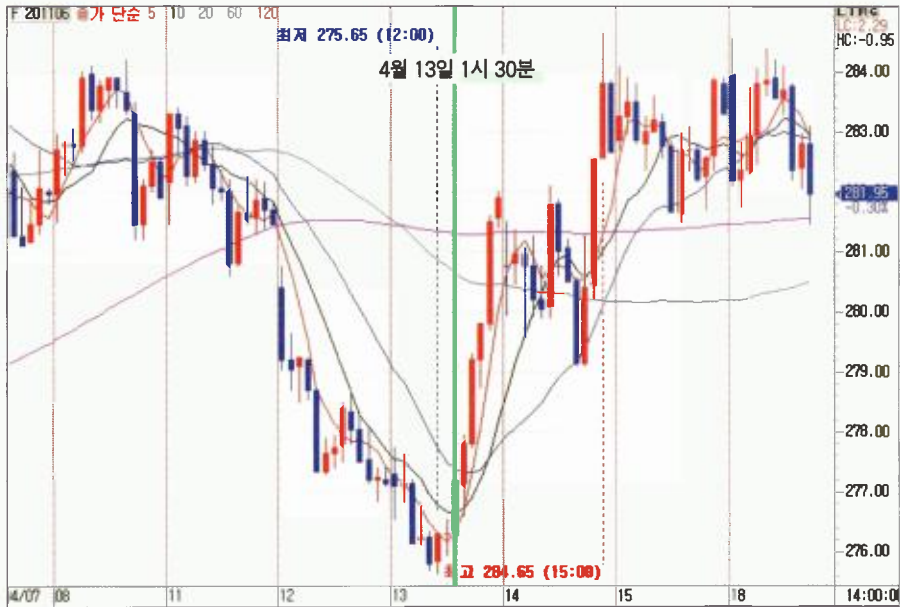
- ② MACD 오실레이터는 매도에서 매수 사인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 ③ 스토캐스틱도 골든크로스를 만든 후 상승추세이므로 추가 상승을 예상합니다.
- ④ 볼린저밴드는 하한선의 지지를 받아 중심선까지 상승하고 있으므로 추가 상승을 예상합니다.



KOSPI200 선물30분봉 그래프(2011년 4월 1일~13일 오후 1시)

정답

정답은 매수입니다. 선물은 리스크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이 문제와 같은 그래프가 나타나면 매도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일단 현금화부터 해두고 봐야 합니다. 13일 1시 30분 277.20이던 선물이 종가에는 4.8포인트 상승한 282.0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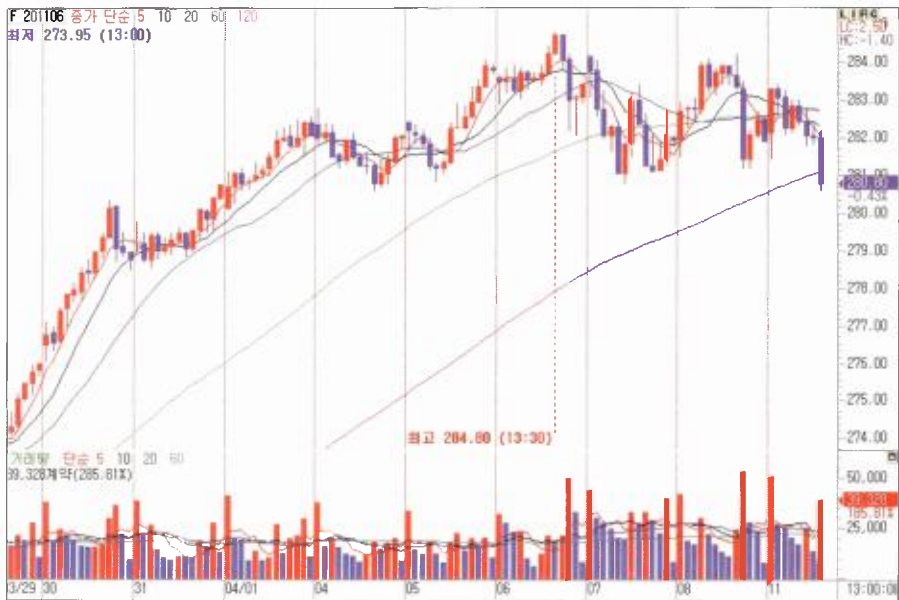


KOSPI200 선물 30분봉 그래프(2011년 4월 7일~18일 오후 2시)



문제 10 | 선물 30분봉으로 선물투자 판단하기 2

다음은 KOSPI200 선물 30분봉(2011년 4월 11일 13시) 그래프입니다. 오후 1시 현재 선물을 매수해야 할까요, 매도해야 할까요?



KOSPI200 선물 30분봉 그래프(2011년 3월 30일~4월 11일 오후 1시)

해설



KOSPI200 선물 30분봉 그래프(2011년 3월 30일~4월 11일 오후 1시)

- 1 | 봉을 봅니다. 음봉이 네 개나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마지막 음봉은 길게 나타나 시세가 약세임을 보여줍니다.
- 2 | 지지와 저항으로 볼 때 지지선을 하락 이탈하였으므로 추가 하락을 예상합니다.
- 3 | 이평선은 데드크로스 발생 후 역배열로 바뀌고 있으므로 하락추세임을 말해 줍니다.
- 4 | 보조지표인 스토캐스틱도 고점과 저점을 낮추면서 하락하고 있으므로 시세 예측은 하락으로 보아야 합니다.
- 5 | MACD가 시그널선을 데드크로스하고 하락하고 있으므로 추세적 하락으로 봅니다. MACD 오실레이터도 매도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정답

정답은 매도입니다. 기본차트와 보조지표 모두가 매도 신호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물은 레버리지가 높아 선물의 방향이 예상과 맞으면 높은 수익을 실현할 수 있지만 시세가 반대방향으로 움직일 경우 빠른 시간에 손실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그만큼 수익보다 리스크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위 해설 차트에서 지지선인 281포인트를 하락하면 자동으로 매도주문이 나가야 합니다.

선물투자를 할 경우에는 일봉, 120분봉, 60분봉 등으로 먼저 방향을 설정해 두고, 매매를 할 때는 흔히 30분봉, 5분봉, 1분봉을 이용합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면 1시 30분 이후 반등이 나왔지만 이동평균선 10을 돌파하지 못하였고 다음날 갭 하락하였습니다.



KOSPI200 선물 30분봉 그래프(2011년 4월 5일~18일 오전 10시)

★ 알아두세요

파생상품 리스크 관리

한국은 가히 '파생상품의 천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선물의 하루 거래대금이 30~50조에 이르러 실물주식 하루 거래대금의 5~8배에 달합니다. 극단적인 투기상품인 옵션과 ELW도 일평균 거래대금이 각기 1조원을 넘기고 있습니다. 전세계 투기성 자금이 한국증시에 많이 참여하고 있는 이유는 개인투자자들의 참여비중이 높아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 자금력과 투자기법에서 뒤떨어지는 개인투자자들은 일방적으로 손실을 보고 그 손실금을 외국인과 기관이 나누어 챙겨간다는 점입니다. 그 점은 증권기관 통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국내외 증권회사들이 개인들을 상대로 인간이 만든 금융상품 중 가장 복잡하고 어렵다고 하는 옵션과 ELW 같은 파생상품을 교육하고 투자를 부추기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파생상품 중에서 특히 옵션과 ELW는 상품 자체가 개인이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시간가치에 대한 프리미엄이 너무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옵션의 경우 소액으로 매수에만 치중하는 개인은 불리하고 큰 자금으로 합성전략을 구사하는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게임입니다.

둘째, ELW의 경우 원활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유동성 공급자(LP)가 있는데 유동성 공급자가 높은 프리미엄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개인에게 매우 불리합니다.

개인투자자들이 외국인과 기관에게 당하지 않으려면 옵션이나 ELW 같은 파생상품에는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리스크 관리방법을 터득하고 투자를 할 경우에도 본인의 투자자금 중 10% 이내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글로 찾기

:: 가

가파른 지지선 100
 감자 26
 강세잉태형 53, 61
 강세시장 31
 강한 골든크로스 194
 강한 데드크로스 194
 강한 상승장악형 52, 61
 강한 하락장악형 56, 61
 갱의 이론 100
 갭 62
 거래대금 이동평균선 169
 거래량 분석 164
 거래량 이동평균선 35, 36, 113, 116, 169
 거래량 회전율 35, 170
 거래량을 보고 주가 예측하기 164
 경기선 113
 고가 44, 45
 골든크로스 118, 126, 129
 공포국면 326~328
 공황국면 327
 과매도 구간 183
 과매수 구간 183
 과열국면 326~328
 교수형 50, 57, 61

구름총 239, 241, 243
 그물차트 301
 그물차트를 이용한 매매방법 302
 금융장세 329
 기간값 217
 기간별 평균 주가 산출방법 115
 기본 수치 239
 기본적 분석 16, 17
 기본지표를 이용한 매도시점 348
 기본지표를 이용한 매수시점 344
 기술적 분석 16, 17, 22
 기준선 146, 182, 240
 긴 양봉 48
 긴 음봉 49

:: 나, 다

내재가치 17
 눌림목 345
 다우의 시장 6국면 326
 다이버전스 184
 다이버전스 트랩 198
 단기추세 105, 328
 대등 수치 239
 대침삼각형 149
 데드크로스 118, 128, 129
 도지 50, 51
 도지형 58, 61
 되돌림 143

:: 라, 마

랜덤워크 이론 27
 마크업국면 326, 328
 망치형 54, 61

망치형 양봉 48
 망치형 음봉 50
 매물대 166, 167
 매집 169
 매집국면 326, 328
 모멘텀 지표 32, 33, 35, 178
 목표치 계산 31
 물타기 351, 352
 물타기의 선행조건 352

:: 바

변동성 지표 33
 보조지표를 이용한 매도시점 349
 보조지표를 이용한 매수시점 345
 본질가치 17
 布林저밴드 33, 35, 256
 布林저밴드 이론 257
 布林저밴드 활용방법 258
 布林저밴드로 본 매도시점 350
 布林저밴드로 본 매수시점 346
 봉차트 44
 분산 169
 분산국면 326~328
 비석형 도지 51, 59, 61

:: 사

삼선전환도 35, 276
 삼선전환도 활용방법 276
 삼중바닥형 146, 205, 345
 삼중천정형 150, 205, 349
 상대가치 18
 상승격리형 66
 상승도지형 54, 61

상승망치형 54, 61
 상승삼법형 65
 상승갭 62, 64
 상승박스형 146, 149
 상승반전형 연결봉 52, 61
 상승반전형 패턴 146
 상승삼각형 146, 148, 345
 상승장악형 52, 61
 상승 전환 팬 98
 상승지속갭 62
 상승추세 32
 상승추세대 87
 상승추세선 86, 88
 상승추세선 이탈 102
 상승파동의 기본형 77
 상승형 다이버전스 185, 186,
 194~197, 202, 226, 227,
 233
 상승형 다이버전스 트랩 198
 셋벌형 도지 55, 61
 선행스팬 1 240, 243
 선행스팬 2 241, 243
 섬꼴 바닥형 64
 섬꼴 천정형 64
 소추세 105
 손절매도 351
 손절매도 기준 351
 수급선 113
 수직계산법 279, 280
 수평계산법 279, 280
 스토캐스틱 33, 214
 스토캐스틱 재확인 234
 스토캐스틱 활용방법 220

스펀 240
 슬로 스토캐스틱 215, 219
 시가 44, 45
 시그널 곡선 184
 시장강도 지표 34
 시장동향 지표 34
 신고가 74, 75
 신저가 74, 75
 실적장세 330
 심리선 114

:: 아

아래꼬리가 긴 도지 51
 아래꼬리가 달린 양봉 46
 아래꼬리가 달린 음봉 46, 47
 아래위 꼬리가 달린 양봉 46
 아래위 꼬리가 달린 음봉 46
 약세잉태형 57, 61
 약세시장 31
 약한 골든크로스 194
 약한 데드크로스 194
 약한 상승장악형 52, 61
 약한 하락장악형 56, 61
 양봉 45, 46, 48
 양봉 망치형 58, 61
 양운 241
 엘리엇 파동이론 317
 역금용장세 330
 역망치형 58, 61
 역망치형 양봉 49
 역망치형 음봉 50
 역배열 127
 역시계곡선 35, 284

역시계곡선을 이용한 매매방법
 286
 역실적장세 330
 역V자형천정형 105, 152, 205,
 349
 연결봉으로 주가 예측하기 51
 우라카미의 장세 4단계 329
 우측 골든크로스 224
 우측 데드크로스 224
 원형바닥형 146, 147, 205, 345
 원형천정형 150, 151, 205, 349
 월봉 차트 47
 위꼬리가 긴 도지 51
 위꼬리가 달린 양봉 46
 위꼬리가 달린 음봉 46, 47
 음봉 45, 46, 49
 음봉 망치형 54
 음운 241
 이격률 272
 이격률 활용방법 273
 이동평균선 112
 이브이에비타 20, 21
 이익창출능력 18, 20
 이중바닥형(쌍바닥형) 146, 205,
 345
 이중천정형(쌍봉형) 150, 205,
 349
 인벨로프 265
 일목균형표 238
 일목균형표 활용방법 244
 일목균형표로 본 매도시점 350
 일목균형표로 본 매수시점 346
 일봉 차트 47

:: 자

자기자본이익률 20
잠자리형 도지 51, 55, 61
장기추세 105, 328
장세 분석 31
재무실적 18
저가 44, 45
저널별형 도지 59, 61
저항선 94
적삼병 55, 61
전강후약형 74
전약후강형 74
전환선 239, 243
정배열 126
존 머피의 시스템 트레이딩 원칙 143
종가 44, 45
좌측 골든크로스 224
좌측 데드크로스 224
주가 이동평균선 113
주가 파동 이론 76
주가수익비율 20, 21
주가순자산비율 20, 21
주가에 시간 개념을 포함시킨 지표 34
주가와 이동평균선의 관계 116
주간사 18
주봉 차트 47
주식시장 대세 판단방법 333
주추세 105
중기추세 105, 328
지지선 94
진동지표 183

짧은 양봉 48

짧은 음봉 49

:: 차

차트로 대세 판단하기 311
차트분석 16, 17, 22
창 62, 63
천정권 50
최소목표치 계산방법 102
추세 25
추세 변곡점 248
추세 분석 30, 85
추세 지표 31
추세대 87
추세반전형 연결봉 51
추세반전형 연결봉 정리 61
추세선 25, 85
추세선 그리는 법 86
추세선을 이용한 매매방법 88~90
추세선의 기울기 99
추세선의 신뢰도 93
추세지속형 연결봉 51, 62
침체국면 326, 328

:: 카, 타, 파

키다리형 도지 55, 61
투자심리선 33, 35, 269
투자심리선 활용방법 271
틱차트 37
파동의 3대 요소 76
파동의 연장 81
패스트 스톡캐스팅 215, 219

패턴 분석 30, 145

팬의 원리 98

포물러 플랜 27

포트폴리오 이론 16, 17, 27

표준편차 256

피벗 라인 304

피보나치 수열 325

:: 하

하락격리형 66
하락도지형 58, 61
하락망치형 57, 61
하락삼병형 65
하락갭 63, 64
하락박스형 150, 153
하락반전형 연결봉 55, 61
하락반전형 패턴 150
하락삼각형 150, 152, 349
하락장악형 56, 61
하락 전환 팬 98
하락지속갭 63
하락추세 32
하락추세대 87
하락추세대 이탈 102
하락추세선 86, 89
하락파동의 기본형 79
하락형 다이버전스 185, 186, 195~197, 202, 226, 227, 233
하락형 다이버전스 트랩 198
확장삼각형 150, 153
횡보추세 32
횡보추세선 86

횡보추세선 이탈 102
 횡보파동의 기본형 80
 효율적인 시장 모델 27
 후행스팬 240, 243
 흑삼병 60, 61
 흑운형 56

영문으로 찾기

:: B, C

Bearish Market 31
 Bollinger Band 33, 256
 Bullish Market 31
 CCI 33, 287
 CCI 지표를 이용한 매매방법 289
 Chart Analysis 17
 Close 45
 CO 34, 300
 CO를 이용한 매매방법 301
 Counting 31

:: D, E, F, G

D마크 171, 172
 Dead Cross 129
 Divergence 184, 188
 DMI와 ADX 295
 DMI와 ADX를 이용한 매매방법 298
 Envelope 265
 EV/EBITDA 19~21
 Failure Swings 294
 Fast Stochastic 215, 219

Formula Plan 27
 Fundamental Analysis 17
 GAP 62
 Golden Cross 129

:: H, I, L

Hammer 54
 Harami 53
 High 45
 HTS로 그래프 보기 36
 Intermediate Trend 105
 Low 45

:: M, N

MAC 지표 265
 MACD 32, 188
 MACD 오실레이터 212
 MACD 패턴 분석 205
 MACD를 이용한 주가 예측 방법 191
 MACD의 구성 189
 MACD의 지지선과 저항선 203
 Major Trend 105
 Market Analysis 31
 Minor Trend 105
 Negative Divergence 186

:: O, P

OBV선 171
 On Balance Volume 171
 Open 45
 P&F를 이용한 매매방법 279
 P&F차트 278

Pattern Analysis 30
 PBR 19~21
 PER 19~21
 Portfolio Theory 17
 Positive Divergence 186

:: R, S

Random Walk Theory 27
 ROE 19, 20
 RSI 34, 291
 RSI를 이용한 매매방법 292
 Signal Line 184
 Slow Stochastic 215, 219
 Stochastic 214
 System Trading 143

:: T, U, V, W

Technical Analysis 17
 Trend Analysis 30
 Trend Line 85
 U마크 171, 172
 V자형바닥형 146, 148, 205, 345
 Window 62

:: 기타

%D선 215, 217
 %K선 215, 216
 10% 플랜 277
 3점도 279



주식투자 고수가 되는 **친절한 학습진도표**

1단계

왕초보용

주식을 하나도 몰라요! 차근차근 배울래요!

60만 왕초보가 따라한 믿을 만한 주식투자 입문서!

- 주식 계좌개설부터 HTS 사용법, 주식 사는 법, 봉차트 보는 법, 종목 고르는 법까지 왕초보가 알아야 할 주식투자 기본을 총정리했어요!
- ROE, PER, PBR, EV/EBITDA같이 꼭 알아야 하지만 어려운 투자용어를 설명할 뿐만 아니라, 따라하다 보면 중급자로 올라서요!



주식투자 무작정 따라하기

2단계

바쁜 왕초보용

종목선정 어려워요! 편하게 투자할래요!

주식, 알수록 미궁? 나라별·종목별로 통으로 투자하는 ETF가 정답!

- 지끈지끈 종목 고민 없이 한국시장 전체와 반도체·자동차·금융별 섹션에 투자하는 방법을 속성으로 공부해요!
- ETF,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는 매수·매도 타이밍부터, 장기투자자로 수익을 올리는 법까지 알려줘요!



주식투자 무작정 따라하기 2 - ETF편

3단계

중급자용

주식투자 고수가 되고 싶어요!

주식투자 전문가가 활용하는 8개의 차트분석 기법 대공개!

- 고수라면 차트를 보고 매매 타이밍을 잡아낼 수 있어야죠. 바닥권에서 사고 천정권에서 팔 수 있도록 알려줍니다!

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는 감추고 싶었던 경제지표 해독법!

- 지금이 상승장인지 하락장인지 알고 싶다면 이 책을 펼쳐주세요! 우선순위 경제지표 6가지로 경제 흐름 읽는 법을 알려줍니다!



차트분석
무작정 따라하기



주식시장 대세판단
무작정 따라하기

추천

‘주식’을 조금 더 재밌게 공부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